

# 2017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2017. 10

동향분석실



## 머 리 말

우리나라 보험산업은 지난 수십 년 동안 꾸준한 성장을 거듭하여 현재 세계 10위권 규모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최근의 보험산업의 저성장과 인구 고령화는 보험산업에 위협요인이자 기회요인으로 다가오고 있다. 저성장은 성장위주의 경영정책 전반에 대한 검토를 요구하고 있으며, 인구 고령화는 기존 고객의 중심이 고령층으로 옮겨감을 의미한다. 그리고 노후생활에 대한 높은 관심은 젊은 층에서 새로운 보험 수요를 창출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험소비자의 수요변화를 먼저 파악하고 시장의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

매년 실시되는 보험연구원의 보험소비자 설문조사는 보험소비자의 수요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보험회사와 금융감독당국에게 의미있는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동 설문조사는 기본조사에 해당하는 생명·손해보험 가입실태 및 가입경로, 상품계약 및 보상서비스 만족도, 향후 가입 의향 및 선호 가입경로 등을 조사하여 소비자의 보험서비스에 대한 선호를 파악하고 있다. 또한 실손의료보험 현황, 건강생활서비스, 연금 및 노후 생활, 퇴직 연금선호도, 연성보험사기 등이 함께 조사되었다. 소비자의 보험상품에 대한 선호, 보험산업에 대한 이해도와 신뢰도 등에 대한 정보는 보험회사 경영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설문조사를 대행해 실시해 준 코리아리서치와 보고서 완성을 위해 여러모로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동 보고서가 보험산업 발전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17년 10월  
보 험 연 구 원  
원장 한 기 정



## 이용자를 위하여

1. 본 보고서는 보험수요 변화 추세 조사를 통해 보험회사의 상품 개발, 마케팅 전략 수립, 보험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확대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2. 보험소비자 설문조사에서 수집된 통계는 전국 해당 가구의 만 20세 이상 성인남녀 일반 국민 2,200명을 대상으로 하여 정보를 수집함
3. 통계 자료의 숫자는 반올림되었으므로 합계와 일치되지 않을 수 있음
4. 활용 통계는 자료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공 통계 자료를 이용함
  - 가구기준: 2015년 기준 인구주택총조사(통계청)
  - 인구기준: 2017년 3월 말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인구 통계(행정자치부)
5. 조사항목에 대한 정의, 조사기준 등 세부사항은 조사개요에 수록되어 있으며, 표본 수가 적어 통계적 유의미성이 낮은 결과 값은 해석에서 제외함  
(예 : 은퇴자, 무직 등)
6. 통계표에 사용된 부호의 뜻은 다음과 같음
  - [ ] 조사는 되었으나 정보가 없는 경우
  - [0] 조사 결과 값이 0이거나 0의 근사값인 경우
7. 수록된 자료에 대한 의문이나 궁금한 점은 보험연구원으로 문의



# ■ 목차

---

## 요약 / 1

### I. 조사의 개요 / 38

1. 조사의 목적 / 38
2. 주요 조사항목 / 39
3. 조사방법 / 41
4. 표본의 특성 / 42
5. 구분 기준 / 43

### II. 생명보험 / 45

1. 생명보험 가입 현황 / 45
2. 생명보험 채널별 활용 분석 / 55
3. 향후 생명보험 가입 의향 / 73
4. 생명보험 상품 니즈 / 77

### III. 손해보험 / 97

1. 손해보험 가입 현황 / 97
2. 손해보험 채널별 활용 분석 / 107
3. 향후 손해보험 가입 의향 / 120
4. 손해보험 상품 니즈 / 122

### IV. 주요 이슈별 설문조사 / 132

1. 실손의료보험 / 132
2. 건강생활서비스 이용실태 / 163
3. 노후생활 준비 실태 / 268
4. 연금 가입 상태 및 가입 니즈 / 292
5. 퇴직연금 연금수령 선호도 / 332
6. 연성보험사기 관련 / 338

## | 부록 | 설문지 / 344

## ■ 표 차례

---

- 〈표 I -1〉 표본의 특성 / 42
- 〈표 II -1〉 생명보험 가구 가입률/가입건수 / 45
- 〈표 II -2〉 생명보험 가구 가입률/가입건수: 직업 및 가구 소득별 / 46
- 〈표 II -3〉 생명보험 가구 가입률/가입건수: 거주 지역별 / 47
- 〈표 II -4〉 생명보험 가구 가입률/가입건수: 보험 종목별 / 47
- 〈표 II -5〉 생명보험 개인 가입률/가입건수: 결혼 여부별 / 49
- 〈표 II -6〉 생명보험 개인별 가입률/가입건수: 성별, 결혼 여부별 / 50
- 〈표 II -7〉 생명보험 개인별 가입률/가입건수: 자녀 수별 / 51
- 〈표 II -8〉 생명보험 개인별 가입률/가입건수: 연령별 / 51
- 〈표 II -9〉 생명보험 개인별 가입률/가입건수: 거주 지역별 / 51
- 〈표 II -10〉 생명보험 개인별 가입률/가입건수: 학력별 / 52
- 〈표 II -11〉 생명보험 개인별 가입률/가입건수: 직업별 / 52
- 〈표 II -12〉 생명보험 개인별 가입률/가입건수: 가구 소득별 / 53
- 〈표 II -13〉 생명보험 개인별 가입률: 가구 소득별 / 53
- 〈표 II -14〉 생명보험 개인별 가입률: 종목별 / 54
- 〈표 II -15〉 생명보험 개인별 가입률: 종목별(계속) / 54
- 〈표 II -16〉 생명보험 가입 채널별 구성비 추이 / 55
- 〈표 II -17〉 생명보험 채널별 구성비: 성별 / 56
- 〈표 II -18〉 생명보험 채널별 구성비: 연령별 / 56
- 〈표 II -19〉 생명보험 채널별 구성비: 거주 지역별 / 57
- 〈표 II -20〉 생명보험 채널별 구성비: 직업별 / 57
- 〈표 II -21〉 생명보험 채널별 구성비: 학력별 / 58
- 〈표 II -22〉 생명보험 채널별 구성비: 가구 소득별 / 58
- 〈표 II -23〉 생명보험 채널별 구성비 / 59
- 〈표 II -24〉 실손의료보험 채널별 구성비 / 60
- 〈표 II -25〉 질병보장보험 채널별 구성비 / 61
- 〈표 II -26〉 재해상해보험 채널별 구성비 / 62
- 〈표 II -27〉 간병보험 채널별 구성비 / 63

## ■ 표 차례

---

- 〈표 II-28〉 사망보험 채널별 구성비 / 64
- 〈표 II-29〉 저축성 보험 채널별 구성비 / 65
- 〈표 II-30〉 연금보험 채널별 구성비 / 66
- 〈표 II-31〉 어린이보험 채널별 구성비 / 67
- 〈표 II-32〉 변액보험 채널별 구성비 / 68
- 〈표 II-33〉 생명보험 채널별 선호도 / 69
- 〈표 II-34〉 향후 생명보험 채널별 선호도: 성별 / 69
- 〈표 II-35〉 향후 생명보험 채널별 선호도: 연령별 / 70
- 〈표 II-36〉 향후 생명보험 채널별 선호도: 거주 지역별 / 70
- 〈표 II-37〉 향후 생명보험 채널별 선호도: 직업별 / 70
- 〈표 II-38〉 향후 생명보험 채널별 선호도: 학력별 / 71
- 〈표 II-39〉 향후 생명보험 채널별 선호도: 종목별 / 71
- 〈표 II-40〉 향후 생명보험 상품별 가입 선호 이유(복수응답) / 73
- 〈표 II-41〉 생명보험 종목 가입 여부별 가입 의향 / 73
- 〈표 II-42〉 생명보험 종목별 가입 의향 / 75
- 〈표 II-43〉 생명보험 종목별 가입 의향(계속) / 76
- 〈표 II-44〉 생명보험 보상건수 및 보상액수 / 77
- 〈표 II-45〉 생명보험 상품별 가입 이유(복수응답) / 79
- 〈표 II-46〉 실손의료보험 가입 이유 / 80
- 〈표 II-47〉 질병보장보험 가입 이유 / 81
- 〈표 II-48〉 재해상해보험 가입 이유 / 82
- 〈표 II-49〉 사망보험 가입 이유 / 83
- 〈표 II-50〉 저축성 보험 가입 이유 / 84
- 〈표 II-51〉 연금보험 가입 이유 / 85
- 〈표 II-52〉 변액보험 가입 이유 / 86
- 〈표 II-53〉 생명보험 회사군별 가입률 / 88
- 〈표 II-54〉 최근 3년 내 생명보험 가입 종목별 상품 만족도 / 89
- 〈표 II-55〉 생명보험상품 만족도 / 90

## ■ 표 차례

---

- 〈표 II -56〉 생명보험상품 만족도(계속) / 90
- 〈표 II -57〉 생명보험 서비스 만족도 / 93
- 〈표 II -58〉 생명보험회사 선택 시 고려사항(1순위) / 95
- 〈표 II -59〉 생명보험회사 선택 시 고려사항(1순위) (계속) / 96
- 〈표 III -1〉 손해보험 가구당 가입률/가입건수 / 97
- 〈표 III -2〉 손해보험 가구당 가입률/가입건수: 세대주 직업 및 가구 소득별 / 98
- 〈표 III -3〉 손해보험 가구당 가입률: 거주 지역별 / 99
- 〈표 III -4〉 손해보험 가구당 가입률: 소득별 / 99
- 〈표 III -5〉 손해보험 가구당 가입률/가입건수: 보험 종목별(2017년) / 100
- 〈표 III -6〉 손해보험 개인별 가입률/가입건수: 연령, 결혼 여부, 가구 소득별 / 101
- 〈표 III -7〉 손해보험 개인별 가입률/가입건수: 성별, 결혼 여부별 / 102
- 〈표 III -8〉 손해보험 개인별 가입률/가입건수: 연령별 / 103
- 〈표 III -9〉 손해보험 개인별 가입률/가입건수: 거주 지역별 / 103
- 〈표 III -10〉 손해보험 개인별 가입률/가입건수: 학력별 / 104
- 〈표 III -11〉 손해보험 개인별 가입률/가입건수: 직업별 / 104
- 〈표 III -12〉 손해보험 개인별 가입률/가입건수: 가구 소득별 / 105
- 〈표 III -13〉 손해보험 개인별 가입률: 종목별 / 106
- 〈표 III -14〉 손해보험 채널별 구성비 추이 / 107
- 〈표 III -15〉 손해보험 채널별 구성비: 성별 / 108
- 〈표 III -16〉 손해보험 채널별 구성비: 연령별 / 108
- 〈표 III -17〉 손해보험 채널별 구성비: 거주 지역별 / 109
- 〈표 III -18〉 손해보험 채널별 구성비: 직업별 / 109
- 〈표 III -19〉 손해보험 채널별 구성비: 학력별 / 109
- 〈표 III -20〉 손해보험 채널별 구성비: 가구 소득별 / 110
- 〈표 III -21〉 손해보험 채널별 구성비 / 111
- 〈표 III -22〉 자동차보험 채널별 구성비 / 112
- 〈표 III -23〉 장기손해보험 채널별 구성비 / 113
- 〈표 III -24〉 상해보험 채널별 구성비 / 114

## ■ 표 차례

---

- 〈표 Ⅲ-25〉 손해보험 채널별 선호도 / 115
- 〈표 Ⅲ-26〉 향후 손해보험 채널별 선호도: 성별, 결혼 여부별 / 116
- 〈표 Ⅲ-27〉 향후 손해보험 채널별 선호도: 연령별 / 116
- 〈표 Ⅲ-28〉 향후 손해보험 채널별 선호도: 거주 지역별 / 116
- 〈표 Ⅲ-29〉 향후 손해보험 채널별 선호도: 직업별 / 117
- 〈표 Ⅲ-30〉 향후 손해보험 채널별 선호도: 학력별 / 117
- 〈표 Ⅲ-31〉 향후 손해보험 채널별 선호도: 가구 소득별 / 118
- 〈표 Ⅲ-32〉 향후 손해보험 채널별 선호도: 종목별 / 118
- 〈표 Ⅲ-33〉 향후 손해보험 상품별 가입 선호 이유(복수응답) / 120
- 〈표 Ⅲ-34〉 손해보험 종목 가입 여부별 가입 의향 / 120
- 〈표 Ⅲ-35〉 손해보험 종목별 가입 의향 / 121
- 〈표 Ⅲ-36〉 손해보험 보상건수 및 보상액수 / 122
- 〈표 Ⅲ-37〉 손해보험 종목별 가입 이유(복수응답) / 123
- 〈표 Ⅲ-38〉 손해보험 회사군별 가입률 / 125
- 〈표 Ⅲ-39〉 손해보험 종목별 가입률 및 만족도 / 126
- 〈표 Ⅲ-40〉 손해보험 상품 만족도 / 127
- 〈표 Ⅲ-41〉 손해보험회사 선택 시 고려사항(1순위) / 129
- 〈표 Ⅲ-42〉 손해보험회사 선택 시 고려사항(1순위) (계속) / 130
- 〈표 Ⅳ-1〉 현재 건강상태 / 133
- 〈표 Ⅳ-2〉 국민건강보험 가입 종류 / 135
- 〈표 Ⅳ-3〉 지난 1년 내 실손의료보험 가입 여부 / 137
- 〈표 Ⅳ-4〉 가입한 실손의료보험 유형 / 139
- 〈표 Ⅳ-5〉 가입한 실손의료보험 금융 기관 / 141
- 〈표 Ⅳ-6〉 실손의료보험 가입시기 / 143
- 〈표 Ⅳ-7〉 실손의료보험 가입시기 / 145
- 〈표 Ⅳ-8〉 가입한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갱신 주기 / 147
- 〈표 Ⅳ-9〉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의 본인부담의료비 보장률 / 149
- 〈표 Ⅳ-10〉 실손의료보험 평균 월납 기준 납부 금액 / 150

## ■ 표 차례

---

- 〈표 IV-11〉 실손의료보험 월납 기준 납부 금액 수준 / 152
- 〈표 IV-12〉 실손의료보험 회사 서비스 만족도 / 153
- 〈표 IV-13〉 실손의료보험의 해지 경험 / 154
- 〈표 IV-14〉 실손의료보험의 해지 이유 / 156
- 〈표 IV-15〉 실손의료보험 미가입 이유 / 158
- 〈표 IV-16〉 향후 실손의료보험 가입 의향 / 160
- 〈표 IV-17〉 새로 판매된 실손의료보험 가입 의향 / 162
- 〈표 IV-18〉 현재 흡연 여부 / 164
- 〈표 IV-19〉 최초 흡연시기 / 166
- 〈표 IV-20〉 하루 흡연량 / 168
- 〈표 IV-21〉 과거 금연 기간 / 170
- 〈표 IV-22〉 24시간 이상 금연 시도 횟수 / 172
- 〈표 IV-23〉 운동을 하면 안되는 이유 존재 여부 / 174
- 〈표 IV-24〉 격렬한 강도 운동 횟수 / 176
- 〈표 IV-25〉 중간 강도의 운동 횟수 / 178
- 〈표 IV-26〉 약한 강도의 운동 횟수 / 180
- 〈표 IV-27〉 1주일에 2회 이상 운동 횟수 / 182
- 〈표 IV-28〉 식생활 습관 개선 노력 / 184
- 〈표 IV-29〉 식생활 습관 관리하는 이유 존재 여부 / 186
- 〈표 IV-30〉 구체적 목표로 식단관리 시도 횟수 / 188
- 〈표 IV-31〉 스트레스 관련 징후로 처방전 없는 의약품 복용 경험 횟수 / 190
- 〈표 IV-32〉 스트레스 관리 위한 치료활동 시도 / 192
- 〈표 IV-33〉 음주 횟수 / 194
- 〈표 IV-34〉 1회 음주 시 주량 / 196
- 〈표 IV-35〉 한 번의 술자리에서 6잔 이상 마시는 횟수 / 198
- 〈표 IV-36〉 지난 1년간 음주 자제가 안된 경험 / 200
- 〈표 IV-37〉 지난 1년간 음주때문에 일상생활 지장을 받은 경험 / 202
- 〈표 IV-38〉 생애에 금주 혹은 절주 시도한 경험 / 204

## ■ 표 차례

---

- 〈표 IV-39〉 생애동안 체중감량 시도 횟수 / 206
- 〈표 IV-40〉 생활습관 변화를 위한 실천 계획: 금연 / 208
- 〈표 IV-41〉 생활습관 변화를 위한 실천 계획: 운동횟수 늘리기 / 210
- 〈표 IV-42〉 생활습관 변화를 위한 실천 계획: 식단관리 강화 / 212
- 〈표 IV-43〉 생활습관 변화를 위한 실천 계획: 스트레스 관리 횟수 늘리기 / 214
- 〈표 IV-44〉 생활습관 변화를 위한 실천 계획: 금주 혹은 절주 / 216
- 〈표 IV-45〉 생활습관 변화를 위한 실천 계획: 비만관리 / 218
- 〈표 IV-46〉 생활습관 개선 무료 도움 시 실천 계획 여부: 금연 / 220
- 〈표 IV-47〉 생활습관 개선 무료 도움 시 실천 계획 여부: 운동 횟수 늘리기 / 222
- 〈표 IV-48〉 생활습관 개선 무료 도움 시 실천 계획 여부:  
스트레스 관리 횟수 늘리기 / 224
- 〈표 IV-49〉 생활습관 개선 무료 도움 시 실천 계획 여부: 금주 혹은 절주 / 226
- 〈표 IV-50〉 생활습관 개선 무료 도움 시 실천 계획 여부: 비만관리 / 228
- 〈표 IV-51〉 자율적 행동 인센티브 제공 시 실천 계획 여부: 금연 / 230
- 〈표 IV-52〉 자율적 행동 인센티브 제공 시 실천 계획 여부:  
운동 횟수 늘리기 / 232
- 〈표 IV-53〉 자율적 행동 인센티브 제공 시 실천 계획 여부: 식단관리 강화 / 234
- 〈표 IV-54〉 자율적 행동 인센티브 제공 시 실천 계획 여부:  
스트레스 관리 횟수 늘리기 / 236
- 〈표 IV-55〉 자율적 행동 인센티브 제공 시 실천 계획 여부: 금주 혹은 절주 / 238
- 〈표 IV-56〉 자율적 행동 인센티브 제공 시 실천 계획 여부: 비만관리 / 240
- 〈표 IV-57〉 자율적 행동 인센티브 제공 시 실천 계획 여부: 금연 / 242
- 〈표 IV-58〉 자율적 행동 인센티브 제공 시 실천 계획 여부:  
운동 횟수 늘리기 / 244
- 〈표 IV-59〉 자율적 행동 인센티브 제공 시 실천 계획 여부: 식단관리 강화 / 246
- 〈표 IV-60〉 자율적 행동 인센티브 제공 시 실천 계획 여부:  
스트레스 관리 횟수 늘리기 / 248
- 〈표 IV-61〉 자율적 행동 인센티브 제공 시 실천 계획 여부: 금주 혹은 절주 / 250

## ■ 표 차례

---

- 〈표 IV-62〉 자율적 행동 인센티브 제공 시 실천 계획 여부: 비만관리 / 252
- 〈표 IV-63〉 생활습관 변화 위한 전문프로그램 제공기관: 금연 / 254
- 〈표 IV-64〉 금연 관리 프로그램 참여 비용 / 255
- 〈표 IV-65〉 금연 관리 프로그램 기대충족도 / 255
- 〈표 IV-66〉 금연 관리 프로그램 참여 의향 / 255
- 〈표 IV-67〉 운동횟수 늘리기 프로그램 제공 기관 / 257
- 〈표 IV-68〉 운동횟수 늘리기 프로그램 참여 비용 / 258
- 〈표 IV-69〉 운동횟수 늘리기 프로그램 기대충족도 / 258
- 〈표 IV-70〉 운동횟수 늘리기 프로그램 참여 의향 / 258
- 〈표 IV-71〉 식단관리 강화 프로그램 제공 기관 / 260
- 〈표 IV-72〉 식단관리 강화 프로그램 참여 비용 / 261
- 〈표 IV-73〉 식단관리 강화 프로그램 기대충족도 / 261
- 〈표 IV-74〉 식단관리 강화 프로그램 참여 의향 / 261
- 〈표 IV-75〉 스트레스 관리 횟수 늘리기 프로그램 제공 기관 / 263
- 〈표 IV-76〉 스트레스 관리 횟수 늘리기 프로그램 참여 비용 / 263
- 〈표 IV-77〉 스트레스 관리 횟수 늘리기 프로그램 기대충족도 / 264
- 〈표 IV-78〉 스트레스 관리 횟수 늘리기 프로그램 참여 의향 / 264
- 〈표 IV-79〉 비만관리 프로그램 제공 기관 / 265
- 〈표 IV-80〉 비만관리 프로그램 참여 의향 / 265
- 〈표 IV-81〉 생활습관 개선 실천 시 인센티브 제공 보험 가입 의향 / 267
- 〈표 IV-82〉 건강상태 평가 / 269
- 〈표 IV-83〉 노후 준비 여부 / 271
- 〈표 IV-84〉 노후대비 상품 유형(1순위) / 273
- 〈표 IV-85〉 노후대책을 준비하지 못(안)하는 이유 / 275
- 〈표 IV-86〉 노후 대비 생활자금 마련 적합 노후 소득원 필요성:  
본인이 준비한 노후생활자금 / 277
- 〈표 IV-87〉 노후 대비 생활자금 마련 적합 노후 소득원 필요성:  
재취업 소득활동 / 279

## ■ 표 차례

---

- 〈표 IV-88〉 노후 대비 생활자금 마련 적합 노후 소득원 필요성:  
자식의 경제적 지원 / 281
- 〈표 IV-89〉 노후 대비 생활자금 마련 적합 노후 소득원 필요성:  
기타소득 / 283
- 〈표 IV-90〉 노후 대비 생활자금 마련 적합 노후 소득원 예상금액:  
본인이 준비한 노후생활자금 / 285
- 〈표 IV-91〉 노후 대비 생활자금 마련 적합 노후 소득원 예상금액:  
재취업 소득활동 / 287
- 〈표 IV-92〉 노후 대비 생활자금 마련 적합 노후 소득원 예상금액:  
자식의 경제적 지원 289
- 〈표 IV-93〉 노후 대비 생활자금 마련 적합 노후 소득원 예상금액:  
기타소득 / 291
- 〈표 IV-94〉 개인연금 가입 여부 / 293
- 〈표 IV-95〉 개인연금 현재 가입 상태 / 295
- 〈표 IV-96〉 개인연금 현재 가입 기간 / 297
- 〈표 IV-97〉 개인연금 납입 방법 / 299
- 〈표 IV-98〉 개인연금 수령 방법 / 301
- 〈표 IV-99〉 개인연금 가입 금융회사 / 303
- 〈표 IV-100〉 개인연금 가입 만족도 / 305
- 〈표 IV-101〉 개인연금 불만족 이유(1순위) / 307
- 〈표 IV-102〉 개인연금 미가입 이유 / 309
- 〈표 IV-103〉 향후 개인연금 가입 의향 / 311
- 〈표 IV-104〉 주식 및 펀드 금융상품 투자 경험 / 313
- 〈표 IV-105〉 금융상품 총 투자 금액 / 315
- 〈표 IV-106〉 금융상품 투자성향 / 317
- 〈표 IV-107〉 연금상품 적립금 운용 방식 / 319
- 〈표 IV-108〉 노후대비 생활자금 마련 위한 투자 성향 / 321
- 〈표 IV-109〉 주택연금 사용 의향 / 323

## ■ 표 차례

---

- 〈표 IV-110〉 주택연금 사용 의향 없을 시 이유 / 325
- 〈표 IV-111〉 개인형 IRP 가입 여부 / 327
- 〈표 IV-112〉 개인형 IRP 가입 의향 / 329
- 〈표 IV-113〉 퇴직연금 DC형이나 IRP인 경우 원하는 투자방식 / 331
- 〈표 IV-114〉 가입되어 있는 퇴직연금(복수응답) / 333
- 〈표 IV-115〉 연금 또는 일시금 중 선택 / 335
- 〈표 IV-116〉 선호하는 연금수령 기간 / 337
- 〈표 IV-117〉 연성보험사기 처벌 동의 여부 / 339
- 〈표 IV-118〉 주변의 연성보험사기 목격 여부 / 341
- 〈표 IV-119〉 정직서약의 위치가 연성보험사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견해 / 343

## ■ 그림 차례

---

- 〈그림 I -1〉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목적 및 기대효과 / 38
- 〈그림 II -1〉 2017년 생명보험 가구 가입률/가입건수 / 46
- 〈그림 II -2〉 생명보험 가구 가입률과 개인 가입률 / 48
- 〈그림 II -3〉 생명보험 개인 가입률: 성별 / 49
- 〈그림 II -4〉 생명보험 가입 채널 선호 이유(복수응답) / 72
- 〈그림 II -5〉 생명보험 보상 경험 / 77
- 〈그림 II -6〉 생명보험상품 가입 이유(복수응답) / 78
- 〈그림 II -7〉 최근 3년 내 생명보험 회사군별 가입률 / 87
- 〈그림 II -8〉 생명보험 서비스 만족도 / 92
- 〈그림 II -9〉 생명보험회사 선택 시 고려사항(1순위) / 94
- 〈그림 III -1〉 손해보험 가구당 가입률/가입건수 추이 / 98
- 〈그림 III -2〉 손해보험 가구 가입률과 개인 가입률 / 100
- 〈그림 III -3〉 손해보험 개인 가입률: 성별 / 102
- 〈그림 III -4〉 손해보험 가입 채널 선호 이유(복수응답) / 119
- 〈그림 III -5〉 손해보험 상품 가입 이유(복수응답) / 123
- 〈그림 III -6〉 최근 3년 내 손해보험 회사군별 가입률 / 124
- 〈그림 III -7〉 손해보험 상품 만족도 / 128
- 〈그림 III -8〉 손해보험회사 선택 시 고려 사항(1순위 기준) / 128
- 〈그림 IV -1〉 현재 건강상태 / 132
- 〈그림 IV -2〉 국민건강보험 가입 종류 / 134
- 〈그림 IV -3〉 1년 내 실손의료보험 가입 여부 / 136
- 〈그림 IV -4〉 가입한 실손의료보험 형태 / 138
- 〈그림 IV -5〉 가입한 실손의료보험 금융 기관 / 140
- 〈그림 IV -6〉 실손의료보험 가입시기 / 142
- 〈그림 IV -7〉 실손의료보험 가입시기 / 144
- 〈그림 IV -8〉 가입한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갱신 주기 / 146
- 〈그림 IV -9〉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의 본인부담의료비 보장률 / 148
- 〈그림 IV -10〉 실손의료보험 월납 기준 납부 금액 수준 / 151

## ■ 그림 차례

---

- 〈그림 IV-11〉 실손의료보험의 해지 이유 / 155
- 〈그림 IV-12〉 실손의료보험 비가입 이유 / 157
- 〈그림 IV-13〉 향후 실손의료보험 가입 의향 / 159
- 〈그림 IV-14〉 새로 판매된 실손의료보험 가입 의향 / 161
- 〈그림 IV-15〉 현재 흡연 여부 / 163
- 〈그림 IV-16〉 최초 흡연시기 / 165
- 〈그림 IV-17〉 하루 흡연량 / 167
- 〈그림 IV-18〉 과거 금연 기간 / 169
- 〈그림 IV-19〉 24시간 이상 금연 시도 횟수 / 171
- 〈그림 IV-20〉 운동을 하면 안되는 이유 존재 여부 / 173
- 〈그림 IV-21〉 격렬한 강도 운동 횟수 / 175
- 〈그림 IV-22〉 중간 강도의 운동 횟수 / 177
- 〈그림 IV-23〉 약한 강도의 운동 횟수 / 179
- 〈그림 IV-24〉 1주일에 2회 이상 운동 횟수 / 181
- 〈그림 IV-25〉 식생활 습관 개선 노력 / 183
- 〈그림 IV-26〉 식생활 습관 관리하는 이유 존재 여부 / 185
- 〈그림 IV-27〉 구체적 목표로 식단관리 시도 횟수 / 187
- 〈그림 IV-28〉 스트레스 관련 징후로 처방전 없는 의약품 복용 경험 횟수 / 189
- 〈그림 IV-29〉 스트레스 관리 위한 치료활동 시도 / 191
- 〈그림 IV-30〉 음주 횟수 / 193
- 〈그림 IV-31〉 1회 음주 시 주량 / 195
- 〈그림 IV-32〉 한 번의 술자리에서 6잔 이상 마시는 횟수 / 197
- 〈그림 IV-33〉 지난 1년간 음주 자제가 안된 경험 / 199
- 〈그림 IV-34〉 지난 1년간 음주 때문에 일상생활 지장을 받은 경험 / 201
- 〈그림 IV-35〉 생애에 금주 혹은 절주 시도한 경험 / 203
- 〈그림 IV-36〉 생애동안 체중감량 시도 횟수 / 205
- 〈그림 IV-37〉 생활습관 변화를 위한 실천 계획: 금연 / 207
- 〈그림 IV-38〉 생활습관 변화를 위한 실천 계획: 운동횟수 늘리기 / 209

## ■ 그림 차례

---

- 〈그림 IV-39〉 생활습관 변화를 위한 실천 계획: 식단관리 강화 / 211
- 〈그림 IV-40〉 생활습관 변화를 위한 실천 계획: 스트레스 관리 횟수 늘리기 / 213
- 〈그림 IV-41〉 생활습관 변화를 위한 실천 계획: 금주 혹은 절주 / 215
- 〈그림 IV-42〉 생활습관 변화를 위한 실천 계획: 비만관리 / 217
- 〈그림 IV-43〉 생활습관 개선 무료 도움 시 실천 계획 여부: 금연 / 219
- 〈그림 IV-44〉 생활습관 개선 무료 도움 시 실천 계획 여부:  
운동 횟수 늘리기 / 221
- 〈그림 IV-45〉 생활습관 개선 무료 도움 시 실천 계획 여부:  
스트레스 관리 횟수 늘리기 / 223
- 〈그림 IV-46〉 생활습관 개선 무료 도움 시 실천 계획 여부: 금주 혹은 절주 / 225
- 〈그림 IV-47〉 생활습관 개선 무료 도움 시 실천 계획 여부: 비만관리 / 227
- 〈그림 IV-48〉 자율적 행동 인센티브 제공 시 실천 계획 여부: 금연 / 229
- 〈그림 IV-49〉 자율적 행동 인센티브 제공 시 실천 계획 여부:  
운동 횟수 늘리기 / 231
- 〈그림 IV-50〉 자율적 행동 인센티브 제공 시 실천 계획 여부: 식단관리 강화 / 233
- 〈그림 IV-51〉 자율적 행동 인센티브 제공 시 실천 계획 여부:  
스트레스 관리 횟수 늘리기 / 235
- 〈그림 IV-52〉 자율적 행동 인센티브 제공 시 실천 계획 여부:  
금주 혹은 절주 / 237
- 〈그림 IV-53〉 자율적 행동 인센티브 제공 시 실천 계획 여부: 비만관리 / 239
- 〈그림 IV-54〉 생활습관 개선 프로그램 인센티브 실천 계획 여부: 금연 / 241
- 〈그림 IV-55〉 생활습관 개선 프로그램 인센티브 실천 계획 여부:  
운동 횟수 늘리기 / 243
- 〈그림 IV-56〉 생활습관 개선 프로그램 인센티브 실천 계획 여부:  
식단관리 강화 / 245
- 〈그림 IV-57〉 생활습관 개선 프로그램 인센티브 실천 계획 여부:  
스트레스 관리 횟수 늘리기 / 247

## ■ 그림 차례

---

- 〈그림 IV-58〉 생활습관 개선 프로그램 인센티브 실천 계획 여부:  
금주 혹은 절주 / 249
- 〈그림 IV-59〉 생활습관 개선 프로그램 인센티브 실천 계획 여부: 비만관리 / 251
- 〈그림 IV-60〉 금연 관리 프로그램 제공 기관 / 253
- 〈그림 IV-61〉 운동횟수 늘리기 프로그램 제공 기관 / 256
- 〈그림 IV-62〉 식단관리 강화 프로그램 제공 기관 / 259
- 〈그림 IV-63〉 스트레스 관리 횟수 늘리기 프로그램 제공 기관 / 262
- 〈그림 IV-64〉 생활습관 개선 실천 시 인센티브 제공 보험 가입 의향 / 266
- 〈그림 IV-65〉 건강상태 평가 / 268
- 〈그림 IV-66〉 노후 준비 여부 / 270
- 〈그림 IV-67〉 노후대비 상품 유형(1순위) / 272
- 〈그림 IV-68〉 노후대책을 준비하지 못(안)하는 이유 / 274
- 〈그림 IV-69〉 노후 대비 생활자금 마련 적합 노후 소득원 필요성:  
본인이 준비한 노후생활자금 / 276
- 〈그림 IV-70〉 노후 대비 생활자금 마련 적합 노후 소득원 필요성:  
재취업 소득활동 / 278
- 〈그림 IV-71〉 노후 대비 생활자금 마련 적합 노후 소득원 필요성:  
자식의 경제적 지원 / 280
- 〈그림 IV-72〉 노후 대비 생활자금 마련 적합 노후 소득원 필요성:  
기타소득 / 282
- 〈그림 IV-73〉 노후 대비 생활자금 마련 적합 노후 소득원 예상금액:  
본인이 준비한 노후생활자금 / 284
- 〈그림 IV-74〉 노후 대비 생활자금 마련 적합 노후 소득원 예상금액:  
재취업 소득활동 / 286
- 〈그림 IV-75〉 노후 대비 생활자금 마련 적합 노후 소득원 예상금액:  
자식의 경제적 지원 / 288
- 〈그림 IV-76〉 노후 대비 생활자금 마련 적합 노후 소득원 예상금액:  
기타소득 290

## ■ 그림 차례

---

- 〈그림 IV-77〉 개인연금 가입 여부 / 292
- 〈그림 IV-78〉 개인연금 현재 가입 상태 / 294
- 〈그림 IV-79〉 개인연금 현재 가입 기간 / 296
- 〈그림 IV-80〉 개인연금 납입 방법 / 298
- 〈그림 IV-81〉 개인연금 수령 방법 / 300
- 〈그림 IV-82〉 개인연금 가입 금융회사 / 302
- 〈그림 IV-83〉 개인연금 가입 만족도 / 304
- 〈그림 IV-84〉 개인연금 불만족 이유(1순위) / 306
- 〈그림 IV-85〉 개인연금 미가입 이유 / 308
- 〈그림 IV-86〉 향후 개인연금 가입 의향 / 310
- 〈그림 IV-87〉 주식 및 펀드 금융상품 투자 경험 / 312
- 〈그림 IV-88〉 금융상품 총 투자 금액 / 314
- 〈그림 IV-89〉 금융상품 투자성향 / 316
- 〈그림 IV-90〉 연금상품 적립금 운용 방식 / 318
- 〈그림 IV-91〉 노후대비 생활자금 마련 위한 투자 성향 / 320
- 〈그림 IV-92〉 주택연금 사용 의향 / 322
- 〈그림 IV-93〉 주택연금 사용 의향 없을 시 이유 / 324
- 〈그림 IV-94〉 개인형 IRP 가입 여부 / 326
- 〈그림 IV-95〉 개인형 IRP 가입 의향 / 328
- 〈그림 IV-96〉 퇴직연금 DC형이나 IRP인 경우 원하는 투자방식 / 330
- 〈그림 IV-97〉 가입되어 있는 퇴직연금(복수응답) / 332
- 〈그림 IV-98〉 연금 또는 일시금 중 선택 / 334
- 〈그림 IV-99〉 선호하는 연금수령 기간 / 336
- 〈그림 IV-100〉 연성보험사기 처벌 동의 여부 / 338
- 〈그림 IV-101〉 주변의 연성보험사기 목격 여부 / 340
- 〈그림 IV-102〉 정직서약의 위치가 연성보험사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견해 / 3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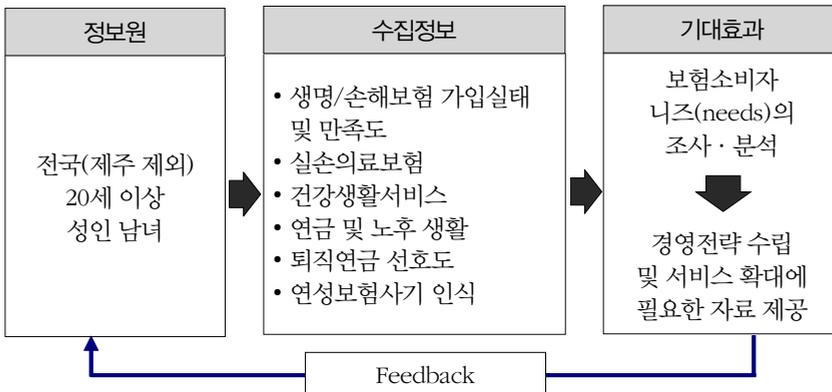
# 요약

## 가. 조사의 개요

### 1. 조사의 목적

- 보험수요 변화 추세 조사를 통해 보험회사의 상품 개발, 마케팅 전략 수립, 보험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확대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요약 그림 1〉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목적 및 기대효과



### 2. 주요 조사항목

-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가입실태 및 만족도 조사와 최근 보험산업과 관련된 이슈별 설문조사를 포함함
  -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가입실태와 가입경로, 만족도(가구당/개인별)와 향후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가입 의향 및 선호 가입경로 등을 조사함
  - 최근 관심이 확대되고 있는 실손의료보험, 건강관리서비스, 연금 등 고령화 관련 상품, 연성보험사기 등을 설문 내용에 포함함

### 3. 조사방법

- 조사대상: 전국(제주 제외) 만 20세 이상 성인 남녀
- 표본크기: 총 2,200명(유효표본)
- 자료수집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가정 방문 일대일 개별 면접
- 표본추출방법: 거주 지역, 성, 연령, 인구 구성비에 따른 비례 할당 추출법
  - ※ 행정자치부, 2017년 5월 주민등록인구통계현황 기준
- 최대 허용오차: 95% 신뢰수준에서  $\pm 2.09\%$
- 조사기간: 2017년 6월 20일 ~ 2017년 7월 24일(약 1개월)
- 조사기관: (주)코리아리서치센터

## 나. 보험가입 현황 및 수요조사

### 1. 가구당 가입 현황

- 2017년 조사에서는 보험산업 전체 가구당 보험 가입률이 97.0%<sup>1)</sup>로 나타남
  - 2017년 생명보험 가구 가입률은 84.9%이고, 가구당 가입건수는 4.0건으로 조사됨
  - 2017년 손해보험 가구 가입률은 89.5%이며, 가입건수는 가구당 3.4건임

---

1) 한 가구에서 한 명이라도 보험상품을 가입한 경우의 가입률을 의미하며, 자동차보험을 포함함

〈요약 표 1〉 가구당 가입률/가입건수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가구당 가입률(%)	96.4	98.0	96.1	96.1	97.5	99.7	96.3	97.0	
생명 보험	가입률(%)	88.0	87.3	86.3	83.0	85.8	87.2	81.8	84.9
	가입건수(건)	4.1	3.8	3.8	3.6	4.0	3.5	3.4	4.0
손해 보험	가입률(%)	85.9	91.4	87.2	86.8	87.7	91.8	88.9	89.5
	가입건수(건)	2.5	3.0	2.9	3.1	3.3	3.4	3.5	3.4

■ 거주 지역, 세대주 연령, 가구 소득 등에 따른 가구당 보험가입률의 경우 2016년과 비교하여 비슷한 수준의 가입률을 보였음

○ 지역별로는 중·소도시와 군 지역에서 전년대비 생명보험 가구당 보험가입률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군지역의 경우 생명보험 가구당 보험가입률이 2016년 대비 18.8%p 하락함

○ 세대주 연령별로 살펴보면, 생명보험은 60대 이상(9.2%p) 연령층에서 전년 대비 상승폭이 큰 것으로 조사됨

〈요약 표 2〉 가구당 가입률: 특성별

(단위: %)

특성별	보험종목별	보험산업 전체			생명보험			손해보험		
		2015	2016	2017	2015	2016	2017	2015	2016	2017
전체 가입률		99.7	96.3	97.0	87.2	87.2	84.9	91.8	88.9	89.5
거주 지역별	대도시	99.6	99.1	97.9	85.5	85.5	87.3	90.6	92.0	91.8
	중·소도시	99.6	94.8	96.8	87.3	87.3	84.0	92.4	87.0	88.0
	군지역	100.0	88.7	93.6	95.8	95.8	77.0	94.8	82.0	85.6
세대주 연령	30대	100.0	99.5	99.0	87.1	85.6	87.4	96.0	94.6	91.9
	40대	100.0	99.8	99.6	91.2	88.8	90.2	97.3	95.3	95.3
	50대	100.0	98.3	98.4	86.8	86.3	91.0	95.9	91.7	94.0
	60대 이상	98.5	87.6	93.9	84.6	66.1	75.3	79.9	73.1	83.3
가구 소득	저소득	98.3	86.5	87.7	75.3	60.5	66.5	73.2	66.5	69.5
	중소득	100.0	99.0	98.8	86.2	85.4	87.2	94.3	94.2	92.3
	고소득	100.0	99.0	100.0	93.0	92.9	93.1	97.8	97.4	97.9

## 2. 개인별 보험가입 현황

- 2017년 개인당 보험가입률은 94.5%를 기록하였음
  - 생명보험의 개인 보험가입률은 78.2%로 나타났으며, 손해보험의 개인 보험가입률은 78.4%를 기록함

〈요약 표 3〉 개인 보험가입률

(단위: %)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생명보험	77.3	79.3	78.9	73.4	78.2
손해보험	74.6	74.3	79.7	76.2	78.4
전체	94.0	93.8	96.7	93.8	94.5

- 전체적으로 30~50대의 가입률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남성과 여성의 개인 보험가입률이 큰 차이가 없이 비슷하게 나타남
  -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모두 20대와 60대의 개인 보험가입률이 다른 연령층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았음
  - 또한, 저소득 가구에 속한 개인 보험가입률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요약 표 4〉 개인별 보험 가입률: 특성별

(단위: %)

구분	보험산업 전체			생명보험			손해보험			
	2015	2016	2017	2015	2016	2017	2015	2016	2017	
전체 가입률	96.7	93.8	94.5	87.2	73.4	78.2	91.8	76.2	78.4	
성별	남성	97.0	95.5	94.2	84.0	69.9	77.0	93.4	86.0	83.4
	여성	96.4	92.2	94.8	90.3	76.9	79.3	90.1	66.5	73.4
연령	20대	92.4	91.9	88.8	85.9	62.4	69.7	90.9	67.5	63.0
	30대	98.7	98.6	96.7	87.1	78.8	77.6	96.0	83.8	81.7
	40대	100.0	97.3	98.9	91.2	82.2	86.6	97.3	84.1	86.6
	50대	97.9	98.3	98.0	86.8	82.1	87.9	95.9	83.3	87.7
	60대 이상	93.8	84.5	90.1	84.6	61.5	69.1	79.9	62.9	71.5
직업	화이트칼라	98.5	98.9	97.6	92.5	78.3	85.7	94.6	87.5	82.6
	블루칼라	98.0	96.3	93.6	83.3	75.5	75.8	93.1	76.5	76.4
	농/임/어업	100.0	96.2	78.9	92.9	72.8	53.7	100.0	82.9	68.4
	자영업	96.4	77.8	98.2	84.5	44.4	86.1	90.6	66.7	85.6
	주부	96.8	89.9	95.6	89.4	77.9	75.8	92.6	63.7	75.1
	은퇴자	94.6	91.7	89.5	83.9	66.7	36.8	80.4	83.3	89.5
	학생	0.0	0.0	79.7	0.0	0.0	57.6	0.0	0.0	59.3
	무직/기타	82.1	75.0	71.0	78.6	38.9	54.8	80.4	55.6	48.4
학력	중졸 이하	88.1	66.3	81.1	82.2	43.6	55.6	69.3	40.6	57.7
	고졸	96.4	96.5	94.9	83.6	77.0	77.5	91.4	76.8	77.9
	대재 이상	98.5	97.6	96.9	91.6	78.2	83.7	96.2	83.9	83.3
결혼 여부	기혼	97.5	94.1	95.9	88.3	75.1	80.3	92.5	77.2	81.3
	미혼	93.4	92.8	89.2	82.7	67.2	69.9	88.9	72.4	67.3
가구 소득	저소득	94.5	83.5	85.5	71.1	57.1	62.6	64.7	59.8	61.3
	중소득	97.9	96.8	95.7	78.6	76.4	79.4	82.9	80.4	81.2
	고소득	96.7	96.8	98.4	82.5	81.4	86.8	83.6	81.7	84.3

### ■ 생명보험 개인별 가입률: 종목별

- 종목별 생명보험 개인 가입률을 살펴보면, 질병보장보험의 가입률이 63.4%로 가장 높았으며, 실손의료보험(26.5%), 사망보험(18.7%) 등의 순임

〈요약 표 5〉 생명보험 개인별 가입률: 종목별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질병 보장 보험	실손 의료 보험	사망 보험	재해 상해 보험	연금 보험	변액 보험	저축 성 보험	간병 보험	어린 이 보험	비가 입	
전체	(2,200)	63.4	26.5	18.7	15.7	12.4	5.0	4.2	1.9	1.5	15.1	
성별	남성	(1,092)	59.4	25.3	23.2	15.9	13.5	5.4	3.4	1.6	0.5	16.8
	여성	(1,108)	67.2	27.6	14.3	15.4	11.3	4.6	5.0	2.2	2.5	13.4
연령	20대	(357)	48.2	27.7	12.0	11.2	5.0	2.2	3.6	0.0	1.1	15.1
	30대	(393)	60.6	32.1	15.3	15.0	8.1	4.8	3.6	0.5	5.1	13.0
	40대	(461)	70.1	29.5	27.3	16.1	22.8	8.5	4.8	1.7	2.2	9.3
	50대	(446)	74.7	26.7	25.6	20.9	18.2	6.7	6.1	2.7	0.0	9.2
	60대 이상	(543)	60.4	18.8	12.5	14.5	6.6	2.6	2.9	3.7	0.0	26.3
지역 규모	대도시	(1,006)	66.0	25.2	18.1	10.9	14.4	5.2	5.5	1.3	2.1	12.7
	중·소도시	(1,007)	62.7	28.4	18.9	21.2	11.3	5.6	3.5	2.5	1.2	16.0
	군지역	(187)	52.9	22.5	20.9	11.8	7.0	1.1	1.1	2.1	0.5	23.0
직업	화이트칼라	(580)	64.8	33.6	27.8	17.6	17.8	6.9	5.2	0.7	1.0	9.5
	블루칼라	(611)	62.0	24.2	14.2	13.7	12.9	3.1	4.6	2.6	1.5	17.3
	농/임/어업	(95)	45.3	7.4	15.8	10.5	2.1	0.0	0.0	2.1	0.0	38.9
	자영업	(396)	71.5	29.0	25.0	17.4	12.6	6.6	2.0	2.5	0.8	10.4
	주부	(409)	67.2	22.7	10.3	16.6	9.0	5.6	6.1	1.7	3.4	15.2
	은퇴자	(19)	26.3	10.5	10.5	5.3	0.0	0.0	0.0	5.3	0.0	57.9
	학생	(59)	33.9	27.1	6.8	8.5	0.0	1.7	1.7	0.0	3.4	18.6
	무직/기타	(31)	41.9	19.4	3.2	19.4	3.2	3.2	0.0	6.5	0.0	29.0
교육 수준	중졸 이하	(196)	49.0	12.2	7.7	12.2	1.0	0.0	1.0	2.0	0.0	40.3
	고졸	(1,057)	65.1	26.7	17.8	14.9	11.5	3.8	3.5	2.7	1.2	14.8
	대재 이상	(946)	64.5	29.2	22.0	17.3	15.6	7.4	5.6	1.0	2.2	10.1
	모름/무응답	(1)	0.0	0.0	0.0	0.0	0.0	0.0	0.0	0.0	0.0	100.0
가구 소득	저소득	(406)	52.0	18.5	9.4	10.8	4.9	0.7	2.2	3.0	0.2	37.4
	중소득	(1,226)	65.5	25.9	17.5	15.6	9.9	4.5	3.4	1.9	2.1	20.6
	고소득	(568)	66.9	33.3	28.0	19.4	23.1	9.2	7.2	1.2	1.2	13.2

주: 은퇴자는 표본 수가 적어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낮음

■ 손해보험 개인 가입률의 경우 장기손해보험 개인 가입률이 68.9%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장기손해보험은 남성(71.3%), 40대(77.0%), 가구 소득이 많을수록(저소득 53.9% < 중소득 71.0% < 고소득 74.8%) 개인 가입률이 높게 나타남
- 자동차보험은 남성(70.7%), 40대(60.1%), 50대(59.0%), 저소득보다는 중소득(50.6%), 고소득(53.7%) 가구에 속한 개인의 가입률이 높음

〈요약 표 6〉 손해보험 개인별 가입률: 종목별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장기손해 보험	자동차 보험	상해보험	기타	비가입
전체		(2,200)	68.9	47.5	0.9	0.4	21.6
성별	남성	(1,092)	71.3	70.7	0.7	0.3	16.6
	여성	(1,108)	66.4	24.7	1.1	0.5	26.6
연령	20대	(357)	56.6	26.1	0.3	0.3	37.0
	30대	(393)	71.0	55.0	1.8	0.8	18.3
	40대	(461)	77.0	60.1	0.9	0.4	13.4
	50대	(446)	76.9	59.0	1.3	0.2	12.3
	60대 이상	(543)	61.9	36.3	0.4	0.2	28.5
지역규모	대도시	(1,006)	73.7	48.4	0.7	0.4	18.1
	중·소도시	(1,007)	64.7	47.5	1.2	0.4	24.7
	군지역	(187)	65.2	43.3	0.5	0.0	24.1
직업	화이트칼라	(580)	72.4	59.1	1.6	0.2	17.4
	블루칼라	(611)	68.9	50.4	0.3	0.3	23.6
	농/임/어업	(95)	55.8	33.7	0.0	0.0	31.6
	자영업	(396)	72.0	66.7	1.3	0.3	14.4
	주부	(409)	67.0	17.4	1.0	0.7	24.9
	은퇴자	(19)	84.2	68.4	0.0	0.0	10.5
	학생	(59)	55.9	11.9	0.0	1.7	40.7
	무직/기타	(31)	41.9	25.8	0.0	0.0	51.6
교육 수준	중졸 이하	(196)	53.1	20.9	0.5	0.0	42.3
	고졸	(1,057)	68.4	42.4	0.6	0.2	22.1
	대재 이상	(946)	72.7	58.9	1.4	0.6	16.7
	모름/무응답	(1)	0.0	0.0	0.0	0.0	100.0
가구 소득	저소득	(406)	53.9	29.8	0.2	0.0	38.7
	중소득	(1,226)	71.0	50.6	1.0	0.3	18.8
	고소득	(568)	74.8	53.7	1.2	0.7	15.7

- 손해보험 종목별 개인 보험가입률의 경우 장기손해보험이 68.9%로 2016년(67.4%) 대비 1.5%p 상승한 반면, 일반손해보험은 0.9%로 2016년(2.0%) 대비 1.1%p 하락함
- 연령별로 살펴보면, 장기손해보험 개인 보험가입률은 20·30대는 하락한 반면, 40대 이상 연령층에서는 전년대비 상승함
  - 소득별로 살펴보면, 모든 가구 소득층의 장기손해보험 개인 보험가입률은 상승한 반면, 일반손해보험 개인 보험가입률은 중·고소득 가구에서 하락함
  - 학력별로 살펴보면, 장기손해보험 개인 보험가입률은 중졸 이하 학력층에서 전년대비 상승하였고, 일반손해보험 개인 보험가입률에서도 중졸 이하 학력층에서만 전년대비 상승함

〈요약 표 7〉 손해보험 종목별 개인 가입률: 특성별

(단위: %)

구분		장기손해보험		일반손해보험	
		2016	2017	2016	2017
가입률		67.4	68.9	2.0	0.9
연령	20대	61.4	56.6	1.5	0.3
	30대	73.0	71.0	1.8	1.8
	40대	73.6	77.0	2.7	0.9
	50대	75.8	76.9	2.9	1.3
	60대 이상	54.4	61.9	1.1	0.4
학력	중졸 이하	32.7	53.1	0.0	0.5
	고졸	69.1	68.4	1.7	0.6
	대재 이상	74.4	72.7	2.7	1.4
결혼	기혼	68.3	71.3	2.2	1.0
	미혼	64.0	59.3	1.2	0.7
가구 소득	저소득	52.6	53.9	0.0	0.2
	중소득	70.9	71.0	1.8	1.0
	고소득	73.1	74.8	4.2	1.2

-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모두 대면채널을 통한 가입이 많은 것으로 조사됨
  - 생명보험의 대면채널을 통한 가입률<sup>2)</sup>은 95.8%였으며, 손해보험의 경우 90.8%를 나타냄
  - 다만,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모두 직판채널과 은행채널을 통한 가입 비율이 2016년에 비하여 높아졌음
    - 생명보험의 경우 직판채널과 은행채널 가입률이 전년대비 각각 0.9%p, 0.5%p 상승하였으며, 손해보험의 경우 직판채널과 은행채널 가입률이 각각 5.3%p, 0.1%p 상승함

〈요약 표 8〉 생명보험 가입 채널별 가입률

(단위: %)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생명 보험	대면	96.3	96.3	96.0	95.5	96.4	97.3	96.8	95.8
	직판	1.6	2.1	2.6	2.4	1.9	1.6	2.7	3.6
	은행	2.5	1.9	1.6	3.1	3.2	1.7	1.9	2.4
	기타	0.0	0.0	0.0	0.0	0.0	0.0	2.0	2.8
손해 보험	대면	92.6	95.5	92.7	93.2	94.2	94.0	95.2	90.8
	직판	7.7	4.7	6.2	8.0	9.1	7.8	8.0	13.3
	은행	0.5	0.5	1.1	1.9	1.3	0.3	0.9	1.0
	기타	0.0	0.0	0.0	0.0	0.0	0.0	2.6	4.3

주: 1) 상기 채널별 가입률은 빈도 기준의 설문조사 결과로서 실제 채널별 보험료 기준 채널별 비중과는 차이가 날 수 있음(이하 동일)

2) 판매채널의 구분은 〈 I. 조사의 개요〉 참고

3) 은행은 은행, 증권회사 등을 포함한 채널을 의미함(이하 동일)

4) 기타채널은 제외함(이하 동일)

2) 전체 생명보험 상품 가입자 중 각각 채널로 가입한 사람의 비율이며, 중복 응답이 가능하기 때문에 합계가 100%를 초과할 수 있음

### 3. 향후 보험수요 및 가입 이유

■ 향후 1년 내 모든 생명보험 종목의 가입 의향을 살펴보면, 간병보험 9.6%로 가장 높았음

○ 간병보험의 뒤를 이어 연금보험 8.6%, 질병보장보험 8.5%, 실손의료보험 5.9% 등의 순으로 나타남

〈요약 표 9〉 생명보험 종목 가입 여부별 가입 의향

(단위: %)

구분	현 가입률	가입 의향	
		없다	있다
실손의료보험	26.5	94.1	5.9
질병보장보험	63.4	91.5	8.5
재해상해보험	15.7	94.2	5.8
간병보험	1.9	90.4	9.6
사망보험	18.7	96.3	3.7
저축성 보험	4.2	94.3	5.7
연금보험	12.4	91.4	8.6
어린이보험	1.5	98.8	1.2
변액보험	5.0	99.3	0.7

■ 향후 1년 이내 손해보험 가입 의향에 대해 조사한 결과, 자동차보험은 44.1%, 장기손해보험 5.0%로 나타남

〈요약 표 10〉 손해보험 종목 가입 여부별 가입 의향

(단위: %)

구분	현 가입률	가입 의향	
		없다	있다
자동차보험	47.5	55.9	44.1
장기손해보험	68.9	95.0	5.0
상해보험	0.9	97.1	2.9

-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가입자 모두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음
  - 생명보험 가입자의 경우, 위험보장을 위하여 보험에 가입한다는 응답이 96.0%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노후자금 마련(15.7%), 저축수단(6.1%), 유산상속 목적(2.6%) 순으로 나타남
  - 손해보험 가입자의 경우, 위험보장을 위하여 보험에 가입한다는 응답이 98.0%였으며, 목돈마련 저축수단(2.0%), 노후자금 마련(1.7%), 세계혜택 유리(1.0%) 등이 뒤를 이음

〈요약 표 11〉 보험 산업별 가입 이유(복수응답)

(단위: %)

구분	생명보험		손해보험	
	2016	2017	2016	2017
위험보장	94.2	96.0	97.8	98.0
노후자금 마련	19.0	15.7	1.6	1.7
목돈마련 저축수단	10.7	6.1	3.0	2.0
유산상속 목적	5.2	2.6	0.3	0.3
자산증식 투자수단	2.9	1.2	0.9	0.5
세계혜택 유리	0.3	1.0	0.3	1.0

#### 4. 보험회사별 가입분포 및 회사 선택 시 고려 사항

- 최근 3년 이내 가입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형사 상품에 가입한 가입률<sup>3)</sup>이 생명보험의 경우 65.4%, 손해보험의 경우 79.9%로 조사됨
  - 생명보험의 경우 대형사 다음으로 중·소형사 27.7%, 외국사 9.6%, 공제/기타 2.8% 순으로 나타남
  - 손해보험사의 경우 중·소형사 19.1%, 외국사/직판사 5.1%, 공제/기타 0.7% 순임

3) 3년 이내 보험상품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여 각 회사군별 가입률을 산출하였으며, 중복응답이 가능하므로 합계가 100%를 초과할 수 있음

〈요약 표 12〉 최근 3년 이내 가입자의 보험회사군 별 가입률

(단위: %)

고려 사항 \ 선호 회사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2013	2014	2015	2016	2017	2013	2014	2015	2016	2017
대형사	72.6	75.8	73.6	62.9	65.4	78.2	82.6	82.3	77.0	79.9
중·소형사	15.7	21.8	21.8	23.2	27.7	20.6	17.5	18.7	20.1	19.1
외국사/직판사	12.3	9.8	8.7	9.8	9.6	5.1	6.0	3.6	1.8	5.1
공제/기타	6.0	5.9	4.8	4.0	2.8	2.7	1.0	2.0	1.1	0.7

주: 3년 이내 보험상품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여 각 회사군별 가입률을 산출하였으며, 중복응답이 가능하므로 합계가 100%를 초과할 수 있음

■ 보험회사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모두 상품 경쟁력인 것으로 나타남

- 생명보험회사 선택 시 상품 경쟁력이 가장 중요하다는 응답이 44.0%로 가장 높았고, 브랜드 신뢰성(20.7%), 가격 경쟁력(13.8%), 서비스 지원(13.2%) 순으로 조사됨
- 손해보험회사 선택 시에도 보험소비자들은 상품 경쟁력(42.7%)을 가장 중요시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다음으로 브랜드 신뢰성(19.7%)과 가격 경쟁력(16.3%), 서비스 지원(12.7%)이 뒤를 이음

〈요약 표 13〉 향후 보험회사 선택 시 고려사항(1순위)

(단위: %)

고려 사항 \ 선호 회사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2013	2014	2015	2016	2017	2013	2014	2015	2016	2017
상품 경쟁력	48.7	48.9	48.0	45.8	44.0	48.2	45.4	46.9	40.8	42.7
브랜드 신뢰성	18.3	17.2	15.6	22.8	20.7	17.8	18.7	16.6	21.6	19.7
서비스 지원	14.3	15.1	14.3	11.2	13.2	14.3	17.5	16.4	14.5	12.7
가격 경쟁력	10.8	10.4	11.0	11.2	13.8	12.2	10.4	12.8	12.3	16.3
개인적 관계	4.3	4.3	4.2	4.4	2.9	5.3	4.7	2.8	5.4	3.8
회사 규모	1.8	2.7	2.7	2.2	1.9	0.8	1.8	1.8	2.2	2.1
설계사 전문성	0.5	0.7	1.4	1.1	0.9	0.4	0.5	1.0	1.3	0.7
경영 철학	0.4	0.3	0.6	0.3	0.7	0.1	-	0.6	1.2	0.7
과거 거래 경험	0.4	0.3	1.2	0.3	1.0	0.6	0.5	0.6	0.5	1.0
계약 편의성	0.5	0.2	1.1	0.8	0.9	0.3	0.5	0.6	0.3	0.7

주: 상품 경쟁력은 보장의 다양성 및 니즈를 반영함

## 다. 실손의료보험

### 1. 실손의료보험 가입 여부

- 실손의료보험 가입 여부에 대해서는 가입했다 77.8%(중복가입 제외, 개인 실손의료보험 77.1% + 단체 실손의료보험 2.5%), 가입하지 않았다 21.5%로 응답자 5명 중 4명 정도는 지난 1년 내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남

〈요약 표 14〉 지난 1년 내 실손의료보험 가입 여부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있다		없다
		개인 실손의료보험	단체 실손의료보험	
전체	(2,200)	77.1	2.5	21.5

### 2. 가입한 실손의료보험 유형 및 가입기관

- 가입한 실손의료보험 유형에 대해서는 단독형(53.1%)이 특약형(46.9%)보다 6.2%p 높게 나타남

〈요약 표 15〉 가입한 실손의료보험 유형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단독형	특약형	해당없음
전체	(1,728)	53.1	46.9	0.1

- 가입한 실손의료보험 금융 기관으로 손해보험사(66.1%), 생명보험사(33.1%), 우체국 및 기타 공제(0.8%) 순으로 나타남

〈요약 표 16〉 가입한 실손의료보험 금융 기관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손해보험사	생명보험사	우체국 및 기타 공제	해당없음
전체	(1,728)	66.1	33.1	0.8	0.1

### 3. 실손의료보험 가입 시기 및 갱신시기

- 개인 실손의료보험 가입 시기를 확인한 결과, 2010년대 전반(55.2%), 2000년대 후반(27.0%), 2010년대 후반(17.7%) 순으로 나타남

〈요약 표 17〉 실손의료보험 가입시기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2000년대 후반	2010년대 전반	2010년대 후반
전체	(1,696)	27.0	55.2	17.7

- 가입한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갱신 주기에 대해서 5년이라는 응답이 34.6%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3년(34.0%), 비갱신형(19.3%), 1년(12.2%)의 순으로 나타남

〈요약 표 18〉 가입한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갱신 주기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1년	3년	5년	비갱신형
전체	(1,728)	12.2	34.0	34.6	19.3

### 4.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의 본인부담의료비 보장률 및 월 평균 납입료

-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의 본인부담의료비 보장률(보험회사 환급률)에 대해서는 90%(45.0%), 80%(29.4%), 100%(14.8%) 순으로 본인부담의료비를 보장한다는 응답이 나타남(모름: 10.7%)

〈요약 표 19〉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의 본인부담의료비 보장률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100%	90%	80%	기타	모름
전체	(1,728)	14.8	45.0	29.4	0.1	10.7

■ 실손의료보험 평균 월납 기준 납부 금액은 69,985원인 것으로 나타남

### 5. 실손의료보험 회사 서비스 만족도

■ 실손의료보험 회사 서비스 만족도에 대해서 청구 절차의 간편함이 4.13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신속한 보험금 처리(4.09점), 계약 체결 시 제공된 서비스(3.97점), 갱신 시 제공된 서비스(3.84점)의 순으로 나타남

〈요약 표 20〉 실손의료보험 회사 서비스 만족도

(단위: 점, 5점 척도)

특성별	사례 수	청구 절차의 간편함	신속한 보험금 처리	계약 체결 시 제공된 서비스	갱신 시 제공된 서비스
전체	(1,728)	4.13	4.09	3.97	3.84

### 6. 실손의료보험의 해지 경험 및 이유

■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의 해지 경험을 확인해본 결과, 가입자의 10명 중 1명 수준인 8.5%만 해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요약 표 21〉 실손의료보험의 해지 경험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경험 있다	경험 없다
전체	(1,728)	8.5	91.5

-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의 해지 이유를 살펴본 결과, ‘보험료가 부담 되어서’라는 응답이 57.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의료 이용이 적어 불필요하다고 생각해서(38.8%), 갱신기간을 놓쳐서(15.6%) 등의 순으로 나타남

〈요약 표 22〉 실손의료보험의 해지 이유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보험료가 부담 되어서	의료 이용이 적어 불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갱신 기간을 놓쳐서	국민건강 보험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전체	(147)	57.1	38.8	15.6	9.5

## 7. 실손의료보험 비가입 이유

-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이유로 ‘보험료가 부담 되어서’라는 응답이 40.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국민건강보험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해서(35.8%), 현재는 건강하여 필요성을 못 느낌(27.8%), 가입을 거절당해서(10.0%), 가입 절차가 번거로워서(3.8%) 등의 순으로 나타남(복수응답)

〈요약 표 23〉 실손의료보험 미가입 이유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보험료가 부담 되어서	국민건강 보험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현재는 건강하여 필요성을 못 느낌	가입을 거절 당해서	가입절차가 번거로워서
전체	(472)	40.5	35.8	27.8	10.0	3.8

## 8. 향후 실손의료보험 가입 의향

- 현재 실손의료보험에 비가입되어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향후 실손의료보험 가입 의향을 질문한 결과 가입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42.8%로 응답자 10명 중 4

명 정도는 가입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향후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30대(83.3%), 화이트칼라(67.6%), 대재 이상(61.9%)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요약 표 24〉 향후 실손의료보험 가입 의향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의향 있다	의향 없다
전체	(472)	42.8	57.2

## 라. 건강생활서비스 이용실태

### 1. 현재 생활 실태

#### 1) 흡연 경험

- 흡연 경험을 물어본 결과 ‘흡연 경험이 전혀 없다’는 응답이 60.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최근 6개월간 한 개비 이상 흡연 경험이 있다’(23.5%), ‘6개월 이상 동안 금연하고 있다’(13.9%), ‘금연하고 있지만 6개월이 지나지 않았다’(2.3%) 등의 순임

〈요약 표 25〉 현재 흡연 여부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흡연 경험이 전혀 없다	6개월 이상 동안 금연하고 있다	금연하고 있지만 6개월이 지나지 않았다	최근 6개월간 한 개비 이상 흡연 경험이 있다
전체	(2,200)	60.3	13.9	2.3	23.5

- 하루 흡연량을 물어본 결과, '15개 이상'이 60.3%로 가장 높았고, '10개 이상'(33.1%), '5개 이상~10개 미만'(6.0%), '5개 미만'(0.6%) 순으로 나타남

〈요약 표 26〉 하루 흡연량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5개 미만	5개 이상 ~ 10개 미만	10개 이상 ~ 15개 미만	15개 이상	평균(개배)
전체	(517)	0.6	6.0	33.1	60.3	14.9

- 24시간 이상 금연을 시도한 적이 있는지 살펴본 결과, '시도한 적이 없다'는 응답이 69.1%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1~3회'(21.1%), '항상 시도'(5.4%), '4회 이상'(4.4%) 순으로 나타남

〈요약 표 27〉 24시간 이상 금연 시도 횟수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시도한 적이 없다	1~3회	4회 이상	항상 시도한다
전체	(517)	69.1	21.1	4.4	5.4

2) 운동을 하면 안되는 이유 존재 여부 및 운동 횟수

- 운동을 하면 안되는 이유가 존재하는지 살펴본 결과 95.4%의 응답자가 '운동을 하면 안되는 이유가 없다'고 응답함

〈요약 표 28〉 운동을 하면 안되는 이유 존재 여부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예	아니오
전체	(2,200)	4.6	95.4

- 격렬한 강도의 운동 횟수를 물어본 결과, '0회'(63.8%)가 가장 높았고, '1~3회'(30.7%), '4~6회'(4.8%), '7회 이상'(0.7%) 순으로 나타남
- 중간 강도의 운동 횟수를 물어본 결과, '0회'(50.5%)가 가장 높았고, '1~3회'(43.4%), '4~6회'(5.4%), '7회 이상'(0.7%) 순으로 나타남
- 약한 강도의 운동 횟수를 물어본 결과, '1~3회'(49.5%)가 가장 높았고, '0회'(35.6%), '4~6회'(12.6%), '7회 이상'(2.2%) 순으로 나타남

〈요약 표 29〉 격렬한 강도 운동 횟수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0회	1~3회	4~6회	7회 이상
격렬한 강도	(2,098)	63.8	30.7	4.8	0.7
중간 강도	(2,098)	50.5	43.4	5.4	0.7
약한 강도	(2,098)	35.6	49.5	12.6	2.2

### 3) 식생활 습관

- 식생활 습관 개선 노력에 대해 살펴본 결과, '관리를 하고 있다'는 응답이 25.9%로 나타난 반면, '관리하지 않음'은 36.3%, '보통'은 37.8%로 나타남

〈요약 표 30〉 식생활 습관 개선 노력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매우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어느 정도 관리하고 있는 편이다	보통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다	별로 관리하지 않는 편이다	전혀 관리하지 않고 있다
전체	(2,200)	2.0	23.9	37.8	26.7	9.5

- 식생활 습관을 관리하는 이유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식생활 습관을 관리하는 이유가 있다는 응답이 45.5%, 이유가 없다는 응답이 54.5%로 나타남

〈요약 표 31〉 식생활 습관 관리하는 이유 존재 여부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예	아니오
전체	(44)	45.5	54.5

- 구체적 목표로 식단관리를 시도한 횟수를 물어본 결과, '시도한 적이 없다'는 응답이 68.7%로 가장 많았고, '1~3회'(21.2%), '항상 시도한다'(6.2%), '4~6회'(3.9%) 순으로 나타났음

〈요약 표 32〉 구체적 목표로 식단관리 시도 횟수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시도한 적이 없다	1~3회	4~6회	항상 시도한다
전체	(2,200)	68.7	21.2	3.9	6.2

#### 4) 스트레스 관리

- 스트레스 관련 징후로 처방전 없는 의약품 복용 경험을 물어본 결과, '없다'는 응답이 68.5%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1~3회'(23.7%), '4회 이상'(6.1%), '항상'(1.6%) 순으로 나타남

〈요약 표 33〉 스트레스 관련 징후로 처방전 없는 의약품 복용 경험 횟수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없다	1~3회	4회 이상	항상
전체	(2,200)	68.5	23.7	6.1	1.6

- 스트레스를 관리하기 위한 치료활동을 시도한 적이 있는지 물어본 결과, '시도한 적이 없다'는 응답이 83.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1~3회'(10.1%), '4회 이상'(3.2%), '항상 시도한다'(2.9%) 순으로 나타남

〈요약 표 34〉 스트레스 관리 위한 치료활동 시도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시도한 적이 없다	1~3회	4회 이상	항상 시도한다
전체	(692)	83.8	10.1	3.2	2.9

5) 음주

- 음주 횟수를 물어본 결과, '한 달에 2~4번 이하'라는 응답이 38.0%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한 달에 1번 이하'가 21.5%, '전혀 안 마신다'가 19.8% 등의 순으로 나타남

〈요약 표 35〉 음주 횟수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전혀 안 마신다	한 달에 1번 이하	한 달에 2~4번	일주일당 2~3번	일주일당 4번 이상
전체	(2,200)	19.8	21.5	38.0	18.4	2.3

- 1회 음주 시 주량을 물어본 결과 '3~4잔'이 30.3%로 가장 높았고, '5~6잔'이 28.4%, '1~2잔'이 17.7%, '7~9잔'이 15.9%, '10잔 이상'이 7.7% 순으로 나타남

〈요약 표 36〉 1회 음주 시 주량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1~2잔	3~4잔	5~6잔	7~9잔	10잔 이상
전체	(1,765)	17.7	30.3	28.4	15.9	7.7

- 지난 1년간 음주 때문에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 물어본 결과, '전혀 없다'는 응답이 83.9%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한 달에 1번 이하'(14.3%), '한 달에 2~4번'(1.6%) 등의 순으로 나타남

〈요약 표 37〉 지난 1년간 음주 때문에 일상생활 지장을 받은 경험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전혀 없다	한 달에 1번 이하	한 달에 2~4번	일주일당 2~3번	일주일당 4번 이상
전체	(1,765)	83.9	14.3	1.6	0.1	0.2

- 생애에 금주 혹은 절주 시도한 경험이 있는지 물어본 결과, '시도한 적이 없다'는 응답이 89.7%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1~3회'(6.8%), '4회 이상'(2.0%) 등의 순으로 나타남

〈요약 표 38〉 생애에 금주 혹은 절주 시도한 경험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시도한 적이 없다	1~3회	4회 이상	항상 시도한다
전체	(1,765)	89.7	6.8	2.0	1.4

## 6) 체중감량

- 체중감량 시도 횟수에 대해 물어본 결과, '시도한 적이 없다'는 응답이 50.1%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1~3회'(23.9%), '항상 시도한다'(16.4%), '4회 이상'(9.6%) 등의 순으로 나타남

〈요약 표 39〉 생애동안 체중감량 시도 횟수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시도한 적이 없다	1~3회	4회 이상	항상 시도한다
전체	(2,200)	50.1	23.9	9.6	16.4

## 2. 생활습관 변화를 위한 실천 계획

- 생활습관 변화를 위해 금연할 계획이 있는지 살펴본 결과, '6개월 이내에는 없다'는 응답이 78.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30일 이내에는 아니지만 6개월 이내에는 있다'(13.1%), '이미 실천하고 있으나 6개월이 지나지 않았다'(4.8%) 등의 순으로 참여 경험이 있었음
- 운동횟수를 늘릴 계획이 있는지 물어본 결과, '6개월 이내에는 없다'는 응답이 54.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30일 이내에는 아니지만 6개월 이내에는 있다'(21.9%), '이미 6개월 이상 동안 실천하고 있다'(11.1%) 등의 순으로 실천 경험이 있었음
- 생활습관 변화를 위해 식단관리 강화 계획이 있는지 살펴본 결과, '6개월 이내에는 없다'는 응답이 67.9%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30일 이내에는 아니지만 6개월 이내에는 있다'(17.8%), '30일 이내에는 있다'(6.1%)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생활습관 변화를 위해 스트레스 관리 횟수를 늘릴 계획이 있는지 물어본 결과, '6개월 이내에는 없다'는 응답이 73.7%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30일 이내에는 아니지만 6개월 이내에는 있다'(14.8%), '30일 이내에 있다'(7.2%)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생활습관 변화를 위해 금주 혹은 절주 계획이 있는지 물어본 결과, '6개월 이내에는 없다'는 응답이 79.0%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30일 이내에는 아니지만 6개월 이내에는 있다'(12.0%), '이미 6개월 이상 동안 실천하고 있다'(5.3%)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생활습관 변화를 위해 비만관리를 할 계획이 있는지 물어본 결과, '6개월 이내에

는 없다'는 응답이 69.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30일 이내에는 아니지만 6개월 이내에는 있다'(16.8%), '30일 이내에 있다'(5.9%) 등의 순으로 나타남

〈요약 표 40〉 생활습관 변화를 위한 실천 계획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6개월 이내에는 없다	30일 이내에는 아니지만 6개월 이내에는 있다	30일 이내에 있다	이미 실천하고 있으나 6개월이 지나지 않았다	이미 6개월 이상 동안 실천하고 있다
금연	(2,200)	78.8	13.1	2.1	4.8	1.2
운동 횟수 늘리기	(567)	54.5	21.9	8.0	4.4	11.1
식단관리 강화	(2,200)	67.9	17.8	6.1	3.8	4.5
스트레스 관리횟수 늘리기	(2,200)	73.7	14.8	7.2	2.8	1.5
금주 혹은 절주	(2,200)	79.0	12.0	2.6	1.1	5.3
비만관리	(2,200)	69.3	16.8	5.9	2.6	5.4

### 3. 보험회사의 생활습관 개선 도움(상담, 문자 등) 및 생활습관 개선 프로그램 인센티브 실천 계획 여부

- 금연 분야 보험회사의 생활습관 개선 도움(상담, 문자알림, 개인용 건강관리기기 이용 서비스 등) 및 자율적 개선 행동에 대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면 실천할 계획이 있는지 살펴본 결과, '6개월 이내에는 없다'는 응답이 53.6%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30일 이내에는 아니지만 6개월 이내에는 있다'(31.0%), '30일 이내에 있다'(11.8%)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운동 횟수 늘리기 분야 보험회사의 생활습관 개선 도움(상담, 문자알림, 개인용 건강관리기기 이용 서비스 등) 및 자율적 개선 행동에 대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면 실천할 계획이 있는지 살펴본 결과, '6개월 이내에는 없다'는 응답이 40.2%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30일 이내에는 아니지만 6개월 이내에는 있다'(29.9%),

‘30일 이내에 있다’(17.6%)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식단관리 강화 분야 보험회사의 생활습관 개선 도움(상담, 문자알림, 개인용 건강관리기기 이용 서비스 등) 및 자율적 개선 행동에 대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면 실천할 계획이 있는지 살펴본 결과, ‘6개월 이내에는 없다’는 응답이 48.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30일 이내에는 아니지만 6개월 이내에는 있다’(26.3%), ‘30일 이내에 있다’(17.0%)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스트레스 관리 분야 보험회사의 생활습관 개선 도움(상담, 문자알림, 개인용 건강관리기기 이용 서비스 등) 및 자율적 개선 행동에 대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면 실천할 계획이 있는지 살펴본 결과, ‘6개월 이내에는 없다’는 응답이 53.9%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30일 이내에는 아니지만 6개월 이내에는 있다’(25.2%), ‘30일 이내에 있다’(16.0%)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금주 혹은 절주 분야 보험회사의 생활습관 개선 도움(상담, 문자알림, 개인용 건강관리기기 이용 서비스 등) 및 자율적 개선 행동에 대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면 실천할 계획이 있는지 살펴본 결과, ‘6개월 이내에는 없다’는 응답이 61.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30일 이내에는 아니지만 6개월 이내에는 있다’(23.6%), ‘30일 이내에 있다’(9.9%)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비만관리 분야 보험회사의 생활습관 개선 도움(상담, 문자알림, 개인용 건강관리기기 이용 서비스 등) 및 자율적 개선 행동에 대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면 실천할 계획이 있는지 살펴본 결과, ‘6개월 이내에는 없다’는 응답이 55.2%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30일 이내에는 아니지만 6개월 이내에는 있다’(23.7%), ‘30일 이내에 있다’(14.6%) 등의 순으로 나타남

〈요약 표 41〉 자율적 행동 인센티브 제공 시 실천 계획 여부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6개월 이내에는 없다	30일 이내에는 아니지만 6개월 이내에는 있다	30일 이내에 있다	즉시 참여 하겠다
금연	(567)	53.6	31.0	11.8	3.5
운동횟수 늘리기	(2,200)	40.2	29.9	17.6	12.3
식단관리 강화	(2,200)	48.3	26.3	17.0	8.4
스트레스 관리횟수 늘리기	(2,200)	53.9	25.2	16.0	4.9
금주 혹은 절주	(2,200)	61.5	23.6	9.9	4.9
비만관리	(2,200)	55.2	23.7	14.6	6.5

#### 4. 생활습관 개선 실천 시 인센티브 제공 보험 가입 의향

- 생활습관 개선 실천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보험상품에 가입할 의향이 있는지 물어본 결과, ‘기존 상품과 차이 없다’는 응답이 53.8%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기존 상품보다 가입 의향 강하다’(28.6%), ‘기존 상품보다 가입 의향 약함’(17.6%) 순으로 참여 의향이 나타남

〈요약 표 42〉 생활습관 개선 실천 시 인센티브 제공 보험 가입 의향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기존 상품보다 가입 의향 약함	기존 상품과 차이 없음	기존 상품보다 가입 의향 강함
전체	(2,200)	17.6	53.8	28.6

## 마. 노후생활 준비 실태

### 1. 현재 건강상태

- 현재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한 평가를 물어본 결과, ‘건강하다’(매우 건강함 + 건강함)는 응답이 77.9%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보통이다’(19.3%), ‘건강하지 않다’(전혀 건강하지 않음 + 건강하지 않음, 2.7%) 순으로 나타남

〈요약 표 43〉 건강상태 평가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매우 건강함	건강함	보통	건강하지 않음	전혀 건강하지 않음
전체	(2,200)	17.5	60.4	19.3	2.6	0.1

### 2. 노후 준비 여부

- 은퇴 후 생활을 위해 경제적으로 노후를 대비하고 있는지 물어본 결과, ‘준비하고 있다’는 응답은 61.0%로, ‘준비하고 있지 않다’(39.0%)는 응답에 비해 높았음
-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가입하고 있는 상품(또는 활동)으로는 ‘공적연금’(52.6%)을 가입하고 있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은행예금’(18.6%), ‘연금저축’(13.6%), ‘부동산’(7.3%) 등의 순으로 나타남

〈요약 표 44〉 노후대비 상품 유형(1순위)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공적연금 (국민연금 등)	은행 예금	연금저축 (은행, 증권, 보험)	부동산	퇴직연금 · 퇴직금	보험 (연금저축 제외)	주식 및 채권	일반 펀드 (연금펀드 제외)
전체	(1,342)	52.6	18.6	13.6	7.3	4.8	2.2	0.7	0.2

- 노후대책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안)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를 물어본 결과, ‘생활비, 교육비, 의료비 등 시급하게 돈 쓸 데가 많기 때문에’라는 응답이 36.4%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소득이 너무 낮아서’(30.3%), ‘관심이 부족해서’(13.2%) 등의 순으로 나타남

〈요약 표 45〉 노후대책을 준비하지 못(안)하는 이유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더 시급하게 돈 쓸 곳 많음	소득 너무 낮음	관심 부족	인식·정보 부족해서	주택 마련 및 부채 상환을 위해	투자 또는 사업 실패로 자금 부족	공적연금 충분	아직 수입 없음
전체	(858)	36.4	30.3	13.2	11.2	5.6	1.6	1.0	0.7

### 3. 노후 대비 생활자금 마련 적합 노후 소득원 필요성

- 노후 대비 생활자금 마련을 위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노후 소득원 중 본인이 준비한 노후생활자금(적금, 연금, 각종 투자수익 등)이 필요한지 물어본 결과, ‘필요하다’는 응답은 98.2%로, ‘불필요’(1.8%)하다는 응답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남
- 재취업을 통한 소득활동이 필요한지 물어본 결과, ‘필요하다’는 응답은 78.5%로, ‘불필요’(21.5%)하다는 응답에 비해 높게 나타남
- 자식의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지 물어본 결과, ‘필요하다’는 응답은 24.0%로, ‘불필요’(76.0%)하다는 응답에 비해 낮게 나타남
- 기타소득이 필요한지 물어본 결과, ‘필요하다’는 응답은 38.1%로, ‘불필요’(61.9%)하다는 응답에 비해 낮게 나타남

〈요약 표 46〉 노후 대비 생활자금 마련 적합 노후 소득원 필요성:  
본인이 준비한 노후생활자금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필요	불필요
본인이 준비한 노후생활자금	(2,200)	98.2	1.8
재취업 소득활동	(2,200)	78.5	21.5
자식의 경제적 지원	(2,200)	24.0	76.0
기타소득	(2,200)	38.1	61.9

#### 4. 노후 대비 생활자금 마련 적합 노후 소득원 예상금액

- 노후 대비 생활자금으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소득원 중 본인이 준비한 노후생활자금(적금, 연금, 각종 투자수익 등)의 월별 예상소득액을 물어본 결과, '100만 원 이상 ~ 200만 원 미만'이라는 응답이 51.8%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재취업을 통한 소득활동의 월별 예상소득액을 물어본 결과, '100만 원 이상 ~ 200만 원 미만'이라는 응답이 62.6%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자식의 경제적 지원의 월별 예상소득액을 물어본 결과, '50만 원 미만'이라는 응답이 62.6%로 가장 높게 나타남
- 기타소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월별 예상소득액을 물어본 결과, '50만 원 이상 ~ 100만 원 미만'이라는 응답이 38.2%로 가장 높게 나타남

〈요약 표 47〉 노후 대비 생활자금 마련 적합 노후 소득원 예상금액:  
본인이 준비한 노후생활자금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50만 원 미만	50만 원 이상 ~ 100만 원 미만	100만 원 이상 ~ 200만 원 미만	200만 원 이상	평균(원)
본인이 준비한 노후생활자금	(2160)	5.9	18.8	51.8	23.5	1,325,759
재취업 소득활동	(1,727)	3.6	28.8	62.6	5.0	1,043,370
자식의 경제적 지원	(529)	62.6	32.7	3.2	1.5	419,357
기타소득	(838)	32.8	38.2	23.5	5.5	670,131

## 바. 연금 가입 상태 및 가입 니즈

### 1. 연금 가입 실태

■ 개인연금의 가입률은 28.7%로 비가입(71.3%)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요약 표 48〉 개인연금 가입 여부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가입	비가입
전체	(2,200)	28.7	71.3

■ 개인연금 현재 가입 상태는 ‘납입 중’(80.0%)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납입완료 (연금대기 중)’(19.0%), ‘연금수령’(3.0%) 순으로 나타남

〈요약 표 49〉 개인연금 현재 가입 상태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납입 중	납입완료 (연금대기 중)	연금수령
전체	(631)	80.0	19.0	3.0

- 개인연금의 수령 방법은 ‘연금수령’(79.0%), ‘연금 + 일시금’(18.6%), ‘일시금’(2.3%) 순으로 나타남

〈요약 표 50〉 개인연금 수령 방법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연금수령	연금 + 일시금	일시금
전체	(644)	79.0	18.6	2.3

- 개인연금 가입 금융회사에 대해서 물어본 결과, 생명보험회사(농협생명 포함)가 86.5%로 가장 높게 나타남

〈요약 표 51〉 개인연금 가입 금융회사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생명 보험회사	손해 보험회사	은행	증권회사	우체국 또는 새마을금고	잘 모름
전체	(644)	86.5	5.4	3.7	2.6	1.4	0.3

- 개인연금의 가입 만족도에 대해서 살펴본 결과, 만족(69.6%), 보통(27.5%), 불만족(3.0%) 순으로 나타남

〈요약 표 52〉 개인연금 가입 만족도

(단위: %, 점, 5점 척도)

특성별	사례 수	매우 불만족	불만족 하는 편	보통	만족 하는 편	매우 만족	평균(점)
전체	(644)	0.5	2.5	27.5	64.0	5.6	3.72

- 개인연금 불만족 이유(1순위)로는 ‘수익률이 낮아서’(52.6%), ‘예상보다 연금액이 적을 것 같아서’(26.3%) 등의 순으로 나타남

〈요약 표 53〉 개인연금 불만족 이유(1순위)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수익률이 낮아서	예상보다 연금액이 적을 것 같아서	수수료가 높아서	개인연금 계약이전 절차, 계약장기유지 방법에 대한 안내가 부족해서
전체	(19)	52.6	26.3	10.5	10.5

- 향후 개인연금 가입 의향을 물어본 결과, '있다'는 응답이 23.6%로 '없다'(76.4%)에 비해 낮게 나타남

〈요약 표 54〉 향후 개인연금 가입 의향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있다	없다
전체	(1,569)	23.6	76.4

## 2. 주식 및 펀드 금융상품 투자

- 주식 및 펀드 등의 금융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지 살펴본 결과, '있다'(26.9%)가 '없다'(73.1%)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남

〈요약 표 55〉 주식 및 펀드 금융상품 투자 경험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있다	없다
전체	(2,200)	26.9	73.1

- 금융상품 총 투자 금액에 대해서 살펴본 결과, '5천만 원 미만'(81.6%), '1억 원 미만'(15.9%) 등의 순으로 나타남
  - '5천만 원 미만'은 20대(97.4%), 30대(94.5%)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요약 표 56〉 금융상품 총 투자 금액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5천만 원 미만	1억 원 미만	1.5억 미만	3억 원 미만	3억 원 이상
전체	(591)	81.6	15.9	1.5	0.5	0.5

- 평소 금융상품 투자성향을 살펴본 결과, ‘안전자산 70%, 위험자산 30%’(39.8%), ‘안전자산 50%, 위험자산 50%’(35.0%), ‘안전자산 90%, 위험자산 10%’(15.7%) 등의 순으로 나타남

〈요약 표 57〉 금융상품 투자성향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안전자산 90% 위험자산 10%	안전자산 70% 위험자산 30%	안전자산 50% 위험자산 50%	안전자산 30% 위험자산 70%	안전자산 10% 위험자산 90%
전체	(591)	15.7	39.8	35.0	9.1	0.3

- 향후 노후대비 생활자금 마련을 위한 연금상품 적립금 운용 방식을 살펴본 결과, ‘안전자산 70%, 위험자산 30%’(37.4%), ‘안전자산 90%, 위험자산 10%’(36.5%), ‘안전자산 50%, 위험자산 50%’(22.2%) 등의 순으로 나타남

〈요약 표 58〉 연금상품 적립금 운용 방식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안전자산 90% 위험자산 10%	안전자산 70% 위험자산 30%	안전자산 50% 위험자산 50%	안전자산 30% 위험자산 70%	안전자산 10% 위험자산 90%
전체	(2,200)	36.5	37.4	22.2	3.9	0.1

- 노후대비 생활자금 마련을 위한 투자성향을 살펴본 결과, ‘안전투자형’이 43.3%로 가장 높았고, ‘중립투자형’(30.0%), ‘투자하고 있지 않음’(19.0%), ‘공격투자형’(7.7%) 순으로 나타남

〈요약 표 59〉 노후대비 생활자금 마련 위한 투자 성향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안전투자형	중립투자형	공격투자형	투자하고 있지 않음
전체	(2,200)	43.3	30.0	7.7	19.0

- 주택연금을 사용할 의향이 있는지 살펴본 결과, ‘향후에 가입할 의향이 있음’(46.3%), ‘향후에 가입할 의향이 없음’(45.3%) 등의 순으로 나타남

〈요약 표 60〉 주택연금 사용 의향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향후에 가입할 의향이 있음	향후에 가입할 의향이 없음	현재 가입하고 있음	해당 없음
전체	(2,200)	46.3	45.3	1.8	6.5

- 주택연금을 사용할 의향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본 결과, ‘주택을 담보로 할 경우 제 값을 받지 못할 것 같아서’가 29.2%로 가장 높았고, ‘주택연금이 아직 정착되어 있지 않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27.3%), ‘주택을 자녀들에게 상속하기 위해서’(16.6%), ‘노후생활비용을 줄이면 주택연금을 이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11.0%) 등의 순으로 나타남

〈요약 표 61〉 주택연금 사용 의향 없을 시 이유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주택을 담보로 할 경우 제 값을 받지 못할 것 같아서	주택연금이 아직 정착되어 있지 않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주택을 자녀들에게 상속하기 위해서	노후생활비용을 줄이면 주택연금을 이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현재준비 상태로 노후소득 마련이 가능하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가 좋아질 것 같아서
전체	(997)	29.2	27.3	16.6	11.0	10.0	5.8

-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가입되어 있는지 살펴본 결과, ‘예’(7.4%), ‘아니오’(92.6%)로 대부분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가입되어 있지 않음

〈요약 표 62〉 개인형 IRP 가입 여부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예	아니오
전체	(2,200)	7.4	92.6

-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가입할 의향이 있는지 살펴본 결과, ‘예’(14.8%), ‘아니오’(85.2%)로 가입 의향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남

〈요약 표 63〉 개인형 IRP 가입 의향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예	아니오
전체	(2,037)	14.8	85.2

## 사. 퇴직연금 연금수령 선호도

- 가입되어 있는 퇴직연금의 유형을 살펴본 결과, ‘없음’이 60.1%로 가장 많았고, ‘DC형’(27.0%), ‘DB형’(8.9%), ‘IRP’(7.4%) 순으로 나타남

〈요약 표 64〉 가입되어 있는 퇴직연금(복수응답)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DC형	DB형	IRP	없음
전체	(2,200)	27.0	8.9	7.4	60.1

- 은퇴시점이 다가왔을 때, 연금 또는 일시금 중 한 가지만 선택 가능하다면 어느 것을 선택할지 살펴본 결과, 연금(80.5%), 일시금(19.5%) 순으로 나타남

〈요약 표 65〉 연금 또는 일시금 중 선택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연금	일시금
전체	(2,200)	80.5	19.5

- 연금을 선택했을 경우, 선호하는 연금수령 기간을 살펴본 결과, 종신이 62.2%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30년(22.1%), 20년(12.4%) 등의 순으로 나타남

〈요약 표 66〉 선호하는 연금수령 기간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5년	10년	20년	30년	종신
전체	(1,771)	0.3	3.0	12.4	22.1	62.2

## 아. 연성보험사기 관련

- 가벼운 접촉사고 이후에 병원에 입원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임에도 병원에 하루나 이틀 정도 병원에 입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살펴본 결과, ‘아니오’(68.0%)가 ‘예’(32.0%)에 2배 이상 비해 높게 나타남

〈요약 표 67〉 연성보험사기 처벌 동의 여부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예	아니오 (보험사기범으로 처벌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전체	(2,200)	32.0	68.0

- 가벼운 교통사고 이후 불필요하게 오래 병원에 머무르는 연성보험사기를 목격한 적이 있는지 살펴본 결과, ‘예’라는 응답이 53.5%, ‘아니오’라는 응답이 46.5%로 나왔음

〈요약 표 68〉 주변의 연성보험사기 목격 여부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예	아니오
전체	(2,200)	53.5	46.5

- ‘정직하게 작성하겠다’는 서약이 청구서의 맨 앞에 있을 때와 맨 뒤에 있을 때 청구서 작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본 결과, ‘맨 앞에 있는 경우에 사람들이 더 정직하게 작성할 가능성이 높다’가 51.2%, ‘두 경우에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가 48.8%로 나타남

〈요약 표 69〉 정직서약의 위치가 연성보험사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견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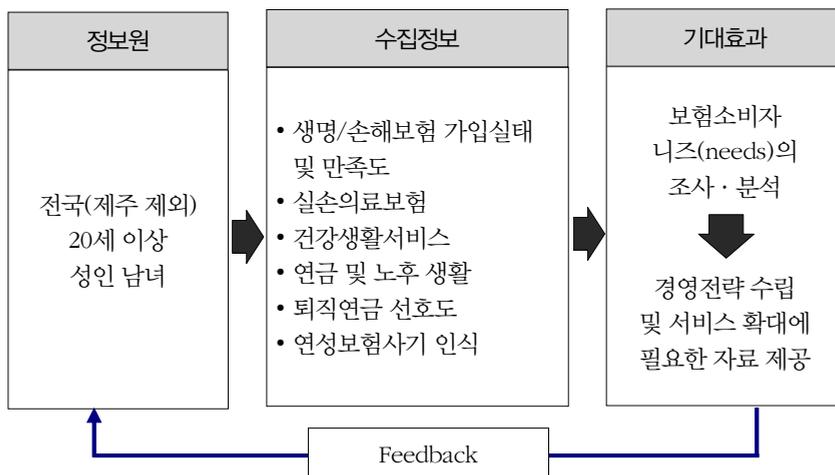
특성별	사례 수	맨 앞에 있는 경우에 더 정직하게 작성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두 경우에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전체	(2,200)	51.2	48.8

# I. 조사의 개요

## 1. 조사의 목적

- 보험소비자의 보험수요 변화 추세 조사를 통해 보험회사의 상품 개발, 마케팅 전략 수립, 보험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확대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 기본적인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가입 실태 및 가입경로 등을 조사함
  - 또한, 최근 관심이 확대되고 있는 보험산업과 관련한 주요 이슈에 대한 설문조사도 실시함
    - 주요 이슈로는 실손의료보험, 건강생활서비스, 연금 및 노후 생활, 보험사기 관련 인식 등이 포함됨

〈그림 1-1〉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목적 및 기대효과



## 2. 주요 조사항목

- 생명/손해보험 가입실태 및 가입경로, 만족도(가구당/개인별)
  - 생명/손해보험 가입률(가구당/개인별)
  - 생명/손해보험 상품종류별 가입률 및 가입건수(가구당/개인별)
  - 생명/손해보험 상품종류별 가입경로 및 가입 이유(개인별)
  - 가입한 생명/손해보험회사 및 상품 만족도(개인별)
  - 가입한 생명/자동차보험회사 제공서비스 만족도(개인별)
  - 보험금 지급 항목(가구당)
  
- 향후 생명/손해보험 가입 의향 및 선호 가입경로
  - 가입한 보험회사 변경 의향(생명/자동차보험)
  - 향후 1년 내 가입 의향(생명/손해보험)
  - 향후 1년 내 선호 가입경로 및 가입 이유(생명/손해보험)
  - 보험회사 선택 시 고려요인(생명/손해보험)
  
- 실손의료보험
  - 현재 건강상태
  - 가입한 국민건강보험 종류
  - 실손의료보험 가입 여부
  - 실손의료보험 유형과 종류
  - 실손의료보험 계약 기간
  - 실손의료보험 가입 경로
  - 가입한 실손의료보험 비급여의료비율
  - 실손의료보험 가입하지 않는 이유/해지한 이유
  - 향후 실손의료보험 가입 의향

**■ 건강생활서비스**

- 일평균 흡연량/주평균 음주량
- 정기적인 운동 여부 및 운동 시간
- 생활습관 변화 의지 및 체험 의향
- 건강 식단관리 유형
- 건강 관리프로그램 이용 평가
- 건강 관리프로그램 이용 의향

**■ 노후생활 및 노후준비 상태**

- 현재의 건강상태
- 노후 준비 유형
- 노후 소득원 종류와 예상 규모

**■ 연금 가입 상태 및 니즈**

- 연금제도의 가입여부/가입자/만족도/납입액/금융회사/가입기간
- 향후 퇴직연금 가입 여부
- 퇴직연금제도의 선호방식
- 개인연금 가입 유형, 만족도, 불만족 이유
- 퇴직연금 수령 정보

**■ 연성보험사기 관련 인식**

### 3. 조사방법

#### ■ 조사대상

- 전국(제주 제외) 만 20세 이상 성인 남녀

#### ■ 표본 크기

- 총 2,200명(유효표본)

#### ■ 자료수집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가정 방문 일대일 개별 면접

#### ■ 표본 추출방법

- 거주 지역별, 성별, 연령별 인구 구성비에 따른 비례 할당 추출법  
※ 행정자치부, 2017년 5월 주민등록인구통계현황 기준

#### ■ 최대 허용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pm 2.09\%$

#### ■ 조사기간

- 2017년 6월 20일 ~ 2017년 7월 24일(약 1개월)

#### ■ 조사기관

- (주)코리아리서치센터

## 4. 표본의 특성

■ 본 조사에서 나타난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음

〈표 1-1〉 표본의 특성

구분		사례 수(명)	비율(%)
전체		(2,200)	100.0
성별	남성	(1,092)	49.6
	여성	(1,108)	50.4
응답자 연령별	20대	(357)	16.2
	30대	(393)	17.9
	40대	(461)	21.0
	50대	(446)	20.3
	60대 이상	(543)	24.7
지역 규모별	대도시	(1,006)	45.7
	중·소도시	(1,007)	45.8
	군지역	(187)	8.5
응답자 직업별	화이트칼라	(580)	26.4
	블루칼라	(611)	27.8
	농/임/어업	(95)	4.3
	자영업	(396)	18.0
	주부	(409)	18.6
	은퇴자	(19)	0.9
	학생	(59)	2.7
응답자 교육수준별	무직/기타	(31)	1.4
	중졸 이하	(196)	8.9
	고졸	(1,057)	48.0
	대재 이상	(946)	43.0
가구연간 소득 수준별	모름/무응답	(1)	0.0
	저소득(3,000만 원 미만)	(406)	18.5
	중소득(3,000~6,000만 원 미만)	(1,226)	55.7
	고소득(6,000만 원 이상)	(568)	25.8

주: 응답자 직업별 분석에서 농/임/어업자, 세대주 직업별 분석에서 농/임/어업자와 같이 30표본 이하의 경우 분석결과의 활용 시 신뢰성이 떨어지므로, 이를 유의하여야 함

## 5. 구분 기준

### ■ 직업분류

- 화이트칼라: 경영/관리, 전문/자유직, 사무/기술직
- 블루칼라: 판매/서비스직, 생산/기능직, 단순노무
- 자영업: 자영업
- 농/림/수산업: 농/림/수산업
- 주부: 주부
- 은퇴자: 은퇴자

### ■ 보험회사 그룹 구분

- 생명보험회사
  - 대형사: 한화생명(구 대한생명), 삼성생명, 교보생명(3개사)
  - 국내 중·소형사: 흥국생명, 현대라이프(구 녹십자생명), 신한생명, 동부생명, DGB생명(구 우리아비바생명, LIG생명), KDB생명, 미래에셋생명, 하나생명(구 하나HSBC), ING생명, KB생명,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 IBK연금보험, NH농협생명(13개사)
  - 외국사: 알리안츠생명, 동양생명, 메트라이프생명, PCA생명, 처브라이프(구 ACE생명, 뉴욕생명), BNP파리바카디프생명, AIA생명, 라이나생명, 푸르덴셜생명(9개사)
  - 공제/기타: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 기타 공제, 기타
- 손해보험회사
  - 대형사: 삼성화재, 현대해상(현대하이카다이렉트 포함), KB손해보험, 동부화재(4개사)
  - 중·소형사: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MG손해보험, 흥국화재, AIG손해보험(구 차티스), 에이스화재, NH농협손해보험(8개사)

- 직판: AXA손해보험, 더케이손해보험, BNP파리바카디프손해보험(3개사)
- 공제/기타: 우체국 등 기타 공제, 기타

#### ■ 판매채널 분류

- 대면: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대형법인대리점(GA) 등 전통채널
- 직판: 보험회사 인터넷 사이트, 통신판매(전화/우편/카드)
- 은행: 은행, 증권회사 등
- 기타: 보험회사 임직원, TV 홈쇼핑 채널, 대형 할인점 등

---

## Ⅱ. 생명보험

---

### 1. 생명보험 가입 현황

#### 가. 생명보험 가구 가입 현황

##### 1) 조사 결과 및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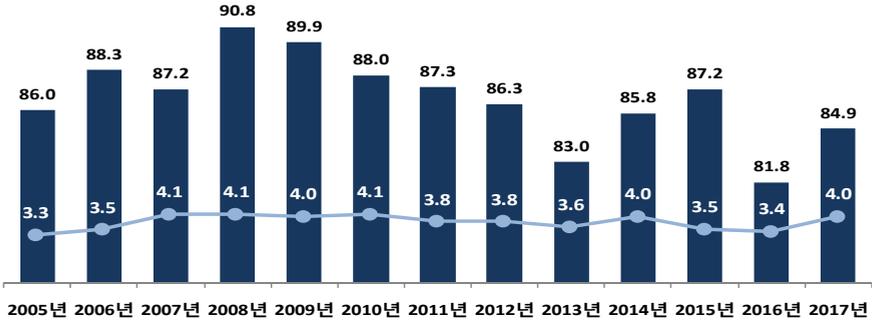
- 2017년 생명보험 가구 가입률은 84.9%로 2016년(81.8%) 대비 3.1%p 증가했으며, 가구 가입건수는 2016년(3.4건) 대비 소폭 상승한 4.0건으로 조사됨
- 2016년 하락하였던 생명보험 가구 가입률은 2017년 반등함

〈표 Ⅱ-1〉 생명보험 가구 가입률/가입건수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가구 가입률(%)	88.0	87.3	86.3	83.0	85.8	87.2	81.8	84.9
가구 가입건수(건)	4.1	3.8	3.8	3.6	4.0	3.5	3.4	4.0

〈그림 II-1〉 2017년 생명보험 가구 가입률/가입건수

(N=2,200 / 단위: 가입률-%, 가입건수-건)



## 2) 세부 분석

- 계층별로 살펴보면, 전년대비 생명보험 가구 가입률이 증가한 가운데 농/임/어업(41.5%p)과 저소득층(6.0%p)의 가입률 증가가 두드러짐
- 가구 가입건수는 고소득층이 전년대비 0.7건 증가하였으며, 계층별로는 농/임/어업(2.1건)의 가구 가입건수 증가가 상대적으로 컸음

〈표 II-2〉 생명보험 가구 가입률/가입건수: 직업 및 가구 소득별

(단위: 가입률-%, 가입건수-건)

구분	가구 가입률			가구 가입건수			
	2016년	2017년	2016년 대비 가입률(%p)	2016년	2017년	2016년 대비 가입건수(건)	
직업	화이트칼라	87.0	90.5	3.5	3.8	4.7	0.9
	블루칼라	83.0	82.7	-0.3	3.2	3.7	0.5
	자영업	79.7	61.1	-18.6	3.8	2.0	-1.8
	농/임/어업	48.1	89.6	41.5	2.0	4.1	2.1
	주부	83.5	84.8	1.3	3.4	3.9	0.5
	은퇴자	66.7	42.1	-24.6	1.8	1.3	-0.5
	학생	81.6	81.4	-0.2	4.0	4.3	0.3
	무직/기타	47.2	71.0	23.8	1.3	2.8	1.5
가구 소득	저소득	60.5	66.5	6.0	1.5	1.9	0.4
	중소득	85.4	87.2	1.8	3.4	3.8	0.4
	고소득	92.9	93.1	0.2	5.1	5.8	0.7

주: 은퇴자는 표본의 규모가 작아 통계적 의미가 낮음

■ 거주 지역별로 보면, 군지역 가구 가입률 증가폭이 컸음

○ 특히, 군지역 생명보험 가입률은 2016년(66.0%) 대비 11.0%p나 증가함

〈표 II-3〉 생명보험 가구 가입률/가입건수: 거주 지역별

(단위: 가입률-%, 가입건수-건)

구분	가입률			가입건수			
	2016년	2017년	2016년 대비 가입률(%p)	2016년	2017년	2016년 대비 가입건수(건)	
지역 규모	대도시	84.5	87.3	2.7	3.7	3.9	0.2
	중·소도시	81.9	84.0	2.1	3.3	4.2	0.9
	군지역	66.0	77.0	11.0	2.3	3.1	0.8

■ 생명보험 가구당 가입률: 보험 종목별

○ 질병보장보험 가구 가입률이 72.9%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실손의료보험 32.1%, 사망보험 27.5%, 재해상해보험 23.5%, 연금보험 20.8%, 어린이보험 11.5%, 변액보험 8.6%, 저축성 보험 8.3% 순으로 조사됨

○ 종목별 가구 가입건수도 질병보장보험이 2.3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실손보험 2.2건, 재해상해보험 1.9건, 어린이보험 1.6건, 간병, 사망보험 및 변액보험 각각 1.5건 등으로 나타남

○ 질병 및 생명 등의 위험 보장을 위한 상품의 가구 가입률이 높게 나타났고, 저축성 보험 상품의 가구 가입률이 상대적으로 낮았음

〈표 II-4〉 생명보험 가구 가입률/가입건수: 보험 종목별

(단위: 가입률-%, 가입건수-건)

구분	2017년 가구 가입률	2017년 가구 가입건수
실손의료보험	32.1	2.2
질병보장보험	72.9	2.3
재해상해보험	23.5	1.9
간병보험	3.0	1.5
사망보험	27.5	1.5
저축성 보험	8.3	1.2
연금보험	20.8	1.3
어린이보험	11.5	1.6
변액보험	8.6	1.5
비가입	15.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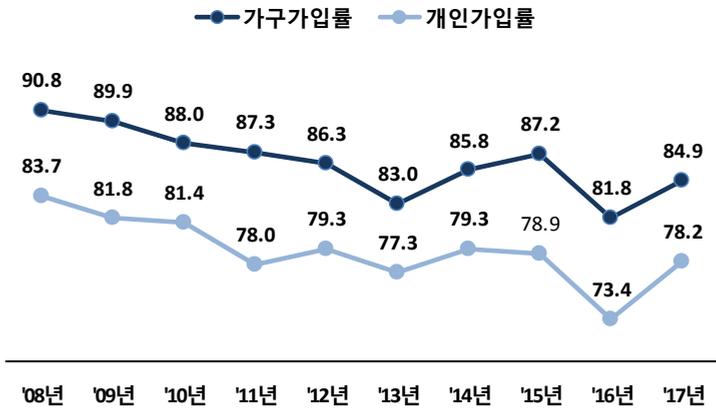
## 나. 생명보험 개인 가입 현황

### 1) 조사 결과 및 시사점

- 2017년 생명보험 개인 가입률은 78.2%로, 2016년(73.4%) 대비 4.8%p 증가함

〈그림 II-2〉 생명보험 가구 가입률과 개인 가입률

(N=2,200 /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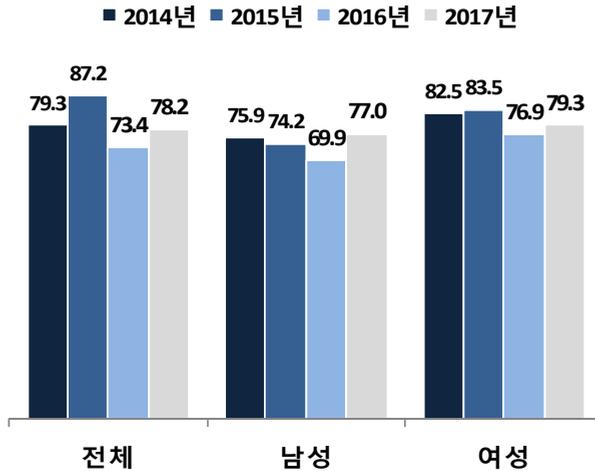
### 2) 세부 분석

- 생명보험 개인별 가입률: 성별

- 성별에 따른 생명보험 개인 가입률을 살펴보면, 여성이 79.3%, 남성이 77.0%로, 여전히 여성의 생명보험 개인 가입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다만, 여성과 남성 모두 개인 가입률이 전년대비 상승하였는데, 여성의 생명보험 개인 가입률은 전년도(76.9%) 대비 2.4%p, 남성의 개인 가입률은 전년도(69.9%) 대비 7.1%p 증가함

〈그림 II-3〉 생명보험 개인 가입률: 성별

(N=2,200 / 단위: %)



■ 생명보험 개인별 가입률: 결혼 여부별

- 기혼자 생명보험 개인 가입률(기혼 80.3% > 미혼 69.9%)과 개인 가입건수(기혼 1.7건 > 미혼 1.2건)는 모두 미혼자에 비해 높았음
- 2016년 조사결과 대비 기혼자 개인 가입률과 개인 가입건수가 증가하고, 미혼자 개인 가입률과 개인 가입건수 또한 소폭 증가함
  - 기혼자의 개인 가입률은 전년대비 5.2%p 증가하였으며, 미혼자 개인 가입률도 전년대비 2.7%p 증가함

〈표 II-5〉 생명보험 개인 가입률/가입건수: 결혼 여부별

(단위: 가입률-%, 가입건수-건)

구분		개인 가입률			개인 가입건수		
		2016년	2017년	2016년 대비 가입률 차이	2016년	2017년	2016년 대비 가입건수
결혼 여부	기혼	75.1	80.3	5.2	1.6	1.7	0.1
	미혼	67.2	69.9	2.7	1.1	1.2	0.1

- 기혼 여성의 생명보험 개인 가입률은 80.5%로 기혼 남성(80.1%)에 비하여 0.4%p 높았고, 미혼 여성 개인 가입률은 73.7%로 미혼 남성(67.0%)에 비해 6.7%p 높은 것으로 조사됨
- 남성과 여성 모두 기혼자(각각 80.1%, 80.5%)의 개인 가입률이 미혼자(각각 67.0%, 73.7%)의 개인 가입률보다 높게 나타남
- 개인 가입건수에서도 남성과 여성 모두 기혼자(각각 1.7건)의 개인 가입건수가 미혼자(각각 1.1건, 1.2건)보다 많았음

〈표 II-6〉 생명보험 개인별 가입률/가입건수: 성별, 결혼 여부별

구분	전체		남성		여성	
	기혼	미혼	기혼	미혼	기혼	미혼
개인 가입률(%)	80.3	69.9	77.0		79.3	
			80.1	67.0	80.5	73.7
개인 가입건수(건)	1.7	1.2	1.5		1.6	
			1.7	1.1	1.7	1.2

주: 가입건수는 생명보험 가입자들의 1인당 가입건수임

#### ■ 생명보험 개인별 가입률: 자녀 수별

- 기혼자 중 자녀가 있는 계층의 개인 가입률은 75%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녀가 없는 계층의 개인 가입률은 73.2%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자녀가 없는 계층의 개인 가입률은 전년대비 11.0%p나 증가하여 자녀가 있는 계층보다 증가세가 컸음
- 한편, 자녀가 있는 계층 가운데 자녀가 2명(82.8%)인 계층의 개인 가입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음

〈표 II-7〉 생명보험 개인별 가입률/가입건수: 자녀 수별

구분	없음	1명	2명	3명 이상
가입률(%)	73.2	77.6	82.8	79.5
가입건수(건)	1.4	1.6	1.7	1.5
2016년 대비 가입률(%p)	11.0	-0.5	4.5	9.5

■ 생명보험 개인별 가입률: 연령별

- 연령별로는 50대(87.9%), 40대(86.6%)의 개인 가입률이 80% 이상으로 높은 가운데, 개인 가입건수도 역시 해당 연령대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남(40·50대 각 1.9건)
- 30대의 생명보험 개인 가입률이 전년대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표 II-8〉 생명보험 개인별 가입률/가입건수: 연령별

구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가입률(%)	69.7	77.6	86.6	87.9	69.1
가입건수(건)	1.1	1.5	1.9	1.9	1.3
2016년 대비 가입률(%p)	7.3	-1.2	4.4	5.8	7.6

■ 생명보험 개인별 가입률: 거주 지역별

- 지역별 생명보험 개인 가입률은 대도시가 81.5%로 가장 높고, 중·소도시 76.7%, 군지역 68.4%의 순으로 나타남
- 개인 가입건수는 대도시가 1.6건, 중·소도시 1.6건, 군지역 1.2건으로 나타남

〈표 II-9〉 생명보험 개인별 가입률/가입건수: 거주 지역별

(단위: %)

구분	개인 가입률(%)	개인 가입건수(건)
대도시	81.5	1.6
중·소도시	76.7	1.6
군지역	68.4	1.2

### ■ 생명보험 개인별 가입률: 학력별

- 학력별 생명보험 개인 가입률과 개인 가입건수는 학력이 높을수록 높은 특징을 보임
  - 중졸 이하 생명보험 개인 가입률은 55.6%로 대재 이상 학력자보다 28.1%p 낮게 나타났으며, 개인 가입건수 역시 0.9건으로 대재 이상 학력자보다 0.8건 적게 나타남

〈표 II-10〉 생명보험 개인별 가입률/가입건수: 학력별

구분	개인 가입률(%)	개인 가입건수(건)
중졸 이하	55.6	0.9
고졸	77.5	1.6
대재 이상	83.7	1.7
모름/무응답	0.0	0.0

### ■ 생명보험 개인별 가입률: 직업별

- 직업별로는 자영업이 86.1%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화이트칼라(85.7%), 주부와 블루칼라(75.8%)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개인 가입건수는 화이트칼라가 1.8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자영업(1.7건), 주부(1.5건)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II-11〉 생명보험 개인별 가입률/가입건수: 직업별

구분	개인 가입률(%)	개인 가입건수(건)
화이트칼라	85.7	1.8
블루칼라	75.8	1.5
농/임/어업	53.7	0.9
자영업	86.1	1.7
주부	75.8	1.5
은퇴자	36.8	0.6
학생	57.6	0.9
무직/기타	54.8	1.0

주: 은퇴자는 표본의 규모가 작아 통계적 의미가 낮음

■ 생명보험 개인별 가입률: 가구 소득별

- 가구 소득별 생명보험 개인 가입률은 소득이 많을수록 가입률(저소득 62.6% < 중소득 79.4% < 고소득 86.8%)과 개인 가입건수(저소득 1.1건 < 중소득 1.5건 < 고소득 2.0건)가 모두 높게 나타남

〈표 II-12〉 생명보험 개인별 가입률/가입건수: 가구 소득별

구분	개인 가입률(%)	개인 가입건수(건)
저소득	62.6	1.1
중소득	79.4	1.5
고소득	86.8	2.0

- 연도별로 살펴보면, 특히 저소득 계층의 생명보험 개인 가입률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표 II-13〉 생명보험 개인별 가입률: 가구 소득별

(단위: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6년 대비 가입률(%p)
저소득	68.7	71.1	57.1	62.6	5.4
중소득	78.4	78.6	76.4	79.4	3.0
고소득	85.2	82.5	81.4	86.8	5.4

■ 생명보험 개인별 가입률: 종목별

- 종목별 생명보험 개인 가입률을 살펴보면, 질병보장보험 가입률이 63.4%로 가장 높았으며, 실손의료보험(26.5%) 등의 순임

〈표 II-14〉 생명보험 개인별 가입률: 종목별

(단위: 가입률-%)

특성별	사례 수	질병 보장 보험	실손 의료 보험	사망 보험	재해 상해 보험	연금 보험	변액 보험	저축 성 보험	간병 보험	어린이 보험	비 가입	
전체	(2,200)	63.4	26.5	18.7	15.7	12.4	5.0	4.2	1.9	1.5	15.1	
성별	남성	(1,092)	59.4	25.3	23.2	15.9	13.5	5.4	3.4	1.6	0.5	16.8
	여성	(1,108)	67.2	27.6	14.3	15.4	11.3	4.6	5.0	2.2	2.5	13.4
연령	20대	(357)	48.2	27.7	12.0	11.2	5.0	2.2	3.6	0.0	1.1	15.1
	30대	(393)	60.6	32.1	15.3	15.0	8.1	4.8	3.6	0.5	5.1	13.0
	40대	(461)	70.1	29.5	27.3	16.1	22.8	8.5	4.8	1.7	2.2	9.3
	50대	(446)	74.7	26.7	25.6	20.9	18.2	6.7	6.1	2.7	0.0	9.2
	60대 이상	(543)	60.4	18.8	12.5	14.5	6.6	2.6	2.9	3.7	0.0	26.3
지역 규모	대도시	(1,006)	66.0	25.2	18.1	10.9	14.4	5.2	5.5	1.3	2.1	12.7
	중·소도시	(1,007)	62.7	28.4	18.9	21.2	11.3	5.6	3.5	2.5	1.2	16.0
	군지역	(187)	52.9	22.5	20.9	11.8	7.0	1.1	1.1	2.1	0.5	23.0
직업	화이트칼라	(580)	64.8	33.6	27.8	17.6	17.8	6.9	5.2	0.7	1.0	9.5
	블루칼라	(611)	62.0	24.2	14.2	13.7	12.9	3.1	4.6	2.6	1.5	17.3
	농/임/어업	(95)	45.3	7.4	15.8	10.5	2.1	0.0	0.0	2.1	0.0	38.9
	자영업	(396)	71.5	29.0	25.0	17.4	12.6	6.6	2.0	2.5	0.8	10.4
	주부	(409)	67.2	22.7	10.3	16.6	9.0	5.6	6.1	1.7	3.4	15.2
	은퇴자	(19)	26.3	10.5	10.5	5.3	0.0	0.0	0.0	5.3	0.0	57.9
	학생	(59)	33.9	27.1	6.8	8.5	0.0	1.7	1.7	0.0	3.4	18.6
	무직/기타	(31)	41.9	19.4	3.2	19.4	3.2	3.2	0.0	6.5	0.0	29.0

〈표 II-15〉 생명보험 개인별 가입률: 종목별(계속)

(단위: 가입률-%)

특성별	사례 수	질병 보장 보험	실손 의료 보험	사망 보험	재해 상해 보험	연금 보험	변액 보험	저축 성 보험	간병 보험	어린이 보험	비 가입	
전체	(2,200)	63.4	26.5	18.7	15.7	12.4	5.0	4.2	1.9	1.5	15.1	
교육 수준	중졸 이하	(196)	49.0	12.2	7.7	12.2	1.0	0.0	1.0	2.0	0.0	40.3
	고졸	(1,057)	65.1	26.7	17.8	14.9	11.5	3.8	3.5	2.7	1.2	14.8
	대재 이상	(946)	64.5	29.2	22.0	17.3	15.6	7.4	5.6	1.0	2.2	10.1
	모름/무응답	(1)	0.0	0.0	0.0	0.0	0.0	0.0	0.0	0.0	0.0	100.0
가구 소득	저소득	(406)	10.8	18.5	9.4	10.8	4.9	0.7	2.2	3.0	0.2	37.4
	중소득	(1,226)	15.6	25.9	17.5	15.6	9.9	4.5	3.4	1.9	2.1	20.6
	고소득	(568)	19.4	33.3	28.0	19.4	23.1	9.2	7.2	1.2	1.2	13.2

주: 은퇴자는 표본 수가 적어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낮음

## 2. 생명보험 채널별 활용 분석

### 가. 생명보험 채널별 활용

#### 1) 조사 결과 및 시사점

- 2017년에도 생명보험 가입자 대부분이 대면채널(95.8%), 특히 보험설계사, 보험 회사 소속 대리점을 통해 생명보험을 많이 가입한 것으로 나타나 전통적 채널을 통한 보험가입이 주를 이루고 있음
  - 대면채널을 통한 생명보험 가입이 전체 95% 이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남
  - 직판채널을 통한 가입은 3.6%, 은행을 통한 가입은 2.4%로 나타남

〈표 II-16〉 생명보험 가입 채널별 구성비 추이

(단위: %)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대면	96.3	96.3	96.0	95.5	96.4	97.3	96.8	95.8
직판	1.6	2.1	2.6	2.4	1.9	1.6	2.7	3.6
은행	2.5	1.9	1.6	3.1	3.2	1.7	1.9	2.4
기타	-	-	-	-	-	-	2.0	2.8

주: 1) 상기 구성비는 설문조사 결과로서 실제 채널별 가입률과 차이가 날 수 있음  
 2) 판매채널 구분은 < I. 조사의 개요 > 참고

#### 2) 세부 분석

- 생명보험 채널별 구성비: 성별
  - 2017년에도 남녀 모두 대면채널을 통한 가입 응답이 95% 이상으로 대부분을 차지함

〈표 II-17〉 생명보험 채널별 구성비: 성별

(단위: %)

구분	남성	여성
대면	95.7	95.9
직판	3.2	4.0
은행	2.5	2.3
기타	3.1	2.5

■ 생명보험 채널별 구성비: 연령별

- 모든 연령층에서 대면채널을 통한 가입이 9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남
- 직판을 통한 가입은 20대, 30대에서 6%대로 비교적 높았음
- 은행을 통한 가입은 모든 연령층에서 3.0% 미만 수준으로 나타남

〈표 II-18〉 생명보험 채널별 구성비: 연령별

(단위: %)

구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대면	90.8	93.4	98.5	98.0	96.0
직판	6.4	6.9	2.8	1.0	2.7
은행	1.6	2.0	3.0	2.6	2.4
기타	6.0	2.6	2.0	1.8	2.7

■ 생명보험 채널별 구성비: 거주 지역별

- 지역 규모와 상관없이 대면채널을 통한 가입이 전 지역에 걸쳐 9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I-19〉 생명보험 채널별 구성비: 거주 지역별

(단위: %)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대도시	대면	95.7	95.9	96.8	96.2	95.8	96.9	96.7	94.6
	직판	2.4	1.6	2.1	2.7	1.8	0.9	2.3	3.4
	은행	2.0	1.4	1.7	2.9	3.3	1.9	2.3	2.8
	기타	-	-	-	-	-	-	1.6	2.7
중·소도시	대면	97.0	96.6	94.8	94.8	97.1	97.7	97.5	97.2
	직판	0.9	2.9	3.2	2.0	2.4	2.5	2.8	4.0
	은행	3.0	2.5	1.5	2.9	1.9	1.1	0.8	1.9
	기타	-	-	-	-	-	-	2.5	3.0
군지역	대면	96.6	96.5	97.4	94.6	96.1	96.4	92.2	95.3
	직판	1.1	1.2	2.6	2.7	0.0	0.0	5.9	2.3
	은행	2.3	2.3	1.3	5.4	9.2	3.6	7.8	2.3
	기타	-	-	-	-	-	-	2.0	2.3

■ 생명보험 채널별 구성비: 직업별

- 대부분 직업에서 대면채널을 통한 가입이 95% 내외임
- 은퇴자의 경우 직판채널을 통한 가입이 14.3%로 상대적으로 높았음
- 농/임/어업 종사자의 경우 은행(3.9%)채널을 통한 가입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I-20〉 생명보험 채널별 구성비: 직업별

(단위: %)

구분	자영업	화이트 칼라	블루 칼라	주부	농/임/어업	은퇴자	학생	무직/기타
대면	98.5	96.0	95.9	95.2	94.1	85.7	76.5	94.1
직판	1.8	5.2	3.0	3.9	3.9	14.3	2.9	0.0
은행	0.3	2.8	2.6	3.5	3.9	0.0	0.0	5.9
기타	2.1	2.0	3.5	2.3	2.0	0.0	20.6	0.0

주: 은퇴자는 표본의 규모가 작아 통계적 의미가 낮음

■ 생명보험 채널별 구성비: 학력별

- 모든 학력 계층에서 대면채널을 통한 가입이 9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I-21〉 생명보험 채널별 구성비: 학력별

(단위: %)

구분	중졸 이하	고졸	대재 이상	모름/무응답
대면	93.6	96.7	95.2	95.7
직판	1.8	2.1	5.4	4.8
은행	4.6	1.7	2.8	3.7
기타	2.8	2.9	2.7	2.7

■ 생명보험 채널별 구성비: 가구 소득별

- 가구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10명 중 9명 이상이 대면채널을 이용함

〈표 II-22〉 생명보험 채널별 구성비: 가구 소득별

(단위: %)

구분	저소득	중소득	고소득
대면	94.5	96.7	94.7
직판	4.7	2.9	4.5
은행	3.1	1.5	3.7
기타	1.6	3.0	3.0

## 나. 생명보험 종목별 채널별 활용

### 1) 조사 결과 및 시사점

- 대부분의 보험 종목에서 대면채널을 통한 가입이 9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직판채널과 은행을 통한 가입은 대부분 보험 종목에서 5% 이하로 낮게 나타났다

- 저축성 보험의 경우 은행채널을 통한 가입이 17.4%로 다른 종목에 비하여 은행을 통한 가입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표 II-23〉 생명보험 채널별 구성비

(단위: %)

구분	대면	직판	은행	기타
실손의료보험	93.8	2.6	1.4	2.2
질병보장보험	95.6	2.4	0.8	1.2
재해상해보험	93.0	3.2	1.2	2.6
간병보험	92.9	2.4	4.8	100.0
사망보험	97.3	1.0	1.0	0.7
저축성 보험	78.3	2.2	17.4	2.2
연금보험	93.4	1.5	3.7	1.5
어린이보험	91.2	-	-	8.8
변액보험	97.3	0.9	-	2.7

## 2) 세부 분석

### ■ 실손의료보험의 채널별 구성비

- 실손의료보험 판매채널로는 대면채널이 93.8%로 가장 높고, 직판은 2.6%, 은행채널을 통한 가입은 1.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여성의 대면채널을 통한 가입이 95.4%로 남성(92.0%)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거주 지역별로는 대면채널을 통한 실손의료보험 가입이 중·소도시(95.8%), 대도시(92.1%), 군지역(90.5%) 순으로 나타남
- 대면채널을 통한 실손의료보험 가입은 농/임/어업직으로 제외한 대부분의 직업에서 90.0% 이상 높게 나타남
- 직판을 통한 실손의료보험 가입은 농/임/어업(14.3%)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
- 소득에 상관없이 대면채널을 통한 실손의료보험 가입 비율이 압도적인 가운데, 직판을 통한 가입은 고소득 계층(3.7%)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I-24〉 실손의료보험 채널별 구성비

(단위: %)

구분	사례 수	대면	직판	은행	기타	
전체	(582)	93.8	2.6	1.4	2.2	
성별	남성	(276)	92.0	3.3	2.2	2.5
	여성	(306)	95.4	2.0	0.7	2.0
연령	20대	(99)	91.9	2.0	2.0	4.0
	30대	(126)	88.9	6.3	2.4	2.4
	40대	(136)	96.3	2.2	0.0	1.5
	50대	(119)	97.5	0.0	1.7	0.8
	60대 이상	(102)	94.1	2.0	1.0	2.9
지역규모	대도시	(254)	92.1	3.1	2.0	2.8
	중·소도시	(286)	95.8	2.1	1.0	1.0
	군지역	(42)	90.5	2.4	0.0	7.1
직업	화이트칼라	(195)	95.4	2.1	1.0	1.5
	블루칼라	(148)	90.5	2.7	3.4	3.4
	농/임/어업	(7)	85.7	14.3	0.0	0.0
	자영업	(115)	96.5	1.7	0.0	1.7
	주부	(93)	92.5	4.3	1.1	2.2
	은퇴자	(2)	100.0	0.0	0.0	0.0
	학생	(16)	93.8	0.0	0.0	6.3
	무직/기타	(6)	100.0	0.0	0.0	0.0
교육 수준	중졸 이하	(24)	91.7	0.0	4.2	4.2
	고졸	(282)	94.3	1.1	1.4	3.2
	대재 이상	(276)	93.5	4.3	1.1	1.1
가구 소득	저소득	(75)	92.0	2.7	4.0	1.3
	중소득	(318)	95.0	1.9	0.9	2.2
	고소득	(189)	92.6	3.7	1.1	2.6

#### ■ 질병보장보험의 채널별 구성비

- 질병보장보험 판매채널로는 대면채널이 95.6%로 가장 높고, 직판은 2.4%, 은행채널을 통한 가입은 0.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질병보장보험의 경우 남녀 모두 대면채널을 통한 가입이 90% 이상으로 높은 가운데, 남성이 96.0%로 여성(95.2%)보다 대면채널을 통한 가입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는 20대(90.1%)가 타 연령 대비 대면채널을 통한 질병보장보험 가입이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직판채널(6.4%)을 통한 가입이 타 연령층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았음

〈표 II-25〉 질병보장보험 채널별 구성비

(단위: %)

구분	사례 수	대면	직판	은행	기타	
전체	(1,394)	95.6	2.4	0.8	1.2	
성별	남성	(649)	96.0	1.4	1.2	1.4
	여성	(745)	95.2	3.4	0.4	1.1
연령	20대	(172)	90.1	6.4	0.6	2.9
	30대	(238)	93.3	4.6	0.8	1.3
	40대	(323)	96.9	1.5	0.6	0.9
	50대	(333)	97.6	0.6	0.9	0.9
	60대 이상	(328)	96.6	1.5	0.9	0.9
지역규모	대도시	(664)	94.7	2.7	1.2	1.4
	중·소도시	(631)	96.7	2.2	0.2	1.0
	군지역	(99)	93.9	2.0	2.0	2.0
직업	화이트칼라	(376)	94.4	4.3	0.5	0.8
	블루칼라	(379)	96.8	1.6	0.8	0.8
	농/임/어업	(43)	93.0	2.3	4.7	0.0
	자영업	(283)	98.2	0.4	0.4	1.1
	주부	(275)	94.5	3.3	0.7	1.5
	은퇴자	(5)	80.0	20.0	0.0	0.0
	학생	(20)	80.0	0.0	0.0	20.0
	무직/기타	(13)	92.3	0.0	7.7	0.0
교육 수준	중졸 이하	(96)	94.8	2.1	2.1	1.0
	고졸	(688)	96.8	0.9	0.9	1.5
	대재 이상	(610)	94.3	4.3	0.5	1.0
가구 소득	저소득	(211)	94.8	2.8	2.4	0.0
	중소득	(803)	95.8	2.0	0.4	1.9
	고소득	(380)	95.5	3.2	0.8	0.5

- 거주 지역별로는 대면채널을 통한 질병보장보험 가입이 중·소도시(96.7%), 대도시(94.7%), 군지역(93.9%) 순으로 나타남
- 자영업의 경우 대면채널을 통한 질병보장보험 가입이 98.2%로 높았고, 직판을 통한 가입은 은퇴자(20.0%)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

- 직판을 통한 질병보장보험 가입 비율은 고소득 계층(3.2%)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 재해상해보험의 채널별 구성비

- 재해상해보험은 대면채널을 통한 가입은 93.0%, 직판채널은 3.2%, 은행채널은 1.2%로 조사됨

〈표 II-26〉 재해상해보험 채널별 구성비

(단위: %)

구분	사례 수	대면	직판	은행	기타	
전체	(345)	93.0	3.2	1.2	2.6	
성별	남성	(174)	91.4	4.0	1.7	2.9
	여성	(171)	94.7	2.3	0.6	2.3
연령	20대	(40)	80.0	7.5	0.0	12.5
	30대	(59)	93.2	6.8	0.0	0.0
	40대	(74)	97.3	1.4	0.0	1.4
	50대	(93)	96.8	1.1	2.2	0.0
	60대 이상	(79)	91.1	2.5	2.5	3.8
지역규모	대도시	(110)	94.5	0.9	2.7	1.8
	중·소도시	(213)	92.0	4.7	0.5	2.8
	군지역	(22)	95.5	0.0	0.0	4.5
직업	화이트칼라	(102)	94.1	3.9	0.0	2.0
	블루칼라	(84)	86.9	4.8	2.4	6.0
	농/임/어업	(10)	80.0	10.0	0.0	10.0
	자영업	(69)	98.6	0.0	1.4	0.0
	주부	(68)	97.1	1.5	1.5	0.0
	은퇴자	(1)	100.0	0.0	0.0	0.0
	학생	(5)	60.0	20.0	0.0	20.0
	무직/기타	(6)	100.0	0.0	0.0	0.0
교육 수준	중졸 이하	(24)	87.5	4.2	4.2	4.2
	고졸	(157)	93.0	3.2	1.3	2.5
	대재 이상	(164)	93.9	3.0	0.6	2.4
가구 소득	저소득	(44)	84.1	6.8	2.3	6.8
	중소득	(191)	93.7	3.7	1.0	1.6
	고소득	(110)	95.5	0.9	0.9	2.7

■ 간병보험의 채널별 구성비

- 간병보험 판매채널로는 대면채널이 92.9%로 가장 높고, 직판채널은 2.4%로 나타남
- 대면채널을 통한 간병보험 가입은 여성이 95.8%, 남성이 88.9%임
- 거주 지역별로는 대면채널을 통한 간병보험 가입이 군지역(100.0%), 중·소도시(96.0%), 대도시(84.6%) 순으로 나타남

〈표 II -27〉 간병보험 채널별 구성비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대면	직판	기타
전체		(42)	92.9	2.4	4.8
성별	남성	(18)	88.9	0.0	11.1
	여성	(24)	95.8	4.2	0.0
연령	30대	(2)	100.0	0.0	0.0
	40대	(8)	100.0	0.0	0.0
	50대	(12)	91.7	0.0	8.3
	60대 이상	(20)	90.0	5.0	5.0
지역규모	대도시	(13)	84.6	7.7	7.7
	중·소도시	(25)	96.0	0.0	4.0
	군지역	(4)	100.0	0.0	0.0
직업	화이트칼라	(4)	75.0	0.0	25.0
	블루칼라	(16)	100.0	0.0	0.0
	농/임/어업	(2)	100.0	0.0	0.0
	자영업	(10)	90.0	0.0	10.0
	주부	(7)	85.7	14.3	0.0
	은퇴자	(1)	100.0	0.0	0.0
	무직/기타	(2)	100.0	0.0	0.0
교육 수준	중졸 이하	(4)	100.0	0.0	0.0
	고졸	(29)	93.1	3.4	3.4
	대재 이상	(9)	88.9	0.0	11.1
가구 소득	저소득	(12)	100.0	0.0	0.0
	중소득	(23)	91.3	0.0	8.7
	고소득	(7)	85.7	14.3	0.0

### ■ 사망보험의 채널별 구성비

- 사망보험 판매채널로는 대면채널이 97.3%로 가장 높고, 직판과 은행은 각각 1.0%로 나타남
- 대면채널을 통한 사망보험 가입은 남성이 97.2%, 여성이 97.5%임
- 거주 지역별로는 대면채널을 통한 저축성 보험 가입이 중·소도시(98.4%), 군지역(97.4%), 대도시(96.2%) 순으로 나타남

〈표 II-28〉 사망보험 채널별 구성비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대면	직판	은행	기타
전체		(411)	97.3	1.0	1.0	0.7
성별	남성	(253)	97.2	0.8	0.8	1.2
	여성	(158)	97.5	1.3	1.3	0.0
연령	20대	(43)	97.7	2.3	0.0	0.0
	30대	(60)	95.0	1.7	0.0	3.3
	40대	(126)	96.8	1.6	0.8	0.8
	50대	(114)	99.1	0.0	0.9	0.0
	60대 이상	(68)	97.1	0.0	2.9	0.0
지역규모	대도시	(182)	96.2	1.1	2.2	0.5
	중·소도시	(190)	98.4	1.1	0.0	0.5
	군지역	(39)	97.4	0.0	0.0	2.6
군지역	화이트칼라	(161)	97.5	1.9	0.0	0.6
	블루칼라	(87)	94.3	0.0	3.4	2.3
	농/임/어업	(15)	100.0	0.0	0.0	0.0
	자영업	(99)	100.0	0.0	0.0	0.0
	주부	(42)	95.2	2.4	2.4	0.0
	은퇴자	(2)	100.0	0.0	0.0	0.0
	학생	(4)	100.0	0.0	0.0	0.0
	무직/기타	(1)	100.0	0.0	0.0	0.0
직업	중졸 이하	(15)	93.3	0.0	6.7	0.0
	고졸	(188)	97.9	0.0	1.1	1.1
	대재 이상	(208)	97.1	1.9	0.5	0.5
자영업	저소득	(38)	97.4	0.0	0.0	2.6
	중소득	(214)	97.7	0.9	0.9	0.5
	고소득	(159)	96.9	1.3	1.3	0.6

■ 저축성 보험의 채널별 구성비

- 저축성 보험 판매채널로는 대면채널이 78.3%로 가장 높고, 은행은 17.4%로 나타남
- 대면채널을 통한 저축성 보험 가입은 남성이 83.8%, 여성 74.5%임
- 거주 지역별로는 대면채널을 통한 저축성 보험 가입이 대도시(80.0%), 중·소도시(77.1%), 군지역(50.0%) 순으로 나타남

〈표 II-29〉 저축성 보험 채널별 구성비

(단위: %)

구분		사례 수	대면	은행	직판	기타
전체		(92)	78.3	17.4	2.2	2.2
성별	남성	(37)	83.8	13.5	0.0	2.7
	여성	(55)	74.5	20.0	3.6	1.8
연령	20대	(13)	92.3	7.7	0.0	0.0
	30대	(14)	78.6	14.3	7.1	0.0
	40대	(22)	59.1	31.8	0.0	9.1
	50대	(27)	74.1	22.2	3.7	0.0
	60대 이상	(16)	100.0	0.0	0.0	0.0
지역규모	대도시	(55)	80.0	14.5	3.6	1.8
	중·소도시	(35)	77.1	22.9	0.0	0.0
	군지역	(2)	50.0	0.0	0.0	50.0
직업	화이트칼라	(30)	76.7	16.7	3.3	3.3
	블루칼라	(28)	78.6	17.9	0.0	3.6
	자영업	(8)	100.0	0.0	0.0	0.0
	주부	(25)	72.0	24.0	4.0	0.0
	학생	(1)	100.0	0.0	0.0	0.0
교육 수준	중졸 이하	(2)	100.0	0.0	0.0	0.0
	고졸	(37)	81.1	13.5	0.0	5.4
	대재 이상	(53)	75.5	20.8	3.8	0.0
가구 소득	저소득	(9)	88.9	0.0	11.1	0.0
	중소득	(42)	76.2	2.4	16.7	4.8
	고소득	(41)	78.0	2.4	19.5	0.0

### ■ 연금보험의 채널별 구성비

- 연금보험 판매채널로는 대면채널이 93.4%로 가장 높고, 은행은 3.7%, 직판채널을 통한 가입은 1.5%로 나타남
- 남녀 모두 대면채널을 통한 가입이 90% 이상으로 높은 가운데, 여성이 93.6%로 남성(93.2%)보다 대면채널을 통한 가입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I-30〉 연금보험 채널별 구성비

(단위: %)

구분	사례 수	대면	은행	직판	기타	
전체	(272)	93.4	3.7	1.5	1.5	
성별	남성	(147)	93.2	5.4	0.7	0.7
	여성	(125)	93.6	1.6	2.4	2.4
연령	20대	(18)	94.4	5.6	0.0	0.0
	30대	(32)	90.6	6.3	0.0	3.1
	40대	(105)	92.4	2.9	1.9	2.9
	50대	(81)	96.3	2.5	1.2	0.0
	60대 이상	(36)	91.7	5.6	2.8	0.0
지역규모	대도시	(145)	93.8	4.1	1.4	0.7
	중·소도시	(114)	93.0	2.6	1.8	2.6
	군지역	(13)	92.3	7.7	0.0	0.0
직업	화이트칼라	(103)	90.3	6.8	1.9	1.0
	블루칼라	(79)	97.5	2.5	0.0	0.0
	농/임/어업	(2)	100.0	0.0	0.0	0.0
	자영업	(50)	94.0	0.0	4.0	2.0
	주부	(37)	91.9	2.7	0.0	5.4
	무직/기타	(1)	100.0	0.0	0.0	0.0
교육 수준	중졸 이하	(2)	100.0	0.0	0.0	0.0
	고졸	(122)	95.9	0.8	1.6	1.6
	대재 이상	(148)	91.2	6.1	1.4	1.4
가구 소득	저소득	(20)	95.0	5.0	0.0	0.0
	중소득	(121)	94.2	0.8	4.1	0.8
	고소득	(131)	92.4	1.5	3.8	2.3

■ 어린이보험의 채널별 구성비

○ 어린이보험의 경우 대면채널이 91.2%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II-31〉 어린이보험 채널별 구성비

(단위: %)

구분	사례 수	대면	기타	
전체	(34)	91.2	8.8	
성별	남성	(6)	66.7	33.3
	여성	(28)	96.4	3.6
연령	20대	(4)	50.0	50.0
	30대	(20)	95.0	5.0
	40대	(10)	100.0	0.0
지역규모	대도시	(21)	90.5	9.5
	중·소도시	(12)	91.7	8.3
	군지역	(1)	100.0	0.0
직업	화이트칼라	(6)	100.0	0.0
	블루칼라	(9)	88.9	11.1
	자영업	(3)	100.0	0.0
	주부	(14)	100.0	0.0
	학생	(2)	0.0	100.0
교육 수준	고졸	(13)	92.3	7.7
	대재 이상	(21)	90.5	9.5
가구 소득	저소득	(1)	100.0	0.0
	중소득	(26)	92.3	7.7
	고소득	(7)	85.7	14.3

■ 변액보험의 채널별 구성비

○ 변액보험의 경우 대면채널이 97.3%로 가장 높고, 직판채널을 통한 가입은 0.9%로 나타남

〈표 II-32〉 변액보험 채널별 구성비

(단위: %)

구분	사례 수	대면	직판	기타	
전체	(104)	97.3	0.9	2.7	
성별	남성	(57)	96.6	0.0	3.4
	여성	(47)	98.0	2.0	2.0
연령	20대	(7)	100.0	0.0	0.0
	30대	(19)	100.0	5.3	0.0
	40대	(35)	97.4	0.0	2.6
	50대	(30)	93.3	0.0	6.7
	60대 이상	(13)	100.0	0.0	0.0
지역규모	대도시	(47)	98.1	0.0	1.9
	중·소도시	(55)	96.4	1.8	3.6
	군지역	(2)	100.0	0.0	0.0
직업	화이트칼라	(38)	92.5	0.0	7.5
	블루칼라	(15)	100.0	0.0	0.0
	자영업	(26)	100.0	3.8	0.0
	주부	(23)	100.0	0.0	0.0
	학생	(1)	100.0	0.0	0.0
	무직/기타	(1)	100.0	0.0	0.0
교육 수준	고졸	(38)	97.5	0.0	2.5
	대재 이상	(66)	97.1	1.4	2.9
가구 소득	저소득	(3)	100.0	33.3	0.0
	중소득	(51)	98.2	0.0	1.8
	고소득	(50)	96.2	0.0	3.8

#### 다. 향후 생명보험 채널별 선호도

##### 1) 조사 결과 및 시사점

- 현재 보험 가입 시 판매채널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대면채널에 대한 선호도가 95.8%로 가장 높았으며, 직판이 3.6%, 은행은 2.4%로 나타남

- 향후 보험 가입 시 판매채널에 대한 선호도는 대면채널에 대한 선호도가 84.9%로 가장 높았으나, 직판채널을 통한 가입 의향도 10.7%로 나타남

〈표 II-33〉 생명보험 채널별 선호도

(단위: %)

구분	현행	향후 선호
대면	95.8	84.9
직판	3.6	10.7
은행	2.4	7.9
기타	2.8	4.8

주: 복수응답을 포함함(이하 동일)

## 2) 세부 분석

- 향후 생명보험 채널별 선호도: 성별

- 남성과 여성 모두, 향후 생명보험 가입 시 선호 채널로 대면채널을 가장 많이 꼽음

〈표 II-34〉 향후 생명보험 채널별 선호도: 성별

(단위: %)

구분	남성	여성
대면	83.5	86.5
직판	11.7	9.7
은행	7.6	8.1
기타	4.8	4.9

- 향후 생명보험 채널별 선호도: 연령별

- 모든 연령에서 대면채널에 대한 선호도가 7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나는 가운데, 60대 이상이 91.1%로 가장 높은 반면, 20대는 78.0%로 가장 낮았음
- 한편, 20대와 30대의 직판채널 선호도가 각각 20.2%와 12.5%로 향후 가입 의향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I-35〉 향후 생명보험 채널별 선호도: 연령별

(단위: %)

구분	대면	직판	은행	기타
20대	78.0	20.2	7.5	5.8
30대	84.7	12.5	10.8	2.3
40대	86.4	8.8	7.5	6.8
50대	86.4	5.3	9.8	3.8
60대 이상	91.1	3.7	3.0	5.9

■ 향후 생명보험 채널별 선호도: 거주 지역별

- 지역규모에 상관없이 대면채널에 대한 선호도가 80% 이상으로 가장 높음

〈표 II-36〉 향후 생명보험 채널별 선호도: 거주 지역별

(단위: %)

구분	대면	직판	은행	기타
대도시	81.1	13.0	5.3	6.5
중·소도시	87.7	9.3	10.3	3.8
군지역	88.4	7.0	4.7	2.3

주: 군지역은 표본 수가 상대적으로 적어 신뢰도가 낮음

■ 향후 생명보험 채널별 선호도: 직업별

- 대부분의 직업에서 대면채널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은 가운데, 주부에서 93.1%로 특히 높음
- 한편, 직판채널에 대한 선호도는 학생(31.8%), 은행채널에 의한 선호도는 농/임/어업(12.0%)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I-37〉 향후 생명보험 채널별 선호도: 직업별

(단위: %)

구분	주부	농/임/어업	블루칼라	지역업	화이트칼라	은퇴자	학생	무직/기타
대면	93.1	88.0	87.1	85.7	80.2	75.0	68.2	80.0
직판	5.4	0.0	10.9	8.4	13.8	12.5	31.8	0.0
은행	7.7	12.0	7.5	5.9	8.7	0.0	9.1	20.0
기타	4.6	0.0	5.5	3.4	5.5	12.5	4.5	0.0

주: 농/임/어업, 은퇴자, 무직/기타는 표본의 규모가 작아 통계적 의미가 낮음

■ 향후 생명보험 채널별 선호도: 학력별

- 대재 이상의 경우 향후 생명보험 가입 시 직판채널에 대한 선호도가 다른 계층에 비하여 높게 나타남

〈표 II-38〉 향후 생명보험 채널별 선호도: 학력별

(단위: %)

구분	대면	직판	은행	기타
중졸 이하	93.5	3.2	3.2	3.2
고졸	87.4	8.7	7.8	4.8
대재 이상	82.2	13.0	8.3	5.0

■ 향후 생명보험 채널별 선호도: 종목별

- 대부분의 생명보험상품의 경우 구매채널로 향후 대면채널을 선호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음
- 직판채널에 대한 선호도는 재해상해보험(13.4%)이, 은행채널에 대한 선호도는 저축성 보험(14.4%)이 높게 나타남

〈표 II-39〉 향후 생명보험 채널별 선호도: 종목별

(단위: %)

구분	대면	직판	은행	기타
실손의료보험	82.3	8.5	4.6	4.6
질병보장보험	82.4	8.6	1.6	7.5
재해상해보험	81.1	13.4	1.6	3.9
간병보험	87.3	7.5	2.8	2.4
사망보험	91.0	3.2	3.2	3.2
저축성 보험	70.4	12.0	14.4	3.2
연금보험	77.8	10.1	11.6	0.5
어린이보험	88.9	3.7	-	7.4
변액보험	85.2	8.2	4.9	1.6

주: 어린이보험, 간병보험, 저축성 보험은 표본의 규모가 작아 통계적 의미가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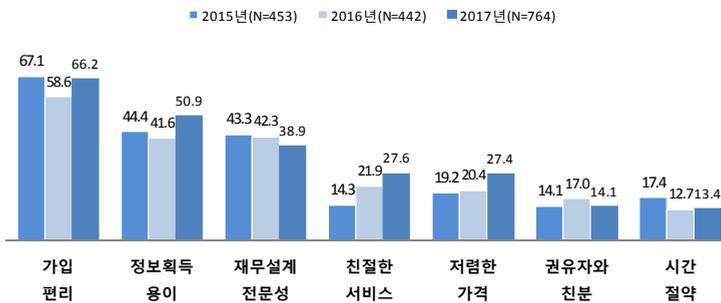
## 라. 향후 생명보험 상품별 가입 선호 이유

### 1) 조사 결과 및 시사점

- 향후 1년 내 생명보험 상품 구입 시 이용할 의향이 있는 채널별 선호 이유로는 가입 편리성(66.2%)이 가장 많이 꼽혔으며, 다음으로 정보획득 용이(50.9%), 재무설계 전문성(38.9%) 순으로 나타남

〈그림 II-4〉 생명보험 가입 채널 선호 이유(복수응답)

(단위: %)



### 2) 세부 분석

- 향후 1년 내 생명보험 상품 구입 시 종목별 채널 선호 이유
  - 대부분 생명보험 종목에서 가입 시 가입편리성을 향후 채널 선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사망보험의 경우 정보획득 용이성(52.9%)이 가장 높음

〈표 II-40〉 향후 생명보험 상품별 가입 선호 이유(복수응답)

(단위: %)

구분	가입 편리	정보 획득 용이	저렴한 가격	재무 설계 전문성	좋은 보험 서비스	시간 절약	친절한 보험 설계사	권유자 친분
실손의료보험	63.8	40.0	33.8	25.4	15.4	8.5	6.9	4.6
질병보장보험	58.8	40.6	32.6	26.2	12.3	10.7	5.3	10.2
재해상해보험	71.7	45.7	22.8	21.3	3.9	17.3	7.9	8.7
간병보험	66.5	44.8	18.4	23.1	17.0	6.1	8.0	15.6
사망보험	47.1	52.9	21.3	43.2	14.2	7.7	6.5	9.7
저축성 보험	68.8	41.6	17.6	36.8	4.0	5.6	15.2	9.6
연금보험	51.9	45.0	16.9	38.6	13.8	11.6	9.5	12.2
어린이보험	37.0	33.3	18.5	29.6	14.8	29.6	25.9	11.1
변액보험	55.7	34.4	21.3	44.3	18.0	4.9	8.2	13.1

### 3. 향후 생명보험 가입 의향

#### 가. 조사 결과 및 시사점

- 향후 1년 내 모든 생명보험 종목의 가입 의향을 살펴보면, 간병보험 가입 의향이 9.6%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연금보험 8.6%, 질병보장보험 8.5%, 실손의료보험 5.9%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II-41〉 생명보험 종목 가입 여부별 가입 의향

(단위: %)

구분	현 가입률	가입 의향	
		없다	있다
실손의료보험	26.5	94.1	5.9
질병보장보험	63.4	91.5	8.5
재해상해보험	15.7	94.2	5.8
간병보험	1.9	90.4	9.6
사망보험	18.7	96.3	3.7
저축성 보험	4.2	94.3	5.7
연금보험	12.4	91.4	8.6
어린이보험	1.5	98.8	1.2
변액보험	5.0	99.3	0.7

## 나. 세부 분석

### ■ 생명보험 종목별 가입 의향

- 간병보험, 실손의료보험과 같은 보장성 보험 종목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보험 향후 1년 내 가입 의향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실손의료보험과 질병보장보험에서 연령이 낮을수록 향후 1년 내 가입 의향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특히 20대의 향후 가입 의향이 가장 높았음
  - 20대 향후 1년 내 실손의료보험과 질병보장보험 가입 의향은 각각 14.3%와 17.4%로 상대적으로 높음
- 화이트칼라의 경우 재해상해보험과 간병보험을 제외한 대부분 종목에서 보험 가입 의향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 전반적으로 실손의료보험과 같은 보장성 보험 종목의 가입 의향은 저소득층에서 높게 나타남

〈표 II-42〉 생명보험 종목별 가입 의향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간병보험	연금보험	질병보장 보험	사망보험	실손 의료보험
전체		(2,200)	9.6	8.6	8.5	7.0	5.9
성별	남성	(1,092)	10.1	8.0	8.0	7.1	6.9
	여성	(1,108)	9.2	9.2	9.0	7.0	5.0
연령	20대	(357)	3.6	17.9	17.4	10.1	14.3
	30대	(393)	4.8	17.6	8.1	12.0	4.6
	40대	(461)	7.2	7.6	8.0	6.1	3.9
	50대	(446)	14.3	3.8	4.7	5.8	3.4
	60대 이상	(543)	15.3	0.7	6.4	3.3	5.2
지역규모	대도시	(1,006)	7.8	8.1	6.9	5.1	4.0
	중·소도시	(1,007)	12.5	10.4	10.6	9.8	8.6
	군지역	(187)	4.3	1.6	5.9	2.7	1.6
직업	화이트칼라	(580)	6.7	14.0	9.3	10.2	6.9
	블루칼라	(611)	9.5	7.9	9.0	5.4	6.5
	농/임/어업	(95)	13.7	0.0	9.5	3.2	4.2
	자영업	(396)	13.6	4.8	5.3	5.6	4.8
	주부	(409)	10.8	8.3	8.1	6.6	4.9
	은퇴자	(19)	15.8	0.0	15.8	15.8	5.3
	학생	(59)	0.0	11.9	11.9	13.6	10.2
	무직/기타	(31)	3.2	0.0	16.1	0.0	0.0
교육 수준	중졸 이하	(196)	10.2	0.5	5.1	1.5	2.0
	고졸	(1,057)	11.5	5.5	8.1	5.7	6.6
	대재 이상	(946)	7.4	13.7	9.6	9.7	5.9
가구 소득	저소득	(406)	12.3	5.7	8.9	4.4	9.4
	중소득	(1,226)	8.2	9.2	8.0	7.4	5.0
	고소득	(568)	10.9	9.3	9.3	8.1	5.5

〈표 II-43〉 생명보험 종목별 가입 의향(계속)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재해 상해보험	저축성 보험	변액보험	어린이보험
전체		(2,200)	5.8	5.7	2.8	1.2
성별	남성	(1,092)	6.0	5.6	3.1	1.6
	여성	(1,108)	5.6	5.8	2.4	0.9
연령	20대	(357)	10.4	8.7	4.5	1.4
	30대	(393)	5.6	8.1	4.3	4.3
	40대	(461)	5.6	6.9	2.2	1.1
	50대	(446)	4.7	3.6	2.0	0.0
	60대 이상	(543)	3.9	2.6	1.7	0.0
지역규모	대도시	(1,006)	3.7	5.6	2.3	0.8
	중·소도시	(1,007)	8.2	6.4	3.2	1.8
	군지역	(187)	3.7	2.7	3.2	0.5
직업	화이트칼라	(580)	7.2	7.6	4.0	2.1
	블루칼라	(611)	7.5	5.6	2.1	0.8
	농/임/어업	(95)	4.2	0.0	0.0	0.0
	자영업	(396)	5.1	5.8	3.0	0.8
	주부	(409)	2.4	4.4	2.7	1.7
	은퇴자	(19)	0.0	5.3	0.0	0.0
	학생	(59)	8.5	8.5	3.4	0.0
	무직/기타	(31)	0.0	0.0	0.0	0.0
교육 수준	중졸 이하	(196)	3.1	1.5	0.5	0.0
	고졸	(1,057)	6.2	5.4	2.4	0.8
	대재 이상	(946)	5.8	6.9	3.7	2.0
가구 소득	저소득	(406)	8.1	4.2	1.0	0.2
	중소득	(1,226)	5.5	6.0	2.7	1.7
	고소득	(568)	4.6	6.0	4.2	0.9

## 4. 생명보험 상품 니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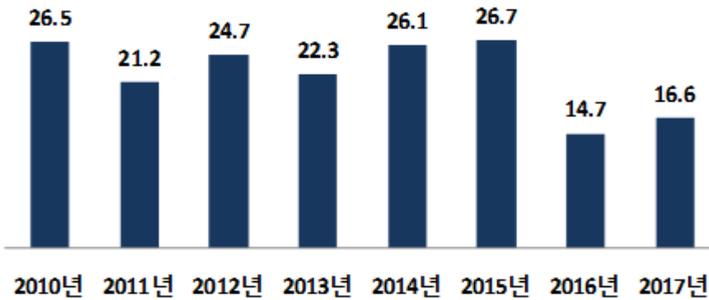
### 가. 생명보험 보상 경험 분석

#### 1) 조사 결과 및 시사점

- 생명보험 가입 가구 중 16.6%가 생명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II-5〉 생명보험 보상 경험

(생명보험 가입가구 대비 / 단위: %)



〈표 II-44〉 생명보험 보상건수 및 보상액수

(단위: 건, 원)

구분	사례 수	평균 보상건수	평균 보상액수
전체	366	3.8	1,405,301
실손의료보험	255	4.4	654,710
중증질병	24	1.3	8,903,542
일반질병	61	1.5	1,556,656
성인병	5	5.6	230,000
재해(상해)	45	1.2	544,000
치매	1	1.0	600,000
저축	1	1.0	4,000,000
교통사고	3	1.0	483,333
재산손실	1	1.0	80,000
자녀에 대한 보상	31	1.5	225,419

- 생명보험의 보상 경험자의 전체 평균 보상건수는 3.8건, 평균 보상액수는 140.5만 원이었음
- 실손의료보험 상품의 평균 보상건수는 4.4건으로 다른 종목보다 보상건수가 상대적으로 많았고, 평균 보상액수는 약 65.5만 원이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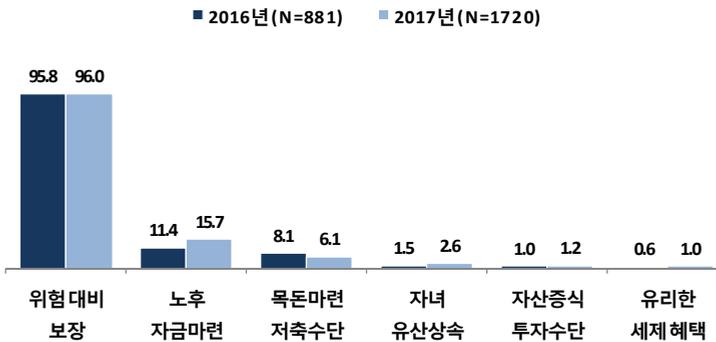
## 나. 생명보험 종목별 가입 이유

### 1) 조사 결과 및 시사점

- 생명보험 가입자의 대부분이 위험에 대비한 보장(96.0%)을 생명보험 가입 이유로 꼽았으며, 다음으로 노후자금 마련(15.7%), 목돈마련 저축수단(6.1%) 등의 순이었음
- 유산상속, 자산증식, 세계혜택을 위한 보험 가입은 3% 미만으로 매우 낮음

〈그림 II-6〉 생명보험상품 가입 이유(복수응답)

(단위: %)



### ■ 보험종목별 가입 이유

- 간병보험(100.0%)과 어린이보험(94.1%), 실손의료보험(97.9%), 질병보장보험(98.0%), 재해상해보험(98.0%), 사망보험(80.8%)의 경우 위험보장을 가입

이유로 꼽은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남

- 한편, 연금보험(64.7%), 변액보험(52.7%) 가입자의 경우 보험 가입 이유로 노후자금 마련을 가장 많이 들었고, 저축성 보험(59.8%) 가입자는 목돈 마련을 가입 이유로 꼽음

〈표 II-45〉 생명보험 상품별 가입 이유(복수응답)

(단위: %)

구분	위험보장	노후자금 마련	세제혜택	목돈마련	유산상속	자산증식
실손의료보험	97.9	1.2	0.7	0.2	0.1	0.0
질병보장보험	98.0	0.9	0.3	0.8	0.1	0.0
재해상해보험	98.0	0.0	0.9	0.3	0.3	0.6
간병보험	100.0	0.0	0.0	0.0	0.0	0.0
사망보험	80.8	5.1	0.7	1.7	9.7	1.9
저축성 보험	14.1	21.7	1.1	59.8	0.0	3.3
연금보험	22.8	64.7	1.8	8.8	0.0	1.8
어린이보험	94.1	0.0	0.0	5.9	0.0	0.0
변액보험	30.9	52.7	0.0	11.8	4.5	2.7

## 2) 세부 분석

### ■ 실손의료보험 가입 이유

- 위험에 대비한 보장 수단으로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했다는 응답은 성별과 연령에 상관없이 가장 높음
- 위험에 대비한 보장 수단으로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했다는 응답은 지역 규모에 상관없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위험에 대비한 보장 수단이라는 응답은 화이트칼라(99.0%)에서, 노후자금 마련은 농/임/어업(14.3%)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I-46〉 실손의료보험 가입 이유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위험에 대비한 보장	노후자금 마련	타 금융 상품과 비교한 세제혜택 유리	목돈 마련을 위한 저축수단	
전체	(582)	97.9	1.2	0.7	0.2	
성별	남성	(276)	97.8	1.4	0.4	0.4
	여성	(306)	98.0	1.0	1.0	0.0
연령	20대	(99)	99.0	0.0	1.0	0.0
	30대	(126)	97.6	1.6	0.8	0.0
	40대	(136)	97.1	2.2	0.7	0.0
	50대	(119)	97.5	0.8	0.8	0.8
	60대 이상	(102)	99.0	1.0	0.0	0.0
지역 규모	대도시	(254)	97.6	1.6	0.4	0.4
	중·소도시	(286)	98.6	0.3	1.0	0.0
	군지역	(42)	95.2	4.8	0.0	0.0
직업	화이트칼라	(195)	99.0	0.5	0.0	0.5
	블루칼라	(148)	98.0	1.4	0.7	0.0
	농/임/어업	(7)	85.7	14.3	0.0	0.0
	자영업	(115)	96.5	2.6	0.9	0.0
	주부	(93)	98.9	0.0	1.1	0.0
	은퇴자	(2)	100.0	0.0	0.0	0.0
	학생	(16)	93.8	0.0	6.3	0.0
	무직/기타	(6)	100.0	0.0	0.0	0.0
교육 수준	중졸 이하	(24)	100.0	0.0	0.0	0.0
	고졸	(282)	97.2	1.8	1.1	0.0
	대재 이상	(276)	98.6	0.7	0.4	0.4
가구 소득	저소득	(75)	100.0	0.0	0.0	0.0
	중소득	(318)	96.9	1.9	1.3	0.0
	고소득	(189)	98.9	0.5	0.0	0.5

■ 질병보장보험 가입 이유

- 위험에 대비한 보장 마련을 위해 질병보장보험에 가입했다는 응답이 성별과 연령에 상관없이 가장 높았음

〈표 II-47〉 질병보장보험 가입 이유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위험에 대비한 보장	노후자금 마련	목돈 마련을 위한 저축수단	타 금융 상품과 비교한 세제혜택 유리	자녀에게 유산상속 목적
전체	(1,394)	98.0	0.9	0.8	0.3	0.1
성별	남성 (649)	98.0	0.6	1.1	0.2	0.2
	여성 (745)	98.0	1.1	0.5	0.4	0.0
연령	20대 (172)	97.1	0.6	1.2	1.2	0.0
	30대 (238)	98.3	0.8	0.8	0.0	0.0
	40대 (323)	98.5	0.9	0.3	0.3	0.0
	50대 (333)	97.9	0.6	1.2	0.0	0.3
	60대 이상 (328)	97.9	1.2	0.6	0.3	0.0
지역 규모	대도시 (664)	98.2	0.8	0.6	0.3	0.2
	중·소도시 (631)	97.8	1.0	1.0	0.3	0.0
	군지역 (99)	98.0	1.0	1.0	0.0	0.0
직업	화이트칼라 (376)	97.6	1.1	0.8	0.3	0.3
	블루칼라 (379)	98.4	0.8	0.3	0.5	0.0
	농/임/어업 (43)	100.0	0.0	0.0	0.0	0.0
	자영업 (283)	97.5	1.4	1.1	0.0	0.0
	주부 (275)	98.2	0.4	1.5	0.0	0.0
	은퇴자 (5)	100.0	0.0	0.0	0.0	0.0
	학생 (20)	95.0	0.0	0.0	5.0	0.0
	무직/기타 (13)	100.0	0.0	0.0	0.0	0.0
교육 수준	중졸 이하 (96)	97.9	2.1	0.0	0.0	0.0
	고졸 (688)	98.0	0.7	1.0	0.3	0.0
	대재 이상 (610)	98.0	0.8	0.7	0.3	0.2
가구 소득	저소득 (211)	98.6	0.9	0.5	0.0	0.0
	중소득 (803)	97.6	0.7	1.1	0.5	0.0
	고소득 (380)	98.4	1.1	0.3	0.0	0.3

### ■ 재해상해보험 가입 이유

- 직업, 성별, 지역 규모, 직업군에 관계없이 위험에 대비한 보장 마련을 위해 재해상해보험에 가입했다는 응답 비율이 매우 높음

〈표 II-48〉 재해상해보험 가입 이유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위험에 대비한 보장	타 금융 상품과 비교한 세제혜택 유리	자산 증식을 위한 투자수단	자녀에게 유산상속 목적	목돈 마련을 위한 저축수단	
전체	(345)	98.0	0.9	0.6	0.3	0.3	
성별	남성	(174)	98.3	0.0	1.1	0.6	0.0
	여성	(171)	97.7	1.8	0.0	0.0	0.6
연령	20대	(40)	97.5	0.0	2.5	0.0	0.0
	30대	(59)	100.0	0.0	0.0	0.0	0.0
	40대	(74)	98.6	1.4	0.0	0.0	0.0
	50대	(93)	96.8	1.1	0.0	1.1	1.1
	60대 이상	(79)	97.5	1.3	1.3	0.0	0.0
지역규모	대도시	(110)	100.0	0.0	0.0	0.0	0.0
	중·소도시	(213)	97.2	1.4	0.5	0.5	0.5
	군지역	(22)	95.5	0.0	4.5	0.0	0.0
직업	화이트칼라	(102)	100.0	0.0	0.0	0.0	0.0
	블루칼라	(84)	96.4	2.4	1.2	0.0	0.0
	농/임/어업	(10)	100.0	0.0	0.0	0.0	0.0
	자영업	(69)	95.7	1.4	1.4	1.4	0.0
	주부	(68)	98.5	0.0	0.0	0.0	1.5
	은퇴자	(1)	100.0	0.0	0.0	0.0	0.0
	학생	(5)	100.0	0.0	0.0	0.0	0.0
	무직/기타	(6)	100.0	0.0	0.0	0.0	0.0
교육 수준	중졸 이하	(24)	95.8	0.0	4.2	0.0	0.0
	고졸	(157)	97.5	1.3	0.0	0.6	0.6
	대재 이상	(164)	98.8	0.6	0.6	0.0	0.0
가구 소득	저소득	(44)	97.7	0.0	2.3	0.0	0.0
	중소득	(191)	97.4	1.0	0.5	0.5	0.5
	고소득	(110)	99.1	0.9	0.0	0.0	0.0

■ 사망보험 가입 이유

- 위험에 대비한 보장을 마련하기 위해 사망보험에 가입했다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표 II-49〉 사망보험 가입 이유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위험에 대비한 보장	자녀에게 유산 상속 목적	노후 자금 마련	자산 증식을 위한 투자 수단	목돈 마련을 위한 저축 수단	타 금융 상품과 비교한 세제 혜택 유리
전체	(411)	80.8	9.7	5.1	1.9	1.7	0.7
성별	남성 (253)	81.8	10.7	5.1	0.8	0.8	0.8
	여성 (158)	79.1	8.2	5.1	3.8	3.2	0.6
연령	20대 (43)	86.0	0.0	4.7	0.0	7.0	2.3
	30대 (60)	91.7	5.0	1.7	1.7	0.0	0.0
	40대 (126)	77.8	14.3	4.8	0.8	0.8	1.6
	50대 (114)	74.6	13.2	7.0	2.6	2.6	0.0
	60대 이상 (68)	83.8	5.9	5.9	4.4	0.0	0.0
지역규모	대도시 (182)	79.1	10.4	7.1	1.1	1.1	1.1
	중·소도시 (190)	80.5	10.5	3.7	2.1	2.6	0.5
	군지역 (39)	89.7	2.6	2.6	5.1	0.0	0.0
직업	화이트칼라 (161)	81.4	11.2	4.3	1.2	0.6	1.2
	블루칼라 (87)	81.6	10.3	5.7	2.3	0.0	0.0
	농/임/어업 (15)	100.0	0.0	0.0	0.0	0.0	0.0
	자영업 (99)	79.8	8.1	8.1	2.0	2.0	0.0
	주부 (42)	78.6	9.5	2.4	2.4	4.8	2.4
	은퇴자 (2)	50.0	50.0	0.0	0.0	0.0	0.0
	학생 (4)	50.0	0.0	0.0	0.0	50.0	0.0
	무직/기타 (1)	0.0	0.0	0.0	100.0	0.0	0.0
교육 수준	중졸 이하 (15)	93.3	6.7	0.0	0.0	0.0	0.0
	고졸 (188)	76.1	9.6	6.4	3.7	3.7	0.5
	대재 이상 (208)	84.1	10.1	4.3	0.5	0.0	1.0
가구 소득	저소득 (38)	86.8	5.3	5.3	0.0	0.0	2.6
	중소득 (214)	81.8	8.4	4.7	2.3	1.9	0.9
	고소득 (159)	78.0	12.6	5.7	1.9	1.9	0.0

### ■ 저축성 보험 가입 이유

- 목돈 마련을 위해 저축성 보험에 가입했다는 응답은 성별과 연령에 상관없이 가장 높음

〈표 II-50〉 저축성 보험 가입 이유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목돈 마련을 위한 저축수단	노후자금 마련	위험에 대비한 보장	자산 증식을 위한 투자수단	타 금융 상품과 비교한 세제혜택 유리
전체		(92)	59.8	21.7	14.1	3.3	1.1
성별	남성	(37)	62.2	21.6	13.5	2.7	0.0
	여성	(55)	58.2	21.8	14.5	3.6	1.8
연령	20대	(13)	84.6	0.0	7.7	7.7	0.0
	30대	(14)	35.7	35.7	14.3	7.1	7.1
	40대	(22)	77.3	13.6	9.1	0.0	0.0
	50대	(27)	59.3	18.5	18.5	3.7	0.0
	60대 이상	(16)	37.5	43.8	18.8	0.0	0.0
지역규모	대도시	(55)	49.1	32.7	12.7	5.5	0.0
	중·소도시	(35)	80.0	5.7	11.4	0.0	2.9
	군지역	(2)	0.0	0.0	100.0	0.0	0.0
직업	화이트칼라	(30)	56.7	26.7	13.3	3.3	0.0
	블루칼라	(28)	60.7	21.4	17.9	0.0	0.0
	자영업	(8)	37.5	37.5	12.5	12.5	0.0
	주부	(25)	68.0	12.0	12.0	4.0	4.0
	학생	(1)	100.0	0.0	0.0	0.0	0.0
교육 수준	중졸 이하	(2)	0.0	50.0	50.0	0.0	0.0
	고졸	(37)	56.8	18.9	18.9	2.7	2.7
	대재 이상	(53)	64.2	22.6	9.4	3.8	0.0
가구 소득	저소득	(9)	44.4	33.3	22.2	0.0	0.0
	중소득	(42)	57.1	19.0	16.7	4.8	2.4
	고소득	(41)	65.9	22.0	9.8	2.4	0.0

■ 연금보험 가입 이유

- 노후자금 마련을 위해 연금보험에 가입했다는 응답은 성별과 상관없이 가장 높음
- 노후자금 마련을 위해 연금보험에 가입했다는 응답은 40대(70.5%)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노후자금 마련을 위해 연금보험에 가입했다는 응답은 중·소도시(67.5%)에서 타 지역 대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I-51〉 연금보험 가입 이유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노후자금 마련	위험에 대비한 보장	목돈 마련을 위한 저축수단	자산 증식을 위한 투자수단	타 금융 상품과 비교한 세제혜택 유리
전체		(272)	64.7	22.8	8.8	1.8	1.8
성별	남성	(147)	61.9	22.4	10.2	2.7	2.7
	여성	(125)	68.0	23.2	7.2	0.8	0.8
연령	20대	(18)	33.3	16.7	33.3	16.7	0.0
	30대	(32)	62.5	21.9	12.5	0.0	3.1
	40대	(105)	70.5	21.0	5.7	1.0	1.9
	50대	(81)	65.4	23.5	7.4	1.2	2.5
	60대 이상	(36)	63.9	30.6	5.6	0.0	0.0
지역규모	대도시	(145)	62.8	22.8	11.7	0.7	2.1
	중·소도시	(114)	67.5	21.9	5.3	3.5	1.8
	군지역	(13)	61.5	30.8	7.7	0.0	0.0
직업	화이트칼라	(103)	66.0	17.5	9.7	2.9	3.9
	블루칼라	(79)	62.0	22.8	12.7	1.3	1.3
	농/임/어업	(2)	100.0	0.0	0.0	0.0	0.0
	자영업	(50)	58.0	38.0	2.0	2.0	0.0
	주부	(37)	75.7	18.9	5.4	0.0	0.0
	무직/기타	(1)	0.0	0.0	100.0	0.0	0.0
교육 수준	중졸 이하	(2)	100.0	0.0	0.0	0.0	0.0
	고졸	(122)	64.8	28.7	5.7	0.0	0.8
	대재 이상	(148)	64.2	18.2	11.5	3.4	2.7
가구 소득	저소득	(20)	60.0	30.0	10.0	0.0	0.0
	중소득	(121)	63.6	23.1	9.1	0.8	3.3
	고소득	(131)	66.4	21.4	8.4	3.1	0.8

### ■ 변액보험 가입 이유

- 노후자금 마련하기 변액보험에 가입했다는 응답이 52.7%로 높게 나타남
- 특히, 중·소도시의 경우 노후자금 마련을 위해 변액보험에 가입했다는 응답이 57.1%로 높게 나타났음

〈표 II-52〉 변액보험 가입 이유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노후자금 마련	위험에 대비한 보장	목돈 마련을 위한 저축수단	자녀에게 유산상속 목적	자산 증식을 위한 투자수단
전체		(110)	52.7	30.9	11.8	4.5	2.7
성별	남성	(59)	50.8	28.8	13.6	6.8	1.7
	여성	(51)	54.9	33.3	9.8	2.0	3.9
연령	20대	(8)	75.0	25.0	0.0	0.0	0.0
	30대	(19)	57.9	21.1	21.1	0.0	5.3
	40대	(39)	35.9	41.0	12.8	10.3	2.6
	50대	(30)	60.0	26.7	10.0	3.3	3.3
	60대 이상	(14)	64.3	28.6	7.1	0.0	0.0
지역규모	대도시	(52)	50.0	40.4	7.7	0.0	1.9
	중·소도시	(56)	57.1	19.6	16.1	8.9	3.6
	군지역	(2)	0.0	100.0	0.0	0.0	0.0
직업	화이트칼라	(40)	47.5	20.0	20.0	10.0	5.0
	블루칼라	(19)	42.1	57.9	5.3	0.0	0.0
	자영업	(26)	65.4	30.8	7.7	0.0	0.0
	주부	(23)	52.2	30.4	8.7	4.3	4.3
	학생	(1)	100.0	0.0	0.0	0.0	0.0
	무직/기타	(1)	100.0	0.0	0.0	0.0	0.0
교육 수준	고졸	(40)	57.5	30.0	7.5	2.5	5.0
	대재 이상	(70)	50.0	31.4	14.3	5.7	1.4
가구 소득	저소득	(3)	100.0	0.0	33.3	0.0	0.0
	중소득	(55)	43.6	38.2	16.4	3.6	0.0
	고소득	(52)	59.6	25.0	5.8	5.8	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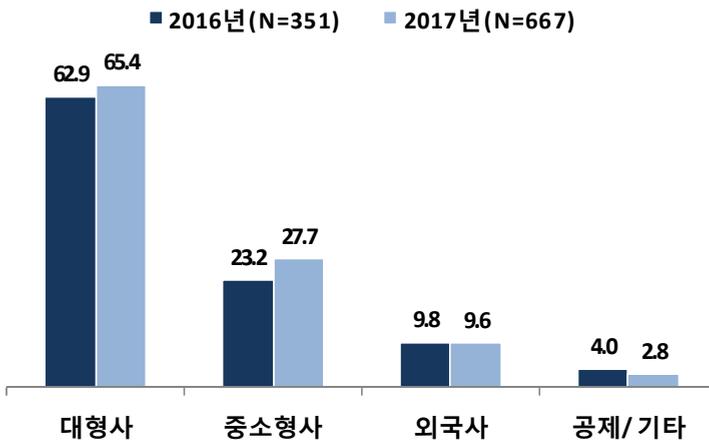
## 다. 생명보험 회사군별 가입률

### 1) 조사 결과 및 시사점

- 생명보험 회사군을 3개로 구분하여 국내 대형사, 국내 중·소형사, 외국사별 가입 현황을 파악함<sup>4)</sup>
- 최근 3년 이내 생명보험회사 가입자(N=667) 중에서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3개 대형 보험회사 가입률<sup>5)</sup>은 65.4%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중·소형사(27.7%), 외국사(9.6%), 공제/기타(2.8%) 순임

〈그림 II-7〉 최근 3년 내 생명보험 회사군별 가입률

(단위: %)



주: 3년 이내에 생명보험 회사에 가입한 사람 중 각 회사군별 상품을 보유하고 있는 비율을 의미하며, 중복 응답이 가능하여 합계가 100%를 초과함

- 
- 4) 대형사는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이며, 국내 중·소형사는 국내 13개 생명보험회사이며, 외국사는 알리안츠생명을 비롯한 9개 회사를 포함함
  - 5) 3년 이내에 생명보험 회사에 가입한 667명 중에서 각 회사군별 상품을 보유하고 있는 비율을 의미하며, 중복 체크가 가능하기 때문에 합계가 100%를 초과함

## 2) 세부 분석

## ■ 최근 3년 내 생명보험 회사군별 가입 비중

- 최근 3년 내 가입자 가운데 대형사에 가입한 가입률이 가장 높았음
  - 여성이 남성보다 대형사(67.0%) 상품에 가입한 가입률이 높았으며, 남성은 중·소형사(29.5%)에 가입한 가입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대형사에 가입한 가입률은 30대(70.1%)에서 상대적으로 높았고, 중·소형사에 가입한 가입률은 40대(32.9%), 외국사에 가입한 가입률은 60대 이상(22.4%)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I-53〉 생명보험 회사군별 가입률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대형사	중·소형사	외국사	공제/기타
전체		(667)	65.4	27.7	9.6	2.8
성별	남성	(352)	63.9	29.5	8.2	3.1
	여성	(315)	67.0	25.7	11.1	2.5
연령	20대	(150)	66.0	30.0	7.3	2.7
	30대	(174)	70.1	26.4	9.2	2.3
	40대	(152)	63.2	32.9	7.9	0.7
	50대	(115)	68.7	24.3	7.0	2.6
	60대 이상	(76)	52.6	21.1	22.4	9.2
지역규모	대도시	(308)	66.6	25.6	8.8	2.3
	중·소도시	(320)	63.1	30.9	10.9	3.4
	군지역	(39)	74.4	17.9	5.1	2.6
직업	화이트칼라	(243)	69.5	28.0	7.0	2.1
	블루칼라	(193)	65.3	29.0	6.7	2.6
	농/임/어업	(15)	53.3	40.0	6.7	0.0
	자영업	(93)	61.3	21.5	19.4	2.2
	주부	(99)	68.7	24.2	12.1	4.0
	은퇴자	(1)	100.0	0.0	0.0	0.0
	학생	(18)	27.8	55.6	16.7	5.6
	무직/기타	(5)	40.0	20.0	0.0	40.0
교육 수준	중졸 이하	(21)	42.9	9.5	23.8	23.8
	고졸	(271)	65.3	25.8	10.3	3.0
	대재 이상	(375)	66.7	30.1	8.3	1.6
가구 소득	저소득	(86)	52.3	30.2	16.3	10.5
	중소득	(381)	70.1	25.5	8.1	1.0
	고소득	(200)	62.0	31.0	9.5	3.0

## 라. 생명보험 상품 만족도 분석

### 1) 조사 결과 및 시사점

- 최근 3년 이내 가입한 보험 종목별 만족도는 저축성 보험, 정기 사망보험, 변액 유니버설 종신보험, 변액 종신보험이 4.0점으로 나타났고, 실손의료보험, 질병보장보험, 재해상해보험이 각각 3.91점으로 나타남

〈표 II-54〉 최근 3년 내 생명보험 가입 종목별 상품 만족도

구분		사례 수	상품 만족도(5점 만점)
실손의료보험		(171)	3.91
질병보장보험		(363)	3.91
재해상해보험		(74)	3.91
간병보험		(22)	3.64
사망보험	종신	(94)	3.90
	정기	(2)	4.00
저축성 보험		(42)	4.00
연금보험		(51)	3.88
어린이보험		(23)	3.87
변액보험	연금	(11)	3.45
	유니버설 연금	(8)	3.75
	유니버설 종신	(11)	4.00
	종신	(3)	4.00

### 2) 세부 분석

- 최근 3년 이내 가입한 생명보험 종목별 만족도
  - 생명보험 종목별 응답자 만족도의 경우 전반적으로 남성에 비해 여성이 높게 나타났음
  - 연령별로는 40대에서, 그리고 중졸 이하의 학력층에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I-55〉 생명보험상품 만족도

(단위: 점, 5점 만점)

특성별		실손의료 보험	질병보장 보험	재해상해 보험	간병 보험	사망보험	
						종신	정기
전체		3.91	3.91	3.91	3.64	3.90	4.00
성별	남성	3.90	3.88	3.89	3.45	3.89	-
	여성	3.92	3.93	3.93	3.82	3.94	4.00
연령	20대	3.92	3.95	4.00	-	3.96	-
	30대	3.92	3.94	3.94	-	4.04	-
	40대	4.00	3.84	4.00	4.00	3.77	4.00
	50대	3.86	3.93	3.78	2.50	3.85	-
	60대 이상	3.75	3.83	3.82	3.86	3.80	-
지역규모	대도시	3.91	3.92	3.86	3.50	3.84	-
	중·소도시	3.91	3.90	3.90	3.67	3.96	4.00
	군지역	3.89	3.88	4.50	3.67	3.67	-
직업	화이트칼라	3.86	3.91	3.83	1.00	3.92	4.00
	블루칼라	3.98	3.90	3.92	3.82	4.00	-
	농/임/어업	4.00	3.89	4.50	3.50	4.00	-
	자영업	4.05	3.86	4.00	4.00	3.85	-
	주부	3.83	3.98	3.83	3.00	3.67	-
	은퇴자	3.00	-	-	-	-	-
	학생	3.67	4.00	4.33	-	4.00	-
	무직/기타	-	3.33	3.00	4.00	-	-
교육 수준	중졸 이하	4.00	3.87	4.00	4.00	4.00	-
	고졸	4.00	3.91	4.00	3.80	3.81	-
	대재 이상	3.84	3.91	3.84	2.75	3.95	4.00
가구 소득	저소득	4.00	3.87	3.80	3.86	3.88	-
	중소득	3.92	3.92	3.86	3.58	3.94	-
	고소득	3.84	3.90	4.05	3.33	3.85	4.00

주: 간병보험, 사망정기보험, 연금보험, 어린이보험, 변액보험 등은 표본의 규모가 작아 통계적 의미가 낮음

〈표 II-56〉 생명보험상품 만족도(계속)

(단위: 점, 5점 만점)

특성별	저축성 보험	연금 보험	어린이 보험	변액보험				
				변액 연금	변액 유니버 설 연금	변액 유니버 설 종신	변액 종신	
전체	4.00	3.88	3.87	3.45	3.75	4.00	4.00	
성별	남성	4.07	3.96	4.00	3.63	3.50	4.17	-
	여성	3.96	3.79	3.86	3.00	4.00	3.80	4.00
연령	20대	4.00	4.00	4.00	3.00	-	4.00	-
	30대	3.78	3.85	3.88	3.25	4.00	-	-
	40대	4.18	3.90	3.75	3.67	3.50	3.75	3.50
	50대	4.07	3.80	-	-	4.00	4.20	-
	60대 이상	3.67	4.00	-	-	4.00	-	5.00
지역규모	대도시	4.04	3.83	3.85	3.25	4.00	4.20	4.00
	중·소도시	3.94	3.95	3.89	3.57	3.60	3.80	4.00
	군지역	-	4.00	4.00	-	-	4.00	-
직업	화이트칼라	4.13	3.82	3.00	3.71	3.33	4.00	-
	블루칼라	4.11	3.93	4.00	3.00	4.00	4.00	4.00
	농/임/어업	-	4.00	-	-	-	-	-
	자영업	4.00	4.00	4.00	-	4.00	4.00	-
	주부	3.81	3.75	4.08	3.00	4.00	4.00	-
	학생	-	-	-	-	-	4.00	-
	무직/기타	-	4.00	-	-	-	-	-
교육 수준	중졸 이하	-	4.00	-	-	-	-	-
	고졸	3.92	4.00	4.09	3.00	4.00	4.00	3.00
	대재 이상	4.03	3.78	3.67	3.50	3.67	-	4.50
가구 소득	저소득	4.00	3.75	-	-	4.00	4.00	-
	중소득	3.83	3.92	3.90	3.17	4.00	4.00	4.00
	고소득	4.08	3.86	3.67	3.80	3.60	4.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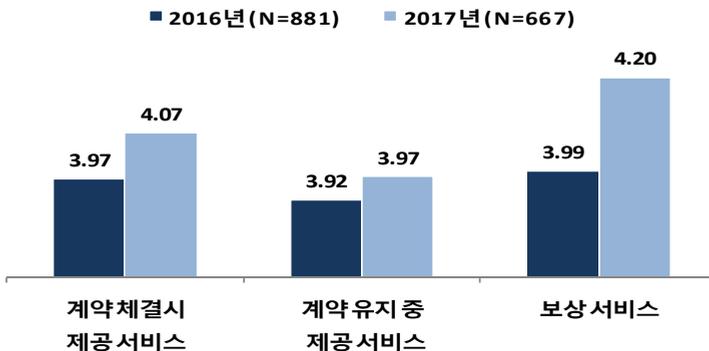
## 마. 생명보험 서비스 만족도

### 1) 조사 결과 및 시사점

- 생명보험 가입자(N=667)를 대상으로 현재 가지고 있는 생명보험의 서비스 만족도를 측정한 결과, 보상서비스가 4.20점, 계약 체결 시 서비스가 4.07점, 계약 유지 서비스가 3.97점으로 나타남
- 전년도 생명보험 서비스 만족도와 비교해 볼 때, 전반적으로 소폭 상승함

〈그림 II-8〉 생명보험 서비스 만족도

(단위: 점, 5점 만점)



주: 보상서비스(N=144)는 보상 경험자의 만족도만을 측정함

### 2) 세부 분석

#### ■ 생명보험 서비스 만족도

- 생명보험 서비스에 대한 남성과 여성과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
- 보상서비스 만족도의 경우 30대(4.39점)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그러나, 계약 체결 시 제공서비스, 계약유지 중 제공서비스, 보상서비스에 대해 성별, 지역규모, 직업, 교육수준, 가구 연간 소득에 따라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음

〈표 II-57〉 생명보험 서비스 만족도

(단위: 점, 5점 만점)

특성별		사례 수	계약 체결 시 제공서비스	계약 유지 중 제공서비스	보상서비스
전체		(667)	4.07	3.97	4.20
성별	남성	(352)	4.07	3.97	4.19
	여성	(315)	4.08	3.97	4.20
연령	20대	(150)	4.12	3.98	3.91
	30대	(174)	4.07	3.95	4.39
	40대	(152)	4.03	3.97	4.33
	50대	(115)	4.10	3.98	4.19
	60대 이상	(76)	4.03	4.00	4.09
지역규모	대도시	(308)	4.14	4.02	4.24
	중·소도시	(320)	4.00	3.92	4.16
	군지역	(39)	4.13	4.05	4.18
직업	화이트칼라	(243)	4.10	3.93	4.14
	블루칼라	(193)	4.09	4.02	4.19
	농/임/어업	(15)	3.87	3.93	4.00
	자영업	(93)	4.10	4.06	4.26
	주부	(99)	4.00	3.93	4.36
	은퇴자	(1)	4.00	4.00	-
	학생	(18)	4.00	4.00	3.75
	무직/기타	(5)	3.80	3.80	-
교육 수준	중졸 이하	(21)	3.95	3.90	4.00
	고졸	(271)	4.08	4.01	4.18
	대재 이상	(375)	4.07	3.95	4.21
가구 소득	저소득	(86)	4.13	4.06	4.05
	중소득	(381)	4.07	3.95	4.17
	고소득	(200)	4.06	3.99	4.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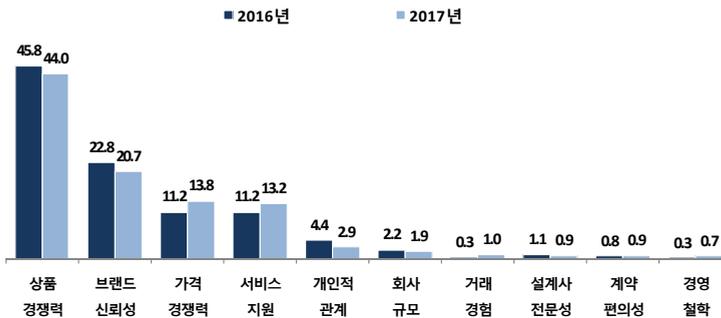
## 바. 생명보험회사 선택 시 고려 사항

### 1) 조사 결과 및 시사점

- 향후 생명보험회사 선택 시 소비자의 고려사항을 파악함으로써 보험소비자의 보험 니즈 파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 생명보험회사를 선택할 때 소비자는 무엇보다 상품 경쟁력(44.0%)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브랜드 신뢰성(20.7%), 가격 경쟁력(13.8%), 서비스 지원(13.2%), 개인적 관계(2.9%) 등의 순임

〈그림 II-9〉 생명보험회사 선택 시 고려사항(1순위)

(연도별 가입가구 대비 / 단위: %)



### 2) 세부 분석

- 생명보험회사 선택 시 고려사항
  - 생명보험회사 선택 시 남녀 모두 상품 경쟁력을 가장 많이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남

- 연령에 따른 생명보험회사 선택 시 고려사항의 큰 차이는 없는 가운데, 브랜드 신뢰성은 20대(23.8%)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상품 경쟁력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응답은 화이트칼라(46.7%)와 대재 이상(45.5%)에서 높음

〈표 II-58〉 생명보험회사 선택 시 고려사항(1순위)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상품 경쟁력	브랜드 신뢰성	가격 경쟁력	서비스 지원	개인적 관계
전체		(2,200)	44.0	20.7	13.8	13.2	2.9
성별	남성	(1,092)	45.1	21.5	12.5	13.6	2.4
	여성	(1,108)	43.0	19.9	15.1	12.7	3.3
연령	20대	(357)	48.7	23.8	12.9	9.5	2.5
	30대	(393)	42.7	21.1	15.3	11.5	4.1
	40대	(461)	46.4	19.7	11.5	14.3	2.4
	50대	(446)	41.7	20.6	12.8	15.9	1.6
	60대 이상	(543)	41.8	19.3	16.0	13.6	3.7
지역규모	대도시	(1,006)	44.7	21.2	13.4	11.9	2.5
	중·소도시	(1,007)	43.0	20.8	14.5	15.2	2.6
	군지역	(187)	46.0	18.2	11.8	9.1	6.4
직업	화이트칼라	(580)	46.7	20.5	14.1	12.1	2.4
	블루칼라	(611)	44.2	21.1	11.5	14.9	3.6
	농/임/어업	(95)	34.7	22.1	18.9	11.6	4.2
	자영업	(396)	44.4	17.7	12.6	17.7	2.3
	주부	(409)	41.6	23.0	15.6	9.3	2.9
	은퇴자	(19)	42.1	10.5	31.6	5.3	0.0
	학생	(59)	52.5	22.0	11.9	6.8	1.7
	무직/기타	(31)	32.3	25.8	19.4	16.1	3.2
교육 수준	중졸 이하	(196)	44.4	17.9	14.3	13.3	5.1
	고졸	(1,057)	42.7	21.4	13.8	13.4	2.4
	대재 이상	(946)	45.5	20.6	13.6	12.9	3.0
	모름/무응답	(1)	100.0	0.0	0.0	0.0	0.0
가구 소득	저소득	(406)	41.6	18.7	15.3	14.8	3.7
	중소득	(1,226)	44.0	21.9	13.1	12.9	2.9
	고소득	(568)	45.8	19.5	14.3	12.7	2.3

〈표 II-59〉 생명보험회사 선택 시 고려사항(1순위) (계속)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회사 규모	거래 경험	설계사 전문성	계약 편의성	경영 철학
전체		(2,200)	1.9	1.0	0.9	0.9	0.7
성별	남성	(1,092)	1.7	0.7	0.8	0.7	0.8
	여성	(1,108)	2.1	1.4	0.9	1.0	0.6
연령	20대	(357)	1.7	0.0	0.3	0.3	0.3
	30대	(393)	1.8	0.3	0.3	1.8	1.3
	40대	(461)	2.0	1.1	1.5	0.7	0.4
	50대	(446)	2.5	2.2	0.9	0.7	1.1
	60대 이상	(543)	1.7	1.3	1.1	0.9	0.6
지역규모	대도시	(1,006)	2.0	1.1	0.9	1.5	0.8
	중·소도시	(1,007)	2.0	0.9	0.1	0.3	0.7
	군지역	(187)	1.1	1.6	4.8	0.5	0.5
직업	화이트칼라	(580)	1.2	0.5	0.3	1.2	0.9
	블루칼라	(611)	1.6	1.5	0.8	0.5	0.3
	농/임/어업	(95)	1.1	1.1	5.3	0.0	1.1
	자영업	(396)	2.5	0.3	1.3	0.5	0.8
	주부	(409)	2.9	1.7	0.5	1.2	1.2
	은퇴자	(19)	0.0	5.3	0.0	5.3	0.0
	학생	(59)	3.4	0.0	0.0	1.7	0.0
	무직/기타	(31)	0.0	3.2	0.0	0.0	0.0
교육 수준	중졸 이하	(196)	2.0	0.5	1.5	1.0	0.0
	고졸	(1,057)	2.2	1.5	1.2	0.7	0.8
	대재 이상	(946)	1.6	0.6	0.3	1.1	0.8
	모름/무응답	(1)	0.0	0.0	0.0	0.0	0.0
가구 소득	저소득	(406)	1.7	1.5	1.5	1.0	0.2
	중소득	(1,226)	2.0	0.7	1.0	0.9	0.7
	고소득	(568)	1.9	1.4	0.2	0.7	1.2

---

## Ⅲ. 손해보험

---

### 1. 손해보험 가입 현황

#### 가. 손해보험 가구당 가입 현황

##### 1) 조사 결과 및 시사점

- 2017년 손해보험 가구 가입률은 89.5%로 2016년(88.9%) 대비 0.6%p 증가하고, 가입건수는 가구당 3.4건으로 2015년(3.5건) 대비 0.1건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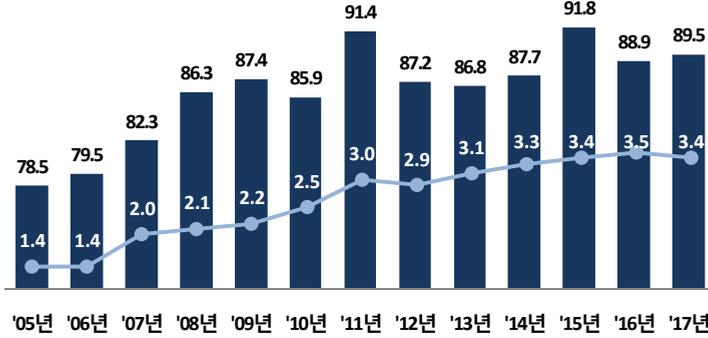
〈표 Ⅲ-1〉 손해보험 가구당 가입률/가입건수

(단위: 가입률-%, 가입건수-건)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가구 가입률	85.9	91.4	87.2	86.8	87.7	91.8	88.9	89.5
가구 가입건수	2.5	3.0	2.9	3.1	3.3	3.4	3.5	3.4

〈그림 Ⅲ-1〉 손해보험 가구당 가입률/가입건수 추이

(연도별 가입가구 대비 / 단위: 가입률-%, 가입건수-건)



- 블루칼라, 주부, 은퇴자를 제외한 모든 세대주 직업별 및 가구소득별 손해보험 가구 가입률이 전년대비 하락한 가운데, 농/임/어업(-4.7%p)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하락함

〈표 Ⅲ-2〉 손해보험 가구당 가입률/가입건수: 세대주 직업 및 가구 소득별

(단위: %)

구분	가구 가입률			가구 가입건수			
	2016년	2017년	2016년 대비 가입률(%p)	2016년	2017년	2016년 대비 가입률(%p)	
세대주 직업	화이트칼라	96.2	92.2	-4.0	4.1	3.8	-0.3
	블루칼라	85.7	87.9	2.2	3.1	3.3	0.2
	자영업	92.4	90.7	-1.7	3.6	3.5	-0.1
	농/임/어업	81.5	76.8	-4.7	2.6	2.5	-0.1
	주부	83.9	91.7	7.8	3.3	1.8	-1.5
	은퇴자	83.3	89.5	6.2	2.8	3.8	1.0
	학생	92.1	93.2	1.1	4.1	0.8	-3.3
	무직/기타	66.7	61.3	-5.4	1.7	2.0	0.3
가구 소득	저소득	66.5	69.5	3.0	1.6	1.7	0.1
	중소득	94.2	92.3	-1.9	3.1	3.5	0.4
	고소득	97.4	97.9	0.5	4.4	4.5	0.1

주: 농/임/어업은 표본 수가 적어 통계적 의미가 낮음

## 2) 세부 분석

## ■ 손해보험 가구당 가입률: 거주 지역별

- 손해보험 가구 가입률은 대도시(91.8%), 중·소도시(88.0%), 군지역(85.6%) 모두 80% 이상으로 나타남
- 거주 지역별 손해보험 가구당 가입률은 큰 변동이 없으나, 대도시를 제외한 중·소도시, 군지역의 손해보험 가구 가입률이 전년대비 증가함

〈표 Ⅲ-3〉 손해보험 가구당 가입률: 거주 지역별

(단위: %)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대도시	84.4	88.3	88.3	86.1	86.9	90.6	92.0	91.8
중·소도시	86.6	94.1	87.0	89.5	88.8	92.4	87.0	88.0
군지역	90.3	94.5	82.4	76.9	85.6	94.8	82.5	85.6

## ■ 손해보험 가구당 가입률: 소득별

- 손해보험 가구 가입률의 경우 가구 소득이 많을수록(저소득 69.5% < 중소득 92.3% < 고소득 97.9%) 높음
- 고소득 가구와 저소득 가구의 가입률은 전년대비 각각 0.5%p, 3.0%p 증가한 반면, 중소득 가구 가입률은 전년대비 1.9%p 감소함

〈표 Ⅲ-4〉 손해보험 가구당 가입률: 소득별

(단위: %)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저소득	70.7	79.9	66.6	63.0	63.6	73.2	66.5	69.5
중소득	92.4	94.9	92.4	92.7	90.9	94.3	94.2	92.3
고소득	96.1	94.9	96.0	96.8	95.2	97.8	97.4	97.9

■ 손해보험 가구당 가입률: 보험 종목별

- 손해보험 종목별 가구 가입률은 자동차보험이 79.2%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장기손해보험(78.1%), 상해보험(2.2%) 순이었음
- 종목별 가구 가입건수의 경우 상해보험 1.3건, 자동차보험 1.2건, 장기손해보험 1.1건으로 나타남

〈표 Ⅲ-5〉 손해보험 가구당 가입률/가입건수: 보험 종목별(2017년)

구분	2017년 가입률(%)	2017년 가입건수(건)
자동차보험	79.2	1.2
장기손해보험	78.1	1.1
상해보험	2.2	1.3
기타	0.4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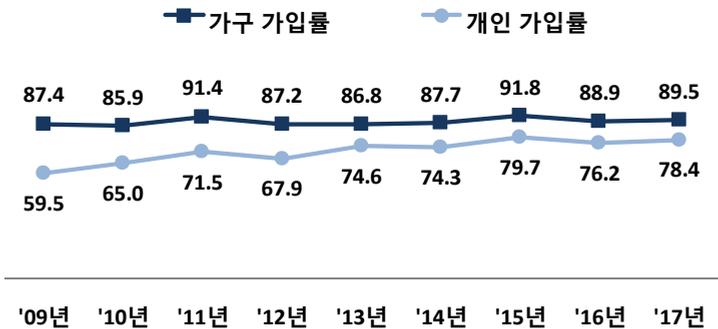
나. 손해보험 개인별 가입 현황

1) 조사 결과 및 시사점

■ 2017년 손해보험 개인 가입률은 전년대비 2.2%p 증가한 78.4%로 나타남

〈그림 Ⅲ-2〉 손해보험 가구 가입률과 개인 가입률

(연도별 가입가구 또는 가입자 대비 / 단위: %)



- 개인별 손해보험 가입률과 가입건수는 50대(87.7%, 1.8건)가 다른 연령대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으며, 미혼(67.3%, 1.2건)보다는 기혼(81.3%, 1.6건)에서 그리고 고소득(84.3%, 1.7건) 가구에서 높게 나타남
  - 손해보험 개인 가입률은 40대 이상에서는 전년대비 상승하고, 30대 이하에서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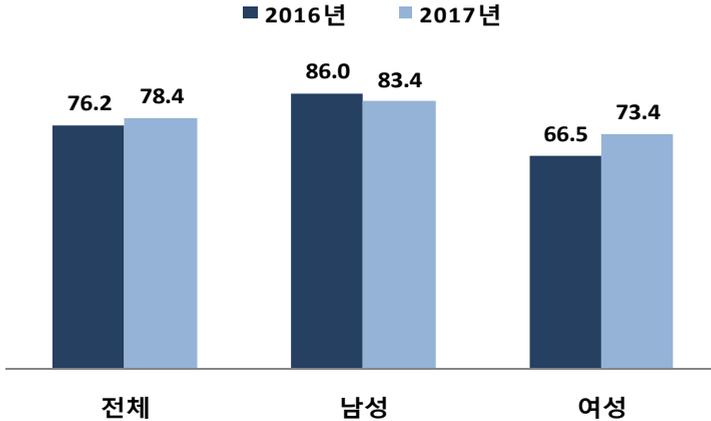
〈표 Ⅲ-6〉 손해보험 개인별 가입률/가입건수: 연령, 결혼 여부, 가구 소득별  
(단위: 가입률-%, 가입건수-건)

구분	개인 가입률			개인 가입건수			
	2016년	2017년	2016년 대비 가입률(%p)	2016년	2017년	2016년 대비 가입건수(건)	
연령	20대	67.5	63.0	-4.5	1.2	1.0	-0.2
	30대	83.8	81.7	-2.1	1.8	1.6	-0.2
	40대	84.1	86.6	2.5	1.9	1.9	0.0
	50대	83.3	87.7	4.4	1.8	1.8	0.0
	60대 이상	62.9	71.5	8.6	1.2	1.2	0.0
결혼 여부	기혼	77.2	81.3	4.1	1.6	1.6	0.0
	미혼	72.4	67.3	-5.1	1.3	1.2	-0.1
가구 소득	저소득	59.8	61.3	1.5	1.1	1.0	-0.1
	중소득	80.4	81.2	0.8	1.7	1.6	-0.1
	고소득	81.7	84.3	2.6	1.8	1.7	-0.1

- 성별 기준 손해보험 개인 가입률의 경우, 남성이 83.4%, 여성이 73.4%로 여전히 남성의 가입률이 더 높음
  - 남성의 손해보험 개인 가입률은 전년대비 2.6%p 감소한 반면, 여성의 손해보험 개인 가입률은 전년대비 6.9%p 증가함

〈그림 Ⅲ-3〉 손해보험 개인 가입률: 성별

(연도별 가입자 대비 / 단위: %)



2) 세부분석

■ 손해보험 개인별 가입률: 성별, 결혼 여부별

- 손해보험 개인 가입률은 남성(83.4%)이 여성(73.4%)보다 높은 가운데, 특히 기혼 남성의 개인 가입률이 88.3%로 가장 높게 나타남
  - 기혼 남성의 자동차보험 가입률이 상대적으로 높아 여성에 비해 전체 손해 보험 개인 가입률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표 Ⅲ-7〉 손해보험 개인별 가입률/가입건수: 성별, 결혼 여부별

(단위: 가입률-%, 가입건수-건)

구분	전체		남성		여성	
	기혼	미혼	기혼	미혼	기혼	미혼
개인 가입률(%)	81.3	67.3	83.4		73.4	
			88.3	67.8	74.8	66.5
개인 가입건수(건)	1.6	1.2	1.8		1.2	
			2.0	1.3	1.2	1.0

주: 가입건수는 손해보험 가입자들의 1인당 가입건수임

### ■ 손해보험 개인별 가입률: 연령별

- 중·장년층 연령대(40대 이상)에서 손해보험 개인 가입률은 전년대비 증가한 반면, 청년층 연령대(30대 이하)에서는 전년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개인 가입건수는 20대 1.0건, 30대 1.6건, 40대 1.9건, 50대 1.8건, 60대 이상 1.2건으로 나타남

〈표 Ⅲ-8〉 손해보험 개인별 가입률/가입건수: 연령별

(단위: 가입률-%, 가입건수-건)

구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가입률(%)	63.0	81.7	86.6	87.7	71.5
가입건수(건)	1.0	1.6	1.9	1.8	1.2
2016년 대비 가입률(%p)	-4.5	-2.1	2.5	4.4	8.6

### ■ 손해보험 개인별 가입률: 거주 지역별

- 지역별 개인 가입률은 대도시 81.9%로 가장 높았고, 군지역과 중·소도시는 각각 75.9%, 75.3%으로 비슷한 수준임
- 지역별 개인 가입건수는 대도시 1.6건, 중·소도시 1.5건, 군지역 1.4건 순으로 나타남

〈표 Ⅲ-9〉 손해보험 개인별 가입률/가입건수: 거주 지역별

(단위: 가입률-%, 가입건수-건)

구분	가입률(%)	가입건수(건)
대도시	81.9	1.6
중·소도시	75.3	1.5
군지역	75.9	1.4

### ■ 손해보험 개인별 가입률: 학력별

- 손해보험 개인 가입률과 가입건수는 학력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남
- 대재 이상 고학력 응답자의 개인 가입률은 83.3%, 개인 가입건수는 1.7건인 반면, 중졸 이하 저학력 응답자의 개인 가입률은 57.7%, 개인 가입건수는 0.9건임

〈표 Ⅲ-10〉 손해보험 개인별 가입률/가입건수: 학력별

(단위: 가입률-%, 가입건수-건)

구분	가입률(%)	가입건수(건)
중졸 이하	57.7	0.9
고졸	77.9	1.5
대재 이상	83.3	1.7
모름/무응답	0.0	0.0

#### ■ 손해보험 개인별 가입률: 직업별

- 직업별로는 자영업(85.6%), 화이트칼라(82.6%)의 개인 가입률이 80% 이상으로 높았고, 학생(59.3%), 무직/기타(48.4%) 등 비경제활동 계층의 개인 가입률은 상대적으로 낮았음
- 개인 가입건수는 은퇴자(1.9건), 자영업(1.8건), 화이트칼라(1.7건), 블루칼라(1.6건)가 1.5건 이상이었으나, 농/임/어업(1.2건), 주부(1.1건), 학생(0.8건) 무직/기타(0.9건)는 1건 내외로 상대적으로 적음

〈표 Ⅲ-11〉 손해보험 개인별 가입률/가입건수: 직업별

(단위: 가입률-%, 가입건수-건)

구분	가입률(%)	가입건수(건)
은퇴자	89.5	1.9
자영업	85.6	1.8
화이트칼라	82.6	1.7
블루칼라	76.4	1.6
주부	75.1	1.1
농/임/어업	68.4	1.2
학생	59.3	0.8
무직/기타	48.4	0.9

주: 농/임/어업은 표본의 규모가 작아 통계적 의미가 낮음

■ 손해보험 개인별 가입률: 가구 소득별

- 중소득(81.2%)과 고소득(84.3%) 가구의 손해보험 개인 가입률은 저소득 가구의 개인 가입률(61.3%)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음
- 개인 가입건수는 고소득(1.7건)과 중소득 가구(1.6건) 가입건수가 상대적으로 많아(저소득 가구 가입건수: 1.0건) 소득 수준에 따라 손해보험 가입건수의 차이를 보임

〈표 Ⅲ-12〉 손해보험 개인별 가입률/가입건수: 가구 소득별

(단위: 가입률-%, 가입건수-건)

구분	가입률(%)	가입건수(건)
저소득	61.3	1.0
중소득	81.2	1.6
고소득	84.3	1.7

■ 손해보험 개인별 가입률: 종목별

- 종목별로 보면, 자동차보험 개인 가입률이 68.9%로 가장 높고, 자동차보험과 장기손해보험을 제외한 다른 종목의 경우 가입률이 10% 미만으로 나타남
- 자동차보험은 남성(71.3%), 40대(77.0%), 50대(76.9%), 고소득(74.8%) 가구에 속한 개인의 가입률이 높음

〈표 Ⅲ-13〉 손해보험 개인별 가입률: 종목별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자동차 보험	장기손해 보험	상해보험	기타	비가입
전체		(2,200)	68.9	47.5	0.9	0.4	21.6
성별	남성	(1,092)	71.3	70.7	0.7	0.3	16.6
	여성	(1,108)	66.4	24.7	1.1	0.5	26.6
연령	20대	(357)	56.6	26.1	0.3	0.3	37.0
	30대	(393)	71.0	55.0	1.8	0.8	18.3
	40대	(461)	77.0	60.1	0.9	0.4	13.4
	50대	(446)	76.9	59.0	1.3	0.2	12.3
	60대 이상	(543)	61.9	36.3	0.4	0.2	28.5
지역규모	대도시	(1,006)	73.7	48.4	0.7	0.4	18.1
	중·소도시	(1,007)	64.7	47.5	1.2	0.4	24.7
	군지역	(187)	65.2	43.3	0.5	0.0	24.1
직업	화이트칼라	(580)	72.4	59.1	1.6	0.2	17.4
	블루칼라	(611)	68.9	50.4	0.3	0.3	23.6
	농/임/어업	(95)	55.8	33.7	0.0	0.0	31.6
	자영업	(396)	72.0	66.7	1.3	0.3	14.4
	주부	(409)	67.0	17.4	1.0	0.7	24.9
	은퇴자	(19)	84.2	68.4	0.0	0.0	10.5
	학생	(59)	55.9	11.9	0.0	1.7	40.7
	무직/기타	(31)	41.9	25.8	0.0	0.0	51.6
교육 수준	중졸 이하	(196)	53.1	20.9	0.5	0.0	42.3
	고졸	(1,057)	68.4	42.4	0.6	0.2	22.1
	대재 이상	(946)	72.7	58.9	1.4	0.6	16.7
	모름/무응답	(1)	0.0	0.0	0.0	0.0	100.0
가구 소득	저소득	(406)	53.9	29.8	0.2	0.0	38.7
	중소득	(1,226)	71.0	50.6	1.0	0.3	18.8
	고소득	(568)	74.8	53.7	1.2	0.7	15.7

## 2. 손해보험 채널별 활용 분석

### 가. 손해보험 채널별 활용

#### 1) 조사 결과 및 시사점

- 손해보험의 경우 전통적 채널인 대면채널에 대한 선호가 높아 가입자 대부분이 보험설계사, 보험회사 소속 대리점 등 대면채널(90.8%)을 통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조사됨
- 인터넷과 통신판매 등 직판채널을 통한 가입은 전년대비 5.3%p 상승한 13.3%로 나타났으며, 은행을 통한 가입률은 1.0% 수준임

〈표 Ⅲ-14〉 손해보험 채널별 구성비 추이

(단위: %)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대면	92.6	95.5	92.7	93.2	94.2	94.0	95.2	90.8
직판	7.7	4.7	6.2	8.0	9.1	7.8	8.0	13.3
은행	0.5	0.5	1.1	1.9	1.3	0.3	0.9	1.0
기타	0.0	0.0	0.0	0.0	0.0	0.0	2.6	4.3

주: 1) 상기 채널별 구성비는 주로 손해보험 가운데 개인보험 기준의 설문조사 결과로 실제 채널별 보험료 비중과는 다를 수 있음(이하 동일)

2) 은행은 은행, 증권회사 등을 포함한 채널을 의미함(이하 동일)

3) 기타채널은 제외함(이하 동일)

#### 2) 세부 분석

##### ■ 손해보험 채널별 구성비: 성별

- 남녀 모두 대면채널을 통한 가입이 90% 이상으로 높았으며, 남성에서 직판채널(17.6%)을 통한 보험가입이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음

〈표 Ⅲ-15〉 손해보험 채널별 구성비: 성별

(단위: %)

구분	남성	여성
대면	90.2	91.5
직판	17.6	8.6
은행	0.7	1.5
기타	3.8	4.8

■ 손해보험 채널별 구성비: 연령별

- 모든 연령에서 대면채널 가입률이 80% 이상임
- 20대와 30대의 경우 대면채널을 통한 가입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직판채널을 통한 가입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높게 나타남

〈표 Ⅲ-16〉 손해보험 채널별 구성비: 연령별

(단위: %)

구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대면	84.9	86.0	93.2	93.9	92.8
직판	20.4	19.9	13.8	10.2	6.4
은행	0.4	0.6	2.5	1.0	0.3
기타	2.2	3.7	4.0	5.1	5.4

■ 손해보험 채널별 구성비: 거주 지역별

- 지역규모에 상관없이 대도시, 중·소도시, 군지역 모두 대면채널을 통한 가입률이 85% 이상임
- 직판채널을 통한 가입률은 대도시 15.4%, 중·소도시 12.3%, 군지역 7.0%로 나타남

〈표 Ⅲ-17〉 손해보험 채널별 구성비: 거주 지역별

(단위: %)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군지역
대면	88.7	92.3	95.1
직판	15.4	12.3	7.0
은행	0.5	1.8	0.0
기타	4.2	4.4	4.2

■ 손해보험 채널별 구성비: 직업별

- 대부분 직업에서 대면채널을 통한 가입이 90% 내외로 높게 나타남
- 직판채널을 통한 가입은 화이트칼라(19.0%)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

〈표 Ⅲ-18〉 손해보험 채널별 구성비: 직업별

(단위: %)

구분	농/임/어업	자영업	주부	블루칼라	화이트칼라	은퇴자	학생	무직/기타
대면	94.1	93.8	91.9	91.0	89.8	76.5	65.7	86.7
직판	9.1	9.2	6.5	13.9	19.0	17.6	31.4	20.0
은행	0.3	1.5	1.6	1.1	1.3	0.0	0.0	0.0
기타	5.3	4.6	3.9	4.9	2.9	11.8	2.9	6.7

주: 농/임/어업, 은퇴자, 무직/기타는 표본의 규모가 작아 통계적 의미가 낮음

■ 손해보험 채널별 구성비: 학력별

- 대면채널 가입률은 모든 학력에서 90% 내외로 높음
- 직판채널 가입률은 대재 이상(18.0%)의 고학력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표 Ⅲ-19〉 손해보험 채널별 구성비: 학력별

(단위: %)

구분	중졸 이하	고졸	대재 이상
대면	93.8	91.7	89.5
직판	5.3	10.0	18.0
은행	0.0	1.1	1.1
기타	5.3	4.6	3.8

■ 손해보험 채널별 구성비: 가구 소득별

- 대면채널 가입률은 저소득(92.0%), 중소득(91.3%), 고소득(89.4%) 순으로 나타남
- 직판채널 가입률은 고소득(16.7%), 중소득(13.1%), 저소득(8.0%) 순으로 나타남

〈표 Ⅲ-20〉 손해보험 채널별 구성비: 가구 소득별

(단위: %)

구분	저소득	중소득	고소득
대면	92.0	91.3	89.4
직판	8.0	13.1	16.7
은행	0.4	1.0	1.5
기타	4.4	4.2	4.4

나. 손해보험 종목별 채널별 활용

1) 조사 결과 및 시사점

- 보험 종목별 가입 채널을 살펴본 결과, 모든 보험에서 대면채널을 통한 가입이 가장 높음
  - 직판채널과 은행을 통한 가입은 모든 보험 종목에서 상대적으로 낮음
- 대면채널을 통한 가입률은 기타손해보험(87.5%)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장기손해보험(86.1%), 자동차보험(83.3%), 상해보험(75.0%) 순으로 나타남
- 직판채널을 통한 가입 중에서는 상해보험이 20.0%로 다른 종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Ⅲ-21〉 손해보험 채널별 구성비

(단위: %)

구분	대면	직판	은행
자동차보험	83.3	15.7	0.2
장기손해보험	86.1	0.0	2.0
상해보험	75.0	20.0	0.0
기타	87.5	12.5	0.0

주: 1) 기타 채널은 제외함(이하 동일)

2) 자동차보험은 은행채널이 없으므로 은행채널 통계는 제외함(이하 동일)

## 2) 세부 분석

### ■ 자동차보험 채널별 구성비

- 자동차보험 판매채널로는 대면채널이 83.3%로 가장 높고, 직판채널을 통한 가입은 15.7%로 나타남
- 남녀 모두 대면채널을 통한 가입이 80% 이상으로 높은 가운데, 여성이 87.2%로 남성(81.9%)보다 대면채널을 통한 가입률이 더 높게 나타남
- 대면채널을 통한 자동차보험 가입은 연령이 높을수록 직판채널 이용률은 연령이 낮을수록 상대적으로 높음
- 거주 지역별로는 대면채널을 통한 자동차보험 가입이 군지역(88.9%), 중·소도시(84.3%), 대도시(81.3%) 순으로 나타남
- 직판채널을 통한 자동차보험 가입은 화이트칼라(21.0%)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직판채널을 통한 자동차보험 가입 비율은 고소득 계층(18.7%)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표 Ⅲ-22〉 자동차보험 채널별 구성비

(단위: %)

구분	사례 수	대면	직판	은행	
전체	(1,046)	83.3	15.7	0.2	
성별	남성	(772)	81.9	17.4	0.0
	여성	(274)	87.2	10.9	0.7
연령	20대	(93)	69.9	29.0	0.0
	30대	(216)	75.9	22.2	0.0
	40대	(277)	84.1	15.5	0.4
	50대	(263)	87.8	11.0	0.4
	60대 이상	(197)	90.4	8.6	0.0
지역규모	대도시	(487)	81.3	18.5	0.0
	중·소도시	(478)	84.3	13.8	0.4
	군지역	(81)	88.9	9.9	0.0
직업	화이트칼라	(343)	78.7	21.0	0.0
	블루칼라	(308)	83.8	14.6	0.3
	농/임/어업	(32)	81.3	18.8	0.0
	자영업	(264)	88.6	10.6	0.0
	주부	(71)	88.7	9.9	1.4
	은퇴자	(13)	84.6	7.7	0.0
	학생	(7)	57.1	42.9	0.0
	무직/기타	(8)	62.5	25.0	0.0
교육 수준	중졸 이하	(41)	92.7	4.9	0.0
	고졸	(448)	86.8	11.8	0.4
	대재 이상	(557)	79.7	19.6	0.0
가구 소득	저소득	(121)	86.8	13.2	0.0
	중소득	(620)	84.2	14.7	0.2
	고소득	(305)	80.0	18.7	0.3

#### ■ 장기손해보험의 채널별 구성비

- 장기손해보험 판매채널로는 대면채널이 91.4%로 가장 높고, 직판채널은 7.6%, 은행채널은 1.1%에 불과함
- 남성이 91.5%로 여성(91.3%)보다 대면채널을 통한 가입률이 상대적으로 높음
- 20대(11.9%), 30대(11.1%)에서 다른 연령과 비교하여 직판채널을 통한 가입

이 상대적으로 높음

- 학력과 관계없이 모든 계층에서 대면채널을 통한 가입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은행을 통한 장기손해보험 가입 비율은 고소득 계층(1.4%)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표 Ⅲ-23〉 장기손해보험 채널별 구성비

(단위: %)

구분		사례 수	대면	직판	은행
전체		(1,515)	91.4	7.6	1.1
성별	남성	(779)	91.5	8.5	0.8
	여성	(736)	91.3	6.7	1.5
연령	20대	(202)	88.1	11.9	0.5
	30대	(279)	87.1	11.1	0.7
	40대	(355)	94.6	7.3	2.5
	50대	(343)	92.7	6.4	1.2
	60대 이상	(336)	92.3	3.6	0.3
지역규모	대도시	(741)	90.0	9.2	0.5
	중·소도시	(652)	92.6	6.4	2.0
	군지역	(122)	93.4	4.1	0.0
직업	화이트칼라	(420)	91.2	9.3	1.4
	블루칼라	(421)	92.2	7.8	1.0
	농/임/어업	(53)	92.5	3.8	1.9
	자영업	(285)	94.4	4.2	0.4
	주부	(274)	92.0	5.1	1.8
	은퇴자	(16)	68.8	18.8	0.0
	학생	(33)	66.7	30.3	0.0
	무직/기타	(13)	84.6	15.4	0.0
교육 수준	중졸 이하	(104)	91.3	4.8	0.0
	고졸	(723)	91.7	6.5	1.1
	대재 이상	(688)	91.1	9.2	1.3
가구 소득	저소득	(219)	91.3	4.1	0.5
	중소득	(871)	91.7	7.2	1.1
	고소득	(425)	90.8	10.1	1.4

### ■ 상해보험의 채널별 구성비

- 상해보험 판매채널로는 대면채널이 75.0%로 가장 높고, 직판채널을 통한 가입은 20.0%로 나타남
- 대면채널을 통한 가입이 모든 직업군에서, 그리고 소득 및 학력과 관계없이 모든 계층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Ⅲ-24〉 상해보험 채널별 구성비

(단위: %)

구분	사례 수	대면	직판	
전체	(20)	75.0	20.0	
성별	남성	(8)	75.0	12.5
	여성	(12)	75.0	25.0
연령	20대	(1)	100.0	0.0
	30대	(7)	42.9	57.1
	40대	(4)	100.0	0.0
	50대	(6)	83.3	0.0
	60대 이상	(2)	100.0	0.0
지역규모	대도시	(7)	71.4	28.6
	중·소도시	(12)	75.0	16.7
	군지역	(1)	100.0	0.0
직업	화이트칼라	(9)	77.8	22.2
	블루칼라	(2)	50.0	50.0
	자영업	(5)	80.0	0.0
	주부	(4)	75.0	25.0
교육 수준	중졸 이하	(1)	100.0	0.0
	고졸	(6)	83.3	16.7
	대재 이상	(13)	69.2	23.1
가구 소득	저소득	(1)	100.0	0.0
	중소득	(12)	75.0	16.7
	고소득	(7)	71.4	28.6

### 다. 향후 손해보험 채널별 선호도

#### 1) 조사 결과 및 시사점

- 향후 1년 내 보험 가입 의향이 있다는 응답자(N=1,301)를 대상으로 선호하는 가입 경로를 조사한 결과, 대면채널에 대한 선호도가 77.1%로 가장 높았으며, 직판 채널 선호 비율이 26.0%로 나타남
  - 향후 대면채널에 대한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높으나 현재 가입률(90.8%)보다는 13.7%p 낮게 나타난 반면, 직판채널에 대한 선호도는 현재 가입률(13.3%)보다 12.7%p 높게 나타났음

〈표 III-25〉 손해보험 채널별 선호도

(단위: %)

구분	현행	향후 선호
대면	90.8	77.1
직판	13.3	26.0
은행	1.0	1.0

주: 복수응답을 포함함(이하 동일)

#### 2) 세부 분석

- 향후 손해보험 채널별 선호도: 성별, 결혼 여부별
  - 대면채널을 통한 가입은 남성(76.2%)과 여성(78.5%) 모두 가장 높음
  - 남성은 직판(28.4%)채널에 대한 선호도가 여성보다 높았고, 미혼자의 경우 기혼자 대비 직판채널에 대한 선호가 27.9%p 높게 나타남

〈표 Ⅲ-26〉 향후 손해보험 채널별 선호도: 성별, 결혼 여부별

(단위: %)

구분		대면	직판	은행
성별	남성	76.2	28.4	0.9
	여성	78.5	22.2	1.2
결혼 여부	기혼	81.4	20.5	0.9
	미혼	59.4	48.4	1.6

■ 향후 손해보험 채널별 선호도: 연령별

- 향후 대면채널에 대한 선호는 특히 60대 이상에서 91.1%로 가장 높음
- 20대에서는 직판채널(49.5%)에 대한 선호도가 다른 연령대 대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Ⅲ-27〉 향후 손해보험 채널별 선호도: 연령별

(단위: %)

구분	대면	직판	은행
20대	57.4	49.5	1.6
30대	69.8	37.6	1.6
40대	77.3	24.3	0.0
50대	83.8	18.2	1.4
60대 이상	91.1	7.8	0.8

■ 향후 손해보험 채널별 선호도: 거주 지역별

- 향후 채널 선호도는 지역에 상관없이 대면채널이 70% 이상으로 가장 높음
- 직판채널을 통한 가입 의향은 군지역(15.7%) 대비 대도시(27.6%)와 중·소도시(25.8%)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Ⅲ-28〉 향후 손해보험 채널별 선호도: 거주 지역별

(단위: %)

구분	대면	직판	은행
대도시	73.5	27.6	0.9
중·소도시	78.8	25.8	1.3
군지역	89.2	15.7	0.0

■ 향후 손해보험 채널별 선호도: 직업별

- 향후 가입채널 선호도는 직업군에 상관없이 대면채널이 높게 나타남
- 직판채널 선호도는 학생(50.0%)과 화이트칼라(39.6%)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Ⅲ-29〉 향후 손해보험 채널별 선호도: 직업별

(단위: %)

구분	대면	직판	은행
화이트칼라	66.3	39.6	1.2
블루칼라	77.2	26.0	0.8
농/임/어업	82.4	11.8	2.9
자영업	88.4	15.3	0.4
주부	84.8	12.9	1.1
은퇴자	100.0	0.0	0.0
학생	50.0	50.0	0.0
무직/기타	77.8	22.2	11.1

주: 농/임/어업, 무직/기타는 표본의 규모가 작아 통계적 의미가 낮음

■ 향후 손해보험 채널별 선호도: 학력별

- 향후 대면채널 선호도는 학력이 낮을수록(중졸 이하 92.1% < 고졸 83.9% > 대재 이상 69.6%) 높은 특징을 보임
- 반면, 직판채널(중졸 이하 3.2% < 고졸 16.8% < 대재 이상 36.3%)에 대한 선호도는 학력이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높음

〈표 Ⅲ-30〉 향후 손해보험 채널별 선호도: 학력별

(단위: %)

구분	대면	직판	은행
중졸 이하	92.1	3.2	1.6
고졸	83.9	16.8	1.0
대재 이상	69.6	36.3	0.9

주: 중졸 이하는 표본의 규모가 작아 통계적 의미가 낮음

■ 향후 손해보험 채널별 선호도: 가구 소득별

- 향후 가입 채널 선호도는 소득에 상관없이 대면채널이 가장 높으며, 소득이 많을수록 직판채널(저소득 17.5% < 중소득 26.2% < 고소득 29.6%)에 대한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높음

〈표 Ⅲ-31〉 향후 손해보험 채널별 선호도: 가구 소득별

(단위: %)

구분	대면	직판	은행
저소득	84.2	17.5	1.1
중소득	77.4	26.2	1.2
고소득	73.2	29.6	0.5

■ 향후 손해보험 채널별 선호도: 종목별

- 향후 가입채널 선호도는 종목에 상관없이 대면채널이 높게 나타남
- 자동차보험(26.4%)은 직판채널에 대한 선호가 다른 보험 종목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았음
- 장기손해보험(2.3%)은 은행채널에 대한 선호가 다른 보험 종목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았음

〈표 Ⅲ-32〉 향후 손해보험 채널별 선호도: 종목별

(단위: %)

구분	대면	직판	은행
자동차보험	72.8	26.4	0.0
장기손해보험	79.5	18.6	2.3
상해보험	69.8	25.4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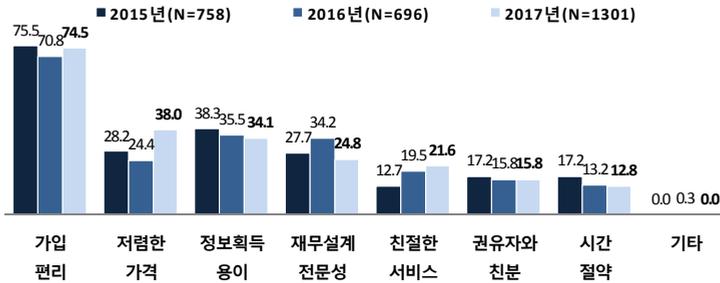
## 라. 향후 손해보험 채널별 선호 이유

### 1) 조사 결과 및 시사점

- 향후 1년 내 손해보험 상품 가입 의향자(N=1,301)를 대상으로 선호하는 가입 경로의 이유를 살펴보면, 가입 편리성이 74.5%로 가장 많이 꼽았으며, 다음으로 저렴한 가격(38.0%), 정보획득의 용이(34.1%), 그리고 재무설계 전문성(24.8%) 등의 순임

〈그림 Ⅲ-4〉 손해보험 가입 채널 선호 이유(복수응답)

(단위: %)



### 2) 세부 분석

#### ■ 손해보험 상품별 가입 선호 이유

- 자동차보험의 경우 가입 선호 이유로 가입의 편리성(75.5%), 저렴한 가격(32.2%), 정보획득 용이(28.4%), 재무설계 전문성(17.9%) 등이 꼽힘
- 장기손해보험의 경우 가입 선호 이유로 가입의 편리성(65.6%), 저렴한 가격(39.5%), 정보획득 용이(38.2%), 재무설계 전문성(30.4%) 등이 꼽힘
- 상해보험의 경우 가입 선호 이유로 가입의 편리성(71.4%), 저렴한 가격(42.9%), 그리고 정보획득 용이(33.3%)와 재무설계 전문성(19.0%) 등이 꼽힘

〈표 Ⅲ-33〉 향후 손해보험 상품별 가입 선호 이유(복수응답)

(단위: %)

구분	가입 편리	저렴한 가격	정보 획득 용이	재무 설계 전문성	권유자 친분	친절한 보험 설계사	좋은 보험 서비스	시간 절약
자동차보험	75.5	32.2	28.4	17.9	16.4	9.1	9.1	9.0
장기손해보험	65.6	39.5	38.2	30.4	11.2	9.5	12.3	14.6
상해보험	71.4	42.9	33.3	19.0	4.8	1.6	14.3	11.1

주: 통합보험은 표본의 규모가 작아 통계적 의미가 낮음

### 3. 향후 손해보험 가입 의향

#### 가. 조사 결과 및 시사점

- 향후 1년 이내 손해보험 가입 의향에 대해 조사한 결과, 자동차보험은 44.1%, 장기손해보험은 5.0%, 상해보험은 2.9%로 나타남

〈표 Ⅲ-34〉 손해보험 종목 가입 여부별 가입 의향

(단위: %)

구분	현 가입률	가입 의향	
		없다	있다
자동차보험	47.5	55.9	44.1
장기손해보험	68.9	95.0	5.0
상해보험	0.9	97.1	2.9

#### 나. 세부 분석

- 향후 1년 이내 손해보험 종목별 가입 의향

- 자동차보험의 경우 학력이 높을수록(중졸 이하 18.4% < 고졸 38.9% < 대재 이상 55.3%) 가입 의향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자동차보험의 경우, 남성(61.6%)이 여성(26.8%)에 비해 높았고, 연령별로 보

면, 장기손해보험 가입 의향은 20대 6.4%, 30대 6.3%로 상대적으로 젊은 연령층에서 높게 나타났으나, 상해보험 가입 의향은 50대(4.3%)에서 다른 연령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편임

- 장기손해보험에 대한 가입 의향은 블루칼라(5.7%)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상해보험에 대한 가입 의향은 학생(6.8%)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 장기손해보험의 경우 고소득 가구의 가입 의향이 6.1%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상해보험 가입 의향은 소득이 많을수록 가입 의향이 높아지는 특징을 보임

〈표 Ⅲ-35〉 손해보험 종목별 가입 의향

(단위: %)

특성별		자동차보험	장기손해보험	상해보험
전체		44.1	5.0	2.9
성별	남성	61.6	5.2	2.7
	여성	26.8	4.9	3.0
연령	20대	36.4	6.4	2.5
	30대	50.6	6.3	2.8
	40대	51.4	4.1	3.7
	50대	50.9	4.8	4.3
	60대 이상	32.6	4.1	1.3
지역규모	대도시	44.6	4.5	2.6
	중·소도시	44.8	6.0	3.4
	군지역	37.4	2.7	1.6
직업	화이트칼라	56.6	5.3	2.9
	블루칼라	46.8	5.7	2.1
	농/임/어업	25.3	2.4	1.1
	자영업	56.8	4.9	4.0
	주부	20.0	5.0	2.7
	은퇴자	47.4	0.8	5.3
	학생	16.9	3.1	6.8
	무직/기타	19.4	2.8	0.0
교육 수준	중졸 이하	18.4	3.0	1.0
	고졸	38.9	4.9	2.6
	대재 이상	55.3	5.6	3.5
가구 소득	저소득	29.3	5.0	1.2
	중소득	46.7	4.5	2.3
	고소득	49.1	6.1	5.3

## 4. 손해보험 상품 니즈

### 가. 손해보험 보상 경험 분석

#### 1) 조사 결과 및 시사점

- 손해보험 상품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N=1,743) 가운데 26.3%가 손해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손해보험 보상 경험자의 전체 평균 보상건수는 3.4건, 평균 보상액수는 76.3만 원이었음
  -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평균 보상건수가 3.4건으로 다른 손해보험 종목보다 보상건수가 상대적으로 많았고, 평균 보상액수는 65.2만 원이었음

〈표 Ⅲ-36〉 손해보험 보상건수 및 보상액수

(단위: 건,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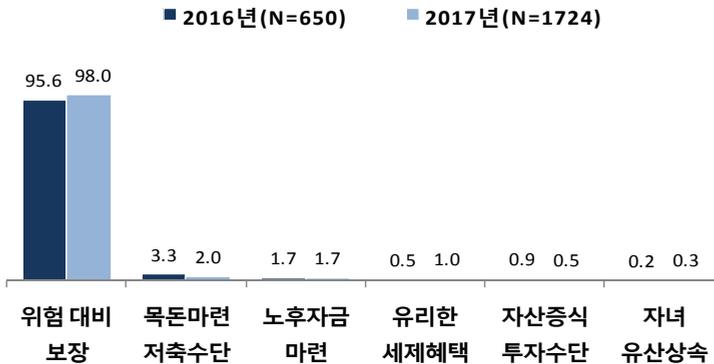
구분	사례 수	평균 보상건수	평균 보상액수
전체	(459)	3.4	763,263
실손의료보험	(400)	3.4	651,912
실손의료입원	(137)	1.2	1,175,145
실손의료외래	(337)	2.7	272,970
실손의료약	(114)	2.5	70,631
중증 질병	(6)	1.2	2,654,666
일반 질병	(22)	1.8	474,318
성인병	(2)	1.0	255,000
재해상해	(27)	1.4	638,333
사망	(1)	1.0	2,500,000
저축	(1)	1.0	8,000,000
교통사고	(32)	1.0	717,968
재산손실	(3)	2.0	1,000,000
자녀에 대한 보상	(31)	2.4	248,064
기타	(2)	1.0	650,000

## 나. 손해보험 종목별 가입 이유

### 1) 조사 결과 및 시사점

- 손해보험 가입자 대부분(98.0%)이 위험에 대한 대비를 손해보험 가입 이유로 꼽음
- 상대적으로 저축, 노후 대비, 투자 수단으로 손해보험에 가입한다는 응답 비율은 낮게 나타남

〈그림 Ⅲ-5〉 손해보험 상품 가입 이유(복수응답)  
(연도별 가입자 대비 / 단위: %)



- 자동차보험, 장기손해보험, 상해보험 등 보험 종목에 상관없이 보험 가입 이유가 위험에 대비한 보장이라는 응답이 95% 이상으로 높게 나타남

〈표 Ⅲ-37〉 손해보험 종목별 가입 이유(복수응답)

(단위: %)

구분	위험보장	저축수단	노후자금 마련	세제혜택	유산상속	자산증식
자동차보험	97.3	1.1	0.7	0.7	0.3	0.0
장기손해보험	97.8	1.8	1.5	0.7	0.1	0.6
상해보험	95.0	0.0	0.0	0.0	5.0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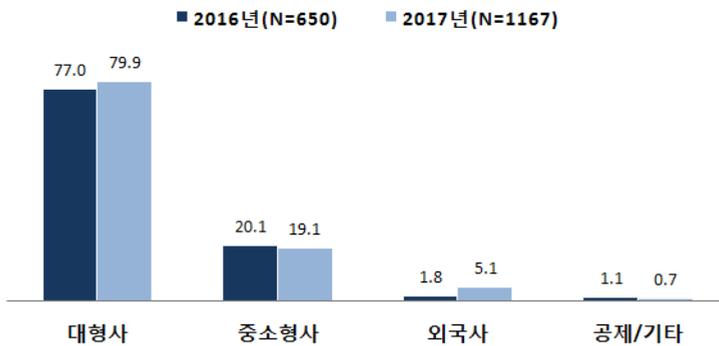
주: 기타는 제외함(이하 동일)

## 다. 손해보험 회사군별 가입률

### 1) 조사 결과 및 시사점

- 손해보험회사를 규모 등을 기준으로 3개로 구분하여 대형사, 국내 중·소형사, 그리고 외국사별 가입 현황을 파악함<sup>6)</sup>

〈그림 Ⅲ-6〉 최근 3년 내 손해보험 회사군별 가입률  
(연도별 가입자 대비 / 단위: %)



- 최근 3년 내 손해보험 가입자(N=1,167) 가운데 79.9%가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동부화재 4개 대형사의 보험 상품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남<sup>7)</sup>

### 2) 세부 분석

- 손해보험 회사군별 최근 3년 내 가입률

○ 최근 3년 내 대형사 가입률은 모든 분석 범위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6) 대형사는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동부화재 4개 회사이며, 중·소형사는 7개 회사, 외국사는 4개 회사임

7) 3년 이내에 손해보험 회사에 가입한 1,167명 중에서 각 회사군별 상품을 보유하고 있는 비율을 의미하며, 중복 응답이 가능하기 때문에 합계가 100%를 초과함

〈표 Ⅲ-38〉 손해보험 회사군별 가입률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대형사	중·소형사	외국사	공제/기타
전체		(1,167)	79.9	19.1	5.1	0.7
성별	남성	(734)	80.7	18.3	5.7	0.8
	여성	(433)	78.5	20.6	3.9	0.5
연령	20대	(164)	79.3	19.5	4.3	1.8
	30대	(245)	78.4	22.0	4.1	0.4
	40대	(292)	81.5	18.2	7.5	0.0
	50대	(260)	76.2	20.0	6.5	1.5
	60대 이상	(206)	84.5	15.5	1.5	0.0
지역규모	대도시	(562)	77.6	20.6	4.8	0.4
	중·소도시	(528)	81.8	17.0	5.7	1.1
	군지역	(77)	83.1	22.1	2.6	0.0
직업	화이트칼라	(380)	80.5	17.9	6.6	0.5
	블루칼라	(328)	77.4	20.4	6.1	0.9
	농/임/어업	(31)	87.1	12.9	6.5	3.2
	자영업	(253)	81.0	19.0	4.0	0.8
	주부	(141)	82.3	19.1	0.7	0.0
	은퇴자	(12)	75.0	25.0	0.0	0.0
	학생	(16)	68.8	31.3	0.0	0.0
	무직/기타	(6)	66.7	16.7	16.7	0.0
교육 수준	중졸 이하	(50)	86.0	16.0	0.0	0.0
	고졸	(490)	82.2	17.1	3.9	1.0
	대재 이상	(627)	77.5	20.9	6.4	0.5
가구 소득	저소득	(136)	80.9	17.6	4.4	2.2
	중소득	(693)	81.5	18.2	4.0	0.3
	고소득	(338)	76.0	21.6	7.4	0.9

- 대형사의 가입률은 전 연령에서 70% 이상으로 높은 가운데, 60대 이상(84.5%)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국내 중·소형사의 가입률은 30대(22.0%), 외국사 가입률은 40대(7.5%)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국내 중·소형사 가입률은 군지역(22.1%)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직업별로는 농/임/어업(87.1%)과 화이트칼라(80.5%)에서 대형사 가입률이 상대적으로 높음
- 가구소득별로 보면, 중소득(81.5%)이 저소득(80.9%)과 고소득(76.0%) 가구에 비해 대형사 가입률이 상대적으로 높음

## 라. 손해보험 상품 만족도 분석

### 1) 조사 결과 및 시사점

- 최근 3년 이내에 가입한 손해보험 상품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자동차보험이 3.98점, 장기손해보험이 3.94점, 상해보험이 3.89점으로 모두 3.9점 내외 수준임

〈표 Ⅲ-39〉 손해보험 종목별 가입률 및 만족도

구분	3년 내 가입률(%)	상품 만족도(5점 만점)
자동차보험 <sup>2)</sup>	41.3	3.98
장기손해보험	24.4	3.94
상해보험	0.4	3.89
기타	0.0	4.00

주: 1) 최근 3년 내 가입률로 전체 가입률과 차이가 있음

2) 자동차보험의 경우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가입률임

### 2) 세부 분석

#### ■ 손해보험 상품별 응답자 만족도

- 지역 및 직업별로 보면, 최근 3년 이내 가입한 손해보험 상품별 응답자 만족도가 군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한편, 교육 수준별로는 대재 이상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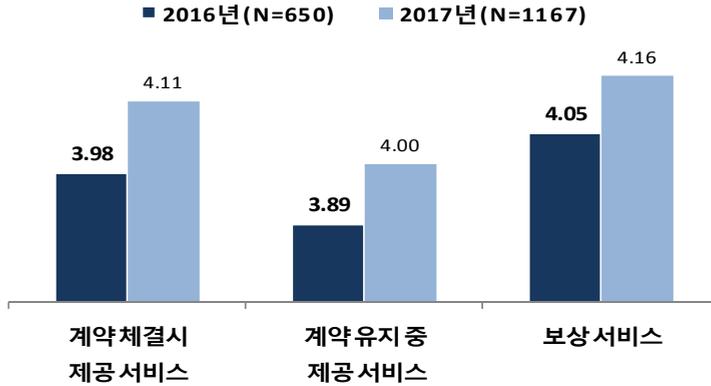
〈표 Ⅲ-40〉 손해보험 상품 만족도

(단위: 점, 5점 만점)

특성별	자동차 보험	장기손해보험							상해 보험	
		실손	상해	질병	간병	종합	저축성	어린이 보장		
전체	3.98	3.99	3.95	3.86	3.77	3.83	3.87	3.67	3.89	
성별	남성	3.98	3.99	3.94	3.79	3.33	3.76	3.60	-	3.75
	여성	3.98	3.99	3.95	3.90	3.94	3.87	4.00	3.67	4.00
연령	20대	4.00	3.99	4.11	4.00	4.00	-	3.80	4.00	-
	30대	3.98	3.96	3.87	3.95	4.00	3.50	3.50	4.00	4.00
	40대	4.00	4.00	3.96	3.76	3.83	3.83	4.00	3.00	4.50
	50대	3.97	4.06	3.90	4.00	4.00	3.69	4.00	-	3.67
	60대 이상	3.96	3.95	3.92	3.45	3.50	4.00	4.00	-	3.50
지역 규모	대도시	3.95	3.99	3.97	3.86	3.89	3.79	3.67	4.00	3.50
	중·소도시	4.00	4.00	3.92	3.93	3.67	3.89	3.90	3.50	3.83
	군지역	4.06	3.90	4.00	3.00	4.00	3.50	4.00	-	5.00
직업	화이트칼라	3.98	3.97	3.94	3.90	3.67	3.71	3.83	4.00	3.67
	블루칼라	4.00	3.98	4.00	3.88	3.00	3.88	3.88	-	4.00
	농/임/어업	4.07	3.86	4.00	4.00	3.00	-	-	-	-
	자영업	3.97	4.00	3.97	3.50	4.00	3.69	-	-	4.00
	주부	3.88	4.06	3.72	3.94	3.88	3.91	4.00	3.50	4.00
	은퇴자	4.00	4.00	4.00	3.00	-	-	-	-	-
	학생	4.00	4.00	4.00	-	-	-	-	-	-
교육 수준	무직/기타	4.17	4.00	4.00	-	-	5.00	-	-	-
	중졸 이하	4.03	4.00	3.75	3.14	4.00	4.00	-	-	4.00
	고졸	3.98	3.96	3.98	3.91	3.75	3.77	3.83	-	3.50
가구 소득	대재 이상	3.98	4.01	3.94	3.94	3.80	3.93	3.89	3.67	4.25
	저소득	3.97	3.88	3.90	3.57	3.40	4.00	4.00	-	-
	중소득	3.99	3.98	3.91	3.87	3.89	3.83	3.67	3.50	3.83
고소득	3.98	4.05	4.03	3.91	3.88	3.79	4.00	4.00	4.00	

〈그림 Ⅲ-7〉 손해보험 상품 만족도

(연도별 가입자 대비 /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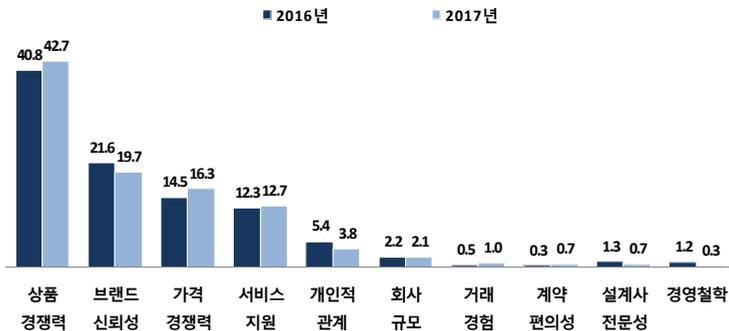
#### 마. 향후 손해보험회사 선택 시 고려사항

##### 1) 조사 결과 및 시사점

- 향후 손해보험회사 선택 시 소비자는 무엇보다 상품 경쟁력(42.7%)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Ⅲ-8〉 손해보험회사 선택 시 고려 사항(1순위 기준)

(N=2,200 / 단위: %)



- 다음으로 보험회사 브랜드 신뢰성(19.7%), 가격 경쟁력(16.3%), 서비스 지원(12.7%), 그리고 개인적 관계(3.8%) 등의 순임

## 2) 세부 분석

### ■ 향후 손해보험회사 선택 시 고려사항

- 향후 손해보험회사 선택 시 남녀 모두 상품 경쟁력을 가장 많이 고려함

〈표 Ⅲ-41〉 손해보험회사 선택 시 고려사항(1순위)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상품 경쟁력	브랜드 신뢰성	가격 경쟁력	서비스 지원	개인적 관계	
전체	(2,200)	42.7	19.7	16.3	12.7	3.8	
성별	남성	(1,092)	43.1	20.8	14.7	13.3	3.9
	여성	(1,108)	42.2	18.6	18.0	12.2	3.7
연령	20대	(357)	47.1	21.3	16.5	10.6	2.2
	30대	(393)	42.0	18.1	18.3	12.2	3.1
	40대	(461)	43.2	18.0	15.4	15.4	3.7
	50대	(446)	39.5	22.4	15.7	11.9	4.5
	60대 이상	(543)	42.5	19.0	16.0	12.9	5.0
지역규모	대도시	(1,006)	45.8	18.5	15.0	12.6	3.3
	중·소도시	(1,007)	38.7	21.3	18.4	13.8	3.2
	군지역	(187)	47.1	17.6	12.3	7.5	10.2
직업	화이트칼라	(580)	45.5	20.0	16.4	12.4	2.4
	블루칼라	(611)	40.1	19.5	17.7	13.6	5.4
	농/임/어업	(95)	36.8	25.3	10.5	9.5	9.5
	자영업	(396)	43.4	18.7	14.1	15.7	3.8
	주부	(409)	43.3	18.6	18.3	10.3	2.2
	은퇴자	(19)	26.3	26.3	21.1	10.5	10.5
	학생	(59)	45.8	20.3	16.9	11.9	0.0
	무직/기타	(31)	45.2	22.6	3.2	9.7	6.5
교육 수준	중졸 이하	(196)	45.4	20.4	15.8	8.7	5.6
	고졸	(1,057)	41.9	19.1	15.4	14.3	4.0
	대재 이상	(946)	43.0	20.2	17.4	11.7	3.3
	모름/무응답	(1)	0.0	0.0	0.0	100.0	0.0
가구 소득	저소득	(406)	40.6	22.9	17.7	10.8	3.9
	중소득	(1,226)	40.5	20.8	15.2	13.6	4.2
	고소득	(568)	48.8	15.0	17.8	12.1	2.8

- 연령별로도 상품 경쟁력이 가장 많이 꼽혔으나, 브랜드 신뢰성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50대(22.4%)에서 높게 나타남
- 또한, 상품 경쟁력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응답은 대도시가 45.8%로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음
- 직업별로는 특히 화이트칼라(45.5%)에서 상품 경쟁력을 꼽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 상품 경쟁력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응답은 중졸 이하에서 45.4%로 가장 높음

〈표 Ⅲ-42〉 손해보험회사 선택 시 고려사항(1순위) (계속)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회사 규모	과거 거래경험	계약 체결의 편의성	설계사의 전문적 재무설계 능력	고객을 중시하는 경영철학
전체		(2,200)	2.1	1.0	0.7	0.7	0.3
성별	남성	(1,092)	1.6	0.9	0.7	0.8	0.1
	여성	(1,108)	2.5	1.0	0.7	0.6	0.5
연령	20대	(357)	0.6	0.0	0.8	0.6	0.3
	30대	(393)	3.8	1.0	0.5	0.8	0.3
	40대	(461)	1.7	1.5	0.7	0.2	0.2
	50대	(446)	3.4	1.3	0.4	0.4	0.4
	60대 이상	(543)	1.1	0.7	1.1	1.5	0.2
지역규모	대도시	(1,006)	2.2	0.6	0.4	1.2	0.4
	중·소도시	(1,007)	2.3	1.2	0.6	0.4	0.2
	군지역	(187)	0.5	1.6	3.2	0.0	0.0
직업	화이트칼라	(580)	1.6	0.5	0.3	0.7	0.2
	블루칼라	(611)	1.8	1.1	0.3	0.3	0.2
	농/임/어업	(95)	2.1	1.1	4.2	1.1	0.0
	자영업	(396)	1.5	0.8	1.0	0.8	0.3
	주부	(409)	3.7	1.5	1.0	0.5	0.7
	은퇴자	(19)	0.0	0.0	0.0	5.3	0.0
	학생	(59)	3.4	0.0	0.0	1.7	0.0
	무직/기타	(31)	3.2	3.2	0.0	6.5	0.0

특성별		사례 수	회사 규모	과거 거래경험	계약 체결의 편의성	설계사의 전문적 재무설계 능력	고객을 중시하는 경영철학
교육 수준	중졸 이하	(196)	0.5	1.0	0.5	2.0	0.0
	고졸	(1057)	2.6	0.7	0.9	0.8	0.4
	대재 이상	(946)	1.9	1.3	0.5	0.4	0.2
	모름/무응답	(1)	0.0	0.0	0.0	0.0	0.0
가구 소득	저소득	(406)	0.7	0.5	1.2	1.2	0.2
	중소득	(1,226)	2.6	1.1	0.8	0.8	0.2
	고소득	(568)	1.9	0.9	0.2	0.2	0.4

## IV. 주요 이슈별 설문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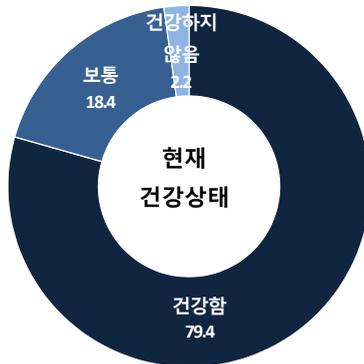
### 1. 실손의료보험

#### 가. 현재 건강상태

- 현재 본인의 건강상태에 대해서 건강하다 79.4%, 보통이다 18.4%, 건강하지 않다 2.2%로 대략 10명 중에서 8명은 본인이 건강하다고 응답함
- 현재 건강상태에 대해서 건강하다는 응답은 남성(83.0%),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높아져 대재 이상(90.7%), 가구 소득이 많을수록 높아져 고소득(86.4%) 계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IV-1〉 현재 건강상태

(n=2,200 / 단위: %)



〈표 IV-1〉 현재 건강상태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건강함	보통	건강하지 않음
전체		(2,200)	79.4	18.4	2.2
성별	남성	(1,092)	83.0	15.0	2.0
	여성	(1,108)	75.9	21.7	2.4
연령	20대	(357)	96.1	3.9	0.0
	30대	(393)	94.1	5.1	0.8
	40대	(461)	86.1	13.2	0.7
	50대	(446)	76.0	21.7	2.2
	60대 이상	(543)	54.9	39.0	6.1
지역규모	대도시	(1,006)	79.3	18.8	1.9
	중·소도시	(1,007)	81.9	16.0	2.1
	군지역	(187)	66.3	28.9	4.8
직업	화이트칼라	(580)	91.4	8.4	0.2
	블루칼라	(611)	79.5	17.8	2.6
	농/임/어업	(95)	57.9	35.8	6.3
	자영업	(396)	73.7	23.2	3.0
	주부	(409)	72.6	24.9	2.4
	은퇴자	(19)	52.6	47.4	0.0
	학생	(59)	100.0	0.0	0.0
	무직/기타	(31)	58.1	29.0	12.9
교육 수준	중졸 이하	(196)	51.0	41.3	7.7
	고졸	(1,057)	74.6	23.1	2.4
	대재 이상	(946)	90.7	8.4	1.0
	모름/무응답	(1)	100.0	0.0	0.0
가구 소득	저소득	(406)	59.1	34.2	6.7
	중소득	(1,226)	82.9	15.9	1.2
	고소득	(568)	86.4	12.3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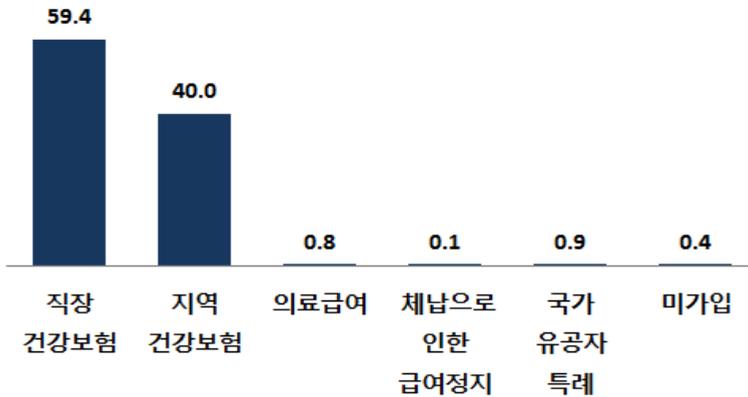
주: 은퇴자는 표본의 규모가 작아 통계적 의미가 낮음

### 나. 국민건강보험 가입 종류

- 가입되어 있는 국민건강보험 종류로는 직장 건강보험이라는 응답이 59.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지역 건강보험(40.0%), 의료급여(0.8%) 등의 순으로 나타남(미가입: 0.4%)

〈그림 IV-2〉 국민건강보험 가입 종류

(n=2,200 / 단위: %)



- 직장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응답은 직장생활을 활발히 하는 연령층인 20대(83.2%)와 30대(82.7%), 40대(64.9%), 화이트칼라(93.4%)와 블루칼라(70.7%) 계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V-2〉 국민건강보험 가입 종류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직장 건강 보험	지역 건강 보험	의료 급여	체납에 따른 급여 정지	국가 유공자 특례	미가입	
전체	(2,200)	59.4	40.0	0.1	0.1	0.0	0.4	
성별	남성	(1,092)	60.0	39.3	0.2	0.1	0.1	0.4
	여성	(1,108)	58.8	40.8	0.0	0.1	0.0	0.4
연령	20대	(357)	83.2	15.1	0.3	0.0	0.0	1.4
	30대	(393)	82.7	16.8	0.3	0.0	0.0	0.3
	40대	(461)	64.9	34.9	0.0	0.2	0.0	0.0
	50대	(446)	49.6	50.2	0.0	0.0	0.2	0.0
	60대 이상	(543)	30.2	69.2	0.0	0.2	0.0	0.4
지역규모	대도시	(1,006)	63.4	36.3	0.0	0.0	0.0	0.3
	중·소도시	(1007)	60.8	38.4	0.2	0.2	0.1	0.3
	군지역	(187)	29.9	69.0	0.0	0.0	0.0	1.1
직업	화이트칼라	(580)	93.4	6.0	0.2	0.2	0.0	0.2
	블루칼라	(611)	70.7	29.0	0.0	0.2	0.0	0.2
	자영업	(95)	12.6	87.4	0.0	0.0	0.0	0.0
	농/임/어업	(396)	12.1	87.4	0.3	0.0	0.3	0.0
	주부	(409)	53.8	46.0	0.0	0.0	0.0	0.2
	은퇴자	(19)	36.8	57.9	0.0	0.0	0.0	5.3
	학생	(59)	62.7	30.5	0.0	0.0	0.0	6.8
	무직/기타	(31)	25.8	74.2	0.0	0.0	0.0	0.0
교육 수준	중졸 이하	(196)	30.6	67.9	0.0	0.5	0.0	1.0
	고졸	(1,057)	45.5	53.9	0.0	0.1	0.0	0.5
	대재 이상	(946)	80.8	18.8	0.2	0.0	0.1	0.1
	모름/무응답	(1)	100.0	0.0	0.0	0.0	0.0	0.0
가구 소득	저소득	(406)	38.4	60.3	0.2	0.2	0.0	0.7
	중소득	(1,226)	61.7	38.1	0.0	0.1	0.0	0.2
	고소득	(568)	69.4	29.8	0.2	0.0	0.2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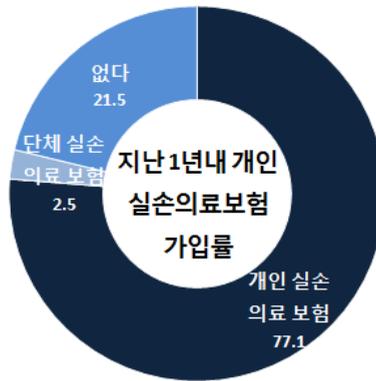
주: 은퇴자는 표본의 규모가 작아 통계적 의미가 낮음

## 다. 실손의료보험 가입 여부

- 실손의료보험 가입 여부에 대해서는 가입했다 77.8%(중복가입 제외, 개인 실손의료보험 77.1% + 단체 실손의료보험 2.5%), 가입하지 않았다 21.5%로 응답자 5명 중 4명 정도는 지난 1년 내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IV-3〉 1년 내 실손의료보험 가입 여부

(n=2,200 / 단위: %)



- 지난 1년 내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60대(37.8%), 농/임/어업(44.2%) 계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반면, 가입했다는 응답은 30대(88.8%), 40대(91.1%), 화이트칼라(91.0%) 계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특히, 개인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했다는 응답은 30대(85.5%), 40대(87.6%), 화이트칼라(85.5%), 고소득층(85.7%) 계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V-3〉 지난 1년 내 실손의료보험 가입 여부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있다		없다
			개인 실손의료보험	단체 실손의료보험	
전체		(2,200)	77.1	2.5	21.5
성별	남성	(1,092)	74.7	3.3	23.4
	여성	(1,108)	79.4	1.8	19.6
연령	20대	(357)	72.5	3.4	25.5
	30대	(393)	85.5	3.3	12.2
	40대	(461)	87.6	3.5	10.8
	50대	(446)	81.2	2.5	17.5
	60대 이상	(543)	61.7	0.7	37.8
지역규모	대도시	(1,006)	80.1	3.0	18.1
	중·소도시	(1,007)	74.9	2.4	23.9
	군지역	(187)	72.7	1.1	26.2
직업	화이트칼라	(580)	85.5	5.5	12.2
	블루칼라	(611)	76.4	2.3	21.6
	농/임/어업	(95)	53.7	2.1	44.2
	자영업	(396)	77.5	0.5	22.2
	주부	(409)	75.1	1.5	24.0
	은퇴자	(19)	63.2	0.0	36.8
	학생	(59)	71.2	0.0	28.8
	무직/기타	(31)	45.2	0.0	54.8
교육 수준	중졸 이하	(196)	48.0	1.0	51.0
	고졸	(1,057)	76.4	1.6	22.4
	대재 이상	(946)	83.9	3.9	14.2
	모름/무응답	(1)	0.0	0.0	100.0
가구 소득	저소득	(406)	57.6	1.5	41.4
	중소득	(1,226)	79.5	2.1	19.1
	고소득	(568)	85.7	4.2	1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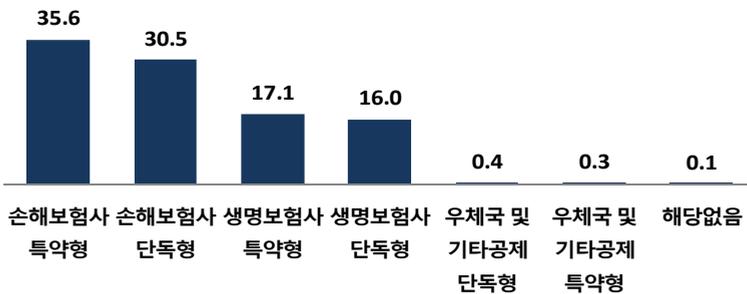
주: 은퇴자는 표본의 규모가 작아 통계적 의미가 낮음

## 라. 가입한 실손의료보험 형태

- 가입한 실손의료보험 형태에 대해서는 손해보험사 특약형<sup>8)</sup>(35.6%)이 주를 이루었으며, 그 외 응답으로 손해보험사 단독형(30.5%)과 생명보험사 특약형 (17.1%), 생명보험사 단독형(16.0%)으로 나타남

〈그림 IV-4〉 가입한 실손의료보험 형태

(n=1,728 / 단위: %)



8) 대다수의 응답자가 실손의료보험 가입 내용과 보험 갱신 내용에 대한 상기도가 낮아 실제 특약형 가입률과 차이를 보임

### 마. 가입한 실손의료보험 유형

■ 가입한 실손의료보험 유형에 대해서는 단독형(53.1%)이 특약형(46.9%)보다 6.2%p 높게 나타남

〈표 IV-4〉 가입한 실손의료보험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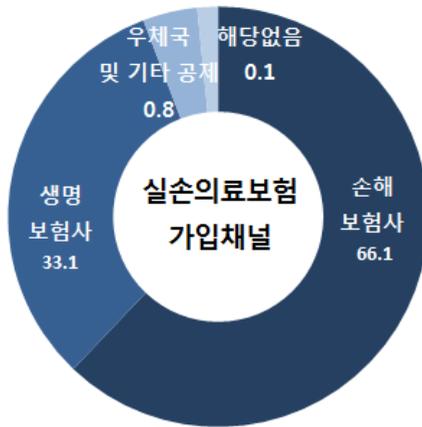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단독형	특약형	해당없음
전체		(1,728)	53.1	46.9	0.1
성별	남성	(837)	51.5	48.5	0.0
	여성	(891)	54.5	45.3	0.1
연령	20대	(266)	51.9	48.1	0.0
	30대	(345)	52.8	47.0	0.3
	40대	(411)	52.6	47.4	0.0
	50대	(368)	55.2	44.8	0.0
	60대 이상	(338)	52.7	47.3	0.0
지역규모	대도시	(824)	52.5	47.3	0.1
	중·소도시	(766)	52.2	47.8	0.0
	군지역	(138)	60.9	39.1	0.0
직업	화이트칼라	(509)	54.2	45.6	0.2
	블루칼라	(479)	51.4	48.6	0.0
	농/임/어업	(53)	45.3	54.7	0.0
	자영업	(308)	55.2	44.8	0.0
	주부	(311)	52.4	47.6	0.0
	은퇴자	(12)	58.3	41.7	0.0
	학생	(42)	50.0	50.0	0.0
	무직/기타	(14)	71.4	28.6	0.0
교육 수준	중졸 이하	(96)	44.8	55.2	0.0
	고졸	(820)	55.0	45.0	0.0
	대재 이상	(812)	52.1	47.8	0.1
가구 소득	저소득	(238)	47.1	52.9	0.0
	중소득	(992)	53.7	46.2	0.1
	고소득	(498)	54.6	45.4	0.0

바. 가입한 실손의료보험 금융 기관

- 가입한 실손의료보험 금융 기관으로 손해보험사(66.1%), 생명보험사(33.1%), 우체국 및 기타 공제(0.8%) 순으로 나타남

〈그림 IV-5〉 가입한 실손의료보험 금융 기관  
(n=1,728 / 단위: %)



- 가입한 실손의료보험 금융 기관으로 손해보험사라는 응답은 중·소도시 (62.7%)가 대도시(68.8%)나 군지역(68.8%)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고, 가구 소득이 많을수록 낮아져 저소득(68.5%) 계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V-5〉 가입한 실손의료보험 금융 기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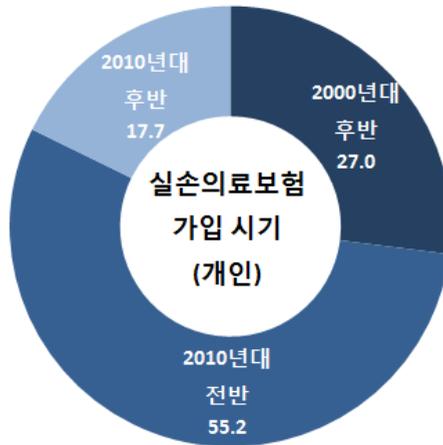
특성별		사례 수	손해보험사	생명보험사	우체국 및 기타 공제	해당없음
전체		(1,728)	66.1	33.1	0.8	0.1
성별	남성	(837)	66.9	32.3	0.8	0.0
	여성	(891)	65.3	33.9	0.7	0.1
연령	20대	(266)	61.3	37.6	1.1	0.0
	30대	(345)	63.5	35.4	0.9	0.3
	40대	(411)	67.6	32.1	0.2	0.0
	50대	(368)	66.3	32.3	1.4	0.0
	60대 이상	(338)	70.4	29.3	0.3	0.0
지역규모	대도시	(824)	68.8	30.2	0.8	0.1
	중·소도시	(766)	62.7	36.9	0.4	0.0
	군지역	(138)	68.8	29.0	2.2	0.0
직업	화이트칼라	(509)	61.3	37.9	0.6	0.2
	블루칼라	(479)	68.3	30.5	1.3	0.0
	농/임/어업	(53)	84.9	13.2	1.9	0.0
	자영업	(308)	63.0	36.7	0.3	0.0
	주부	(311)	70.1	29.3	0.6	0.0
	은퇴자	(12)	91.7	8.3	0.0	0.0
	학생	(42)	61.9	38.1	0.0	0.0
	무직/기타	(14)	64.3	35.7	0.0	0.0
교육 수준	중졸 이하	(96)	76.0	24.0	0.0	0.0
	고졸	(820)	65.4	33.9	0.7	0.0
	대재 이상	(812)	65.6	33.4	0.9	0.1
가구 소득	저소득	(238)	68.5	31.1	0.4	0.0
	중소득	(992)	67.6	31.3	1.0	0.1
	고소득	(498)	61.8	37.8	0.4	0.0

## 사. 실손의료보험 가입 시기

- 개인 실손의료보험 가입 시기를 확인한 결과, 2010년대 전반(55.2%), 2000년대 후반(27.0%), 2010년대 후반(17.7%) 순으로 나타남
- 가입 시기가 2010년대 전반이라는 응답은 30대(61.9%), 40대(60.4%)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화이트칼라(59.0%) 계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IV-6〉 실손의료보험 가입시기

(n=1,696 / 단위: %)



〈표 IV-6〉 실손의료보험 가입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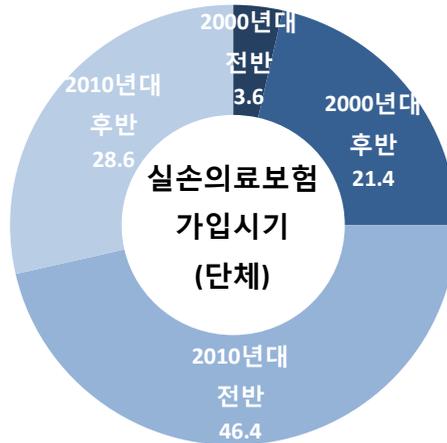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2000년대 후반	2010년대 전반	2010년대 후반
전체		(1,696)	27.0	55.2	17.7
성별	남성	(816)	24.8	57.0	18.3
	여성	(880)	29.1	53.6	17.3
연령	20대	(259)	9.3	49.0	41.7
	30대	(336)	11.6	61.9	26.5
	40대	(404)	27.2	60.4	12.4
	50대	(362)	37.0	54.7	8.3
	60대 이상	(335)	45.1	47.8	7.2
지역규모	대도시	(806)	27.3	55.1	17.6
	중·소도시	(754)	26.4	55.6	18.0
	군지역	(136)	28.7	54.4	16.9
직업	화이트칼라	(496)	16.7	59.1	24.2
	블루칼라	(467)	28.3	52.5	19.3
	농/임/어업	(51)	45.1	45.1	9.8
	자영업	(307)	32.9	56.4	10.7
	주부	(307)	31.9	55.7	12.4
	은퇴자	(12)	66.7	16.7	16.7
	학생	(42)	21.4	50.0	28.6
	무직/기타	(14)	28.6	64.3	7.1
교육 수준	중졸 이하	(94)	50.0	44.7	5.3
	고졸	(808)	31.8	54.8	13.4
	대재 이상	(794)	19.4	56.9	23.7
가구 소득	저소득	(234)	31.6	56.0	12.4
	중소득	(975)	25.0	56.6	18.4
	고소득	(487)	28.7	52.2	19.1

- 단체 실손의료보험 가입 시기를 확인한 결과, 2010년대 전반(46.4%), 2010년대 후반(28.6%), 2000년대 후반(21.4%), 2000년대 전반(3.6%) 순으로 나타남

〈그림 IV-7〉 실손의료보험 가입시기

(n=56 / 단위: %)



- 가입 시기가 2010년대 전반이라는 응답은 30대(61.5%), 40대(50.0%)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블루칼라(64.3%) 계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V-7〉 실손의료보험 가입시기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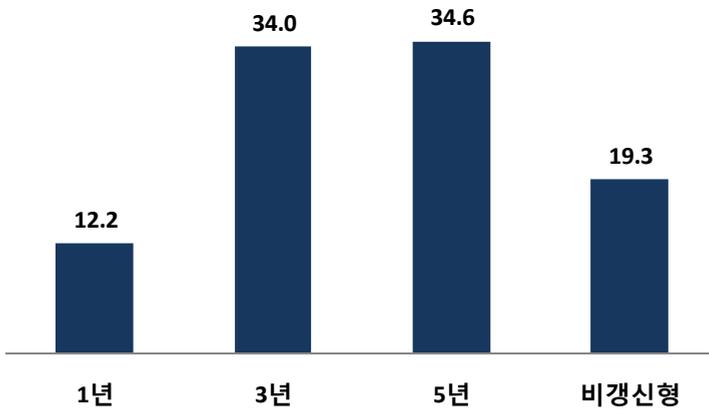
특성별		사례 수	2000년대 전반	2000년대 후반	2010년대 전반	2010년대 후반
전체		(56)	3.6	21.4	46.4	28.6
성별	남성	(36)	5.6	22.2	47.2	25.0
	여성	(20)	0.0	20.0	45.0	35.0
연령	20대	(12)	0.0	0.0	33.3	66.7
	30대	(13)	0.0	15.4	61.5	23.1
	40대	(16)	6.3	25.0	50.0	18.8
	50대	(11)	0.0	45.5	45.5	9.1
	60대 이상	(4)	25.0	25.0	25.0	25.0
지역규모	대도시	(30)	3.3	23.3	40.0	33.3
	중·소도시	(24)	4.2	16.7	54.2	25.0
	군지역	(2)	0.0	50.0	50.0	0.0
직업	화이트칼라	(32)	3.1	18.8	46.9	31.3
	블루칼라	(14)	7.1	7.1	64.3	21.4
	농/임/어업	(2)	0.0	50.0	50.0	0.0
	자영업	(2)	0.0	50.0	0.0	50.0
	주부	(6)	0.0	50.0	16.7	33.3
교육 수준	중졸 이하	(2)	0.0	0.0	100.0	0.0
	고졸	(17)	5.9	17.6	47.1	29.4
	대재 이상	(37)	2.7	24.3	43.2	29.7
가구 소득	저소득	(6)	0.0	16.7	66.7	16.7
	중소득	(26)	3.8	15.4	53.8	26.9
	고소득	(24)	4.2	29.2	33.3	33.3

### 아. 가입한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갱신 주기

- 가입한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갱신 주기에 대해서 5년이라는 응답이 34.6%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3년(34.0%), 비갱신형(19.3%), 1년(12.2%)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IV-8〉 가입한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갱신 주기

(n=1,728 / 단위: %)



- 가입한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갱신 주기가 5년이라는 응답은 연령이 높을수록 높아져 50대(43.2%)에서 가장 높았고, 직업군에서는 농/임/어업(41.5%) 계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V-8〉 가입한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갱신 주기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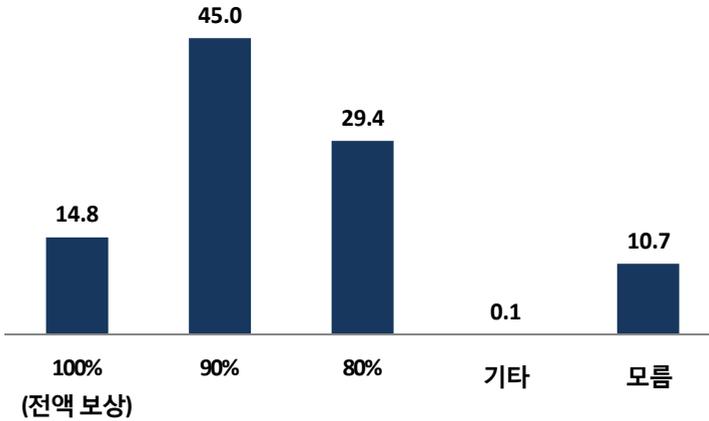
특성별		사례 수	1년	3년	5년	비갱신형
전체		(1,728)	12.2	34.0	34.6	19.3
성별	남성	(837)	13.5	33.1	35.2	18.2
	여성	(891)	10.9	34.8	34.0	20.3
연령	20대	(266)	21.8	40.6	24.4	13.2
	30대	(345)	15.7	36.2	31.3	16.8
	40대	(411)	10.2	35.8	34.5	19.5
	50대	(368)	9.0	27.2	43.2	20.7
	60대 이상	(338)	6.8	31.7	36.7	24.9
지역규모	대도시	(824)	12.7	39.1	32.2	16.0
	중·소도시	(766)	10.6	30.3	37.5	21.7
	군지역	(138)	17.4	23.9	33.3	25.4
직업	화이트칼라	(509)	16.3	38.5	27.9	17.3
	블루칼라	(479)	13.2	33.4	38.2	15.2
	농/임/어업	(53)	11.3	17.0	41.5	30.2
	자영업	(308)	4.2	31.2	40.3	24.4
	주부	(311)	9.6	34.4	33.8	22.2
	은퇴자	(12)	25.0	25.0	33.3	16.7
	학생	(42)	19.0	28.6	33.3	19.0
	무직/기타	(14)	28.6	28.6	28.6	14.3
교육 수준	중졸 이하	(96)	10.4	18.8	41.7	29.2
	고졸	(820)	10.5	31.0	38.2	20.4
	대재 이상	(812)	14.0	38.8	30.2	17.0
가구 소득	저소득	(238)	13.9	28.6	33.6	23.9
	중소득	(992)	11.4	34.4	38.1	16.1
	고소득	(498)	12.9	35.7	28.1	23.3

### 자.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의 본인부담의료비 보장률

■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의 본인부담의료비 보장률(보험회사 환급률)에 대해서는 90%(45.0%), 80%(29.4%), 100%(14.8%) 순으로 본인부담의료비를 보장한다는 응답이 나타남(모름: 10.7%)

〈그림 IV-9〉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의 본인부담의료비 보장률

(n=1,728 / 단위: %)



○ 가입한 실손의료보험 본인부담의료비 보장률이 90%라는 응답은 30대(48.4%), 농/임/어업(49.1%), 화이트칼라(46.4%)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V-9〉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의 본인부담의료비 보장률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100%	90%	80%	기타	모름
전체		(1,728)	14.8	45.0	29.4	0.1	10.7
성별	남성	(837)	13.1	45.8	30.0	0.0	11.1
	여성	(891)	16.4	44.3	28.8	0.1	10.3
연령	20대	(266)	11.3	45.1	32.0	0.0	11.7
	30대	(345)	9.3	48.4	35.4	0.3	6.7
	40대	(411)	14.6	44.8	30.2	0.0	10.5
	50대	(368)	16.0	45.4	26.4	0.0	12.2
	60대 이상	(338)	22.2	41.4	23.7	0.0	12.7
지역규모	대도시	(824)	15.2	41.7	32.9	0.1	10.1
	중·소도시	(766)	15.1	46.6	25.8	0.0	12.4
	군지역	(138)	10.9	55.8	28.3	0.0	5.1
직업	화이트칼라	(509)	11.4	46.4	32.2	0.2	9.8
	블루칼라	(479)	14.2	43.8	30.9	0.0	11.1
	농/임/어업	(53)	18.9	49.1	22.6	0.0	9.4
	자영업	(308)	16.9	44.2	27.9	0.0	11.0
	주부	(311)	17.4	45.0	26.7	0.0	10.9
	은퇴자	(12)	0.0	75.0	0.0	0.0	25.0
	학생	(42)	23.8	31.0	31.0	0.0	14.3
	무직/기타	(14)	28.6	57.1	14.3	0.0	0.0
교육 수준	중졸 이하	(96)	26.0	51.0	13.5	0.0	9.4
	고졸	(820)	14.5	44.8	29.0	0.0	11.7
	대재 이상	(812)	13.8	44.6	31.7	0.1	9.9
가구 소득	저소득	(238)	13.9	50.4	25.6	0.0	10.1
	중소득	(992)	13.3	42.4	33.5	0.0	10.8
	고소득	(498)	18.3	47.6	23.1	0.2	10.8

### 차. 실손의료보험 월납 보험료

■ 실손의료보험 평균 월납 기준 납부 금액은 69,985원<sup>9)</sup>인 것으로 나타남

9) 대다수의 응답자가 기존 보험 상품과 실손의료보험료를 구분하지 않고 납입 보험료에 대해 통합 응답하는 경향을 보임. 이 때문에 실손의료보험의 월납 보험료가 다소 높게 측정됨

■ 실손의료보험 평균 월납 기준 납부 금액: 성별

- 실손의료보험 평균 월납 납부 금액은 남성(73,135원)이 여성(67,026원)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납부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IV-10〉 실손의료보험 평균 월납 기준 납부 금액

(단위: 원)

특성별		사례 수	평균
전체		(1,728)	69,985
성별	남성	(837)	73,135
	여성	(891)	67,026
연령	20대	(266)	57,782
	30대	(345)	65,449
	40대	(411)	71,883
	50대	(368)	75,353
	60대 이상	(338)	76,065
지역규모	대도시	(824)	73,995
	중·소도시	(766)	67,209
	군지역	(138)	61,449
직업	화이트칼라	(509)	69,578
	블루칼라	(479)	69,340
	농/임/어업	(53)	64,340
	자영업	(308)	78,718
	주부	(311)	67,749
	은퇴자	(12)	77,500
	학생	(42)	49,048
	무직/기타	(14)	42,143
교육 수준	중졸 이하	(96)	73,125
	고졸	(820)	69,572
	대재 이상	(812)	70,031
가구 소득	저소득	(238)	64,916
	중소득	(992)	67,852
	고소득	(498)	76,657

■ 실손의료보험 평균 월납 기준 납부 금액: 연령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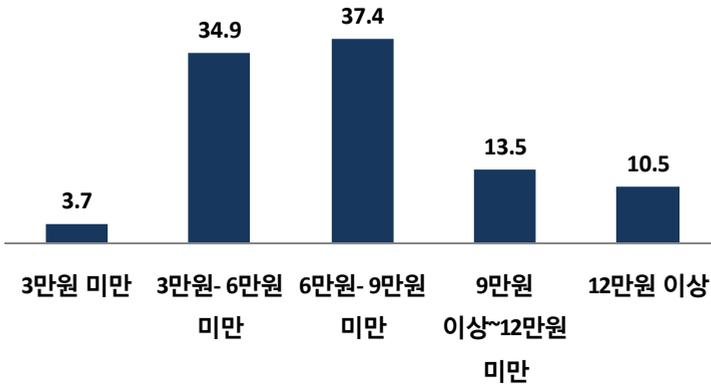
○ 실손의료보험 평균 월납 납부 금액은 60대 이상 연령층이 76,065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실손의료보험 평균 월납 기준 납부 금액: 직업별

○ 실손의료보험 평균 월납 납부 금액은 자영업(78,718원), 은퇴자(77,500원), 화이트칼라(69,578원), 블루칼라(69,340원)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IV-10〉 실손의료보험 월납 기준 납부 금액 수준

(n=1,728 / 단위: %)



■ 실손의료보험 월납 납부 금액 수준으로 6만 원~9만 원 미만이라는 응답이 37.4%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3만 원~6만 원 미만(34.9%), 9만 원~12만 원 미만(13.5%)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실손의료보험 월납 납부 금액이 6만 원~9만 원 미만이라는 응답은 60대 이상(45.0%), 농/임/어업(49.1%)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V-11〉 실손의료보험 월납 기준 납부 금액 수준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3만 원 미만	3만 원 이상 ~ 6만 원 미만	6만 원 이상 ~ 9만 원 미만	9만 원 이상 ~ 12만 원 미만	12만 원 이상
전체		(1,728)	3.7	34.9	37.4	13.5	10.5
성별	남성	(837)	3.6	33.2	36.4	14.8	11.9
	여성	(891)	3.8	36.5	38.3	12.3	9.1
연령	20대	(266)	9.8	48.1	27.4	8.6	6.0
	30대	(345)	4.9	37.4	37.7	11.6	8.4
	40대	(411)	1.9	36.5	36.5	12.9	12.2
	50대	(368)	2.7	29.3	38.3	17.1	12.5
	60대 이상	(338)	0.9	26.0	45.0	16.3	11.8
지역규모	대도시	(824)	3.2	30.7	37.5	15.9	12.7
	중·소도시	(766)	3.5	39.4	36.4	11.5	9.1
	군지역	(138)	8.0	34.8	42.0	10.9	4.3
직업	화이트칼라	(509)	4.3	35.8	34.6	13.8	11.6
	블루칼라	(479)	4.0	37.8	35.9	12.5	9.8
	농/임/어업	(53)	0.0	39.6	49.1	7.5	3.8
	자영업	(308)	1.6	25.0	40.3	20.1	13.0
	주부	(311)	2.9	34.7	41.2	12.2	9.0
	은퇴자	(12)	0.0	16.7	66.7	0.0	16.7
	학생	(42)	16.7	57.1	19.0	0.0	7.1
	무직/기타	(14)	14.3	57.1	28.6	0.0	0.0
교육 수준	중졸 이하	(96)	2.1	28.1	42.7	17.7	8.8
	고졸	(820)	3.8	34.5	39.0	12.3	9.7
	대재 이상	(812)	3.8	36.1	35.1	14.3	11.3
가구 소득	저소득	(238)	4.6	34.5	40.8	14.7	5.5
	중소득	(992)	3.2	37.5	37.5	13.1	8.7
	고소득	(498)	4.2	29.9	35.5	13.9	16.5

### 카. 실손의료보험 회사 서비스 만족도

■ 실손의료보험 회사 서비스 만족도에 대해서 청구 절차의 간편함이 4.13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신속한 보험금 처리(4.09점), 계약 체결 시 제공된 서비스 (3.97점), 갱신 시 제공된 서비스(3.84점)의 순으로 나타남

〈표 IV-12〉 실손의료보험 회사 서비스 만족도 (단위: 점, 5점 척도)

특성별	사례 수	청구 절차의 간편함	신속한 보험금 처리	계약 체결 시 제공된 서비스	갱신 시 제공된 서비스	
전체	(1,728)	4.13	4.09	3.97	3.84	
성별	남성	(837)	4.14	4.10	3.96	3.86
	여성	(891)	4.13	4.07	3.97	3.82
연령	20대	(266)	4.19	3.96	3.92	3.83
	30대	(345)	4.13	4.02	3.98	3.81
	40대	(411)	4.08	4.02	3.95	3.82
	50대	(368)	4.21	4.17	3.99	3.88
	60대 이상	(338)	4.09	4.14	3.98	3.88
지역규모	대도시	(824)	4.14	4.12	3.98	3.87
	중·소도시	(766)	4.14	4.07	3.95	3.79
	군지역	(138)	4.11	3.98	3.99	3.95
직업	화이트칼라	(509)	4.19	4.14	3.95	3.85
	블루칼라	(479)	4.17	4.07	3.99	3.86
	농/임/어업	(53)	4.00	4.00	3.91	3.83
	자영업	(308)	4.04	4.06	4.01	3.87
	주부	(311)	4.11	4.10	3.95	3.78
	은퇴자	(12)	4.25	4.25	3.83	3.92
	학생	(42)	4.33	4.00	3.83	3.79
	무직/기타	(14)	3.75	3.50	3.93	3.79
교육 수준	중졸 이하	(96)	4.15	4.11	4.01	3.90
	고졸	(820)	4.11	4.07	3.98	3.83
	대재 이상	(812)	4.16	4.10	3.95	3.85
가구 소득	저소득	(238)	4.16	4.11	3.96	3.81
	중소득	(992)	4.06	4.01	3.97	3.82
	고소득	(498)	4.27	4.22	3.97	3.90

## 타. 실손의료보험의 해지 경험 및 이유

-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의 해지 경험을 확인해본 결과, 가입자의 10명 중 1명 수준인 8.5%만 해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IV-13〉 실손의료보험의 해지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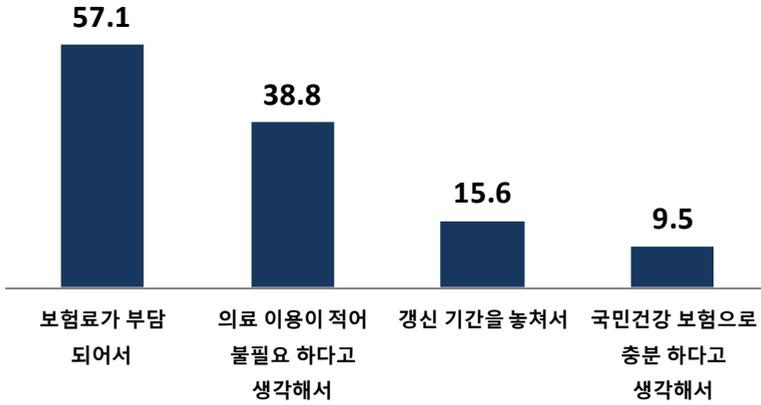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경험 있다	경험 없다
전체		(1,728)	8.5	91.5
성별	남성	(837)	8.8	91.2
	여성	(891)	8.2	91.8
연령	20대	(266)	1.5	98.5
	30대	(345)	8.1	91.9
	40대	(411)	10.7	89.3
	50대	(368)	11.4	88.6
	60대 이상	(338)	8.6	91.4
지역규모	대도시	(824)	6.6	93.4
	중·소도시	(766)	10.2	89.8
	군지역	(138)	10.9	89.1
직업	화이트칼라	(509)	5.9	94.1
	블루칼라	(479)	9.8	90.2
	농/임/어업	(53)	11.3	88.7
	자영업	(308)	11.4	88.6
	주부	(311)	8.0	92.0
	은퇴자	(12)	8.3	91.7
	학생	(42)	4.8	95.2
	무직/기타	(14)	7.1	92.9
교육 수준	중졸 이하	(96)	6.3	93.8
	고졸	(820)	9.9	90.1
	대재 이상	(812)	7.4	92.6
가구 소득	저소득	(238)	8.4	91.6
	중소득	(992)	8.5	91.5
	고소득	(498)	8.6	91.4

-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의 해지 이유를 살펴본 결과, '보험료가 부담 되어서'라는 응답이 57.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의료 이용이 적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서(38.8%), 갱신기간을 놓쳐서(15.6%)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IV-11〉 실손의료보험의 해지 이유

(n=147 / 단위: %)



〈표 IV-14〉 실손의료보험의 해지 이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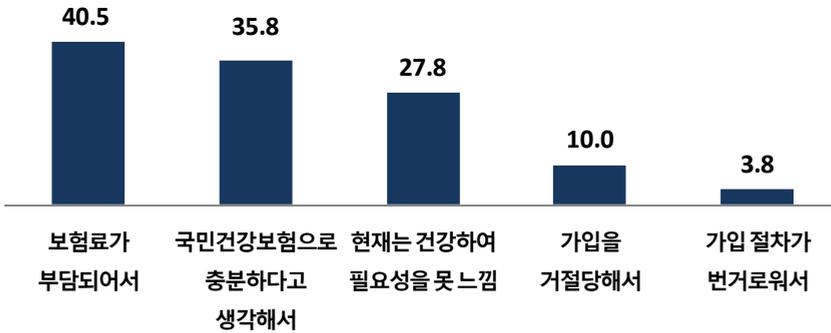
특성별		사례 수	보험료가 부담 되어서	의료 이용이 적어 불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갱신 기간을 놓쳐서	국민건강 보험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전체		(147)	57.1	38.8	15.6	9.5
성별	남성	(74)	59.5	37.8	9.5	14.9
	여성	(73)	54.8	39.7	21.9	4.1
연령	20대	(4)	50.0	50.0	25.0	0.0
	30대	(28)	57.1	42.9	17.9	7.1
	40대	(44)	61.4	31.8	18.2	2.3
	50대	(42)	61.9	31.0	14.3	14.3
	60대 이상	(29)	44.8	55.2	10.3	17.2
지역규모	대도시	(54)	57.4	40.7	11.1	13.0
	중·소도시	(78)	57.7	37.2	20.5	7.7
	군지역	(15)	53.3	40.0	6.7	6.7
직업	화이트칼라	(30)	50.0	43.3	10.0	13.3
	블루칼라	(47)	66.0	31.9	12.8	6.4
	농/임/어업	(6)	50.0	50.0	0.0	0.0
	자영업	(35)	57.1	45.7	14.3	14.3
	주부	(25)	48.0	32.0	32.0	4.0
	은퇴자	(1)	100.0	100.0	0.0	0.0
	학생	(2)	50.0	50.0	50.0	0.0
	무직/기타	(1)	100.0	0.0	0.0	100.0
교육 수준	중졸 이하	(6)	33.3	66.7	0.0	0.0
	고졸	(81)	54.3	39.5	17.3	9.9
	대재 이상	(60)	63.3	35.0	15.0	10.0
가구 소득	저소득	(20)	75.0	40.0	10.0	5.0
	중소득	(84)	53.6	38.1	17.9	13.1
	고소득	(43)	55.8	39.5	14.0	4.7

파. 실손의료보험 비가입 이유

■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이유로 ‘보험료가 부담 되어서’라는 응답이 40.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국민건강보험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해서(35.8%), 현재는 건강하여 필요성을 못 느낌(27.8%), 가입을 거절당해서(10.0%), 가입 절차가 번거로워서(3.8%) 등의 순으로 나타남(복수응답)

〈그림 IV-12〉 실손의료보험 비가입 이유

(n=472 / 단위: %)



-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이유로 ‘보험료가 부담 되어서’라는 응답은 연령이 많을수록 높아져 50대(50.0%)와 60대 이상(44.4%), 주부(51.0%)와 농/임/어업(45.2%), 자영업(42.0%)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또한,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 높아져 중졸 이하(51.0%), 월평균 가구 소득이 적을수록 높아져 저소득층(51.2%) 계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V-15〉 실손의료보험 미가입 이유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보험료가 부담되어서	국민건강보험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현재는 건강하여 필요성을 못느낌	가입을 거절당해서	가입 절차가 번거로워서	
전체	(472)	40.5	35.8	27.8	10.0	3.8	
성별	남성	(255)	36.9	34.9	36.9	7.1	2.4
	여성	(217)	44.7	36.9	17.1	13.4	5.5
연령	20대	(91)	17.6	37.4	52.7	0.0	2.2
	30대	(48)	41.7	39.6	47.9	0.0	0.0
	40대	(50)	50.0	40.0	26.0	0.0	4.0
	50대	(78)	50.0	30.8	26.9	10.3	6.4
	60대 이상	(205)	44.4	35.1	12.7	19.0	4.4
지역규모	대도시	(182)	41.2	35.2	34.1	11.5	6.0
	중·소도시	(241)	36.9	39.8	25.7	8.7	1.7
	군지역	(49)	55.1	18.4	14.3	10.2	6.1
직업	화이트칼라	(71)	26.8	42.3	43.7	2.8	1.4
	블루칼라	(132)	40.2	37.1	32.6	9.1	2.3
	농/임/어업	(42)	45.2	35.7	7.1	19.0	4.8
	자영업	(88)	42.0	28.4	30.7	6.8	6.8
	주부	(98)	51.0	36.7	17.3	13.3	6.1
	은퇴자	(7)	14.3	42.9	0.0	42.9	0.0
	학생	(17)	11.8	35.3	52.9	0.0	0.0
	무직/기타	(17)	58.8	29.4	5.9	17.6	0.0
교육 수준	중졸 이하	(100)	51.0	30.0	6.0	22.0	4.0
	고졸	(237)	43.5	38.4	25.3	8.0	3.8
	대재 이상	(134)	27.6	35.1	48.5	4.5	3.7
	모름/무응답	(1)	0.0	100.0	0.0	0.0	0.0
가구 소득	저소득	(168)	51.2	32.7	14.3	15.5	3.6
	중소득	(234)	34.6	35.9	32.9	7.7	4.3
	고소득	(70)	34.3	42.9	42.9	4.3	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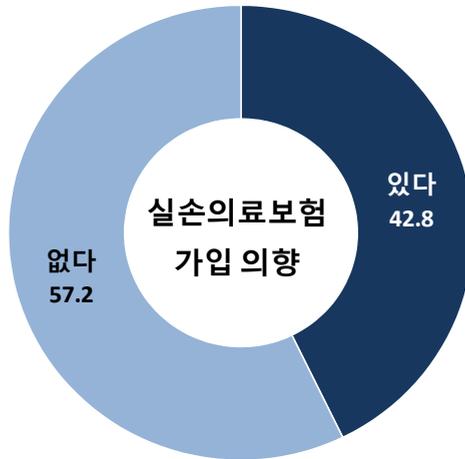
주: 은퇴자는 표본의 규모가 작아 통계적 의미가 낮음

### 하. 향후 실손의료보험 가입 의향

- 현재 실손의료보험에 비가입되어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향후 실손의료보험 가입 의향을 질문한 결과 가입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42.8%로 응답자 10명 중 4명 정도는 가입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향후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30대(83.3%), 화이트칼라(67.6%), 대재 이상(61.9%)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IV-13〉 향후 실손의료보험 가입 의향

(n=472 / 단위: %)



〈표 IV-16〉 향후 실손의료보험 가입 의향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의향 있다	의향 없다
전체		(472)	42.8	57.2
성별	남성	(255)	44.7	55.3
	여성	(217)	40.6	59.4
연령	20대	(91)	64.8	35.2
	30대	(48)	83.3	16.7
	40대	(50)	46.0	54.0
	50대	(78)	39.7	60.3
	60대 이상	(205)	23.9	76.1
지역규모	대도시	(182)	46.7	53.3
	중·소도시	(241)	43.2	56.8
	군지역	(49)	26.5	73.5
직업	화이트칼라	(71)	67.6	32.4
	블루칼라	(132)	56.1	43.9
	농/임/어업	(42)	14.3	85.7
	자영업	(88)	31.8	68.2
	주부	(98)	31.6	68.4
	은퇴자	(7)	14.3	85.7
	학생	(17)	58.8	41.2
	무직/기타	(17)	23.5	76.5
교육 수준	중졸 이하	(100)	12.0	88.0
	고졸	(237)	45.1	54.9
	대재 이상	(134)	61.9	38.1
	모름/무응답	(1)	0.0	100.0
가구 소득	저소득	(168)	31.0	69.0
	중소득	(234)	46.2	53.8
	고소득	(70)	60.0	4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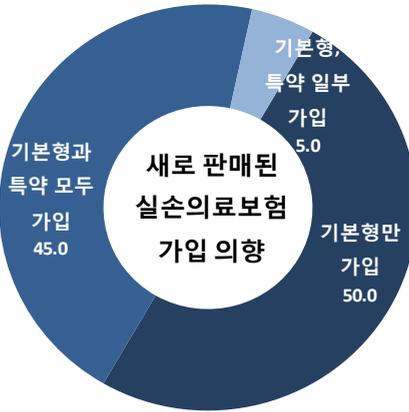
주: 은퇴자는 표본의 규모가 작아 통계적 의미가 낮음

### 거. 새로 판매된 실손의료보험 가입 의향

- 향후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할 의향이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2017년 4월부터 새로 판매된 실손의료보험을 어떤 종류로 가입할 의향이 있는지 질문한 결과 기본형만 가입(50.0%)이 가장 높았고, 기본형과 특약 모두 가입(45.0%)이 그 뒤를 이음

〈그림 IV-14〉 새로 판매된 실손의료보험 가입 의향

(n=202 / 단위: %)



〈표 IV-17〉 새로 판매된 실손의료보험 가입 의향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기본형만 가입	기본형과 특약 모두 가입	기본형과 특약 일부 가입
전체		(202)	50.0	45.0	5.0
성별	남성	(114)	50.9	44.7	4.4
	여성	(88)	48.9	45.5	5.7
연령	20대	(59)	44.1	52.5	3.4
	30대	(40)	40.0	47.5	12.5
	40대	(23)	56.5	43.5	0.0
	50대	(31)	38.7	58.1	3.2
	60대 이상	(49)	69.4	26.5	4.1
지역규모	대도시	(85)	43.5	54.1	2.4
	중·소도시	(104)	56.7	35.6	7.7
	군지역	(13)	38.5	61.5	0.0
직업	화이트칼라	(48)	43.8	52.1	4.2
	블루칼라	(74)	52.7	40.5	6.8
	농/임/어업	(6)	83.3	16.7	0.0
	자영업	(28)	57.1	42.9	0.0
	주부	(31)	41.9	51.6	6.5
	은퇴자	(1)	0.0	100.0	0.0
	학생	(10)	50.0	40.0	10.0
	무직/기타	(4)	50.0	50.0	0.0
교육수준	중졸 이하	(12)	66.7	33.3	0.0
	고졸	(107)	54.2	42.1	3.7
	대재 이상	(83)	42.2	50.6	7.2
가구소득	저소득	(52)	61.5	32.7	5.8
	중소득	(108)	47.2	49.1	3.7
	고소득	(42)	42.9	50.0	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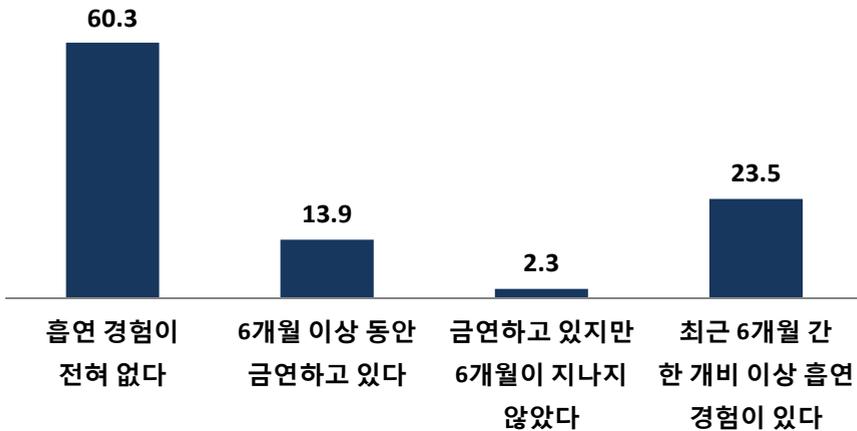
## 2. 건강생활서비스 이용실태

### 가. 흡연 경험

- 흡연 경험을 물어본 결과 ‘흡연 경험이 전혀 없다’는 응답이 60.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최근 6개월간 한 개비 이상 흡연 경험이 있다’(23.5%), ‘6개월 이상 동안 금연하고 있다’(13.9%), ‘금연하고 있지만 6개월이 지나지 않았다’(2.3%) 등의 순임

〈그림 IV-15〉 현재 흡연 여부

(n=2,200 / 단위: %)



- ‘흡연 경험이 전혀 없다’는 응답은 여성(97.2%), 60대 이상(61.5%), 주부(98.5%)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

〈표 IV-18〉 현재 흡연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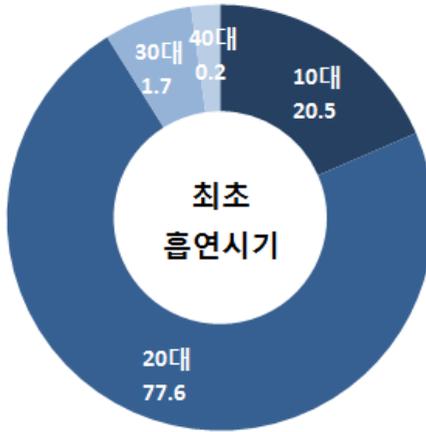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흡연 경험이 전혀 없다	6개월 이상 동안 금연하고 있다	금연하고 있지만 6개월이 지나지 않았다	최근 6개월간 한 개비 이상 흡연 경험이 있다
전체		(2,200)	60.3	13.9	2.3	23.5
성별	남성	(1,092)	22.9	26.7	4.5	45.9
	여성	(1,108)	97.2	1.3	0.1	1.4
연령	20대	(357)	67.2	4.5	0.8	27.5
	30대	(393)	57.5	12.5	2.5	27.5
	40대	(461)	57.7	15.6	2.4	24.3
	50대	(446)	58.5	14.6	2.9	24.0
	60대 이상	(543)	61.5	19.2	2.4	16.9
지역규모	대도시	(1,006)	60.1	14.4	2.0	23.5
	중·소도시	(1,007)	59.7	13.3	2.7	24.3
	군지역	(187)	64.7	14.4	1.6	19.3
직업	화이트칼라	(580)	50.3	17.4	2.9	29.3
	블루칼라	(611)	56.0	13.4	2.1	28.5
	농/임/어업	(95)	54.7	12.6	4.2	28.4
	자영업	(396)	42.4	24.5	3.0	30.1
	주부	(409)	98.5	0.7	0.0	0.7
	은퇴자	(19)	36.8	36.8	10.5	15.8
	학생	(59)	72.9	0.0	0.0	27.1
	무직/기타	(31)	64.5	12.9	6.5	16.1
교육 수준	중졸 이하	(196)	74.0	13.3	1.5	11.2
	고졸	(1,057)	63.5	12.5	2.3	21.8
	대재 이상	(946)	53.9	15.6	2.4	28.0
	모름/무응답	(1)	100.0	0.0	0.0	0.0
가구 소득	저소득	(406)	61.1	15.5	1.7	21.7
	중소득	(1,226)	60.0	13.4	2.7	23.9
	고소득	(568)	60.4	13.9	1.8	23.9

### 나. 최초 흡연시기

- 최초의 흡연시기를 물어본 결과 20대가 77.6%로 가장 높았고, 10대(20.5%), 30대(1.7%), 40대(0.2%) 순으로 나타났으며, 최초의 흡연시기는 평균 21.2세로 나타남

〈그림 IV-16〉 최초 흡연시기  
(n=517 / 단위: %)



〈표 IV-19〉 최초 흡연시기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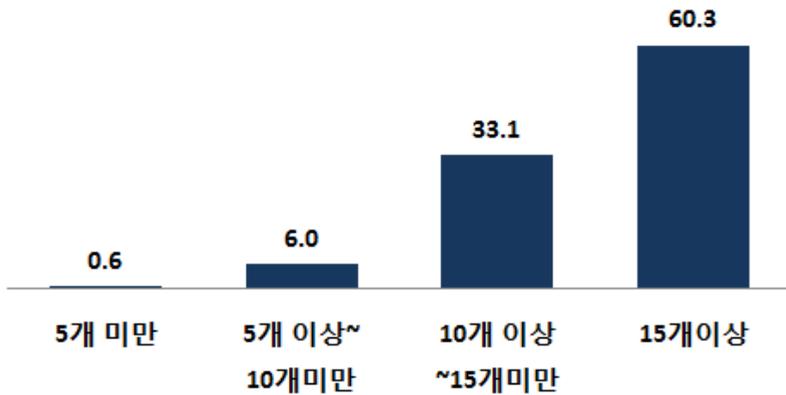
특성별		사례 수	10대	20대	30대	40대	평균(세)
전체		(517)	20.5	77.6	1.7	0.2	21.22
성별	남성	(501)	20.4	78.0	1.6	0.0	21.12
	여성	(16)	25.0	62.5	6.3	6.3	24.25
연령	20대	(98)	31.6	68.4	0.0	0.0	20.23
	30대	(108)	18.5	80.6	0.9	0.0	20.76
	40대	(112)	13.4	86.6	0.0	0.0	21.46
	50대	(107)	14.0	82.2	3.7	0.0	21.97
	60대 이상	(92)	27.2	67.4	4.3	1.1	21.65
지역규모	대도시	(236)	16.5	82.6	0.8	0.0	21.26
	중·소도시	(245)	23.3	74.3	2.0	0.4	21.27
	군지역	(36)	27.8	66.7	5.6	0.0	20.61
직업	화이트칼라	(170)	18.2	81.8	0.0	0.0	21.05
	블루칼라	(174)	24.7	73.0	2.3	0.0	21.12
	농/임/어업	(27)	18.5	74.1	7.4	0.0	21.93
	자영업	(119)	15.1	82.4	2.5	0.0	21.47
	주부	(3)	33.3	33.3	0.0	33.3	28.00
	은퇴자	(3)	66.7	33.3	0.0	0.0	19.33
	학생	(16)	37.5	62.5	0.0	0.0	19.63
	무직/기타	(5)	0.0	100.0	0.0	0.0	22.80
교육 수준	중졸 이하	(22)	18.2	77.3	4.5	0.0	21.27
	고졸	(230)	23.0	73.5	3.0	0.4	21.38
	대재 이상	(265)	18.5	81.1	0.4	0.0	21.08
가구 소득	저소득	(88)	27.3	67.0	4.5	1.1	21.67
	중소득	(293)	19.1	79.9	1.0	0.0	20.94
	고소득	(136)	19.1	79.4	1.5	0.0	21.53

### 다. 하루 흡연량

- 하루 흡연량을 물어본 결과, '15개 이상'이 60.3%로 가장 높았고, '10개 이상~15개 미만'(33.1%), '5개 이상~10개 미만'(6.0%), '5개 미만'(0.6%) 순으로 나타남

〈그림 IV-17〉 하루 흡연량

(n=517 / 단위: %)



- 특히, 남성(60.9%), 40대(62.5%)와 20대(62.2%), 블루칼라(64.4%)에서 '15개 이상' 하루 흡연한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V-20〉 하루 흡연량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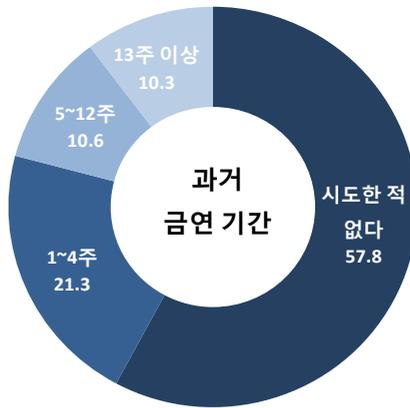
특성별		사례 수	5개 미만	5개 이상 ~ 10개 미만	10개 이상 ~ 15개 미만	15개 이상	평균(개비)
전체		(517)	0.6	6.0	33.1	60.3	14.9
성별	남성	(501)	0.6	5.6	32.9	60.9	15.0
	여성	(16)	0.0	18.8	37.5	43.8	12.2
연령	20대	(98)	2.0	6.1	29.6	62.2	15.1
	30대	(108)	0.9	1.9	38.9	58.3	14.6
	40대	(112)	0.0	6.3	31.3	62.5	15.1
	50대	(107)	0.0	8.4	32.7	58.9	14.7
	60대 이상	(92)	0.0	7.6	32.6	59.8	14.8
지역규모	대도시	(236)	0.8	5.1	34.3	59.7	14.9
	중·소도시	(245)	0.4	6.5	34.3	58.8	14.6
	군지역	(36)	0.0	8.3	16.7	75.0	16.7
직업	화이트칼라	(170)	1.2	4.1	38.8	55.9	14.4
	블루칼라	(174)	0.0	5.2	30.5	64.4	15.2
	농/임/어업	(27)	0.0	0.0	40.7	59.3	14.6
	자영업	(119)	0.0	7.6	28.6	63.9	15.5
	주부	(3)	0.0	33.3	33.3	33.3	10.0
	은퇴자	(3)	0.0	0.0	66.7	33.3	13.3
	학생	(16)	6.3	25.0	18.8	50.0	13.1
	무직/기타	(5)	0.0	20.0	20.0	60.0	14.0
교육 수준	중졸 이하	(22)	0.0	4.5	31.8	63.6	15.1
	고졸	(230)	0.4	5.7	33.5	60.4	15.0
	대재 이상	(265)	0.8	6.4	32.8	60.0	14.8
가구 소득	저소득	(88)	0.0	5.7	35.2	59.1	14.8
	중소득	(293)	0.7	5.5	33.4	60.4	14.8
	고소득	(136)	0.7	7.4	30.9	61.0	15.1

### 라. 과거 금연 기간

- 과거 금연 기간에 대해 질문한 결과 '시도한 적 없다'가 57.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뒤를 이어 '1~4주'(21.3%), '5~12주'(10.6%), '13주 이상'(10.3%) 순으로 나타남

〈그림 IV-18〉 과거 금연 기간

(n=517 / 단위: %)



- '시도한 적 없다'는 응답은 20대(72.4%)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V-21〉 과거 금연 기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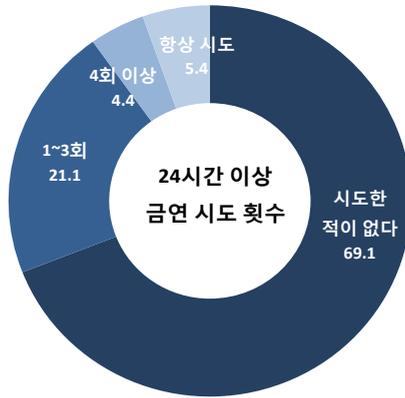
특성별		사례 수	시도한 적 없다	1~4주	5~12주	13주 이상
전체		(517)	57.8	21.3	10.6	10.3
성별	남성	(501)	58.5	21.0	10.6	10.0
	여성	(16)	37.5	31.3	12.5	18.8
연령	20대	(98)	72.4	14.3	7.1	6.1
	30대	(108)	50.9	33.3	10.2	5.6
	40대	(112)	55.4	19.6	10.7	14.3
	50대	(107)	54.2	18.7	13.1	14.0
	60대 이상	(92)	57.6	19.6	12.0	10.9
지역규모	대도시	(236)	58.1	21.6	10.2	10.2
	중·소도시	(245)	58.0	22.4	10.2	9.4
	군지역	(36)	55.6	11.1	16.7	16.7
직업	화이트칼라	(170)	57.1	20.0	11.8	11.2
	블루칼라	(174)	59.8	24.1	9.2	6.9
	농/임/어업	(27)	59.3	11.1	18.5	11.1
	자영업	(119)	58.0	18.5	11.8	11.8
	주부	(3)	0.0	33.3	0.0	66.7
	은퇴자	(3)	66.7	33.3	0.0	0.0
	학생	(16)	43.8	37.5	0.0	18.8
	무직/기타	(5)	80.0	20.0	0.0	0.0
교육 수준	중졸 이하	(22)	68.2	0.0	18.2	13.6
	고졸	(230)	60.0	20.9	10.4	8.7
	대재 이상	(265)	55.1	23.4	10.2	11.3
가구 소득	저소득	(88)	58.0	23.9	6.8	11.4
	중소득	(293)	61.1	20.5	10.9	7.5
	고소득	(136)	50.7	21.3	12.5	15.4

마. 24시간 이상 금연 시도 횟수

- 24시간 이상 금연을 시도한 적이 있는지 살펴본 결과, ‘시도한 적이 없다’는 응답이 69.1%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1~3회’(21.1%), ‘항상 시도’(5.4%), ‘4회 이상’(4.4%) 순으로 나타남

〈그림 IV-19〉 24시간 이상 금연 시도 횟수

(n=517 / 단위: %)



- ‘시도한 적이 없다’는 응답은 남성(69.5%), 20대(82.7%), 대도시(70.3%)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V-22〉 24시간 이상 금연 시도 횟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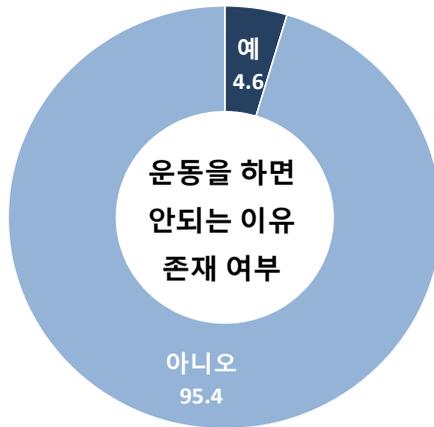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시도한 적이 없다	1~3회	4회 이상	항상 시도한다
전체		(517)	69.1	21.1	4.4	5.4
성별	남성	(501)	69.5	20.4	4.6	5.6
	여성	(16)	56.3	43.8	0.0	0.0
연령	20대	(98)	82.7	13.3	1.0	3.1
	30대	(108)	64.8	23.1	4.6	7.4
	40대	(112)	63.4	28.6	4.5	3.6
	50대	(107)	65.4	22.4	5.6	6.5
	60대 이상	(92)	70.7	16.3	6.5	6.5
지역규모	대도시	(236)	70.3	20.8	3.4	5.5
	중·소도시	(245)	70.2	20.4	4.5	4.9
	군지역	(36)	52.8	27.8	11.1	8.3
직업	화이트칼라	(170)	70.6	18.8	4.1	6.5
	블루칼라	(174)	70.7	22.4	1.7	5.2
	농/임/어업	(27)	70.4	14.8	7.4	7.4
	자영업	(119)	65.5	21.8	8.4	4.2
	주부	(3)	0.0	100.0	0.0	0.0
	은퇴자	(3)	100.0	0.0	0.0	0.0
	학생	(16)	62.5	31.3	0.0	6.3
	무직/기타	(5)	80.0	0.0	20.0	0.0
교육 수준	중졸 이하	(22)	72.7	9.1	9.1	9.1
	고졸	(230)	68.3	21.7	4.3	5.7
	대재 이상	(265)	69.4	21.5	4.2	4.9
가구 소득	저소득	(88)	72.7	17.0	1.1	9.1
	중소득	(293)	67.2	23.9	4.8	4.1
	고소득	(136)	70.6	17.6	5.9	5.9

**바. 운동을 하면 안되는 이유 존재 여부**

- 운동을 하면 안되는 이유가 존재하는지 살펴본 결과 95.4%의 응답자가 ‘운동을 하면 안되는 이유가 없다’고 응답함

〈그림 IV-20〉 운동을 하면 안되는 이유 존재 여부  
(n=2,200 / 단위: %)



〈표 IV-23〉 운동을 하면 안되는 이유 존재 여부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예	아니오
전체		(2,200)	4.6	95.4
성별	남성	(1,092)	4.4	95.6
	여성	(1,108)	4.9	95.1
연령	20대	(357)	1.7	98.3
	30대	(393)	3.3	96.7
	40대	(461)	5.4	94.6
	50대	(446)	3.8	96.2
	60대 이상	(543)	7.6	92.4
지역규모	대도시	(1,006)	3.3	96.7
	중·소도시	(1,007)	5.9	94.1
	군지역	(187)	5.3	94.7
직업	화이트칼라	(580)	3.1	96.9
	블루칼라	(611)	6.2	93.8
	농/임/어업	(95)	5.3	94.7
	자영업	(396)	4.5	95.5
	주부	(409)	3.9	96.1
	은퇴자	(19)	5.3	94.7
	학생	(59)	0.0	100.0
	무직/기타	(31)	19.4	80.6
교육 수준	중졸 이하	(196)	10.2	89.8
	고졸	(1,057)	5.0	95.0
	대재 이상	(946)	3.1	96.9
	모름/무응답	(1)	0.0	100.0
가구 소득	저소득	(406)	8.9	91.1
	중소득	(1,226)	4.2	95.8
	고소득	(568)	2.5	9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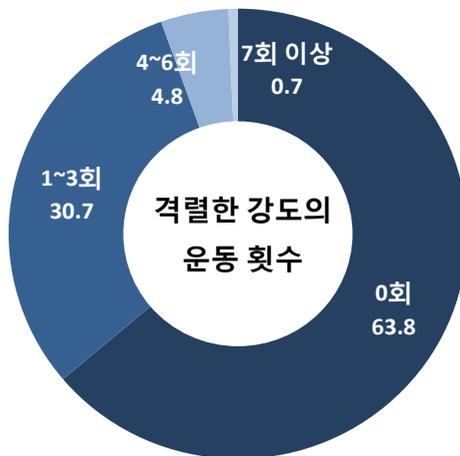
## 사. 운동 횟수

### 1) 격렬한 강도 운동 횟수

- 격렬한 강도의 운동 횟수를 물어본 결과, '0회'(63.8%)로 가장 높았고, '1~3회'(30.7%), '4~6회'(4.8%), '7회 이상'(0.7%) 순으로 나타남

〈그림 IV-21〉 격렬한 강도 운동 횟수

(n=2,098 / 단위: %)



- '0회'라는 응답은 여성(68.3%), 60대 이상(75.7%), 주부(72.3%)가 상대적으로 높았음
- 또한, 학력이 낮을수록, 소득이 적을수록 '0회'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V-24〉 격렬한 강도 운동 횟수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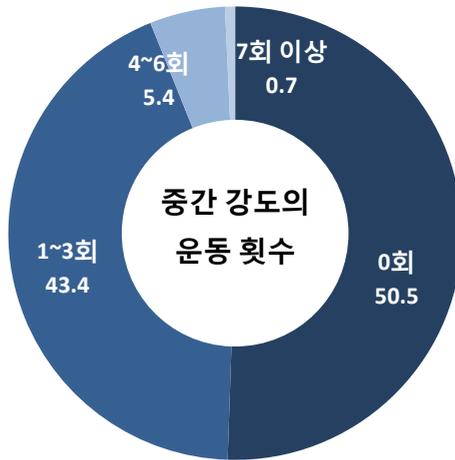
특성별		사례 수	0회	1~3회	4~6회	7회 이상
전체		(2,098)	63.8	30.7	4.8	0.7
성별	남성	(1,044)	59.3	34.0	5.7	1.0
	여성	(1,054)	68.3	27.5	3.8	0.4
연령	20대	(351)	53.0	39.0	7.1	0.9
	30대	(380)	61.1	33.2	5.5	0.3
	40대	(436)	60.8	32.3	6.2	0.7
	50대	(429)	64.3	31.9	2.8	0.9
	60대 이상	(502)	75.7	20.7	3.0	0.6
지역규모	대도시	(973)	63.4	32.1	4.0	0.5
	중·소도시	(948)	62.9	30.7	5.7	0.7
	군지역	(177)	71.2	23.7	4.0	1.1
직업	화이트칼라	(562)	54.4	39.0	6.0	0.5
	블루칼라	(573)	65.1	29.7	4.4	0.9
	농/임/어업	(90)	76.7	22.2	1.1	0.0
	자영업	(378)	66.4	27.5	5.3	0.8
	주부	(393)	72.3	24.2	3.3	0.3
	은퇴자	(18)	77.8	16.7	0.0	5.6
	학생	(59)	40.7	49.2	8.5	1.7
	무직/기타	(25)	72.0	20.0	8.0	0.0
교육 수준	중졸 이하	(176)	87.5	9.1	1.7	1.7
	고졸	(1,004)	65.8	28.9	4.7	0.6
	대재 이상	(917)	57.0	37.0	5.5	0.5
	모름/무응답	(1)	100.0	0.0	0.0	0.0
가구 소득	저소득	(370)	75.4	20.5	3.8	0.3
	중소득	(1,174)	66.1	28.0	5.1	0.8
	고소득	(554)	51.3	43.3	4.7	0.7

## 2) 중간 강도의 운동 횟수

- 중간 강도의 운동 횟수를 물어본 결과, '0회'(50.5%)로 가장 높았고, '1~3회'(43.4%), '4~6회'(5.4%), '7회 이상'(0.7%) 순으로 나타남

〈그림 IV-22〉 중간 강도의 운동 횟수

(n=2,098 / 단위: %)



- '0회'라는 응답은 여성(54.0%), 60대 이상(58.8%), 농/임/어업(66.7%)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 또한, 학력이 낮을수록, 소득이 적을수록 '0회'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V-25〉 중간 강도의 운동 횟수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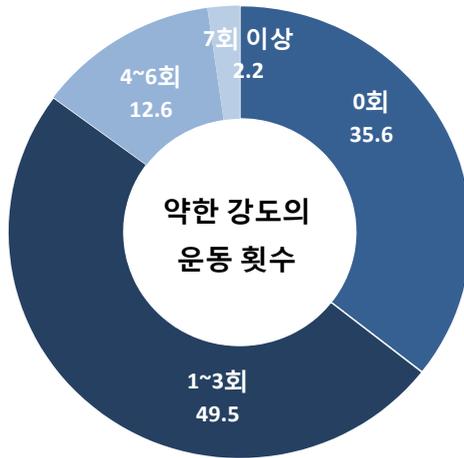
특성별		사례 수	0회	1~3회	4~6회	7회 이상
전체		(2,098)	50.5	43.4	5.4	0.7
성별	남성	(1,044)	47.0	46.3	5.8	0.9
	여성	(1,054)	54.0	40.5	4.9	0.6
연령	20대	(351)	44.4	46.7	8.3	0.6
	30대	(380)	49.2	45.3	4.7	0.8
	40대	(436)	46.8	47.5	5.3	0.5
	50대	(429)	50.8	44.3	3.7	1.2
	60대 이상	(502)	58.8	35.3	5.4	0.6
지역규모	대도시	(973)	47.4	45.9	6.0	0.7
	중·소도시	(948)	51.2	43.2	5.0	0.6
	군지역	(177)	64.4	29.9	4.5	1.1
직업	화이트칼라	(562)	43.6	50.0	5.7	0.7
	블루칼라	(573)	54.5	39.3	5.2	1.0
	농/임/어업	(90)	66.7	28.9	4.4	0.0
	자영업	(378)	49.7	44.7	4.8	0.8
	주부	(393)	52.4	41.7	5.9	0.0
	은퇴자	(18)	66.7	27.8	0.0	5.6
	학생	(59)	32.2	59.3	6.8	1.7
	무직/기타	(25)	72.0	20.0	8.0	0.0
교육 수준	중졸 이하	(176)	72.2	22.7	3.4	1.7
	고졸	(1,004)	52.3	42.5	4.7	0.5
	대재 이상	(917)	44.5	48.2	6.5	0.8
	모름/무응답	(1)	0.0	100.0	0.0	0.0
가구 소득	저소득	(370)	62.2	32.7	5.1	0.0
	중소득	(1,174)	53.5	40.2	5.4	0.9
	고소득	(554)	36.5	57.2	5.6	0.7

### 3) 약한 강도의 운동 횟수

- 약한 강도의 운동 횟수를 물어본 결과, '1~3회'(49.5%)가 가장 높았고, '0회'(35.6%), '4~6회'(12.6%), '7회 이상'(2.2%) 순으로 나타남

〈그림 IV-23〉 약한 강도의 운동 횟수

(n=2,098 / 단위: %)



- '1~3회' 응답 중 30대(54.7%), 화이트칼라(53.7%)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V-26〉 약한 강도의 운동 횟수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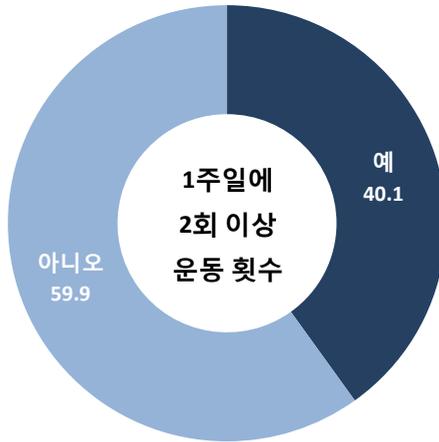
특성별		사례 수	0회	1~3회	4~6회	7회 이상
전체		(2,098)	35.6	49.5	12.6	2.2
성별	남성	(1,044)	37.2	50.3	10.6	1.9
	여성	(1,054)	34.1	48.8	14.6	2.6
연령	20대	(351)	38.5	49.0	11.1	1.4
	30대	(380)	34.7	54.7	8.9	1.6
	40대	(436)	34.6	51.1	11.5	2.8
	50대	(429)	34.5	49.7	13.8	2.1
	60대 이상	(502)	36.1	44.4	16.5	3.0
지역규모	대도시	(973)	32.2	52.9	13.2	1.7
	중·소도시	(948)	35.5	48.3	13.3	2.8
	군지역	(177)	54.8	37.3	6.2	1.7
직업	화이트칼라	(562)	35.9	53.7	9.4	0.9
	블루칼라	(573)	37.5	48.2	11.2	3.1
	농/임/어업	(90)	54.4	38.9	5.6	1.1
	자영업	(378)	33.9	52.1	11.9	2.1
	주부	(393)	30.0	46.6	20.9	2.5
	은퇴자	(18)	27.8	38.9	27.8	5.6
	학생	(59)	32.2	52.5	11.9	3.4
	무직/기타	(25)	44.0	32.0	16.0	8.0
교육 수준	중졸 이하	(176)	45.5	26.7	24.4	3.4
	고졸	(1,004)	36.2	50.0	11.7	2.2
	대재 이상	(917)	33.0	53.4	11.5	2.1
	모름/무응답	(1)	100.0	0.0	0.0	0.0
가구 소득	저소득	(370)	44.3	38.6	15.7	1.4
	중소득	(1,174)	36.8	47.5	12.6	3.1
	고소득	(554)	27.3	61.0	10.6	1.1

4) 1주일에 2회 이상 운동 횟수

- 1주일에 2회 이상 운동을 하는지 물어본 결과, 40.1%의 응답자가 그렇다고 응답했고, 59.9%의 응답자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함

〈그림 IV-24〉 1주일에 2회 이상 운동 횟수

(n=2,098 / 단위: %)



〈표 IV-27〉 1주일에 2회 이상 운동 횟수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예	아니오
전체		(2,098)	40.1	59.9
성별	남성	(1,044)	40.2	59.8
	여성	(1,054)	39.9	60.1
연령	20대	(351)	41.0	59.0
	30대	(380)	40.5	59.5
	40대	(436)	41.1	58.9
	50대	(429)	37.1	62.9
	60대 이상	(502)	40.8	59.2
지역규모	대도시	(973)	37.8	62.2
	중·소도시	(948)	39.0	61.0
	군지역	(177)	58.2	41.8
직업	화이트칼라	(562)	39.0	61.0
	블루칼라	(573)	43.5	56.5
	농/임/어업	(90)	57.8	42.2
	자영업	(378)	40.2	59.8
	주부	(393)	36.1	63.9
	은퇴자	(18)	27.8	72.2
	학생	(59)	18.6	81.4
	무직/기타	(25)	44.0	56.0
교육 수준	중졸 이하	(176)	46.6	53.4
	고졸	(1,004)	39.5	60.5
	대재 이상	(917)	39.5	60.5
	모름/무응답	(1)	0.0	100.0
가구 소득	저소득	(370)	46.8	53.2
	중소득	(1,174)	42.2	57.8
	고소득	(554)	31.2	6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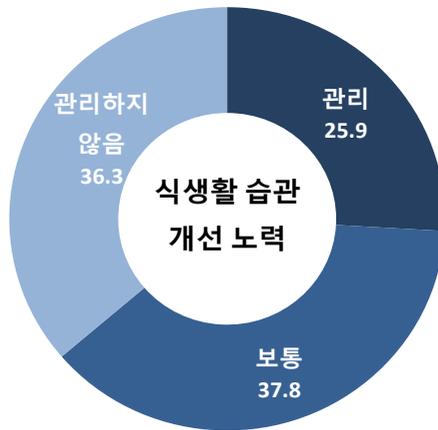
## 아. 식생활 습관

### 1) 식생활 습관 개선 노력

- 식생활 습관 개선 노력에 대해 살펴본 결과, ‘관리를 하고 있다’는 응답이 25.9%로 나타난 반면, ‘관리하지 않음’은 36.3%로 나타남

〈그림 IV-25〉 식생활 습관 개선 노력

(n=2,200 / 단위: %)



- ‘관리를 하고 있다’는 여성(31.2%), 대도시(28.1%)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
- 또한, 소득이 많을수록 ‘관리를 하고 있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V-28〉 식생활 습관 개선 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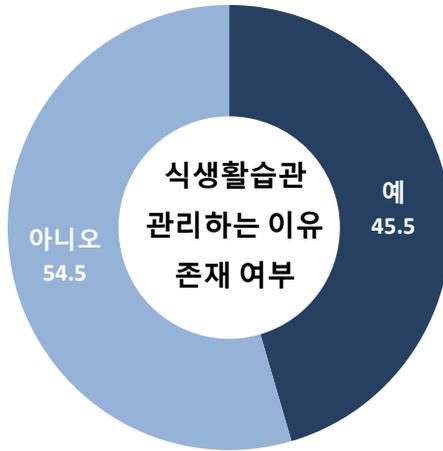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매우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어느 정도 관리하고 있는 편이다	보통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다	별로 관리하지 않는 편이다	전혀 관리하지 않고 있다
전체		(2,200)	2.0	23.9	37.8	26.7	9.5
성별	남성	(1,092)	2.0	18.6	36.0	30.1	13.3
	여성	(1,108)	2.0	29.2	39.6	23.4	5.9
연령	20대	(357)	3.1	21.0	29.7	31.7	14.6
	30대	(393)	1.3	23.2	38.4	26.5	10.7
	40대	(461)	2.6	23.0	40.6	26.9	6.9
	50대	(446)	1.3	25.3	40.4	25.8	7.2
	60대 이상	(543)	1.8	26.0	38.3	24.3	9.6
지역규모	대도시	(1,006)	1.9	26.2	36.7	26.5	8.6
	중·소도시	(1,007)	1.7	23.1	38.7	26.1	10.3
	군지역	(187)	4.3	15.5	39.0	31.0	10.2
직업	화이트칼라	(580)	1.9	23.6	38.4	27.2	8.8
	블루칼라	(611)	2.1	19.0	38.8	29.5	10.6
	농/임/어업	(95)	1.1	18.9	29.5	35.8	14.7
	자영업	(396)	2.5	24.5	38.6	26.3	8.1
	주부	(409)	1.0	31.3	41.1	19.8	6.8
	은퇴자	(19)	0.0	21.1	42.1	21.1	15.8
	학생	(59)	5.1	28.8	15.3	25.4	25.4
	무직/기타	(31)	6.5	29.0	19.4	38.7	6.5
교육 수준	중졸 이하	(196)	2.6	21.9	35.2	28.6	11.7
	고졸	(1,057)	1.7	23.6	38.7	26.6	9.5
	대재 이상	(946)	2.1	24.7	37.4	26.5	9.2
	모름/무응답	(1)	100.0	0.0	0.0	0.0	0.0
가구 소득	저소득	(406)	0.7	23.6	35.7	27.8	12.1
	중소득	(1,226)	2.0	22.6	37.7	28.3	9.4
	고소득	(568)	2.8	26.9	39.6	22.5	8.1

2) 식생활 습관 관리하는 이유 존재 여부

- 식생활 습관을 관리하는 이유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식생활 습관을 관리하는 이유가 있다는 응답이 45.5%, 이유가 없다는 응답이 54.5%로 나타남

〈그림 IV-26〉 식생활 습관 관리하는 이유 존재 여부  
(n=44 / 단위: %)



- ‘이유가 없다’는 응답은 20대(81.8%), 중·소도시(76.5%)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V-29〉 식생활 습관 관리하는 이유 존재 여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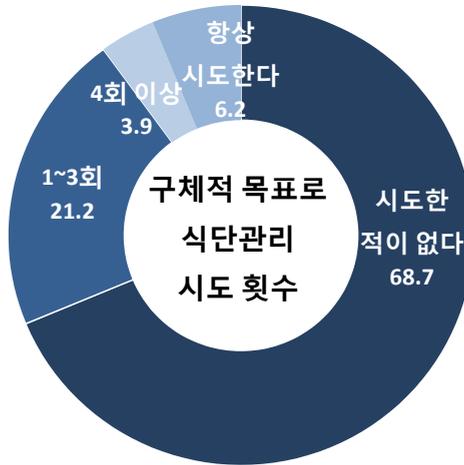
특성별		사례 수	예	아니오
전체		(44)	45.5	54.5
성별	남성	(22)	45.5	54.5
	여성	(22)	45.5	54.5
연령	20대	(11)	18.2	81.8
	30대	(5)	60.0	40.0
	40대	(12)	41.7	58.3
	50대	(6)	50.0	50.0
	60대 이상	(10)	70.0	30.0
지역규모	대도시	(19)	63.2	36.8
	중·소도시	(17)	23.5	76.5
	군지역	(8)	50.0	50.0
직업	화이트칼라	(11)	36.4	63.6
	블루칼라	(13)	61.5	38.5
	농/임/어업	(1)	0.0	100.0
	자영업	(10)	50.0	50.0
	주부	(4)	25.0	75.0
	학생	(3)	0.0	100.0
	무직/기타	(2)	100.0	0.0
교육 수준	중졸 이하	(5)	80.0	20.0
	고졸	(18)	38.9	61.1
	대재 이상	(20)	45.0	55.0
	모름/무응답	(1)	0.0	100.0
가구 소득	저소득	(3)	66.7	33.3
	중소득	(25)	48.0	52.0
	고소득	(16)	37.5	62.5

3) 구체적 목표로 식단관리 시도 횟수

- 구체적 목표로 식단관리를 시도한 횟수를 물어본 결과, ‘시도한 적이 없다’는 응답이 68.7%로 가장 많았고, ‘1~3회’(21.2%), ‘항상 시도한다’(6.2%), ‘4~6회’(3.9%) 순으로 나타났음

〈그림 IV-27〉 구체적 목표로 식단관리 시도 횟수

(n=2,200 / 단위: %)



- ‘시도한 적이 없다’는 응답은 남성(77.7%), 60대 이상(72.0%)과 50대(71.1%)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

〈표 IV-30〉 구체적 목표로 식단관리 시도 횟수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시도한 적이 없다	1~3회	4~6회	항상 시도한다	
전체	(2,200)	68.7	21.2	3.9	6.2	
성별	남성	(1,092)	77.7	16.3	2.5	3.6
	여성	(1,108)	59.9	26.1	5.2	8.8
연령	20대	(357)	65.8	23.2	3.1	7.8
	30대	(393)	66.9	23.4	5.1	4.6
	40대	(461)	66.4	21.9	3.5	8.2
	50대	(446)	71.1	20.4	5.6	2.9
	60대 이상	(543)	72.0	18.4	2.4	7.2
지역규모	대도시	(1,006)	70.9	19.4	3.6	6.2
	중·소도시	(1,007)	66.6	23.5	4.1	5.8
	군지역	(187)	68.4	18.7	4.3	8.6
직업	화이트칼라	(580)	67.8	21.6	4.5	6.2
	블루칼라	(611)	68.9	21.3	3.6	6.2
	농/임/어업	(95)	77.9	17.9	3.2	1.1
	자영업	(396)	73.2	17.7	3.5	5.6
	주부	(409)	62.6	25.9	4.4	7.1
	은퇴자	(19)	89.5	5.3	5.3	0.0
	학생	(59)	64.4	25.4	1.7	8.5
	무직/기타	(31)	74.2	9.7	0.0	16.1
교육 수준	중졸 이하	(196)	74.5	16.8	2.6	6.1
	고졸	(1,057)	69.1	20.2	4.5	6.1
	대재 이상	(946)	67.1	23.3	3.4	6.2
	모름/무응답	(1)	100.0	0.0	0.0	0.0
가구 소득	저소득	(406)	72.4	16.3	2.2	9.1
	중소득	(1,226)	67.5	22.8	4.2	5.5
	고소득	(568)	68.7	21.5	4.4	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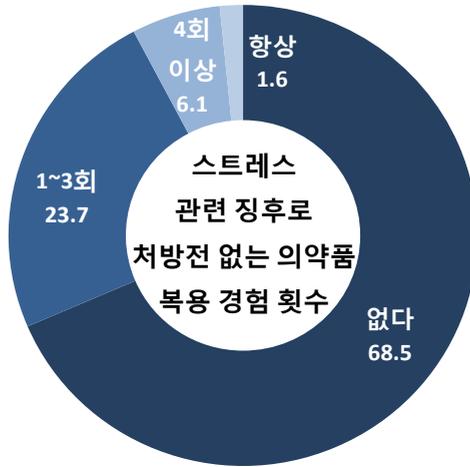
자. 스트레스 관리

1) 스트레스 관련 징후로 처방전 없는 의약품 복용 경험 횟수

■ 스트레스 관련 징후로 처방전 없는 의약품 복용 경험을 물어본 결과, ‘없다’는 응답이 68.5%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1~3회’(23.7%), ‘4회 이상’(6.1%), ‘항상’(1.6%) 순으로 나타남

〈그림 IV-28〉 스트레스 관련 징후로 처방전 없는 의약품 복용 경험 횟수

(n=2,200 / 단위: %)



〈표 IV-31〉 스트레스 관련 징후로 처방전 없는 의약품 복용 경험 횟수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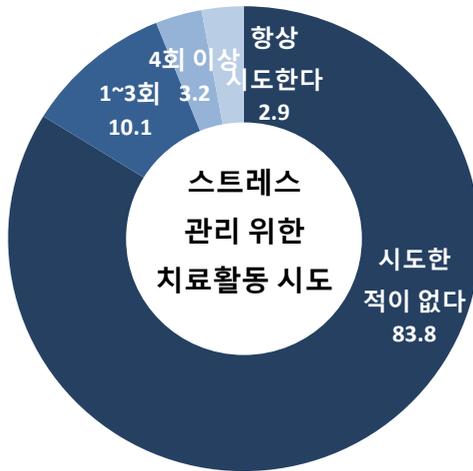
특성별		사례 수	없다	1~3회	4회 이상	항상
전체		(2,200)	68.5	23.7	6.1	1.6
성별	남성	(1,092)	72.0	21.2	4.9	1.9
	여성	(1,108)	65.2	26.2	7.4	1.3
연령	20대	(357)	76.2	17.6	5.6	0.6
	30대	(393)	73.3	21.9	3.8	1.0
	40대	(461)	64.4	28.2	5.6	1.7
	50대	(446)	66.1	25.3	7.2	1.3
	60대 이상	(543)	65.6	23.9	7.7	2.8
지역규모	대도시	(1,006)	67.2	24.5	7.3	1.1
	중·소도시	(1,007)	68.7	23.7	5.5	2.1
	군지역	(187)	74.9	19.8	3.7	1.6
직업	화이트칼라	(580)	69.7	23.6	5.7	1.0
	블루칼라	(611)	66.6	25.0	6.7	1.6
	농/임/어업	(95)	67.4	29.5	1.1	2.1
	자영업	(396)	68.9	22.2	6.6	2.3
	주부	(409)	68.5	23.5	7.1	1.0
	은퇴자	(19)	68.4	31.6	0.0	0.0
	학생	(59)	79.7	15.3	3.4	1.7
	무직/기타	(31)	64.5	16.1	9.7	9.7
교육 수준	중졸 이하	(196)	63.3	26.5	7.1	3.1
	고졸	(1,057)	68.5	23.5	6.1	1.9
	대재 이상	(946)	69.8	23.4	5.9	1.0
	모름/무응답	(1)	0.0	100.0	0.0	0.0
가구 소득	저소득	(406)	65.8	25.9	5.2	3.2
	중소득	(1,226)	71.9	22.2	4.4	1.5
	고소득	(568)	63.2	25.5	10.6	0.7

2) 스트레스 관리 위한 치료활동 시도

■ 스트레스를 관리하기 위한 치료활동을 시도한 적이 있는지 물어본 결과, ‘시도한 적이 없다’는 응답이 83.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1~3회’(10.1%), ‘4회 이상’(3.2%), ‘항상 시도한다’(2.9%) 순으로 나타남

〈그림 IV-29〉 스트레스 관리 위한 치료활동 시도

(n=692 / 단위: %)



〈표 IV-32〉 스트레스 관리 위한 치료활동 시도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시도한 적이 없다	1~3회	4회 이상	항상 시도한다
전체		(692)	83.8	10.1	3.2	2.9
성별	남성	(306)	82.7	13.4	2.3	1.6
	여성	(386)	84.7	7.5	3.9	3.9
연령	20대	(85)	76.5	15.3	4.7	3.5
	30대	(105)	84.8	11.4	1.0	2.9
	40대	(164)	83.5	9.8	4.3	2.4
	50대	(151)	86.8	7.9	4.0	1.3
	60대 이상	(187)	84.5	9.1	2.1	4.3
지역규모	대도시	(330)	87.9	9.4	2.1	0.6
	중·소도시	(315)	81.6	10.8	3.8	3.8
	군지역	(47)	70.2	10.6	6.4	12.8
직업	화이트칼라	(176)	83.0	11.4	2.3	3.4
	블루칼라	(204)	83.3	10.8	4.9	1.0
	농/임/어업	(31)	96.8	3.2	0.0	0.0
	자영업	(123)	87.0	6.5	2.4	4.1
	주부	(129)	82.2	9.3	3.9	4.7
	은퇴자	(6)	83.3	16.7	0.0	0.0
	학생	(12)	83.3	16.7	0.0	0.0
	무직/기타	(11)	54.5	36.4	0.0	9.1
교육 수준	중졸 이하	(72)	93.1	5.6	0.0	1.4
	고졸	(333)	84.1	8.1	5.1	2.7
	대재 이상	(286)	81.1	13.6	1.7	3.5
	모름/무응답	(1)	100.0	0.0	0.0	0.0
가구 소득	저소득	(139)	84.9	10.1	0.7	4.3
	중소득	(344)	82.0	11.3	4.1	2.6
	고소득	(209)	86.1	8.1	3.3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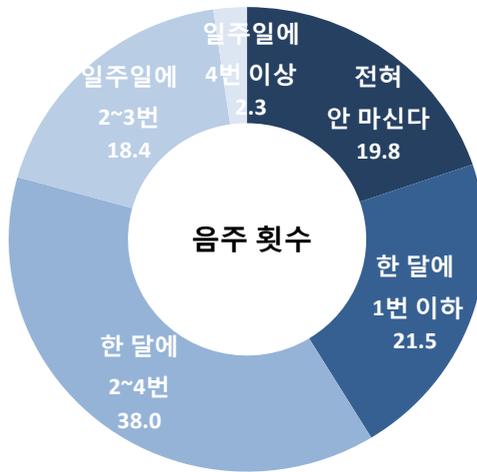
## 차. 음주

### 1) 음주 횟수

- 음주 횟수를 물어본 결과, ‘한 달에 2~4번 이하’라는 응답이 38.0%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한 달에 1번 이하’가 21.5%, ‘전혀 안 마신다’가 19.8% 순으로 나타남

〈그림 IV-30〉 음주 횟수

(n=2,200 / 단위: %)



- ‘한 달에 2~4번’ 응답은 20대(53.5%)가 상대적으로 높았음
- 또한, 학력이 높을수록, 소득이 많을수록 ‘한 달에 2~4번’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V-33〉 음주 횟수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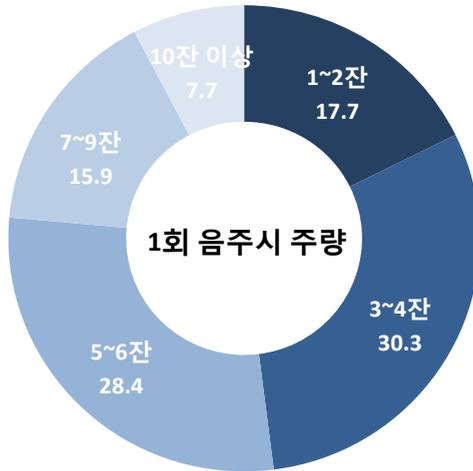
특성별		사례 수	전혀 안 마신다	한 달에 1번 이하	한 달에 2~4번	일주일에 2~3번	일주일에 4번 이상
전체		(2,200)	19.8	21.5	38.0	18.4	2.3
성별	남성	(1,092)	9.1	10.9	43.8	31.8	4.5
	여성	(1,108)	30.3	31.9	32.4	5.2	0.1
연령	20대	(357)	8.7	14.8	53.5	21.6	1.4
	30대	(393)	16.3	18.3	40.2	23.7	1.5
	40대	(461)	13.7	25.2	39.0	20.2	2.0
	50대	(446)	19.5	24.0	34.8	17.3	4.5
	60대 이상	(543)	35.0	23.0	28.2	12.0	1.8
지역규모	대도시	(1,006)	17.4	21.6	40.7	18.6	1.8
	중·소도시	(1,007)	18.4	22.0	37.6	19.1	2.9
	군지역	(187)	40.1	18.2	26.2	13.9	1.6
직업	화이트칼라	(580)	8.8	14.8	48.1	25.7	2.6
	블루칼라	(611)	16.9	19.8	40.3	21.3	1.8
	농/임/어업	(95)	34.7	16.8	32.6	13.7	2.1
	자영업	(396)	16.7	18.9	36.4	23.0	5.1
	주부	(409)	36.7	37.7	23.7	2.0	0.0
	은퇴자	(19)	36.8	36.8	26.3	0.0	0.0
	학생	(59)	16.9	15.3	45.8	20.3	1.7
	무직/기타	(31)	48.4	16.1	25.8	6.5	3.2
교육 수준	중졸 이하	(196)	48.0	20.4	18.9	10.2	2.6
	고졸	(1,057)	21.0	26.5	33.8	16.5	2.3
	대재 이상	(946)	12.5	16.2	46.8	22.3	2.2
	모름/무응답	(1)	100.0	0.0	0.0	0.0	0.0
가구 소득	저소득	(406)	32.5	19.7	29.8	14.8	3.2
	중소득	(1,226)	19.2	22.1	37.7	19.2	1.8
	고소득	(568)	11.8	21.5	44.7	19.4	2.6

2) 1회 음주 시 주량

■ 1회 음주 시 주량을 물어본 결과 ‘3~4잔’이 30.3%로 가장 높았고, ‘5~6잔’이 28.4%, ‘1~2잔’이 17.7%, ‘7~9잔’이 15.9%, ‘10잔 이상’이 7.7% 순으로 나타남

〈그림 IV-31〉 1회 음주 시 주량

(n=1,765 / 단위: %)



○ ‘3~4잔’ 응답은 여성(38.9%), 30대(35.0%)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

〈표 IV-34〉 1회 음주 시 주량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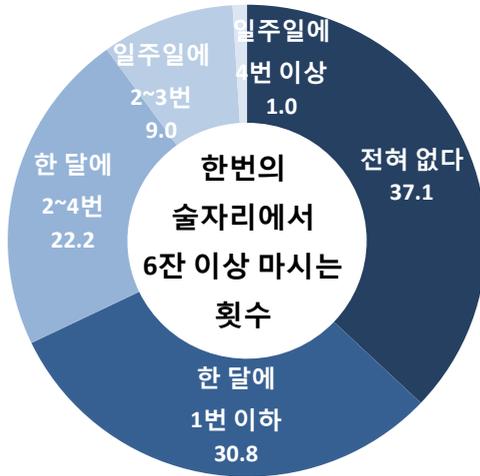
특성별		사례 수	1~2잔	3~4잔	5~6잔	7~9잔	10잔 이상
전체		(1,765)	17.7	30.3	28.4	15.9	7.7
성별	남성	(993)	5.4	23.7	35.0	23.4	12.5
	여성	(772)	33.4	38.9	19.9	6.2	1.6
연령	20대	(326)	7.1	27.3	39.3	19.6	6.7
	30대	(329)	11.6	35.0	27.1	17.3	9.1
	40대	(398)	18.6	30.2	25.9	14.3	11.1
	50대	(359)	22.6	27.0	26.2	17.3	7.0
	60대 이상	(353)	27.2	32.3	24.9	11.3	4.2
지역규모	대도시	(831)	15.8	30.2	29.1	16.2	8.7
	중·소도시	(822)	19.3	31.5	26.6	15.7	6.8
	군지역	(112)	19.6	22.3	36.6	14.3	7.1
직업	화이트칼라	(529)	7.8	26.5	37.1	20.8	7.9
	블루칼라	(508)	16.3	29.3	27.4	16.1	10.8
	농/임/어업	(62)	17.7	35.5	22.6	12.9	11.3
	자영업	(330)	16.1	28.2	28.5	19.1	8.2
	주부	(259)	45.6	39.4	12.4	1.9	.8
	은퇴자	(12)	16.7	50.0	16.7	16.7	0.0
	학생	(49)	6.1	32.7	42.9	14.3	4.1
	무직/기타	(16)	6.3	43.8	25.0	18.8	6.3
교육 수준	중졸 이하	(102)	33.3	36.3	17.6	5.9	6.9
	고졸	(835)	23.5	27.9	27.3	13.9	7.4
	대재 이상	(828)	9.9	32.0	30.9	19.1	8.1

3) 한 번의 술자리에서 6잔 이상 마시는 횟수

- 한 번의 술자리에서 6잔 이상 마시는 횟수를 살펴본 결과, ‘전혀 없다’가 37.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뒤로는 ‘한 달에 1번 이하’(30.8%), ‘한 달에 2~4번’(22.2%), ‘일주일에 2~3번’(9.0%), ‘일주일에 4번 이상’(1.0%) 순으로 나타남

〈그림 IV-32〉 한 번의 술자리에서 6잔 이상 마시는 횟수

(n=1,765 / 단위: %)



- ‘전혀 없다’는 응답은 여성(55.3%), 60대 이상(47.6%)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

〈표 IV-35〉 한 번의 술자리에서 6잔 이상 마시는 횟수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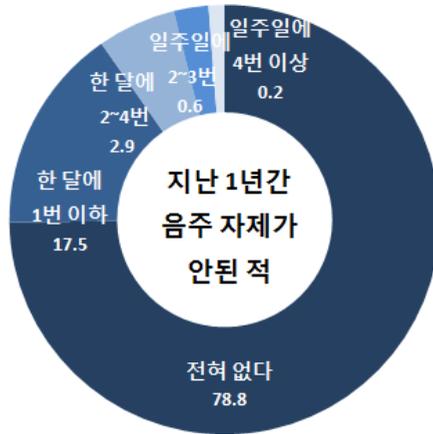
특성별		사례 수	전혀 없다	한 달에 1번이하	한 달에 2~4번	일주일에 2~3번	일주일에 4번 이상
전체		(1,765)	37.1	30.8	22.2	9.0	1.0
성별	남성	(993)	22.9	31.8	29.2	14.4	1.7
	여성	(772)	55.3	29.5	13.1	2.1	0.0
연령	20대	(326)	24.8	36.5	28.2	9.8	0.6
	30대	(329)	34.3	32.5	23.7	9.1	0.3
	40대	(398)	37.9	28.6	25.1	7.5	0.8
	50대	(359)	39.3	32.9	15.9	9.7	2.2
	60대 이상	(353)	47.6	24.4	18.1	9.1	0.8
지역규모	대도시	(831)	33.2	32.9	24.2	9.1	0.6
	중·소도시	(822)	40.1	29.1	21.2	8.6	1.0
	군지역	(112)	42.9	28.6	14.3	10.7	3.6
직업	화이트칼라	(529)	26.3	32.9	28.9	11.0	0.9
	블루칼라	(508)	34.6	30.7	23.6	10.6	0.4
	농/임/어업	(62)	50.0	32.3	8.1	8.1	1.6
	자영업	(330)	32.7	30.9	23.3	10.6	2.4
	주부	(259)	67.2	25.5	6.6	0.8	0.0
	은퇴자	(12)	50.0	25.0	16.7	8.3	0.0
	학생	(49)	30.6	34.7	28.6	4.1	2.0
	무직/기타	(16)	31.3	37.5	18.8	12.5	0.0
교육 수준	중졸 이하	(102)	53.9	25.5	8.8	9.8	2.0
	고졸	(835)	42.0	28.7	19.3	9.0	1.0
	대재 이상	(828)	30.0	33.6	26.7	8.9	0.8
가구 소득	저소득	(274)	43.8	28.1	17.5	8.8	1.8
	중소득	(990)	37.3	30.5	21.6	9.8	0.8
	고소득	(501)	32.9	32.9	25.7	7.6	0.8

4) 지난 1년간 음주 자제가 안된 경험

- 지난 1년간 음주 자제가 안된 경험이 있는지 물어본 결과, ‘전혀 없다’가 78.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한 달에 1번 이하’(17.5%), ‘한 달에 2~4번’(2.9%)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IV-33〉 지난 1년간 음주 자제가 안된 경험

(n=1,765 / 단위: %)



○ ‘전혀 없다’는 응답은 여성(90.2%), 주부(93.8%)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

〈표 IV-36〉 지난 1년간 음주 자제가 안된 경험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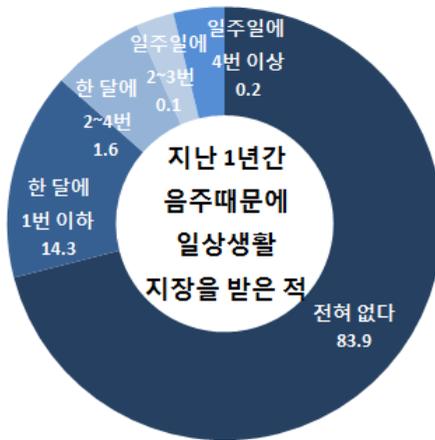
특성별		사례 수	전혀 없다	한 달에 1번 이하	한 달에 2~4번	일주일에 2~3번	일주일에 4번 이상
전체		(1,765)	78.8	17.5	2.9	0.6	0.2
성별	남성	(993)	69.9	24.4	4.5	0.9	0.3
	여성	(772)	90.2	8.5	0.9	0.3	0.1
연령	20대	(326)	74.2	21.2	3.4	0.9	0.3
	30대	(329)	77.2	18.8	4.0	0.0	0.0
	40대	(398)	78.9	18.3	2.0	0.8	0.0
	50대	(359)	81.9	13.6	3.6	0.6	0.3
	60대 이상	(353)	81.0	15.6	2.0	0.8	0.6
지역규모	대도시	(831)	79.1	18.2	2.2	0.6	0.0
	중·소도시	(822)	78.2	16.9	3.9	0.7	0.2
	군지역	(112)	80.4	16.1	1.8	0.0	1.8
직업	화이트칼라	(529)	73.7	22.1	3.2	0.8	0.2
	블루칼라	(508)	78.1	18.5	2.8	0.6	0.0
	농/임/어업	(62)	82.3	12.9	1.6	1.6	1.6
	자영업	(330)	76.7	18.2	3.9	0.6	0.6
	주부	(259)	93.8	5.0	0.8	0.4	0.0
	은퇴자	(12)	75.0	25.0	0.0	0.0	0.0
	학생	(49)	69.4	22.4	8.2	0.0	0.0
	무직/기타	(16)	81.3	12.5	6.3	0.0	0.0
교육 수준	중졸 이하	(102)	78.4	17.6	1.0	1.0	2.0
	고졸	(835)	82.8	14.0	2.2	1.0	0.1
	대재 이상	(828)	74.8	20.9	4.0	0.2	0.1
가구 소득	저소득	(274)	80.7	15.0	2.6	1.1	0.7
	중소득	(990)	79.4	17.1	2.6	0.8	0.1
	고소득	(501)	76.4	19.6	3.8	0.0	0.2

5) 지난 1년간 음주때문에 일상생활 지장을 받은 경험

- 지난 1년간 음주때문에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 물어본 결과, ‘전혀 없다’는 응답이 83.9%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한 달에 1번 이하’(14.3%), ‘한 달에 2~4번’(1.6%)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IV-34〉 지난 1년간 음주 때문에 일상생활 지장을 받은 경험

(n=1,765 / 단위: %)



- ‘전혀 없다’는 응답은 여성(92.2%), 주부(97.7%)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

〈표 IV-37〉 지난 1년간 음주때문에 일상생활 지장을 받은 경험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전혀 없다	한 달에 1번 이하	한 달에 2~4번	일주일 에 2~3번	일주일 에 4번 이상	
전체	(1,765)	83.9	14.3	1.6	0.1	0.2	
성별	남성	(993)	77.3	20.0	2.4	0.1	0.1
	여성	(772)	92.2	7.0	0.5	0.0	0.3
연령	20대	(326)	81.6	17.2	0.9	0.0	0.3
	30대	(329)	83.0	14.3	2.7	0.0	0.0
	40대	(398)	84.4	14.8	0.8	0.0	0.0
	50대	(359)	83.0	13.6	2.8	0.3	0.3
	60대 이상	(353)	87.0	11.9	0.8	0.0	0.3
지역규모	대도시	(831)	85.7	13.2	1.0	0.0	0.1
	중·소도시	(822)	81.5	15.8	2.3	0.1	0.2
	군지역	(112)	87.5	11.6	0.9	0.0	0.0
직업	화이트칼라	(529)	82.8	15.9	1.1	0.0	0.2
	블루칼라	(508)	80.9	16.7	2.2	0.0	0.2
	농/임/어업	(62)	82.3	14.5	1.6	0.0	1.6
	자영업	(330)	80.9	16.1	2.7	0.3	0.0
	주부	(259)	97.7	2.3	0.0	0.0	0.0
	은퇴자	(12)	83.3	16.7	0.0	0.0	0.0
	학생	(49)	75.5	22.4	2.0	0.0	0.0
	무직/기타	(16)	81.3	18.8	0.0	0.0	0.0
교육 수준	중졸 이하	(102)	83.3	13.7	2.0	0.0	1.0
	고졸	(835)	85.9	12.6	1.3	0.1	0.1
	대재 이상	(828)	81.9	16.2	1.8	0.0	0.1
가구 소득	저소득	(274)	82.8	15.7	0.7	0.0	0.7
	중소득	(990)	85.6	12.9	1.4	0.1	0.0
	고소득	(501)	81.0	16.4	2.4	0.0	0.2

6) 생애에 금주 혹은 절주 시도한 경험

- 생애에 금주 혹은 절주 시도한 경험이 있는지 물어본 결과, ‘시도한 적이 없다’는 응답이 89.7%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1~3회’(6.8%), ‘4회 이상’(2.0%)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IV-35〉 생애에 금주 혹은 절주 시도한 경험  
(n=1,765 / 단위: %)



- ‘시도한 적이 없다’는 응답은 여성(94.7%), 주부(95.0%)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

〈표 IV-38〉 생애에 금주 혹은 절주 시도한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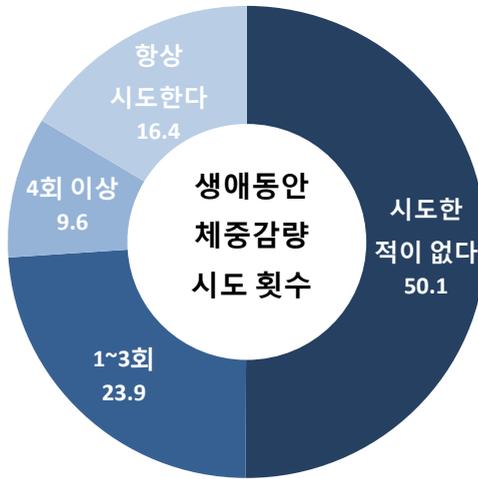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시도한 적이 없다	1~3회	4회 이상	항상 시도한다
전체		(1,765)	89.7	6.8	2.0	1.4
성별	남성	(993)	85.9	9.3	2.9	1.9
	여성	(772)	94.7	3.6	0.9	0.8
연령	20대	(326)	93.9	4.0	0.9	1.2
	30대	(329)	91.2	5.5	2.1	1.2
	40대	(398)	88.2	8.3	2.3	1.3
	50대	(359)	90.3	5.6	3.3	0.8
	60대 이상	(353)	85.8	10.2	1.4	2.5
지역규모	대도시	(831)	90.6	6.1	2.0	1.2
	중·소도시	(822)	88.9	7.4	2.2	1.5
	군지역	(112)	89.3	7.1	0.9	2.7
직업	화이트칼라	(529)	91.7	4.9	2.3	1.1
	블루칼라	(508)	88.2	7.9	2.4	1.6
	농/임/어업	(62)	87.1	11.3	0.0	1.6
	자영업	(330)	85.8	9.1	2.7	2.4
	주부	(259)	95.0	4.2	0.8	0.0
	은퇴자	(12)	75.0	8.3	8.3	8.3
	학생	(49)	91.8	8.2	0.0	0.0
	무직/기타	(16)	87.5	6.3	0.0	6.3
교육 수준	중졸 이하	(102)	84.3	7.8	2.0	5.9
	고졸	(835)	89.7	7.7	1.6	1.1
	대재 이상	(828)	90.5	5.8	2.5	1.2
가구 소득	저소득	(274)	89.1	6.6	1.8	2.6
	중소득	(990)	90.1	7.0	1.8	1.1
	고소득	(501)	89.4	6.6	2.6	1.4

### 카. 체중감량

- 체중감량 시도 횟수에 대해 물어본 결과, ‘시도한 적이 없다’는 응답이 50.1%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1~3회’(23.9%), ‘항상 시도한다’(16.4%), ‘4회 이상’(9.6%)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IV-36〉 생애동안 체중감량 시도 횟수  
(n=2,200 / 단위: %)



- ‘시도한 적이 없다’는 응답은 남성(65.9%), 농/임/어업(68.4%)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

〈표 IV-39〉 생애동안 체중감량 시도 횟수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시도한 적이 없다	1~3회	4회 이상	항상 시도한다
전체		(2,200)	50.1	23.9	9.6	16.4
성별	남성	(1,092)	65.9	23.5	4.4	6.1
	여성	(1,108)	34.5	24.2	14.8	26.5
연령	20대	(357)	46.8	24.6	7.6	21.0
	30대	(393)	47.3	30.0	6.6	16.0
	40대	(461)	44.7	27.8	9.1	18.4
	50대	(446)	49.1	19.7	13.9	17.3
	60대 이상	(543)	59.7	19.0	10.1	11.2
지역규모	대도시	(1,006)	49.7	23.7	9.9	16.7
	중·소도시	(1,007)	49.1	25.0	10.0	15.9
	군지역	(187)	57.8	18.7	5.9	17.6
직업	화이트칼라	(580)	51.0	26.2	4.8	17.9
	블루칼라	(611)	54.5	23.1	8.7	13.7
	농/임/어업	(95)	68.4	16.8	6.3	8.4
	자영업	(396)	53.3	23.7	9.1	13.9
	주부	(409)	32.8	24.4	20.0	22.7
	은퇴자	(19)	73.7	10.5	10.5	5.3
	학생	(59)	52.5	25.4	1.7	20.3
	무직/기타	(31)	58.1	16.1	12.9	12.9
교육 수준	중졸 이하	(196)	61.2	17.3	9.7	11.7
	고졸	(1,057)	50.1	23.0	11.2	15.7
	대재 이상	(946)	47.8	26.1	7.9	18.2
	모름/무응답	(1)	0.0	100.0	0.0	0.0
가구 소득	저소득	(406)	58.6	18.0	10.6	12.8
	중소득	(1,226)	48.4	26.8	9.5	15.3
	고소득	(568)	47.7	21.7	9.2	21.5

타. 생활습관 변화를 위한 실천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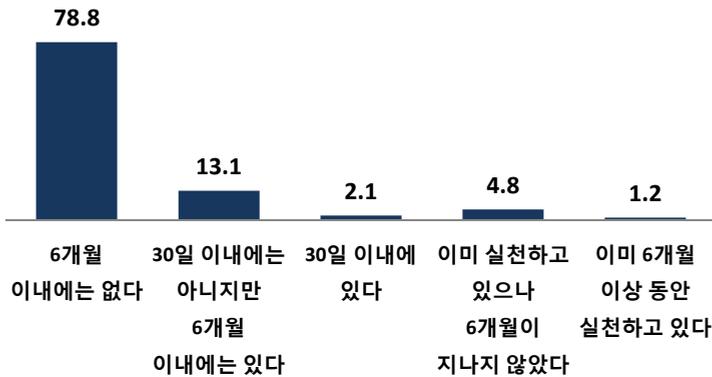
1) 금연

■ 생활습관 변화를 위해 금연할 계획이 있는지 살펴본 결과, ‘6개월 이내에는 없다’는 응답이 78.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30일 이내에는 아니지만 6개월 이내에는 있다’(13.1%), ‘이미 실천하고 있으나 6개월이 지나지 않았다’(4.8%) 등의 순으로 참여 경험이 있었음

○ ‘6개월 이내에는 없다’는 응답은 여성(82.4%), 60대 이상(84.8%), 대도시(83.2%)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

〈그림 IV-37〉 생활습관 변화를 위한 실천 계획: 금연

(n=2,200 / 단위: %)



〈표 IV-40〉 생활습관 변화를 위한 실천 계획: 금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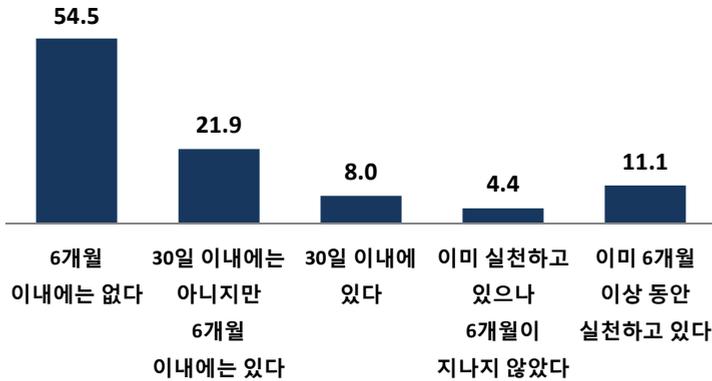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6개월 이내에는 없다	30일 이내에는 아니지만 6개월 이내에는 있다	30일 이내에 있다	이미 실천하고 있으나 6개월이 지나지 않았다	이미 6개월 이상 동안 실천하고 있다
전체		(2,200)	78.8	13.1	2.1	4.8	1.2
성별	남성	(1,092)	78.7	12.9	2.2	4.9	1.3
	여성	(1,108)	82.4	17.6	0.0	0.0	0.0
연령	20대	(357)	82.2	11.9	3.0	3.0	0.0
	30대	(393)	74.6	12.7	4.2	5.9	2.5
	40대	(461)	77.2	15.4	0.0	6.5	0.8
	50대	(446)	76.7	14.2	2.5	5.0	1.7
	60대 이상	(543)	84.8	10.5	1.0	2.9	1.0
지역규모	대도시	(1,006)	83.2	9.8	1.6	3.9	1.6
	중·소도시	(1,007)	75.0	15.8	2.9	5.5	0.7
	군지역	(187)	76.9	15.4	0.0	5.1	2.6
직업	화이트칼라	(580)	78.1	9.6	3.7	6.4	2.1
	블루칼라	(611)	79.1	13.9	1.6	4.3	1.1
	농/임/어업	(95)	74.2	16.1	0.0	6.5	3.2
	자영업	(396)	81.7	15.3	0.8	2.3	0.0
	주부	(409)	100.0	0.0	0.0	0.0	0.0
	은퇴자	(19)	80.0	0.0	0.0	20.0	0.0
	학생	(59)	81.3	18.8	0.0	0.0	0.0
	무직/기타	(31)	42.9	28.6	14.3	14.3	0.0
교육 수준	중졸 이하	(196)	84.0	4.0	4.0	4.0	4.0
	고졸	(1,057)	78.0	15.4	1.2	5.1	0.4
	대재 이상	(946)	79.2	11.8	2.8	4.5	1.7
	모름/무응답	(1)	0.0	100.0	0.0	0.0	0.0
가구 소득	저소득	(406)	63.1	16.3	5.7	3.4	11.6
	중소득	(1,226)	55.1	20.7	8.0	5.1	11.1
	고소득	(568)	47.0	28.5	9.9	3.7	10.9

2) 운동횟수 늘리기

■ 생활습관 변화를 위해 운동횟수를 늘릴 계획이 있는지 물어본 결과, ‘6개월 이내에는 없다’는 응답이 54.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30일 이내에는 아니지만 6개월 이내에는 있다’(21.9%), ‘이미 6개월 이상 동안 실천하고 있다’(11.1%) 등의 순으로 실천 경험이 있었음

〈그림 IV-38〉 생활습관 변화를 위한 실천 계획: 운동횟수 늘리기  
(n=567 / 단위: %)



○ ‘6개월 이내에는 없다’는 응답은 군지역(72.7%), 농/임/어업(71.6%), 중소득(56.9%)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

〈표 IV-41〉 생활습관 변화를 위한 실천 계획: 운동횟수 늘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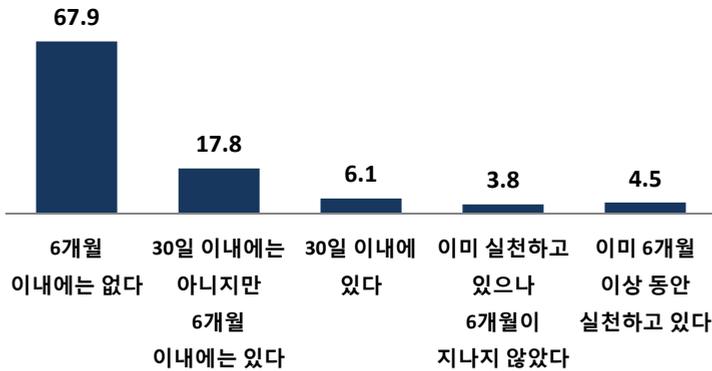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6개월 이내에는 없다	30일 이내에는 아니지만 6개월 이내에는 있다	30일 이내에 있다	이미 실천하고 있으나 6개월이 지나지 않았다	이미 6개월 이상 동안 실천하고 있다
전체		(567)	54.5	21.9	8.0	4.4	11.1
성별	남성	(550)	56.5	21.6	8.3	3.6	10.0
	여성	(17)	52.5	22.2	7.8	5.2	12.3
연령	20대	(101)	51.3	23.2	11.2	4.8	9.5
	30대	(118)	53.9	22.6	9.2	4.3	9.9
	40대	(123)	54.2	24.9	8.5	4.3	8.0
	50대	(120)	52.0	23.5	6.7	5.6	12.1
	60대 이상	(105)	59.3	16.6	5.9	3.3	14.9
지역규모	대도시	(256)	53.1	22.3	9.3	4.1	11.2
	중·소도시	(272)	52.5	23.0	7.1	5.2	12.1
	군지역	(39)	72.7	13.9	5.9	2.1	5.3
직업	화이트칼라	(187)	49.1	25.2	10.5	4.5	10.7
	블루칼라	(187)	56.1	22.7	8.7	4.1	8.3
	농/임/어업	(31)	71.6	15.8	4.2	0.0	8.4
	자영업	(131)	62.1	17.9	5.3	4.5	10.1
	주부	(3)	49.4	22.2	7.1	5.9	15.4
	은퇴자	(5)	42.1	15.8	15.8	0.0	26.3
	학생	(16)	50.8	18.6	8.5	5.1	16.9
	무직/기타	(7)	54.8	19.4	3.2	3.2	19.4
교육 수준	중졸 이하	(25)	62.2	12.8	5.6	3.1	16.3
	고졸	(254)	56.9	20.2	7.9	3.7	11.4
	대재 이상	(288)	50.3	25.6	8.8	5.5	9.8
가구 소득	저소득	(95)	75.8	13.7	5.3	4.2	1.1
	중소득	(326)	79.8	13.2	0.9	5.5	0.6
	고소득	(146)	78.8	12.3	2.7	3.4	2.7

### 3) 식단관리 강화

■ 생활습관 변화를 위해 식단관리 강화 계획이 있는지 살펴본 결과, ‘6개월 이내에는 없다’는 응답이 67.9%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30일 이내에는 아니지만 6개월 이내에는 있다’(17.8%), ‘30일 이내에는 있다’(6.1%)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IV-39〉 생활습관 변화를 위한 실천 계획: 식단관리 강화  
(n=2,200 / 단위: %)



○ ‘6개월 이내에는 없다’는 응답은 남성(76.0%), 농/임/어업(80.0%)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

〈표 IV-42〉 생활습관 변화를 위한 실천 계획: 식단관리 강화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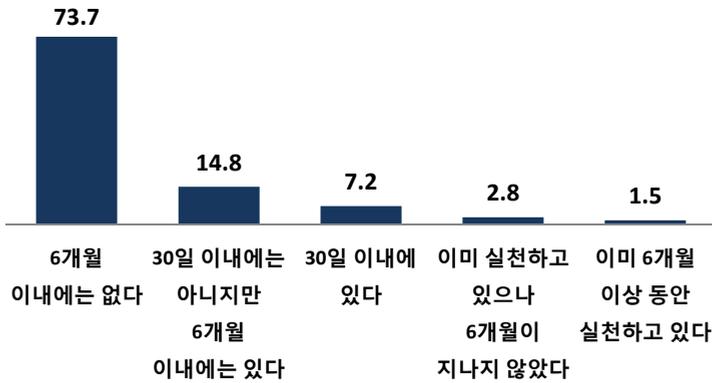
특성별		사례 수	6개월 이내에는 없다	30일 이내에는 아니지만 6개월 이내에는 있다	30일 이내에 있다	이미 실천하고 있으나 6개월이 지나지 않았다	이미 6개월 이상 동안 실천하고 있다
전체		(2,200)	67.9	17.8	6.1	3.8	4.5
성별	남성	(1,092)	76.0	14.7	4.1	2.9	2.2
	여성	(1,108)	59.8	20.8	8.0	4.6	6.7
연령	20대	(357)	68.6	18.2	8.4	2.8	2.0
	30대	(393)	65.6	20.9	5.3	3.8	4.3
	40대	(461)	67.2	19.5	6.1	3.5	3.7
	50대	(446)	67.9	16.1	5.4	5.6	4.9
	60대 이상	(543)	69.4	15.3	5.7	3.1	6.4
지역규모	대도시	(1,006)	66.1	19.4	6.8	3.1	4.7
	중·소도시	(1,007)	68.8	16.1	6.0	4.7	4.5
	군지역	(187)	72.2	18.7	3.2	2.7	3.2
직업	화이트칼라	(580)	68.8	17.8	7.6	3.8	2.1
	블루칼라	(611)	69.9	18.3	4.6	3.6	3.6
	농/임/어업	(95)	80.0	11.6	3.2	2.1	3.2
	자영업	(396)	72.2	15.4	3.5	5.1	3.8
	주부	(409)	55.5	22.5	8.3	3.9	9.8
	은퇴자	(19)	57.9	15.8	21.1	0.0	5.3
	학생	(59)	72.9	13.6	6.8	1.7	5.1
무직/기타	(31)	77.4	6.5	9.7	0.0	6.5	
교육 수준	중졸 이하	(196)	75.5	11.2	4.1	2.0	7.1
	고졸	(1,057)	68.5	17.3	6.1	3.4	4.6
	대재 이상	(946)	65.5	19.8	6.4	4.5	3.7
	모름/무응답	(1)	100.0	0.0	0.0	0.0	0.0
가구 소득	저소득	(406)	71.2	15.3	4.9	3.7	4.9
	중소득	(1,226)	68.9	17.3	5.4	3.9	4.5
	고소득	(568)	63.2	20.8	8.5	3.5	4.0

4) 스트레스 관리 횟수 늘리기

■ 생활습관 변화를 위해 스트레스 관리 횟수를 늘릴 계획이 있는지 물어본 결과, '6개월 이내에는 없다'는 응답이 73.7%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30일 이내에는 아니지만 6개월 이내에는 있다'(14.8%), '30일 이내에 있다'(7.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IV-40〉 생활습관 변화를 위한 실천 계획: 스트레스 관리 횟수 늘리기

(n=2,200 / 단위: %)



○ '6개월 이내에는 없다'는 응답은 중졸 이하와 저소득 계층에서 각각 84.7%, 81.3%로 상대적으로 높았음

〈표 IV-43〉 생활습관 변화를 위한 실천 계획: 스트레스 관리 횟수 늘리기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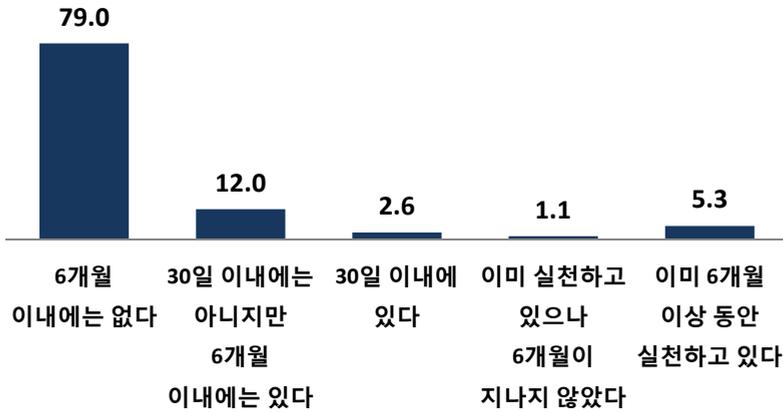
특성별		사례 수	6개월 이내에는 없다	30일 이내에는 아니지만 6개월 이내에는 있다	30일 이내에 있다	이미 실천하고 있으나 6개월이 지나지 않았다	이미 6개월 이상 동안 실천하고 있다
전체		(2,200)	73.7	14.8	7.2	2.8	1.5
성별	남성	(1,092)	76.1	14.6	6.4	1.8	1.1
	여성	(1,108)	71.4	15.0	7.9	3.7	2.0
연령	20대	(357)	71.1	16.0	8.7	2.5	1.7
	30대	(393)	71.8	18.3	6.9	2.0	1.0
	40대	(461)	72.0	17.1	6.7	2.8	1.3
	50대	(446)	74.9	14.1	6.1	3.6	1.3
	60대 이상	(543)	77.3	9.9	7.7	2.8	2.2
지역규모	대도시	(1,006)	71.9	16.7	7.9	2.4	1.2
	중·소도시	(1,007)	74.7	13.6	6.7	3.4	1.7
	군지역	(187)	78.6	10.7	6.4	1.6	2.7
직업	화이트칼라	(580)	68.1	18.6	10.0	2.1	1.2
	블루칼라	(611)	78.6	12.6	5.2	2.5	1.1
	농/임/어업	(95)	85.3	6.3	4.2	0.0	4.2
	자영업	(396)	75.3	14.9	4.8	3.5	1.5
	주부	(409)	68.9	16.1	8.1	4.6	2.2
	은퇴자	(19)	73.7	5.3	21.1	0.0	0.0
	학생	(59)	78.0	10.2	10.2	1.7	0.0
무직/기타	(31)	83.9	6.5	6.5	0.0	3.2	
교육 수준	중졸 이하	(196)	84.7	8.7	2.6	1.5	2.6
	고졸	(1,057)	74.8	13.2	7.3	3.1	1.5
	대재 이상	(946)	70.2	17.8	8.0	2.6	1.4
	모름/무응답	(1)	100.0	0.0	0.0	0.0	0.0
가구 소득	저소득	(406)	81.3	8.6	4.4	3.7	2.0
	중소득	(1,226)	73.7	14.8	7.0	2.9	1.6
	고소득	(568)	68.5	19.0	9.5	1.9	1.1

5) 금주 혹은 절주

- 생활습관 변화를 위해 금주 혹은 절주 계획이 있는지 물어본 결과, ‘6개월 이내에는 없다’는 응답이 79.0%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30일 이내에는 아니지만 6개월 이내에는 있다’(12.0%), ‘이미 6개월 이상 동안 실천하고 있다’(5.3%)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IV-41〉 생활습관 변화를 위한 실천 계획: 금주 혹은 절주

(n=2,200 / 단위: %)



〈표 IV-44〉 생활습관 변화를 위한 실천 계획: 금주 혹은 절주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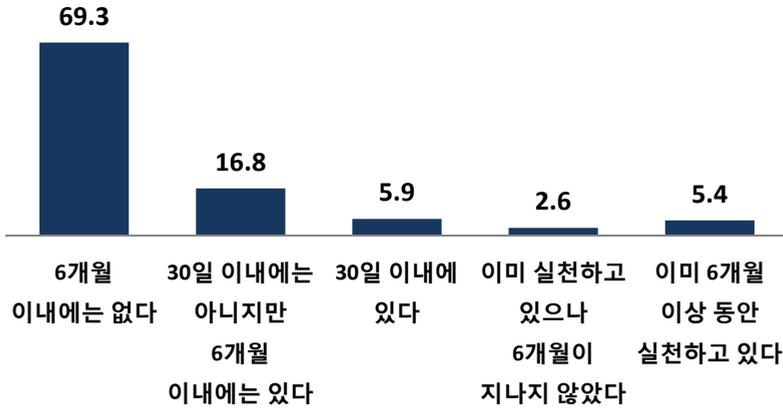
특성별		사례 수	6개월 이내에는 없다	30일 이내에는 아니지만 6개월 이내에는 있다	30일 이내에 있다	이미 실천하고 있으나 6개월이 지나지 않았다	이미 6개월 이상 동안 실천하고 있다
전체		(2,200)	79.0	12.0	2.6	1.1	5.3
성별	남성	(1,092)	78.5	14.4	2.2	1.2	3.8
	여성	(1,108)	79.5	9.7	3.0	1.1	6.8
연령	20대	(357)	81.8	12.3	3.9	0.0	2.0
	30대	(393)	78.9	13.7	2.5	1.5	3.3
	40대	(461)	80.9	13.4	2.2	1.3	2.2
	50대	(446)	78.0	11.7	2.5	1.3	6.5
	60대 이상	(543)	76.4	9.6	2.2	1.3	10.5
지역규모	대도시	(1,006)	80.7	12.1	2.2	0.7	4.3
	중·소도시	(1,007)	78.6	12.2	3.4	1.4	4.5
	군지역	(187)	72.2	10.2	0.5	2.1	15.0
직업	화이트칼라	(580)	76.2	17.1	2.8	1.2	2.8
	블루칼라	(611)	80.9	10.6	2.5	1.3	4.7
	농/임/어업	(95)	84.2	4.2	0.0	2.1	9.5
	자영업	(396)	76.8	12.6	3.3	1.0	6.3
	주부	(409)	80.2	9.3	2.7	1.0	6.8
	은퇴자	(19)	78.9	0.0	5.3	0.0	15.8
	학생	(59)	83.1	11.9	1.7	0.0	3.4
	무직/기타	(31)	83.9	3.2	0.0	0.0	12.9
교육 수준	중졸 이하	(196)	80.6	5.1	1.0	1.0	12.2
	고졸	(1,057)	80.5	10.4	2.8	1.2	5.0
	대재 이상	(946)	77.1	15.1	2.6	1.1	4.1
	모름/무응답	(1)	0.0	100.0	0.0	0.0	0.0
가구 소득	저소득	(406)	79.1	7.6	1.5	2.0	9.9
	중소득	(1,226)	79.1	12.8	2.5	1.2	4.3
	고소득	(568)	78.7	13.4	3.5	0.4	4.0

6) 비만관리

■ 생활습관 변화를 위해 비만관리를 할 계획이 있는지 물어본 결과, ‘6개월 이내에는 없다’는 응답이 69.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30일 이내에는 아니지만 6개월 이내에는 있다’(16.8%), ‘30일 이내에 있다’(5.9%)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IV-42〉 생활습관 변화를 위한 실천 계획: 비만관리

(n=2,200 / 단위: %)



○ ‘6개월 이내에는 없다’는 응답은 남성(76.7%)이 여성에 비해, 군지역(77.5%)이 대도시나 중·소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음

〈표 IV-45〉 생활습관 변화를 위한 실천 계획: 비만관리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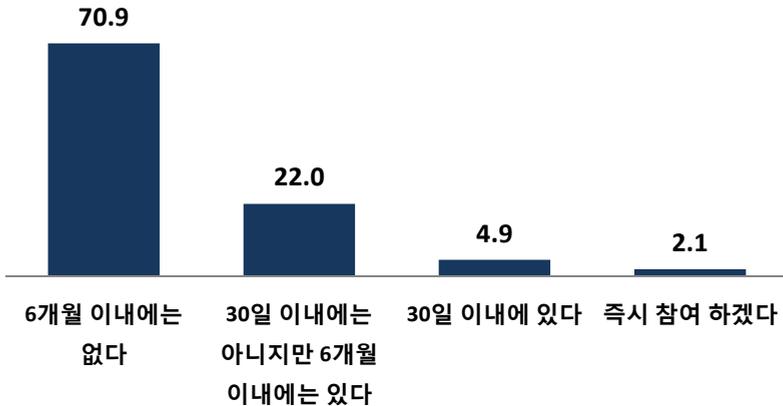
특성별		사례 수	6개월 이내에는 없다	30일 이내에는 아니지만 6개월 이내에는 있다	30일 이내에 있다	이미 실천하고 있으나 6개월이 지나지 않았다	이미 6개월 이상 동안 실천하고 있다
전체		(2,200)	69.3	16.8	5.9	2.6	5.4
성별	남성	(1,092)	76.7	14.7	4.7	1.3	2.6
	여성	(1,108)	61.9	18.9	7.1	4.0	8.1
연령	20대	(357)	68.6	15.4	7.8	2.8	5.3
	30대	(393)	69.2	17.6	6.9	1.0	5.3
	40대	(461)	66.4	20.8	5.0	2.4	5.4
	50대	(446)	69.1	15.7	5.4	3.8	6.1
	60대 이상	(543)	72.4	14.7	5.2	2.9	4.8
지역규모	대도시	(1,006)	68.4	17.1	5.8	2.2	6.6
	중·소도시	(1,007)	68.6	17.1	6.6	2.9	4.9
	군지역	(187)	77.5	13.9	3.2	3.7	1.6
직업	화이트칼라	(580)	68.4	19.1	6.4	1.7	4.3
	블루칼라	(611)	74.6	14.1	3.6	2.8	4.9
	농/임/어업	(95)	82.1	8.4	2.1	4.2	3.2
	자영업	(396)	68.2	18.2	6.8	2.3	4.5
	주부	(409)	60.1	20.0	8.1	3.4	8.3
	은퇴자	(19)	78.9	0.0	15.8	0.0	5.3
	학생	(59)	66.1	15.3	6.8	5.1	6.8
	무직/기타	(31)	74.2	6.5	6.5	3.2	9.7
교육 수준	중졸 이하	(196)	76.5	9.7	2.6	2.6	8.7
	고졸	(1057)	69.6	16.5	6.0	3.1	4.8
	대재 이상	(946)	67.4	18.6	6.6	2.1	5.3
	모름/무응답	(1)	0.0	100.0	0.0	0.0	0.0
가구 소득	저소득	(406)	77.6	11.1	2.7	3.9	4.7
	중소득	(1,226)	69.2	17.2	6.4	2.2	5.0
	고소득	(568)	63.6	20.1	7.0	2.6	6.7

파. 생활습관 개선 무료 도움 시 실천 계획 여부

1) 금연

■ 금연 분야 생활습관 개선 무료 프로그램에 참여할 계획이 있는지 살펴본 결과, ‘6개월 이내에는 없다’는 응답이 70.9%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30일 이내에는 아니지만 6개월 이내에는 있다’(22.0%), ‘30일 이내에 있다’(4.9%)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IV-43〉 생활습관 개선 무료 도움 시 실천 계획 여부: 금연  
(n=567 / 단위: %)



○ ‘6개월 이내에는 없다’는 응답은 군지역(82.1%)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

〈표 IV-46〉 생활습관 개선 무료 도움 시 실천 계획 여부: 금연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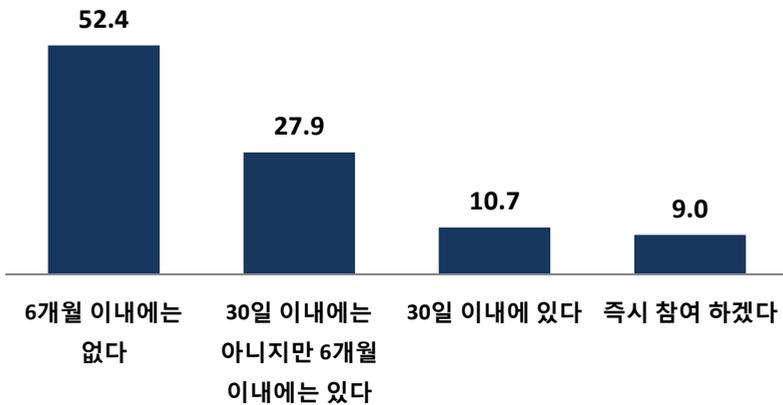
특성별		사례 수	6개월 이내에는 없다	30일 이내에는 아니지만 6개월 이내에는 있다	30일 이내에 있다	즉시 참여 하겠다
전체		(567)	70.9	22.0	4.9	2.1
성별	남성	(550)	70.9	22.2	4.7	2.2
	여성	(17)	70.6	17.6	11.8	0.0
연령	20대	(101)	69.3	22.8	5.0	3.0
	30대	(118)	67.8	22.0	6.8	3.4
	40대	(123)	70.7	24.4	4.1	.8
	50대	(120)	74.2	20.8	2.5	2.5
	60대 이상	(105)	72.4	20.0	6.7	1.0
지역규모	대도시	(256)	73.4	21.1	3.1	2.3
	중·소도시	(272)	66.9	24.3	7.0	1.8
	군지역	(39)	82.1	12.8	2.6	2.6
직업	화이트칼라	(187)	67.4	24.1	5.3	3.2
	블루칼라	(187)	74.9	18.2	5.3	1.6
	농/임/어업	(31)	80.6	9.7	3.2	6.5
	자영업	(131)	68.7	27.5	3.8	0.0
	주부	(3)	66.7	0.0	33.3	0.0
	은퇴자	(5)	80.0	0.0	0.0	20.0
	학생	(16)	81.3	18.8	0.0	0.0
	무직/기타	(7)	28.6	57.1	14.3	0.0
교육 수준	중졸 이하	(25)	76.0	20.0	4.0	0.0
	고졸	(254)	71.7	22.0	5.1	1.2
	대재 이상	(288)	69.8	22.2	4.9	3.1
가구 소득	저소득	(95)	68.4	20.0	8.4	3.2
	중소득	(326)	73.0	20.6	4.6	1.8
	고소득	(146)	67.8	26.7	3.4	2.1

2) 운동 횟수 늘리기

■ 운동 횟수 늘리기 분야 생활습관 개선 무료 프로그램에 참여할 계획이 있는지 살펴본 결과, ‘6개월 이내에는 없다’는 응답이 52.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30일 이내에는 아니지만 6개월 이내에는 있다’(27.9%), ‘30일 이내에 있다’(10.7%)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IV-44〉 생활습관 개선 무료 도움 시 실천 계획 여부: 운동 횟수 늘리기

(n=2,200 / 단위: %)



○ ‘6개월 이내에는 없다’는 응답은 군지역(73.8%)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

〈표 IV-47〉 생활습관 개선 무료 도움 시 실천 계획 여부: 운동 횟수 늘리기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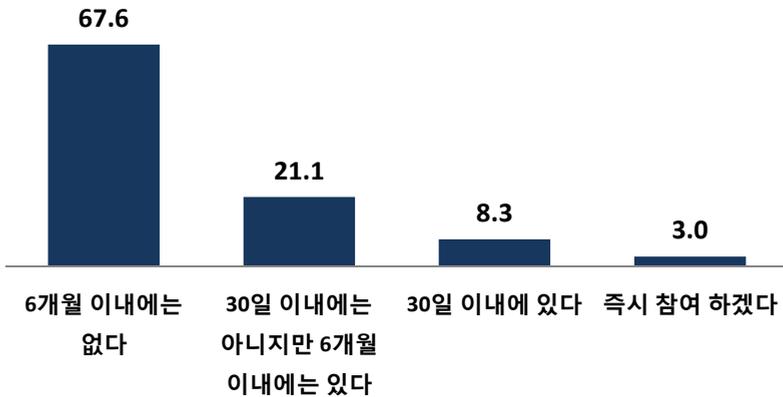
특성별		사례 수	6개월 이내에는 없다	30일 이내에는 아니지만 6개월 이내에는 있다	30일 이내 있다	즉시 참여 하겠다
전체		(2,200)	52.4	27.9	10.7	9.0
성별	남성	(1,092)	55.1	28.0	8.7	8.2
	여성	(1,108)	49.6	27.7	12.7	9.9
연령	20대	(357)	52.4	26.1	10.6	10.9
	30대	(393)	51.1	29.5	11.5	7.9
	40대	(461)	51.2	29.5	11.5	7.8
	50대	(446)	48.7	29.4	11.9	10.1
	60대 이상	(543)	57.3	25.2	8.7	8.8
지역규모	대도시	(1,006)	51.4	27.9	10.9	9.7
	중·소도시	(1,007)	49.4	29.6	11.7	9.3
	군지역	(187)	73.8	18.2	4.3	3.7
직업	화이트칼라	(580)	47.1	32.4	11.6	9.0
	블루칼라	(611)	52.5	28.8	11.0	7.7
	농/임/어업	(95)	77.9	16.8	2.1	3.2
	자영업	(396)	57.8	25.8	7.8	8.6
	주부	(409)	45.7	27.4	14.9	12.0
	은퇴자	(19)	63.2	21.1	5.3	10.5
	학생	(59)	62.7	11.9	8.5	16.9
	무직/기타	(31)	61.3	25.8	6.5	6.5
교육 수준	중졸 이하	(196)	64.8	19.4	7.1	8.7
	고졸	(1,057)	53.2	26.5	11.6	8.7
	대재 이상	(946)	48.8	31.2	10.5	9.5
	모름/무응답	(1)	100.0	0.0	0.0	0.0
가구 소득	저소득	(406)	59.9	22.9	9.1	8.1
	중소득	(1,226)	53.5	26.8	10.8	8.9
	고소득	(568)	44.5	33.8	11.6	10.0

### 3) 스트레스 관리 횟수 늘리기

■ 스트레스 관리 횟수 늘리기 분야 생활습관 개선 무료 프로그램에 참여할 계획이 있는지 살펴본 결과, '6개월 이내에는 없다'는 응답이 67.6%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30일 이내에는 아니지만 6개월 이내에는 있다'(21.1%), '30일 이내에 있다'(8.3%)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IV-45〉 생활습관 개선 무료 도움 시 실천 계획 여부: 스트레스 관리 횟수 늘리기

(n=2,200 / 단위: %)



○ '6개월 이내에는 없다'는 응답은 60대 이상(72.2%), 군지역(81.3%), 저소득(75.9%), 중졸 이하(79.1%)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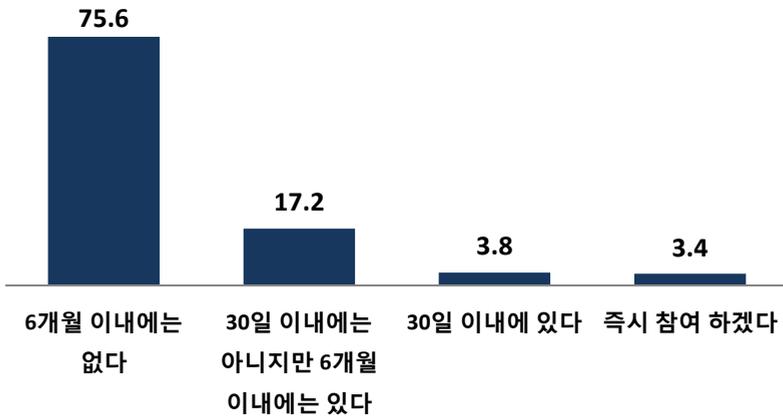
〈표 IV-48〉 생활습관 개선 무료 도움 시 실천 계획 여부: 스트레스 관리 횟수 늘리기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6개월 이내에는 없다	30일 이내에는 아니지만 6개월 이내에는 있다	30일 이내에 있다	즉시 참여 하겠다
전체		(2,200)	67.6	21.1	8.3	3.0
성별	남성	(1,092)	71.6	19.3	6.4	2.7
	여성	(1,108)	63.6	22.9	10.1	3.3
연령	20대	(357)	67.2	19.9	9.5	3.4
	30대	(393)	64.9	24.7	7.4	3.1
	40대	(461)	66.2	23.0	8.5	2.4
	50대	(446)	66.1	23.1	7.8	2.9
	60대 이상	(543)	72.2	16.2	8.3	3.3
지역규모	대도시	(1,006)	66.3	21.0	9.6	3.1
	중·소도시	(1,007)	66.3	22.4	8.0	3.2
	군지역	(187)	81.3	15.0	2.1	1.6
직업	화이트칼라	(580)	66.0	22.1	9.3	2.6
	블루칼라	(611)	71.4	19.8	5.7	3.1
	농/임/어업	(95)	89.5	8.4	2.1	0.0
	자영업	(396)	67.9	22.0	7.6	2.5
	주부	(409)	58.2	24.4	12.2	5.1
	은퇴자	(19)	68.4	15.8	10.5	5.3
	학생	(59)	67.8	20.3	11.9	0.0
	무직/기타	(31)	74.2	19.4	6.5	0.0
교육 수준	중졸 이하	(196)	79.1	13.8	3.1	4.1
	고졸	(1,057)	67.9	20.4	9.2	2.5
	대재 이상	(946)	64.8	23.5	8.4	3.4
	모름/무응답	(1)	100.0	0.0	0.0	0.0
가구 소득	저소득	(406)	75.9	16.5	5.2	2.5
	중소득	(1,226)	67.0	21.0	8.6	3.3
	고소득	(568)	63.0	24.6	9.7	2.6

#### 4) 금주 혹은 절주

■ 금주 혹은 절주 분야 생활습관 개선 무료 프로그램에 참여할 계획이 있는지 살펴본 결과, ‘6개월 이내에는 없다’는 응답이 75.6%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30일 이내에는 아니지만 6개월 이내에는 있다’(17.2%), ‘30일 이내에 있다’(3.8%)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IV-46〉 생활습관 개선 무료 도움 시 실천 계획 여부: 금주 혹은 절주  
(n=2,200 / 단위: %)



○ ‘6개월 이내에는 없다’는 응답은 60대 이상(77.2%), 군지역(84.0%), 중졸 이하(82.1%)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

〈표 IV-49〉 생활습관 개선 무료 도움 시 실천 계획 여부: 금주 혹은 절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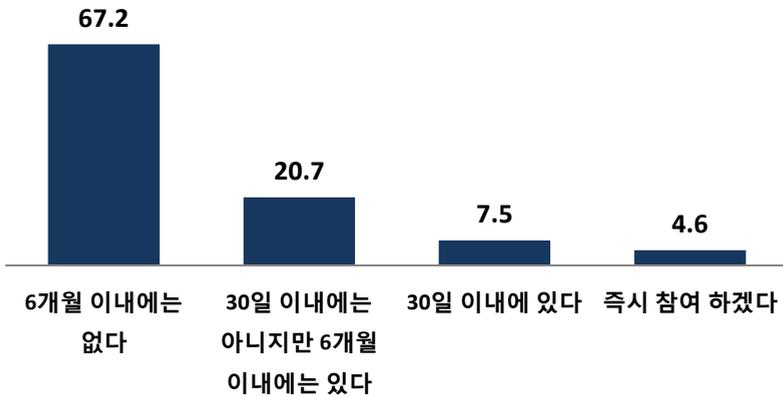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6개월 이내에는 없다	30일 이내에는 아니지만 6개월 이내에는 있다	30일 이내에 있다	즉시 참여 하겠다
전체		(2,200)	75.6	17.2	3.8	3.4
성별	남성	(1,092)	74.5	19.3	3.1	3.0
	여성	(1,108)	76.7	15.1	4.4	3.8
연령	20대	(357)	76.5	17.4	3.9	2.2
	30대	(393)	76.1	16.5	4.3	3.1
	40대	(461)	75.1	19.3	3.7	2.0
	50대	(446)	73.3	18.6	2.9	5.2
	60대 이상	(543)	77.2	14.5	4.1	4.2
지역규모	대도시	(1,006)	76.4	17.1	2.9	3.6
	중·소도시	(1,007)	73.3	18.8	5.0	3.0
	군지역	(187)	84.0	9.1	2.1	4.8
직업	화이트칼라	(580)	74.1	19.0	4.5	2.4
	블루칼라	(611)	75.0	18.2	3.6	3.3
	농/임/어업	(95)	88.4	9.5	1.1	1.1
	자영업	(396)	75.5	16.9	3.8	3.8
	주부	(409)	75.3	15.9	3.7	5.1
	은퇴자	(19)	84.2	5.3	5.3	5.3
	학생	(59)	74.6	18.6	3.4	3.4
	무직/기타	(31)	80.6	12.9	3.2	3.2
교육 수준	중졸 이하	(196)	82.1	10.7	2.0	5.1
	고졸	(1,057)	76.1	17.0	3.5	3.4
	대재 이상	(946)	73.8	18.7	4.4	3.1
	모름/무응답	(1)	100.0	0.0	0.0	0.0
가구 소득	저소득	(406)	77.6	16.0	2.2	4.2
	중소득	(1,226)	75.2	17.5	4.0	3.3
	고소득	(568)	75.2	17.4	4.4	3.0

5) 비만관리

■ 비만관리 분야 생활습관 개선 무료 프로그램에 참여할 계획이 있는지 살펴본 결과, '6개월 이내에는 없다'는 응답이 67.2%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30일 이내에는 아니지만 6개월 이내에는 있다'(20.7%), '30일 이내에 있다'(7.5%)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IV-47〉 생활습관 개선 무료 도움 시 실천 계획 여부: 비만관리  
(n=2,200 / 단위: %)



○ '6개월 이내에는 없다'는 응답은 60대 이상(71.1%), 군지역(80.2%), 저소득(75.1%)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

〈표 IV-50〉 생활습관 개선 무료 도움 시 실천 계획 여부: 비만관리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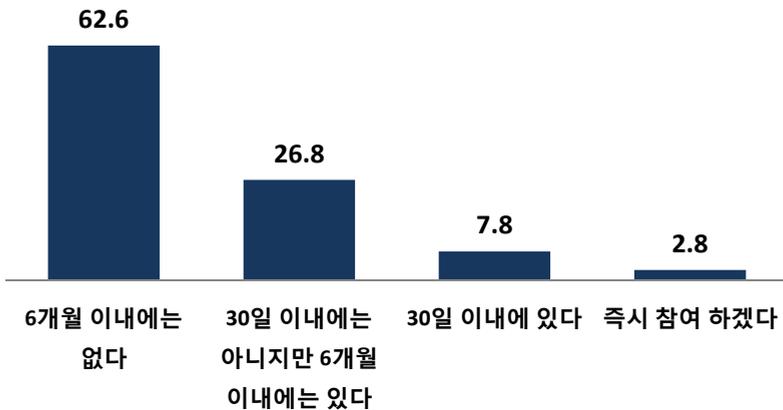
특성별		사례 수	6개월 이내에는 없다	30일 이내에는 아니지만 6개월 이내에는 있다	30일 이내에 있다	즉시 참여 하겠다
전체		(2,200)	67.2	20.7	7.5	4.6
성별	남성	(1,092)	74.4	18.3	4.4	2.9
	여성	(1,108)	60.2	23.0	10.6	6.2
연령	20대	(357)	66.4	16.5	10.9	6.2
	30대	(393)	67.4	20.1	8.1	4.3
	40대	(461)	64.2	23.0	8.0	4.8
	50대	(446)	66.1	22.0	6.5	5.4
	60대 이상	(543)	71.1	20.8	5.2	2.9
지역규모	대도시	(1,006)	66.7	19.8	7.2	6.4
	중·소도시	(1,007)	65.3	22.4	8.8	3.4
	군지역	(187)	80.2	16.0	2.1	1.6
직업	화이트칼라	(580)	67.8	19.3	8.1	4.8
	블루칼라	(611)	70.2	20.1	5.1	4.6
	농/임/어업	(95)	84.2	14.7	0.0	1.1
	자영업	(396)	66.9	23.5	6.6	3.0
	주부	(409)	57.2	23.7	12.2	6.8
	은퇴자	(19)	84.2	10.5	0.0	5.3
	학생	(59)	62.7	18.6	13.6	5.1
	무직/기타	(31)	80.6	9.7	9.7	0.0
교육 수준	중졸 이하	(196)	76.5	15.8	4.1	3.6
	고졸	(1,057)	67.1	20.4	8.3	4.2
	대재 이상	(946)	65.4	22.0	7.3	5.3
	모름/무응답	(1)	100.0	0.0	0.0	0.0
가구 소득	저소득	(406)	75.1	17.5	4.4	3.0
	중소득	(1,226)	66.6	21.2	7.7	4.4
	고소득	(568)	62.9	21.8	9.2	6.2

### 하. 자율적 행동 인센티브 제공 시 실천 계획 여부

#### 1) 금연

- 금연 분야 자율적 개선 행동에 인센티브가 제공된다면 실천할 계획이 있는지 살펴본 결과, '6개월 이내에는 없다'는 응답이 62.6%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30일 이내에는 아니지만 6개월 이내에는 있다'(26.8%), '30일 이내에 있다'(7.8%)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IV-48〉 자율적 행동 인센티브 제공 시 실천 계획 여부: 금연  
(n=567 / 단위: %)



- '6개월 이내에는 없다'는 응답은 여성(70.6%), 학생(75.0%)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

〈표 IV-51〉 자율적 행동 인센티브 제공 시 실천 계획 여부: 금연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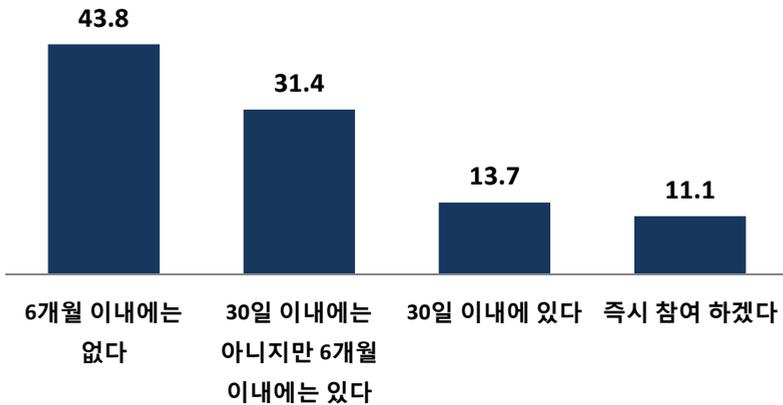
특성별		사례 수	6개월 이내에는 없다	30일 이내에는 아니지만 6개월 이내에는 있다	30일 이내에 있다	즉시 참여 하겠다
전체		(567)	62.6	26.8	7.8	2.8
성별	남성	(550)	62.4	27.1	7.6	2.9
	여성	(17)	70.6	17.6	11.8	0.0
연령	20대	(101)	61.4	28.7	6.9	3.0
	30대	(118)	62.7	18.6	15.3	3.4
	40대	(123)	58.5	31.7	5.7	4.1
	50대	(120)	63.3	30.8	4.2	1.7
	60대 이상	(105)	67.6	23.8	6.7	1.9
지역규모	대도시	(256)	66.0	25.0	5.9	3.1
	중·소도시	(272)	58.5	28.7	10.3	2.6
	군지역	(39)	69.2	25.6	2.6	2.6
직업	화이트칼라	(187)	57.8	30.5	8.0	3.7
	블루칼라	(187)	63.6	24.6	9.1	2.7
	농/임/어업	(31)	64.5	22.6	3.2	9.7
	자영업	(131)	66.4	26.7	6.1	.8
	주부	(3)	66.7	0.0	33.3	0.0
	은퇴자	(5)	80.0	0.0	20.0	0.0
	학생	(16)	75.0	18.8	6.3	0.0
	무직/기타	(7)	42.9	57.1	0.0	0.0
교육 수준	중졸 이하	(25)	64.0	28.0	4.0	4.0
	고졸	(254)	64.6	25.6	7.5	2.4
	대재 이상	(288)	60.8	27.8	8.3	3.1
가구 소득	저소득	(95)	64.2	22.1	10.5	3.2
	중소득	(326)	64.7	24.2	7.7	3.4
	고소득	(146)	56.8	35.6	6.2	1.4

## 2) 운동 횟수 늘리기

- 운동 횟수 늘리기 분야 자율적 개선 행동에 인센티브가 제공된다면 실천할 계획이 있는지 살펴본 결과, '6개월 이내에는 없다'는 응답이 43.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30일 이내에는 아니지만 6개월 이내에는 있다'(31.4%), '30일 이내에 있다'(13.7%)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IV-49〉 자율적 행동 인센티브 제공 시 실천 계획 여부:  
운동 횟수 늘리기

(n=2,200 / 단위: %)



- '6개월 이내에는 없다'는 응답은 군지역(69.0%), 농/임/어업(66.3%)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
- 또한, 소득이 적을수록 '6개월 이내에는 없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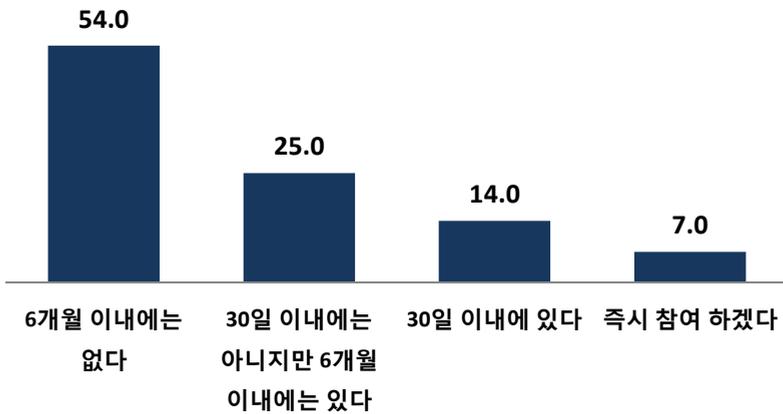
〈표 IV-52〉 자율적 행동 인센티브 제공 시 실천 계획 여부: 운동 횟수 늘리기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6개월 이내에는 없다	30일 이내에는 아니지만 6개월 이내에는 있다	30일 이내에 있다	즉시 참여 하겠다
전체		(2,200)	43.8	31.4	13.7	11.1
성별	남성	(1,092)	46.2	32.1	12.3	9.4
	여성	(1,108)	41.4	30.8	15.1	12.7
연령	20대	(357)	42.9	31.9	12.6	12.6
	30대	(393)	45.3	31.3	14.2	9.2
	40대	(461)	41.2	30.6	17.6	10.6
	50대	(446)	41.9	32.3	13.9	11.9
	60대 이상	(543)	47.1	31.1	10.5	11.2
지역규모	대도시	(1,006)	42.4	32.3	13.1	12.1
	중·소도시	(1,007)	40.5	32.4	16.1	11.0
	군지역	(187)	69.0	21.4	3.7	5.9
직업	화이트칼라	(580)	41.7	32.6	15.3	10.3
	블루칼라	(611)	44.5	30.1	14.9	10.5
	농/임/어업	(95)	66.3	25.3	4.2	4.2
	자영업	(396)	45.7	32.3	12.6	9.3
	주부	(409)	37.4	33.5	12.5	16.6
	은퇴자	(19)	42.1	36.8	15.8	5.3
	학생	(59)	47.5	20.3	18.6	13.6
	무직/기타	(31)	54.8	32.3	6.5	6.5
교육 수준	중졸 이하	(196)	54.1	26.5	9.2	10.2
	고졸	(1,057)	42.8	31.7	14.6	11.0
	대재 이상	(946)	42.8	32.1	13.6	11.4
	모름/무응답	(1)	100.0	0.0	0.0	0.0
가구 소득	저소득	(406)	55.7	26.1	9.1	9.1
	중소득	(1,226)	43.6	30.8	14.3	11.3
	고소득	(568)	35.9	36.4	15.7	12.0

### 3) 식단관리 강화

- 식단관리 강화 분야 자율적 개선 행동에 인센티브가 제공된다면 실천할 계획이 있는지 살펴본 결과, ‘6개월 이내에는 없다’는 응답이 54.0%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30일 이내에는 아니지만 6개월 이내에는 있다’(25.0%), ‘30일 이내에 있다’(14.0%)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IV-50〉 자율적 행동 인센티브 제공 시 실천 계획 여부: 식단관리 강화  
(n=2,200 / 단위: %)



- ‘6개월 이내에는 없다’는 응답은 남성(61.5%), 군지역(77.0%)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

〈표 IV-53〉 자율적 행동 인센티브 제공 시 실천 계획 여부: 식단관리 강화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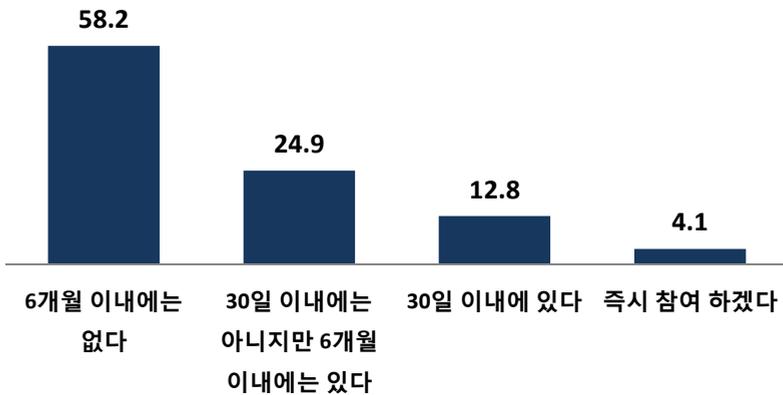
특성별		사례 수	6개월 이내에는 없다	30일 이내에는 아니지만 6개월 이내에는 있다	30일 이내 있다	즉시 참여 하겠다
전체		(2,200)	54.0	25.0	14.0	7.0
성별	남성	(1,092)	61.5	22.1	11.0	5.4
	여성	(1,108)	46.7	27.8	17.0	8.6
연령	20대	(357)	52.4	25.5	14.8	7.3
	30대	(393)	53.7	27.5	13.7	5.1
	40대	(461)	53.4	22.6	15.6	8.5
	50대	(446)	51.8	26.0	16.1	6.1
	60대 이상	(543)	57.8	23.9	10.5	7.7
지역규모	대도시	(1,006)	53.8	25.0	12.8	8.3
	중·소도시	(1,007)	50.0	26.5	16.9	6.6
	군지역	(187)	77.0	16.0	4.8	2.1
직업	화이트칼라	(580)	54.3	26.4	13.4	5.9
	블루칼라	(611)	58.3	22.6	12.9	6.2
	농/임/어업	(95)	74.7	16.8	5.3	3.2
	자영업	(396)	54.5	24.7	13.1	7.6
	주부	(409)	40.3	30.1	18.6	11.0
	은퇴자	(19)	57.9	36.8	0.0	5.3
	학생	(59)	57.6	13.6	25.4	3.4
	무직/기타	(31)	67.7	19.4	9.7	3.2
교육 수준	중졸 이하	(196)	59.7	23.5	10.7	6.1
	고졸	(1,057)	54.4	23.9	15.1	6.5
	대재 이상	(946)	52.4	26.4	13.4	7.7
	모름/무응답	(1)	100.0	0.0	0.0	0.0
가구 소득	저소득	(406)	62.8	21.2	10.6	5.4
	중소득	(1,226)	54.1	25.0	14.2	6.8
	고소득	(568)	47.7	27.6	16.0	8.6

4) 스트레스 관리 횟수 늘리기

■ 스트레스 관리 횟수 늘리기 분야 자율적 개선 행동에 인센티브가 제공된다면 실천할 계획이 있는지 살펴본 결과, '6개월 이내에는 없다'는 응답이 58.2%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30일 이내에는 아니지만 6개월 이내에는 있다'(24.9%), '30일 이내에 있다'(12.8%)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IV-51〉 자율적 행동 인센티브 제공 시 실천 계획 여부:  
스트레스 관리 횟수 늘리기

(n=2,200 / 단위: %)



- '6개월 이내에는 없다'는 응답은 남성(62.0%), 군지역(77.5%)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
- 또한, 학력이 낮을수록, 소득이 적을수록 '6개월 이내에는 없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V-54〉 자율적 행동 인센티브 제공 시 실천 계획 여부: 스트레스 관리 횟수 늘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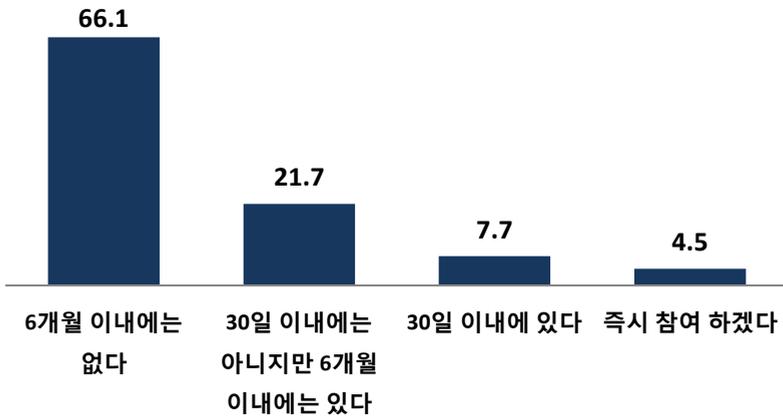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6개월 이내에는 없다	30일 이내에는 아니지만 6개월 이내에는 있다	30일 이내 에 있다	즉시 참여 하겠다
전체		(2,200)	58.2	24.9	12.8	4.1
성별	남성	(1,092)	62.0	23.3	11.4	3.3
	여성	(1,108)	54.4	26.5	14.2	4.9
연령	20대	(357)	58.0	23.2	14.0	4.8
	30대	(393)	55.7	29.3	11.2	3.8
	40대	(461)	56.6	24.7	13.4	5.2
	50대	(446)	56.7	27.6	12.3	3.4
	60대 이상	(543)	62.6	20.8	13.1	3.5
지역규모	대도시	(1,006)	58.2	23.6	13.0	5.3
	중·소도시	(1,007)	54.6	28.3	13.6	3.5
	군지역	(187)	77.5	13.9	7.5	1.1
직업	화이트칼라	(580)	55.9	26.2	13.6	4.3
	블루칼라	(611)	62.7	22.4	10.3	4.6
	농/임/어업	(95)	73.7	21.1	5.3	0.0
	자영업	(396)	58.8	24.0	14.4	2.8
	주부	(409)	49.9	29.1	14.9	6.1
	은퇴자	(19)	57.9	31.6	5.3	5.3
	학생	(59)	57.6	22.0	20.3	0.0
	무직/기타	(31)	67.7	19.4	12.9	0.0
교육 수준	중졸 이하	(196)	67.3	18.9	10.7	3.1
	고졸	(1,057)	59.4	24.1	12.9	3.6
	대재 이상	(946)	55.0	27.0	13.2	4.9
	모름/무응답	(1)	0.0	100.0	0.0	0.0
가구 소득	저소득	(406)	68.7	19.0	9.9	2.5
	중소득	(1,226)	57.0	25.6	12.9	4.5
	고소득	(568)	53.2	27.6	14.8	4.4

5) 금주 혹은 절주

■ 금주 혹은 절주 분야 자율적 개선 행동에 인센티브가 제공된다면 실천할 계획이 있는지 살펴본 결과, ‘6개월 이내에는 없다’는 응답이 66.1%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30일 이내에는 아니지만 6개월 이내에는 있다’(21.7%), ‘30일 이내에 있다’(7.7%)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IV-52〉 자율적 행동 인센티브 제공 시 실천 계획 여부: 금주 혹은 절주  
(n=2,200 / 단위: %)



- ‘6개월 이내에는 없다’는 응답은 60대 이상(70.5%), 군지역(78.1%), 농/임/어업(75.8%)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
- 또한, 소득이 적을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6개월 이내에는 없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V-55〉 자율적 행동 인센티브 제공 시 실천 계획 여부: 금주 혹은 절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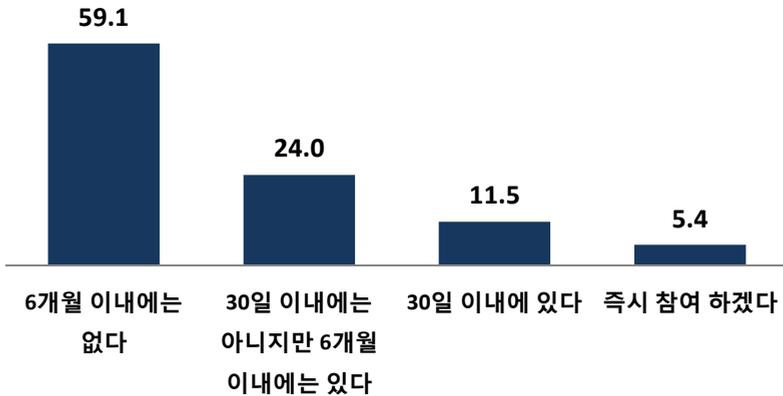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6개월 이내에는 없다	30일 이내에는 아니지만 6개월 이내에는 있다	30일 이내 에 있다	즉시 참여 하겠다
전체		(2,200)	66.1	21.7	7.7	4.5
성별	남성	(1,092)	64.7	24.9	6.6	3.8
	여성	(1,108)	67.5	18.6	8.8	5.1
연령	20대	(357)	67.5	22.1	7.3	3.1
	30대	(393)	63.4	26.0	7.1	3.6
	40대	(461)	64.2	21.0	10.0	4.8
	50대	(446)	63.9	22.9	8.1	5.2
	60대 이상	(543)	70.5	18.0	6.3	5.2
지역규모	대도시	(1,006)	67.0	21.7	6.5	4.9
	중·소도시	(1,007)	63.0	22.9	10.2	3.9
	군지역	(187)	78.1	15.5	1.1	5.3
직업	화이트칼라	(580)	61.6	26.2	8.3	4.0
	블루칼라	(611)	67.1	20.9	7.7	4.3
	농/임/어업	(95)	75.8	18.9	3.2	2.1
	자영업	(396)	67.9	20.5	7.3	4.3
	주부	(409)	65.5	20.0	8.3	6.1
	은퇴자	(19)	73.7	21.1	0.0	5.3
	학생	(59)	66.1	18.6	11.9	3.4
	무직/기타	(31)	80.6	6.5	6.5	6.5
교육 수준	중졸 이하	(196)	73.5	14.8	4.6	7.1
	고졸	(1,057)	67.3	20.2	8.3	4.3
	대재 이상	(946)	63.2	24.9	7.7	4.1
	모름/무응답	(1)	100.0	0.0	0.0	0.0
가구 소득	저소득	(406)	73.6	17.2	5.4	3.7
	중소득	(1,226)	65.5	21.6	7.9	5.0
	고소득	(568)	62.0	25.2	9.0	3.9

6) 비만관리

■ 비만관리 분야 자율적 개선 행동에 인센티브가 제공된다면 실천할 계획이 있는지 살펴본 결과, ‘6개월 이내에는 없다’는 응답이 59.1%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30일 이내에는 아니지만 6개월 이내에는 있다’(24.0%), ‘30일 이내에 있다’(11.5%)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IV-53〉 자율적 행동 인센티브 제공 시 실천 계획 여부: 비만관리  
(n=2,200 / 단위: %)



○ ‘6개월 이내에는 없다’는 응답은 남성(65.8%), 60대 이상(64.5%), 군지역(75.9%)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

〈표 IV-56〉 자율적 행동 인센티브 제공 시 실천 계획 여부: 비만관리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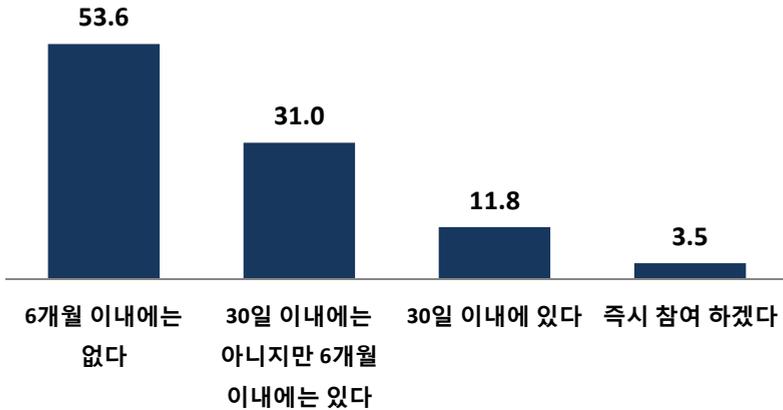
특성별		사례 수	6개월 이내에는 없다	30일 이내에는 아니지만 6개월 이내에는 있다	30일 이내에 있다	즉시 참여 하겠다
전체		(2,200)	59.1	24.0	11.5	5.4
성별	남성	(1,092)	65.8	23.6	7.4	3.2
	여성	(1,108)	52.5	24.4	15.6	7.5
연령	20대	(357)	58.5	21.3	14.6	5.6
	30대	(393)	57.5	26.2	10.9	5.3
	40대	(461)	56.6	22.6	14.3	6.5
	50대	(446)	57.0	27.1	11.2	4.7
	60대 이상	(543)	64.5	22.8	7.9	4.8
지역규모	대도시	(1,006)	59.0	23.5	10.6	6.9
	중·소도시	(1,007)	56.0	25.5	13.9	4.6
	군지역	(187)	75.9	18.7	3.7	1.6
직업	화이트칼라	(580)	58.8	24.0	11.9	5.3
	블루칼라	(611)	62.4	21.8	10.5	5.4
	농/임/어업	(95)	72.6	21.1	5.3	1.1
	자영업	(396)	60.4	26.8	8.6	4.3
	주부	(409)	48.4	27.4	16.1	8.1
	은퇴자	(19)	73.7	15.8	5.3	5.3
	학생	(59)	57.6	18.6	20.3	3.4
	무직/기타	(31)	77.4	12.9	9.7	0.0
교육 수준	중졸 이하	(196)	69.4	17.3	8.2	5.1
	고졸	(1,057)	58.1	24.4	12.6	4.9
	대재 이상	(946)	58.1	24.8	11.1	5.9
	모름/무응답	(1)	0.0	100.0	0.0	0.0
가구 소득	저소득	(406)	69.0	18.5	8.4	4.2
	중소득	(1,226)	58.7	24.7	11.2	5.4
	고소득	(568)	52.8	26.4	14.6	6.2

거. 보험회사의 생활습관 개선 도움(상담, 문자 등) 및 생활습관 개선 프로그램 인센티브 실천 계획 여부

1) 금연

■ 금연 분야 보험회사의 생활습관 개선 도움(상담, 문자알림, 개인용 건강관리기기 이용 서비스 등) 및 자율적 개선 행동에 대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면 실천할 계획이 있는지 살펴본 결과, ‘6개월 이내에는 없다’는 응답이 53.6%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30일 이내에는 아니지만 6개월 이내에는 있다’(31.0%), ‘30일 이내에 있다’(11.8%)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IV-54〉 생활습관 개선 프로그램 인센티브 실천 계획 여부: 금연  
(n=567 / 단위: %)



- ‘6개월 이내에는 없다’는 응답은 여성(64.7%), 군지역(66.7%)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
- 또한, 소득이 적을수록 ‘6개월 이내에는 없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표 IV-57〉 자율적 행동 인센티브 제공 시 실천 계획 여부: 금연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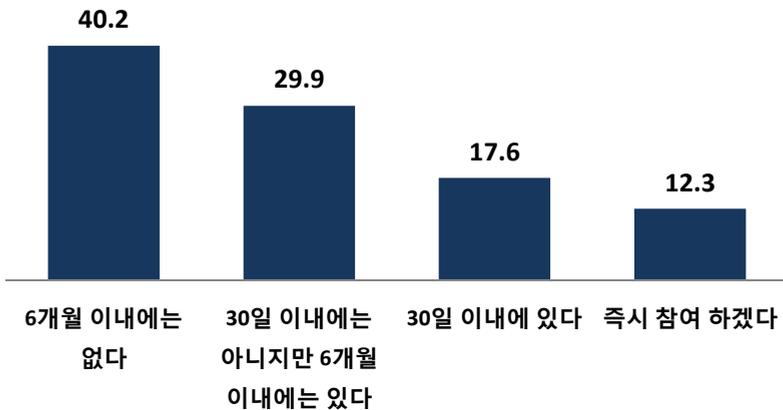
특성별		사례 수	6개월 이내에는 없다	30일 이내에는 아니지만 6개월 이내에는 있다	30일 이내에 있다	즉시 참여 하겠다
전체		(567)	53.6	31.0	11.8	3.5
성별	남성	(550)	53.3	31.3	11.8	3.6
	여성	(17)	64.7	23.5	11.8	0.0
연령	20대	(101)	57.4	29.7	9.9	3.0
	30대	(118)	51.7	24.6	19.5	4.2
	40대	(123)	55.3	29.3	11.4	4.1
	50대	(120)	50.0	37.5	9.2	3.3
	60대 이상	(105)	54.3	34.3	8.6	2.9
지역규모	대도시	(256)	57.0	29.3	10.5	3.1
	중·소도시	(272)	48.5	33.1	14.3	4.0
	군지역	(39)	66.7	28.2	2.6	2.6
직업	화이트칼라	(187)	48.1	34.8	13.4	3.7
	블루칼라	(187)	54.0	29.9	13.4	2.7
	농/임/어업	(31)	58.1	29.0	3.2	9.7
	자영업	(131)	60.3	26.0	10.7	3.1
	주부	(3)	66.7	33.3	0.0	0.0
	은퇴자	(5)	60.0	20.0	0.0	20.0
	학생	(16)	56.3	31.3	12.5	0.0
교육 수준	무직/기타	(7)	28.6	71.4	0.0	0.0
	중졸 이하	(25)	56.0	36.0	4.0	4.0
	고졸	(254)	54.3	29.9	12.2	3.5
가구 소득	대재 이상	(288)	52.8	31.6	12.2	3.5
	저소득	(95)	49.5	33.7	12.6	4.2
	중소득	(326)	55.2	28.2	12.9	3.7
	고소득	(146)	52.7	35.6	8.9	2.7

## 2) 운동 횟수 늘리기

- 운동 횟수 늘리기 분야 보험회사의 생활습관 개선 도움(상담, 문자알림, 개인용 건강관리기기 이용 서비스 등) 및 자율적 개선 행동에 대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면 실천할 계획이 있는지 살펴본 결과, ‘6개월 이내에는 없다’는 응답이 40.2%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30일 이내에는 아니지만 6개월 이내에는 있다’(29.9%), ‘30일 이내에 있다’(17.6%)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IV-55〉 생활습관 개선 프로그램 인센티브 실천 계획 여부:  
운동 횟수 늘리기

(n=2,200 / 단위: %)



- ‘6개월 이내에는 없다’는 응답은 군지역(63.6%), 농/임/어업(62.1%), 중졸 이하(51.0%)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

〈표 IV-58〉 자율적 행동 인센티브 제공 시 실천 계획 여부: 운동 횟수 늘리기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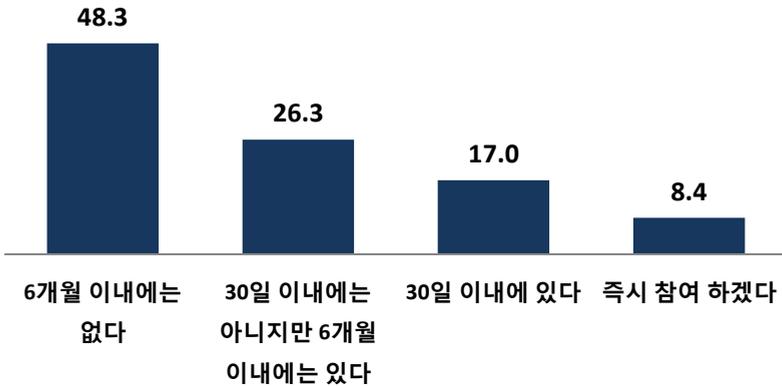
특성별		사례 수	6개월 이내에는 없다	30일 이내에는 아니지만 6개월 이내에는 있다	30일 이내에 있다	즉시 참여 하겠다
전체		(2,200)	40.2	29.9	17.6	12.3
성별	남성	(1,092)	42.7	29.9	17.2	10.3
	여성	(1,108)	37.8	30.0	18.0	14.3
연령	20대	(357)	41.5	30.3	16.0	12.3
	30대	(393)	39.7	32.8	17.8	9.7
	40대	(461)	38.2	27.3	22.8	11.7
	50대	(446)	39.7	29.1	18.6	12.6
	60대 이상	(543)	42.0	30.4	13.3	14.4
지역규모	대도시	(1,006)	38.6	29.9	18.1	13.4
	중·소도시	(1,007)	37.5	31.2	19.0	12.3
	군지역	(187)	63.6	23.0	7.5	5.9
직업	화이트칼라	(580)	38.6	31.0	19.0	11.4
	블루칼라	(611)	41.9	28.8	18.3	11.0
	농/임/어업	(95)	62.1	24.2	9.5	4.2
	자영업	(396)	40.2	32.3	16.9	10.6
	주부	(409)	33.3	31.1	17.4	18.3
	은퇴자	(19)	52.6	26.3	10.5	10.5
	학생	(59)	42.4	18.6	22.0	16.9
	무직/기타	(31)	51.6	25.8	9.7	12.9
교육 수준	중졸 이하	(196)	51.0	24.5	11.7	12.8
	고졸	(1,057)	39.9	28.9	18.9	12.2
	대재 이상	(946)	38.3	32.1	17.3	12.3
	모름/무응답	(1)	100.0	0.0	0.0	0.0
가구 소득	저소득	(406)	50.0	27.3	12.3	10.3
	중소득	(1,226)	40.4	29.4	17.8	12.5
	고소득	(568)	32.9	32.9	21.0	13.2

### 3) 식단관리 강화

- 식단관리 강화 분야 보험회사의 생활습관 개선 도움(상담, 문자알림, 개인용 건강관리기기 이용 서비스 등) 및 자율적 개선 행동에 대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면 실천할 계획이 있는지 살펴본 결과, ‘6개월 이내에는 없다’는 응답이 48.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30일 이내에는 아니지만 6개월 이내에는 있다’(26.3%), ‘30일 이내에 있다’(17.0%)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IV-56〉 생활습관 개선 프로그램 인센티브 실천 계획 여부: 식단관리 강화

(n=2,200 / 단위: %)



- ‘6개월 이내에는 없다’는 응답은 남성(54.9%), 군지역(71.1%)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

〈표 IV-59〉 자율적 행동 인센티브 제공 시 실천 계획 여부: 식단관리 강화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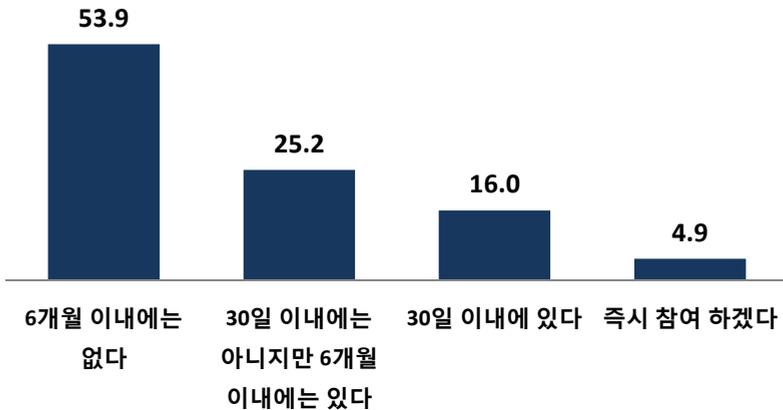
특성별		사례 수	6개월 이내에는 없다	30일 이내에는 아니지만 6개월 이내에는 있다	30일 이내에 있다	즉시 참여 하겠다
전체		(2,200)	48.3	26.3	17.0	8.4
성별	남성	(1,092)	54.9	24.4	15.2	5.6
	여성	(1,108)	41.8	28.2	18.9	11.2
연령	20대	(357)	45.4	30.0	16.5	8.1
	30대	(393)	47.1	29.0	17.0	6.9
	40대	(461)	46.0	24.1	20.2	9.8
	50대	(446)	48.9	25.6	18.2	7.4
	60대 이상	(543)	52.5	24.3	13.8	9.4
지역규모	대도시	(1,006)	48.1	25.8	15.6	10.4
	중·소도시	(1,007)	44.2	28.3	20.0	7.5
	군지역	(187)	71.1	17.6	9.1	2.1
직업	화이트칼라	(580)	47.6	27.2	17.8	7.4
	블루칼라	(611)	53.7	23.2	15.7	7.4
	농/임/어업	(95)	67.4	24.2	6.3	2.1
	자영업	(396)	49.2	27.0	15.7	8.1
	주부	(409)	34.2	30.8	21.0	13.9
	은퇴자	(19)	68.4	21.1	5.3	5.3
	학생	(59)	45.8	22.0	23.7	8.5
	무직/기타	(31)	61.3	16.1	22.6	0.0
교육 수준	중졸 이하	(196)	56.6	20.9	14.8	7.7
	고졸	(1,057)	49.3	25.2	17.8	7.8
	대재 이상	(946)	45.5	28.5	16.7	9.3
	모름/무응답	(1)	0.0	100.0	0.0	0.0
가구 소득	저소득	(406)	58.6	21.9	13.1	6.4
	중소득	(1,226)	48.3	26.9	16.8	8.0
	고소득	(568)	40.8	28.0	20.4	10.7

#### 4) 스트레스 관리 횟수 늘리기

■ 스트레스 관리 분야 보험회사의 생활습관 개선 도움(상담, 문자알림, 개인용 건강관리기기 이용 서비스 등) 및 자율적 개선 행동에 대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면 실천할 계획이 있는지 살펴본 결과, ‘6개월 이내에는 없다’는 응답이 53.9%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30일 이내에는 아니지만 6개월 이내에는 있다’(25.2%), ‘30일 이내에 있다’(16.0%)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IV-57〉 생활습관 개선 프로그램 인센티브 실천 계획 여부: 스트레스 관리 횟수 늘리기

(n=2,200 / 단위: %)



○ ‘6개월 이내에는 없다’는 응답은 군지역(75.4%)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

〈표 IV-60〉 자율적 행동 인센티브 제공 시 실천 계획 여부: 스트레스 관리 횟수 늘리기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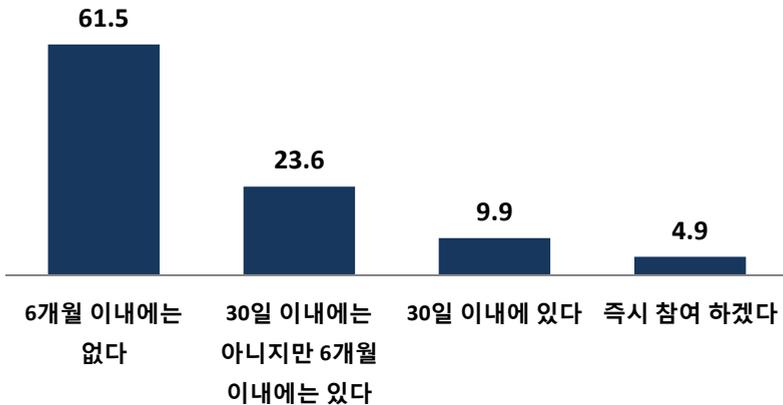
특성별		사례 수	6개월 이내에는 없다	30일 이내에는 아니지만 6개월 이내에는 있다	30일 이내 에 있다	즉시 참여 하겠다
전체		(2,200)	53.9	25.2	16.0	4.9
성별	남성	(1,092)	56.4	25.0	14.8	3.8
	여성	(1,108)	51.4	25.5	17.1	6.0
연령	20대	(357)	51.8	27.7	16.0	4.5
	30대	(393)	52.2	28.2	14.8	4.8
	40대	(461)	50.5	25.4	18.0	6.1
	50대	(446)	53.8	25.1	16.8	4.3
	60대 이상	(543)	59.5	21.4	14.4	4.8
지역규모	대도시	(1,006)	53.7	25.0	14.8	6.6
	중·소도시	(1,007)	50.1	27.6	18.6	3.7
	군지역	(187)	75.4	13.9	8.0	2.7
직업	화이트칼라	(580)	50.9	27.6	17.8	3.8
	블루칼라	(611)	57.9	23.6	12.8	5.7
	농/임/어업	(95)	71.6	20.0	7.4	1.1
	자영업	(396)	54.5	26.5	14.9	4.0
	주부	(409)	45.7	26.4	20.5	7.3
	은퇴자	(19)	73.7	15.8	0.0	10.5
	학생	(59)	54.2	18.6	23.7	3.4
	무직/기타	(31)	64.5	16.1	19.4	0.0
교육 수준	중졸 이하	(196)	67.9	12.2	14.8	5.1
	고졸	(1,057)	53.7	26.0	15.8	4.4
	대재 이상	(946)	51.2	27.1	16.4	5.4
	모름/무응답	(1)	100.0	0.0	0.0	0.0
가구 소득	저소득	(406)	66.3	19.0	11.6	3.2
	중소득	(1,226)	53.1	25.6	16.0	5.3
	고소득	(568)	46.8	28.9	19.0	5.3

5) 금주 혹은 절주

■ 금주 혹은 절주 분야 보험회사의 생활습관 개선 도움(상담, 문자알림, 개인용 건강관리기기 이용 서비스 등) 및 자율적 개선 행동에 대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면 실천할 계획이 있는지 살펴본 결과, ‘6개월 이내에는 없다’는 응답이 61.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30일 이내에는 아니지만 6개월 이내에는 있다’(23.6%), ‘30일 이내에 있다’(9.9%)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IV-58〉 생활습관 개선 프로그램 인센티브 실천 계획 여부:  
금주 혹은 절주

(n=2,200 / 단위: %)



- ‘6개월 이내에는 없다’는 응답은 군지역(74.3%)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
- 또한, 학력이 낮을수록, 소득이 적을수록 ‘6개월 이내에는 없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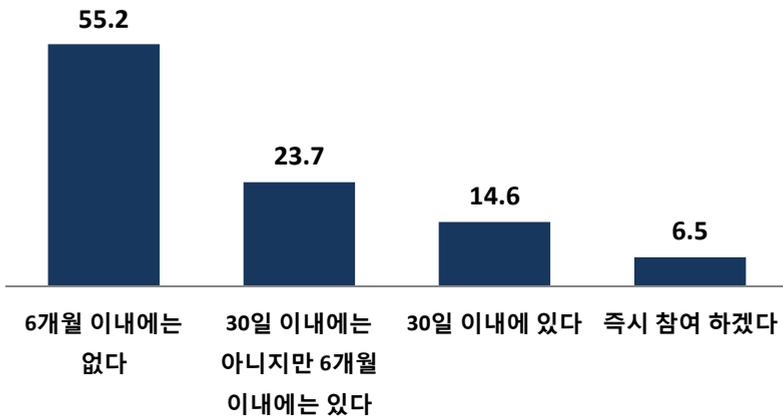
〈표 IV-61〉 자율적 행동 인센티브 제공 시 실천 계획 여부: 금주 혹은 절주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6개월 이내에는 없다	30일 이내에는 아니지만 6개월 이내에는 있다	30일 이내에 있다	즉시 참여 하겠다
전체		(2,200)	61.5	23.6	9.9	4.9
성별	남성	(1,092)	57.9	28.3	9.8	4.0
	여성	(1,108)	65.2	19.0	10.0	5.8
연령	20대	(357)	59.9	27.5	9.5	3.1
	30대	(393)	60.8	24.9	10.2	4.1
	40대	(461)	58.6	24.7	11.3	5.4
	50대	(446)	60.1	24.4	10.3	5.2
	60대 이상	(543)	66.9	18.6	8.5	6.1
지역규모	대도시	(1,006)	63.3	23.9	7.4	5.5
	중·소도시	(1,007)	57.4	24.8	13.5	4.3
	군지역	(187)	74.3	16.0	4.3	5.3
직업	화이트칼라	(580)	55.7	30.3	9.7	4.3
	블루칼라	(611)	63.2	21.6	10.6	4.6
	농/임/어업	(95)	74.7	20.0	3.2	2.1
	자영업	(396)	61.6	22.7	10.6	5.1
	주부	(409)	63.1	19.6	11.0	6.4
	은퇴자	(19)	73.7	21.1	0.0	5.3
	학생	(59)	59.3	23.7	10.2	6.8
	무직/기타	(31)	74.2	16.1	3.2	6.5
교육 수준	중졸 이하	(196)	72.4	15.8	4.6	7.1
	고졸	(1,057)	63.8	19.9	11.1	5.3
	대재 이상	(946)	56.8	29.5	9.7	4.0
	모름/무응답	(1)	100.0	0.0	0.0	0.0
가구 소득	저소득	(406)	70.9	17.5	6.4	5.2
	중소득	(1,226)	60.9	23.6	10.4	5.1
	고소득	(568)	56.2	28.2	11.4	4.2

6) 비만관리

■ 비만관리 분야 보험회사의 생활습관 개선 도움(상담, 문자알림, 개인용 건강관리 기기 이용 서비스 등) 및 자율적 개선 행동에 대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면 실천할 계획이 있는지 살펴본 결과, ‘6개월 이내에는 없다’는 응답이 55.2%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30일 이내에는 아니지만 6개월 이내에는 있다’(23.7%), ‘30일 이내에 있다’(14.6%)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IV-59〉 생활습관 개선 프로그램 인센티브 실천 계획 여부: 비만관리  
(n=2,200 / 단위: %)



- ‘6개월 이내에는 없다’는 응답은 남성(61.6%), 군지역(73.3%)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
- 또한, 학력이 낮을수록, 소득이 적을수록 ‘6개월 이내에는 없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V-62〉 자율적 행동 인센티브 제공 시 실천 계획 여부: 비만관리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6개월 이내에는 없다	30일 이내에는 아니지만 6개월 이내에는 있다	30일 이내에 있다	즉시 참여 하겠다
전체		(2,200)	55.2	23.7	14.6	6.5
성별	남성	(1,092)	61.6	23.0	11.5	3.8
	여성	(1,108)	48.8	24.4	17.6	9.2
연령	20대	(357)	54.9	23.8	14.0	7.3
	30대	(393)	55.7	24.9	13.5	5.9
	40대	(461)	49.9	23.6	18.4	8.0
	50대	(446)	55.2	23.8	14.3	6.7
	60대 이상	(543)	59.5	22.7	12.7	5.2
지역규모	대도시	(1,006)	55.6	24.0	11.9	8.5
	중·소도시	(1,007)	51.4	24.4	18.7	5.5
	군지역	(187)	73.3	18.2	7.0	1.6
직업	화이트칼라	(580)	55.3	24.7	13.6	6.4
	블루칼라	(611)	59.1	22.3	12.8	5.9
	농/임/어업	(95)	67.4	23.2	8.4	1.1
	자영업	(396)	56.3	24.7	13.6	5.3
	주부	(409)	44.0	24.4	21.5	10.0
	은퇴자	(19)	68.4	21.1	5.3	5.3
	학생	(59)	52.5	22.0	13.6	11.9
	무직/기타	(31)	67.7	16.1	16.1	0.0
교육 수준	중졸 이하	(196)	67.3	15.3	11.2	6.1
	고졸	(1,057)	54.0	23.8	16.0	6.1
	대재 이상	(946)	53.9	25.3	13.7	7.1
	모름/무응답	(1)	100.0	0.0	0.0	0.0
가구 소득	저소득	(406)	64.8	18.5	12.3	4.4
	중소득	(1,226)	54.3	25.3	14.0	6.4
	고소득	(568)	50.2	23.9	17.4	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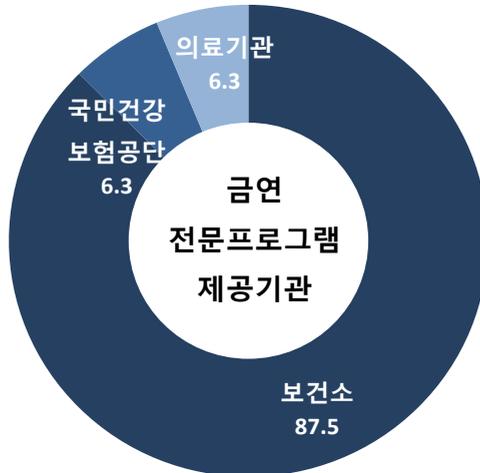
## 너. 건강관리 프로그램 이용 실태

### 1) 금연 관리 프로그램 제공 기관 및 만족도

- 금연 관리 프로그램을 경험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 제공 기관을 확인해 본 결과, '보건소'라는 응답이 87.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6.3%), '의료기관'(6.3%) 등의 순임

〈그림 IV-60〉 금연 관리 프로그램 제공 기관

(n=16 / 단위: %)



〈표 IV-63〉 생활습관 변화 위한 전문프로그램 제공기관: 금연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기관	
전체	(16)	87.5	6.3	6.3	
성별	남성	(15)	86.7	6.7	6.7
	여성	(1)	100.0	0.0	0.0
연령	20대	(1)	100.0	0.0	0.0
	30대	(1)	0.0	0.0	100.0
	40대	(6)	100.0	0.0	0.0
	50대	(2)	100.0	0.0	0.0
	60대 이상	(6)	83.3	16.7	0.0
지역규모	대도시	(3)	100.0	0.0	0.0
	중·소도시	(13)	84.6	7.7	7.7
직업	화이트칼라	(3)	100.0	0.0	0.0
	블루칼라	(5)	80.0	0.0	20.0
	농/임/어업	(1)	100.0	0.0	0.0
	자영업	(5)	80.0	20.0	0.0
	주부	(1)	100.0	0.0	0.0
	학생	(1)	100.0	0.0	0.0
교육 수준	중졸 이하	(1)	100.0	0.0	0.0
	고졸	(13)	84.6	7.7	7.7
	대재 이상	(2)	100.0	0.0	0.0
가구 소득	저소득	(5)	60.0	20.0	20.0
	중소득	(9)	100.0	0.0	0.0
	고소득	(2)	100.0	0.0	0.0

주: 건강관리 프로그램에 참여한 표본의 규모가 작아 통계적 의미가 낮음

■ 금연 건강 관리 프로그램 참여 시 부담한 평균 비용은 6,875원이었음

〈표 IV-64〉 금연 관리 프로그램 참여 비용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3만 원 미만	3만 원 이상 7만 원 미만	평균(원)
전체	(16)	87.5	12.5	6,875

주: 건강관리 프로그램에 참여한 표본의 규모가 작아 통계적 의미가 낮음

■ 금연 건강 관리 프로그램 참여 후 기대 대비 목표 달성도를 살펴본 결과, 금연 등의 목표를 ‘달성했다’는 응답은 18.8%로 ‘달성하지 못했다’(62.5%)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표 IV-65〉 금연 관리 프로그램 기대충족도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달성	보통	미달성
전체	(16)	18.8	18.8	62.5

주: 건강관리 프로그램에 참여한 표본의 규모가 작아 통계적 의미가 낮음

■ 향후 금연을 위해 관련 건강 관리 프로그램에 ‘6개월 이내에는 아니다’라는 응답이 58.2%로 가장 높았고, ‘20일 이내에는 아니지만 6개월 이내에는 있다’(32.3%), ‘30일 이내에 있다’(7.8%)의 순으로 나타남

〈표 IV-66〉 금연 관리 프로그램 참여 의향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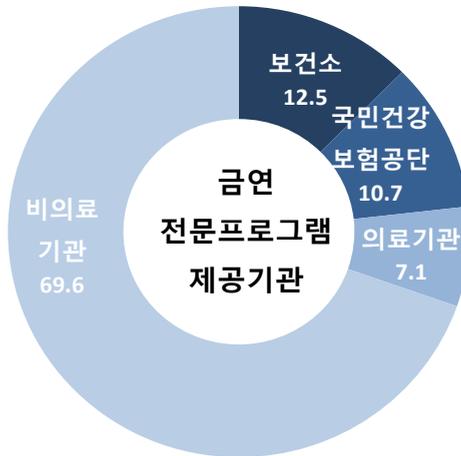
특성별	사례 수	6개월 이내에는 아니다	30일 이내에는 아니지만 6개월 이내에는 있다	30일 이내에 있다	이미 참여하고 있다
전체	(567)	58.2	32.3	7.8	1.8

2) 운동횟수 늘리기 프로그램 제공 기관 및 만족도

- 운동횟수 늘리기 프로그램을 경험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 제공 기관을 확인해본 결과, '비의료기관'라는 응답이 69.6%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보건소'(12.5%), '국민건강보험공단'(10.7%) 등의 순임

〈그림 IV-61〉 운동횟수 늘리기 프로그램 제공 기관

(n=56 / 단위: %)



〈표 IV-67〉 운동횟수 늘리기 프로그램 제공 기관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보건소	국민건강 보험공단	의료기관	비의료기관
전체		(56)	12.5	10.7	7.1	69.6
성별	남성	(25)	20.0	8.0	8.0	64.0
	여성	(31)	6.5	12.9	6.5	74.2
연령	20대	(10)	0.0	10.0	0.0	90.0
	30대	(6)	0.0	16.7	0.0	83.3
	40대	(15)	26.7	13.3	0.0	60.0
	50대	(11)	18.2	9.1	0.0	72.7
	60대 이상	(14)	7.1	7.1	28.6	57.1
지역규모	대도시	(27)	14.8	14.8	7.4	63.0
	중·소도시	(29)	10.3	6.9	6.9	75.9
직업	화이트칼라	(18)	27.8	11.1	0.0	61.1
	블루칼라	(14)	0.0	14.3	0.0	85.7
	농/임/어업	(2)	0.0	0.0	50.0	50.0
	자영업	(5)	20.0	20.0	20.0	40.0
	주부	(13)	7.7	7.7	15.4	69.2
	학생	(2)	0.0	0.0	0.0	100.0
	무직/기타	(2)	0.0	0.0	0.0	100.0
교육 수준	중졸 이하	(3)	0.0	0.0	33.3	66.7
	고졸	(28)	3.6	10.7	7.1	78.6
	대재 이상	(25)	24.0	12.0	4.0	60.0
가구 소득	저소득	(10)	0.0	10.0	10.0	80.0
	중소득	(32)	6.3	9.4	9.4	75.0
	고소득	(14)	35.7	14.3	0.0	50.0

주: 건강관리 프로그램에 참여한 표본의 규모가 작아 통계적 의미가 낮음

■ 운동횟수 늘리기 프로그램 참여 시 부담한 평균 비용은 117,321원이었음

〈표 IV-68〉 운동횟수 늘리기 프로그램 참여 비용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3만원 미만	3만 원 이상 7만 원 미만	7만 원 이상 10만 원 미만	10만 원 이상 15만 원 미만	15만 원 이상	평균(원)
전체	(56)	14.3	53.6	5.4	10.7	16.1	117,321

주: 건강관리 프로그램에 참여한 표본의 규모가 작아 통계적 의미가 낮음

■ 운동횟수 늘리기 프로그램 참여 후 기대 대비 목표 달성도를 살펴본 결과, ‘목표를 달성했다’는 응답은 17.9%로 ‘달성하지 못했다’(30.4%)에 비해 낮게 나타남

〈표 IV-69〉 운동횟수 늘리기 프로그램 기대충족도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달성	보통	미달성
전체	(56)	17.9	51.8	30.4

주: 건강관리 프로그램에 참여한 표본의 규모가 작아 통계적 의미가 낮음

■ 향후 운동횟수를 늘리기 위한 건강 관리 프로그램에 참여할 의향을 살펴본 결과, ‘6개월 이내에는 아니다’(41.5%), ‘30일 이내에는 아니지만 6개월 이내에는 있다’(33.3%), ‘30일 이내에는 있다’(19.9%), ‘이미 참여하고 있다’(5.3%) 순으로 나타남

〈표 IV-70〉 운동횟수 늘리기 프로그램 참여 의향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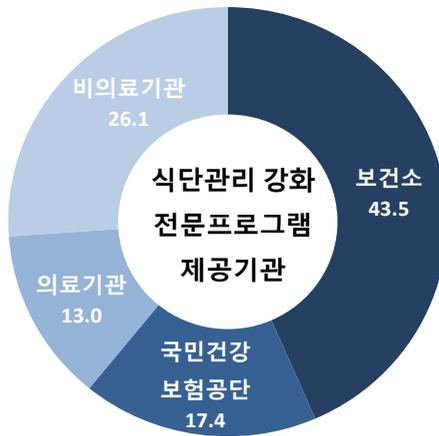
특성별	사례 수	6개월 이내에는 아니다	30일 이내에는 아니지만 6개월 이내에는 있다	30일 이내에 있다	이미 참여하고 있다
전체	(2,200)	41.5	33.3	19.9	5.3

### 3) 식단관리 강화 프로그램 제공 기관 및 만족도

- 식단관리 강화 전문 프로그램을 경험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 제공 기관을 확인해 본 결과, ‘보건소’라는 응답이 43.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비의료기관’(26.1%), ‘국민건강보험공단’(17.4%) 등의 순임

〈그림 IV-62〉 식단관리 강화 프로그램 제공 기관

(n=23 / 단위: %)



〈표 IV-71〉 식단관리 강화 프로그램 제공 기관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보건소	국민건강 보험공단	의료기관	비의료기관	
전체	(23)	43.5	17.4	13.0	26.1	
성별	남성	(9)	55.6	22.2	11.1	11.1
	여성	(14)	35.7	14.3	14.3	35.7
연령	20대	(3)	0.0	0.0	33.3	66.7
	30대	(2)	50.0	50.0	0.0	0.0
	40대	(4)	50.0	50.0	0.0	0.0
	50대	(3)	33.3	0.0	0.0	66.7
	60대 이상	(11)	54.5	9.1	18.2	18.2
지역규모	대도시	(11)	36.4	9.1	18.2	36.4
	중·소도시	(12)	50.0	25.0	8.3	16.7
직업	화이트칼라	(4)	50.0	25.0	0.0	25.0
	블루칼라	(5)	80.0	20.0	0.0	0.0
	농/임/어업	(1)	0.0	0.0	0.0	100.0
	자영업	(4)	25.0	25.0	50.0	0.0
	주부	(8)	37.5	12.5	12.5	37.5
	학생	(1)	0.0	0.0	0.0	100.0
교육 수준	고졸	(12)	58.3	16.7	8.3	16.7
	대재 이상	(11)	27.3	18.2	18.2	36.4
가구 소득	저소득	(10)	60.0	10.0	10.0	20.0
	중소득	(6)	16.7	33.3	16.7	33.3
	고소득	(7)	42.9	14.3	14.3	28.6

주: 건강관리 프로그램에 참여한 표본의 규모가 작아 통계적 의미가 낮음

■ 식단관리 강화 프로그램 참여 시 부담한 평균 비용은 123,043원이었음

〈표 IV-72〉 식단관리 강화 프로그램 참여 비용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3만 원 미만	3만 원 이상 7만 원 미만	7만 원 이상 10만 원 미만	15만 원 이상	평균(원)
전체	(23)	39.1	34.8	4.3	21.7	123,043

주: 건강관리 프로그램에 참여한 표본의 규모가 작아 통계적 의미가 낮음

■ 식단관리 강화 프로그램 참여 후 기대 대비 목표 달성도를 살펴본 결과, ‘목표를 달성했다’는 응답은 60.9%로 ‘달성하지 못했다’(39.1%)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IV-73〉 식단관리 강화 프로그램 기대충족도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달성	미달성
전체	(23)	60.9	39.1

주: 건강관리 프로그램에 참여한 표본의 규모가 작아 통계적 의미가 낮음

■ 향후 식단관리 강화 프로그램 참여 의향을 살펴본 결과, ‘6개월 이내에는 아니다’(50.5%), ‘30일 이내에는 아니지만 6개월 이내에는 있다’(26.6%)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IV-74〉 식단관리 강화 프로그램 참여 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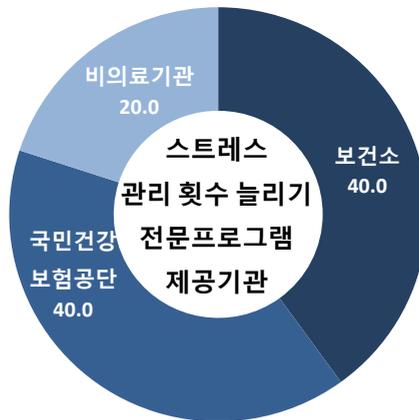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6개월 이내에는 아니다	30일 이내에는 아니지만 6개월 이내에는 있다	30일 이내에 있다	이미 참여하고 있다
전체	(2,200)	50.5	26.6	19.6	3.3

4) 스트레스 관리 횟수 늘리기 프로그램 제공 기관 및 만족도

- 스트레스 관리 횟수 늘리기 전문 프로그램을 경험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 제공 기관을 확인해본 결과, ‘보건소’라는 응답이 40.0%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40.0%), ‘비의료기관’(20.0%) 등의 순임

〈그림 IV-63〉 스트레스 관리 횟수 늘리기 프로그램 제공 기관  
(n=5 / 단위: %)



〈표 IV-75〉 스트레스 관리 횟수 늘리기 프로그램 제공 기관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보건소	국민건강 보험공단	비의료기관
전체		(5)	40.0	40.0	20.0
성별	남성	(3)	33.3	66.7	0.0
	여성	(2)	50.0	0.0	50.0
연령	30대	(1)	100.0	0.0	0.0
	40대	(1)	0.0	100.0	0.0
	60대 이상	(3)	33.3	33.3	33.3
지역규모	대도시	(3)	66.7	0.0	33.3
	중·소도시	(2)	0.0	100.0	0.0
직업	화이트칼라	(2)	100.0	0.0	0.0
	블루칼라	(1)	0.0	100.0	0.0
	자영업	(1)	0.0	100.0	0.0
	주부	(1)	0.0	0.0	100.0
교육 수준	고졸	(3)	0.0	66.7	33.3
	대재 이상	(2)	100.0	0.0	0.0
가구 소득	저소득	(1)	0.0	100.0	0.0
	중소득	(2)	0.0	50.0	50.0
	고소득	(2)	100.0	0.0	0.0

주: 스트레스 관리 전문 프로그램에 참여한 표본의 규모가 작아 통계적 의미가 낮음

■ 스트레스 관리 횟수 늘리기 프로그램 참여 시 부담한 평균 비용은 84,000원이었음

〈표 IV-76〉 스트레스 관리 횟수 늘리기 프로그램 참여 비용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3만 원 미만	3만 원 이상 7만 원 미만	15만 원 이상	평균(원)
전체	(5)	40.0	40.0	20.0	84,000

주: 스트레스 관리 전문 프로그램에 참여한 표본의 규모가 작아 통계적 의미가 낮음

- 스트레스 관리 횡수 늘리기 프로그램 참여 후 기대 대비 목표 달성도를 살펴본 결과, 목표를 '달성했다'는 응답은 20.0%로 '달성하지 못했다'(60.0%)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남

〈표 IV-77〉 스트레스 관리 횡수 늘리기 프로그램 기대충족도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달성	보통	미달성
전체	(5)	20.0	20.0	60.0

주: 스트레스 관리 전문 프로그램에 참여한 표본의 규모가 작아 통계적 의미가 낮음

- 향후 스트레스 관리 횡수 늘리기 전문 프로그램에 참여할 의향을 살펴본 결과, '6개월 이내에는 아니다'(56.3%), '30일 이내에는 아니지만 6개월 이내에는 있다'(24.6%)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IV-78〉 스트레스 관리 횡수 늘리기 프로그램 참여 의향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6개월 이내에는 아니다	30일 이내에는 아니지만 6개월 이내에는 있다	30일 이내에 있다	이미 참여하고 있다
전체	(2,200)	56.3	24.6	16.8	2.3

5) 비만관리 프로그램 제공 기관 및 만족도

〈표 IV-79〉 비만관리 프로그램 제공 기관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보건소	국민건강 보험공단	의료기관	비의료기관
전체		(18)	11.1	11.1	11.1	66.7
성별	남성	(8)	0.0	12.5	0.0	87.5
	여성	(10)	20.0	10.0	20.0	50.0
연령	20대	(4)	0.0	0.0	0.0	100.0
	30대	(4)	0.0	0.0	0.0	100.0
	40대	(4)	0.0	25.0	25.0	50.0
	50대	(3)	66.7	0.0	33.3	0.0
	60대 이상	(3)	0.0	33.3	0.0	66.7
지역규모	대도시	(10)	0.0	10.0	20.0	70.0
	중·소도시	(8)	25.0	12.5	0.0	62.5
직업	화이트칼라	(6)	0.0	0.0	16.7	83.3
	블루칼라	(3)	0.0	0.0	0.0	100.0
	자영업	(3)	0.0	33.3	0.0	66.7
	주부	(5)	40.0	20.0	20.0	20.0
	학생	(1)	0.0	0.0	0.0	100.0
교육 수준	고졸	(11)	18.2	9.1	9.1	63.6
	대재 이상	(7)	0.0	14.3	14.3	71.4
가구 소득	저소득	(3)	33.3	33.3	0.0	33.3
	중소득	(8)	12.5	12.5	0.0	75.0
	고소득	(7)	0.0	0.0	28.6	71.4

주: 비만관리 전문프로그램에 참여한 표본의 규모가 작아 통계적 의미가 낮음

- 향후 비만관리 전문프로그램에 참여할 의향을 살펴본 결과, ‘6개월 이내에는 아니다’(56.6%), ‘30일 이내에는 아니지만 6개월 이내에는 있다’(24.5%)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IV-80〉 비만관리 프로그램 참여 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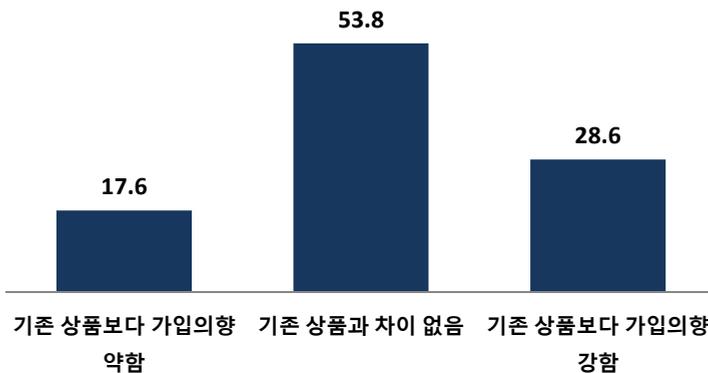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6개월 이내에는 아니다	30일 이내에는 아니지만 6개월 이내에는 있다	30일 이내에 있다	이미 참여하고 있다
전체	(2,200)	56.6	24.5	16.4	2.5

## 더. 생활습관 개선 실천 시 인센티브 제공 보험 가입 의향

- 생활습관 개선 실천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보험상품에 가입할 의향이 있는지 물어본 결과, ‘기존 상품과 차이 없다’는 응답이 53.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기존 상품보다 가입 의향 강하다’(28.6%), ‘기존 상품보다 가입 의향 약하다’(17.6%) 순으로 참여 의향이 나타남
  - ‘기존 상품과 차이 없다’는 응답은 50대(60.3%), 군지역(60.4%), 농/임/어업(65.3%)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
  - 또한, 소득이 낮을수록 ‘기존 상품과 차이 없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IV-64〉 생활습관 개선 실천 시 인센티브 제공 보험 가입 의향  
(n=2,200 / 단위: %)



〈표 IV-81〉 생활습관 개선 실천 시 인센티브 제공 보험 가입 의향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기존 상품보다 가입 의향 약함	기존 상품과 차이 없음	기존 상품보다 가입 의향 강함
전체		(2,200)	17.6	53.8	28.6
성별	남성	(1,092)	19.2	52.9	27.8
	여성	(1,108)	16.0	54.7	29.3
연령	20대	(357)	19.0	47.9	33.1
	30대	(393)	21.6	46.1	32.3
	40대	(461)	13.7	53.6	32.8
	50대	(446)	16.8	60.3	22.9
	60대 이상	(543)	17.7	58.2	24.1
지역규모	대도시	(1,006)	15.9	53.7	30.4
	중·소도시	(1007)	18.7	52.7	28.6
	군지역	(187)	20.9	60.4	18.7
직업	화이트칼라	(580)	16.9	50.0	33.1
	블루칼라	(611)	16.4	55.5	28.2
	농/임/어업	(95)	20.0	65.3	14.7
	자영업	(396)	19.2	57.8	23.0
	주부	(409)	15.9	52.3	31.8
	은퇴자	(19)	10.5	68.4	21.1
	학생	(59)	30.5	35.6	33.9
	무직/기타	(31)	29.0	51.6	19.4
교육 수준	중졸 이하	(196)	18.9	58.2	23.0
	고졸	(1,057)	15.8	58.8	25.4
	대재 이상	(946)	19.2	47.5	33.3
	모름/무응답	(1)	100.0	0.0	0.0
가구 소득	저소득	(406)	19.5	57.9	22.7
	중소득	(1,226)	17.5	54.0	28.5
	고소득	(568)	16.4	50.5	3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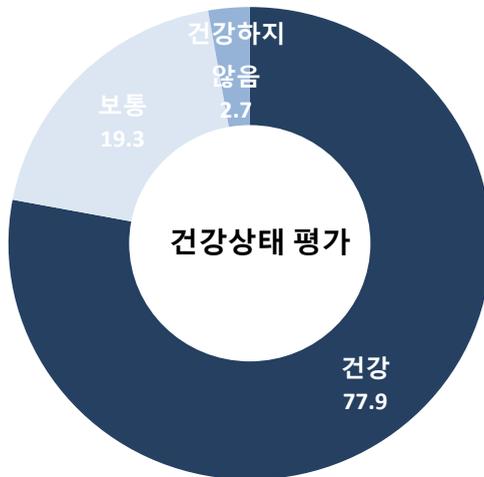
### 3. 노후생활 준비 실태

#### 가. 현재 건강상태

- 현재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한 평가를 물어본 결과, ‘건강하다’(매우 건강함+건강함)는 응답이 77.9%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보통이다’(19.3%), ‘건강하지 않다’(전혀 건강하지 않음 + 건강하지 않음, 2.7%) 순으로 나타남

〈그림 IV-65〉 건강상태 평가

(n=2,200 / 단위: %)



- ‘건강하다’는 응답은 남성(81.4%), 화이트칼라(91.9%), 대재 이상(89.1%)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
- 또한,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소득이 많을수록 ‘건강하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V-82〉 건강상태 평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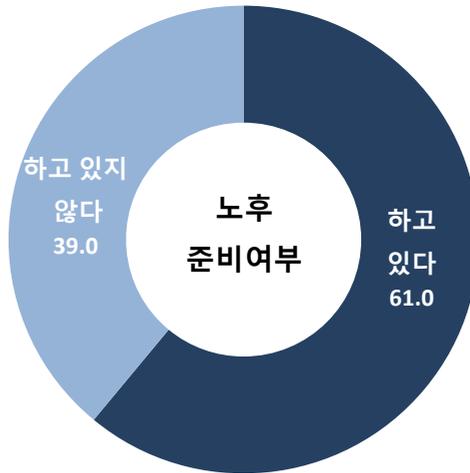
특성별		사례 수	매우 건강함	건강함	보통	건강하지 않음	전혀 건강하지 않음
전체		(2,200)	17.5	60.4	19.3	2.6	0.1
성별	남성	(1,092)	20.9	60.5	16.3	2.2	0.1
	여성	(1,108)	14.3	60.3	22.2	3.1	0.2
연령	20대	(357)	40.6	54.9	4.5	0.0	0.0
	30대	(393)	28.2	63.6	7.6	0.5	0.0
	40대	(461)	13.4	73.5	12.4	0.7	0.0
	50대	(446)	10.3	61.2	24.9	3.6	0.0
	60대 이상	(543)	4.1	49.9	38.7	6.8	0.6
지역규모	대도시	(1,006)	15.7	62.5	19.7	2.1	0.0
	중·소도시	(1,007)	20.6	59.3	17.2	2.9	0.1
	군지역	(187)	11.2	55.1	28.3	4.3	1.1
직업	화이트칼라	(580)	24.8	67.1	8.1	0.0	0.0
	블루칼라	(611)	18.2	59.9	19.3	2.6	0.0
	농/임/어업	(95)	8.4	50.5	29.5	11.6	0.0
	자영업	(396)	12.4	57.3	26.8	3.5	0.0
	주부	(409)	8.8	61.4	26.7	2.9	0.2
	은퇴자	(19)	5.3	47.4	42.1	5.3	0.0
	학생	(59)	54.2	45.8	0.0	0.0	0.0
	무직/기타	(31)	16.1	38.7	25.8	12.9	6.5
교육 수준	중졸 이하	(196)	1.5	51.5	37.2	8.7	1.0
	고졸	(1,057)	13.8	58.8	24.3	3.1	0.0
	대재 이상	(946)	24.9	64.2	9.9	0.8	0.1
	모름/무응답	(1)	100.0	0.0	0.0	0.0	0.0
가구 소득	저소득	(406)	9.9	49.8	32.3	7.4	0.7
	중소득	(1,226)	19.7	61.3	17.5	1.5	0.0
	고소득	(568)	18.5	66.0	13.9	1.6	0.0

## 나. 노후 준비 여부

- 은퇴 후 생활을 위해 경제적으로 노후를 대비하고 있는지 물어본 결과, '준비하고 있다'는 응답은 61.0%로, '준비하고 있지 않다'(39.0%)는 응답에 비해 높았음

〈그림 IV-66〉 노후 준비 여부

(n=2,200 / 단위: %)



- 특히, 40대(76.4%)와 50대(77.1%), 대도시 거주자(62.1%), 화이트칼라(61.0%)와 자영업자(73.5%)에서 노후를 준비하고 있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표 IV-83〉 노후 준비 여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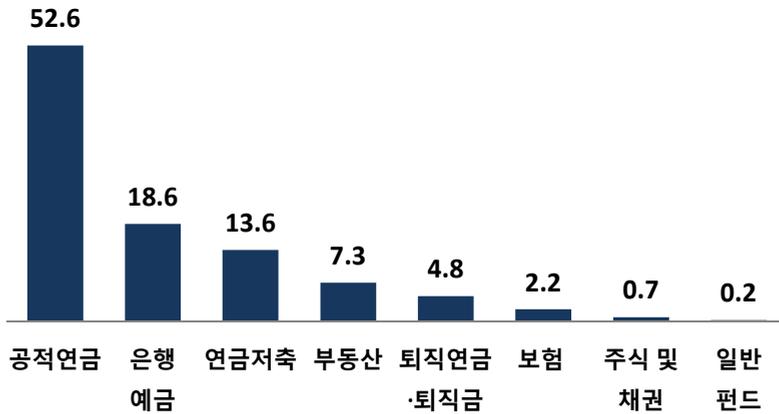
특성별		사례 수	하고 있다	하고 있지 않다
전체		(2,200)	61.0	39.0
성별	남성	(1,092)	61.9	38.1
	여성	(1,108)	60.1	39.9
연령	20대	(357)	22.4	77.6
	30대	(393)	56.0	44.0
	40대	(461)	76.4	23.6
	50대	(446)	77.1	22.9
	60대 이상	(543)	63.7	36.3
지역규모	대도시	(1,006)	62.1	37.9
	중·소도시	(1,007)	61.7	38.3
	군지역	(187)	51.3	48.7
직업	화이트칼라	(580)	61.0	39.0
	블루칼라	(611)	57.4	42.6
	농/임/어업	(95)	47.4	52.6
	자영업	(396)	73.5	26.5
	주부	(409)	68.7	31.3
	은퇴자	(19)	57.9	42.1
	학생	(59)	5.1	94.9
	무직/기타	(31)	19.4	80.6
교육 수준	중졸 이하	(196)	48.0	52.0
	고졸	(1,057)	63.4	36.6
	대재 이상	(946)	61.1	38.9
	모름/무응답	(1)	0.0	100.0
가구 소득	저소득	(406)	48.8	51.2
	중소득	(1,226)	61.3	38.7
	고소득	(568)	69.0	31.0

## 1) 노후대비 상품 유형

-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가입하고 있는 상품(또는 활동)으로는 ‘공적연금’(52.6%)을 가입하고 있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은행예금’(18.6%), ‘연금저축’(13.6%), ‘부동산’(7.3%)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IV-67〉 노후대비 상품 유형(1순위)

(n=1,342 / 단위: %)



- 노후 대비를 위해 공적연금을 가입했다는 응답은 20대(61.3%)와 30대(63.2%), 화이트칼라(61.9%)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V-84〉 노후대비 상품 유형(1순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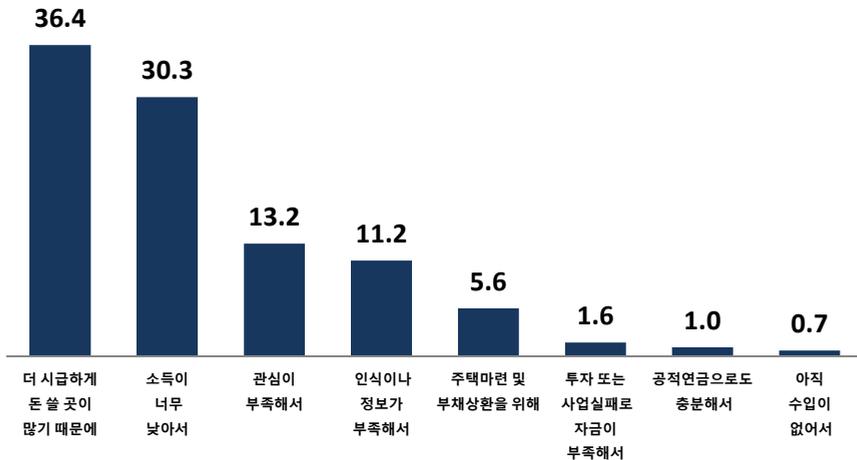
특성별	사례 수	공적 연금 (국민 연금 등)	은행 예금	연금 저축 (은행, 증권, 보험)	부동산	퇴직 연금 · 퇴직금	보험 (연금 저축 제외)	주식 및 채권	일반 펀드 (연금 펀드 제외)	
전체	(1,342)	52.6	18.6	13.6	7.3	4.8	2.2	0.7	0.2	
성별	남성	(676)	55.5	15.4	12.4	7.2	7.4	1.6	0.4	0.0
	여성	(666)	49.7	21.8	14.7	7.4	2.1	2.9	1.1	0.5
연령	20대	(80)	61.3	21.3	8.8	0.0	5.0	2.5	1.3	0.0
	30대	(220)	63.2	15.0	14.1	0.5	5.0	1.4	0.5	0.5
	40대	(352)	56.8	13.4	15.9	4.8	5.4	2.6	0.9	0.3
	50대	(344)	49.1	18.0	14.0	10.5	4.7	3.5	0.3	0.0
	60대 이상	(346)	43.1	26.0	11.6	12.7	4.0	1.2	1.2	0.3
지역규모	대도시	(625)	54.4	18.4	13.0	6.2	4.3	3.0	0.5	0.2
	중·소도시	(621)	50.1	18.2	15.3	8.5	4.8	1.6	1.1	0.3
	군지역	(96)	57.3	21.9	6.3	6.3	7.3	1.0	0.0	0.0
직업	화이트칼라	(354)	61.9	10.5	14.4	2.8	8.2	1.4	0.6	0.3
	블루칼라	(351)	57.0	16.0	14.2	6.6	4.8	1.1	0.3	0.0
	농/임/어업	(45)	37.8	40.0	4.4	8.9	8.9	0.0	0.0	0.0
	자영업	(291)	49.8	22.3	11.3	9.6	2.4	3.8	0.3	0.3
	주부	(281)	42.3	24.2	15.3	10.7	1.8	3.6	1.8	0.4
	은퇴자	(11)	45.5	9.1	9.1	18.2	18.2	0.0	0.0	0.0
	학생	(3)	0.0	33.3	33.3	0.0	0.0	0.0	33.3	0.0
무직/기타	(6)	16.7	50.0	16.7	16.7	0.0	0.0	0.0	0.0	
교육 수준	중졸 이하	(94)	41.5	40.4	6.4	9.6	2.1	0.0	0.0	0.0
	고졸	(670)	49.9	19.9	13.0	9.4	4.0	2.7	0.9	0.3
	대재 이상	(578)	57.6	13.5	15.4	4.5	6.1	2.1	0.7	0.2
	모름/무응답	(198)	43.9	26.8	10.6	13.6	4.5	0.5	0.0	0.0
가구 소득	저소득	(752)	55.1	18.5	11.0	6.0	5.5	2.4	1.2	0.4
	중소득	(392)	52.3	14.5	19.9	6.6	3.6	2.8	0.3	0.0
	고소득	(392)	52.3	14.5	19.9	6.6	3.6	2.8	0.3	0.0

## 2) 노후대책을 준비하지 못(안)하는 이유

■ 노후대책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안)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를 물어본 결과, ‘생활비, 교육비, 의료비 등 시급하게 돈 쓸 데가 많기 때문에’이라는 응답이 36.4%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소득이 너무 낮아서’(30.3%), ‘관심이 부족해서’(13.2%)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IV-68〉 노후대책을 준비하지 못(안)하는 이유

(n=858 / 단위: %)



○ ‘생활비, 교육비, 의료비 등 시급하게 돈 쓸 데가 많기 때문에’이라는 응답은 40대 (61.5%), 자영업자(52.4%), 저소득 가구(57.7%)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V-85〉 노후대책을 준비하지 못(안)하는 이유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더 시급하게 돈을 쓸 곳 많음	소득 너무 낮음	관심 부족	인식·정보 부족 해서	주택 마련 및 부채 상환을 위해	투자 또는 사업 실패로 자금 부족	공적 연금 충분	아직 수입 없음
전체		(858)	36.4	30.3	13.2	11.2	5.6	1.6	1.0	0.7
성별	남성	(416)	33.4	31.7	13.2	11.1	7.0	1.7	1.0	1.0
	여성	(442)	39.1	29.0	13.1	11.3	4.3	1.6	1.1	0.5
연령	20대	(277)	20.2	24.9	27.4	20.2	4.7	0.4	0.4	1.8
	30대	(173)	48.0	19.1	13.9	9.2	6.9	0.6	1.7	0.6
	40대	(109)	61.5	17.4	6.4	6.4	6.4	0.9	0.9	0.0
	50대	(102)	52.0	31.4	0.0	5.9	8.8	1.0	1.0	0.0
	60대 이상	(197)	26.9	54.3	3.0	5.6	3.6	5.1	1.5	0.0
지역규모	대도시	(381)	37.8	26.0	15.7	11.5	6.0	2.1	0.5	0.3
	중·소도시	(386)	35.5	30.8	12.7	11.1	5.7	1.3	1.6	1.3
	군지역	(91)	34.1	46.2	4.4	9.9	3.3	1.1	1.1	0.0
직업	화이트칼라	(226)	32.3	17.3	20.8	18.6	8.4	0.4	2.2	0.0
	블루칼라	(260)	35.0	33.8	11.5	11.5	6.9	0.8	0.4	0.0
	농/임/어업	(50)	26.0	64.0	2.0	6.0	0.0	2.0	0.0	0.0
	자영업	(105)	52.4	31.4	5.7	3.8	2.9	3.8	0.0	0.0
	주부	(128)	50.0	31.3	4.7	3.9	5.5	3.1	1.6	0.0
	은퇴자	(8)	25.0	25.0	12.5	12.5	0.0	25.0	0.0	0.0
	학생	(56)	16.1	26.8	35.7	12.5	0.0	0.0	0.0	8.9
	무직/기타	(25)	20.0	44.0	8.0	16.0	4.0	0.0	4.0	4.0
교육 수준	중졸 이하	(102)	22.5	66.7	1.0	5.9	0.0	2.9	1.0	0.0
	고졸	(387)	40.3	32.6	9.6	8.5	5.2	1.8	1.0	1.0
	대재 이상	(368)	36.1	17.9	20.4	15.2	7.6	1.1	1.1	0.5
	모름/무응답	(1)	0.0	0.0	0.0	100.0	0.0	0.0	0.0	0.0
가구 소득	저소득	(208)	57.7	19.2	6.7	1.4	9.6	3.4	1.4	0.5
	중소득	(474)	23.4	44.1	11.0	7.0	12.0	1.1	0.4	1.1
	고소득	(176)	16.5	35.8	17.0	6.8	20.5	1.1	2.3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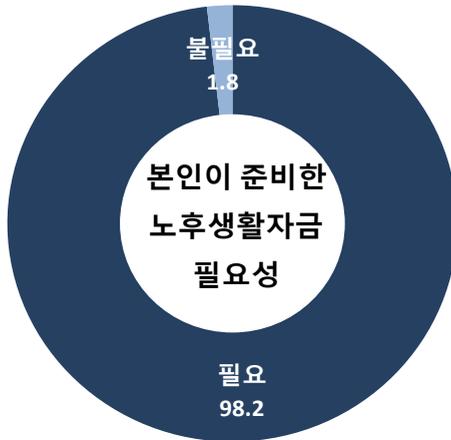
## 다. 노후 대비 생활자금 마련 적합 노후 소득원 필요성

1) 노후 대비 생활자금 마련 적합 노후 소득원 필요성: 본인 준비한 노후생활자금

- 노후 대비 생활자금 마련을 위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노후 소득원 중 본인이 준비한 노후생활자금(적금, 연금, 각종 투자수익 등)이 필요한지 물어본 결과, '필요하다'는 응답은 98.2%로, '불필요'(1.8%) 응답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남

〈그림 IV-69〉 노후 대비 생활자금 마련 적합 노후 소득원 필요성:  
본인이 준비한 노후생활자금

(n=2,200 / 단위: %)



〈표 IV-86〉 노후 대비 생활자금 마련 적합 노후 소득원 필요성:  
본인이 준비한 노후생활자금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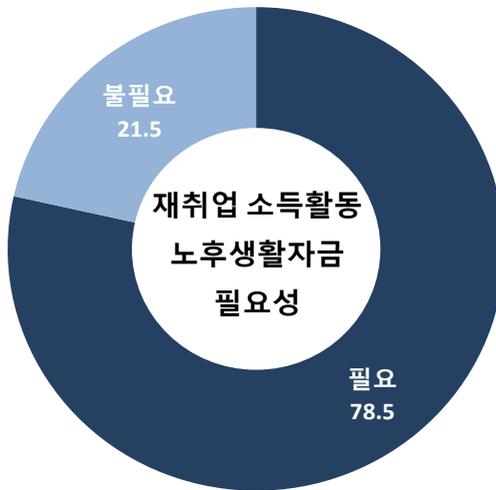
특성별		사례 수	필요	불필요
전체		(2,200)	98.2	1.8
성별	남성	(1,092)	98.9	1.1
	여성	(1,108)	97.5	2.5
연령	20대	(357)	98.3	1.7
	30대	(393)	99.2	0.8
	40대	(461)	98.9	1.1
	50대	(446)	98.4	1.6
	60대 이상	(543)	96.5	3.5
지역규모	대도시	(1,006)	98.4	1.6
	중·소도시	(1,007)	97.7	2.3
	군지역	(187)	99.5	0.5
직업	화이트칼라	(580)	99.1	0.9
	블루칼라	(611)	98.4	1.6
	농/임/어업	(95)	95.8	4.2
	자영업	(396)	99.0	1.0
	주부	(409)	98.0	2.0
	은퇴자	(19)	89.5	10.5
	학생	(59)	96.6	3.4
	무직/기타	(31)	83.9	16.1
교육 수준	중졸 이하	(196)	95.4	4.6
	고졸	(1,057)	97.7	2.3
	대재 이상	(946)	99.3	0.7
	모름/무응답	(1)	100.0	0.0
가구 소득	저소득	(406)	95.1	4.9
	중소득	(1,226)	98.8	1.2
	고소득	(568)	99.1	0.9

2) 노후 대비 생활자금 마련 적합 노후 소득원 필요성: 재취업 소득활동

- 노후 대비 생활자금 마련을 위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노후 소득원 중 재취업을 통한 소득활동이 필요한지 물어본 결과, ‘필요하다’는 응답은 78.5%로, ‘불필요’(21.5%) 응답에 비해 높게 나타남

〈그림 IV-70〉 노후 대비 생활자금 마련 적합 노후 소득원 필요성: 재취업 소득활동

(n=2,200 / 단위: %)



- ‘필요하다’는 응답은 남성(81.2%)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또한, 학력이 높을수록, 소득이 많을수록 재취업 소득활동을 통한 노후생활자금 마련이 필요하다고 응답함

〈표 IV-87〉 노후 대비 생활자금 마련 적합 노후 소득원 필요성:  
재취업 소득활동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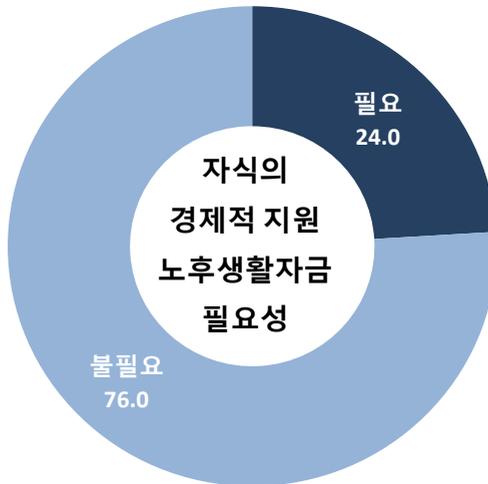
특성별	사례 수	필요	불필요	
전체	(2,200)	78.5	21.5	
성별	남성	(1,092)	81.2	18.8
	여성	(1,108)	75.8	24.2
연령	20대	(357)	77.9	22.1
	30대	(393)	82.7	17.3
	40대	(461)	81.1	18.9
	50대	(446)	80.0	20.0
	60대 이상	(543)	72.4	27.6
지역규모	대도시	(1,006)	79.2	20.8
	중·소도시	(1,007)	81.8	18.2
	군지역	(187)	56.7	43.3
직업	화이트칼라	(580)	79.7	20.3
	블루칼라	(611)	85.8	14.2
	농/임/어업	(95)	53.7	46.3
	자영업	(396)	80.8	19.2
	주부	(409)	74.3	25.7
	은퇴자	(19)	68.4	31.6
	학생	(59)	67.8	32.2
	무직/기타	(31)	41.9	58.1
교육 수준	중졸 이하	(196)	63.8	36.2
	고졸	(1,057)	79.6	20.4
	대재 이상	(946)	80.4	19.6
	모름/무응답	(1)	0.0	100.0
가구 소득	저소득	(406)	68.5	31.5
	중소득	(1,226)	80.3	19.7
	고소득	(568)	81.7	18.3

## 3) 노후 대비 생활자금 마련 적합 노후 소득원 필요성: 자식의 경제적 지원

- 노후 대비 생활자금 마련을 위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노후 소득원 중 자식의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지 물어본 결과, '필요하다'는 응답은 24.0%로, '불필요'(76.0%) 응답에 비해 낮게 나타남

〈그림 IV-71〉 노후 대비 생활자금 마련 적합 노후 소득원 필요성:  
자식의 경제적 지원

(n=2,200 / 단위: %)



- '필요하다'는 응답은 여성(28.2%), 60대 이상(40.9%)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또한, 학력이 높을수록, 소득이 많을수록 자식의 경제적 지원이 필요없다고 응답함

〈표 IV-88〉 노후 대비 생활자금 마련 적합 노후 소득원 필요성:  
자식의 경제적 지원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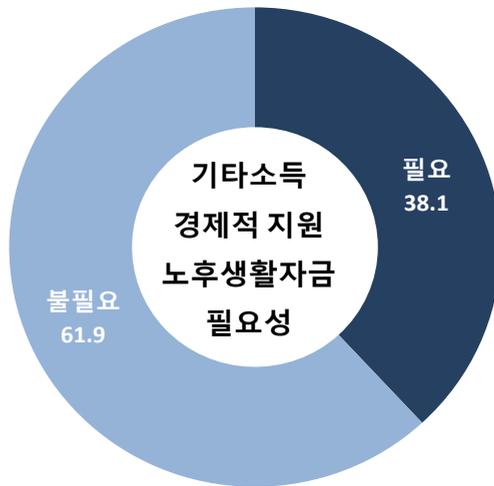
특성별	사례 수	필요	불필요	
전체	(2,200)	24.0	76.0	
성별	남성	(1,092)	19.8	80.2
	여성	(1,108)	28.2	71.8
연령	20대	(357)	12.6	87.4
	30대	(393)	16.3	83.7
	40대	(461)	19.3	80.7
	50대	(446)	24.4	75.6
	60대 이상	(543)	40.9	59.1
지역규모	대도시	(1,006)	21.8	78.2
	중·소도시	(1,007)	25.9	74.1
	군지역	(1,87)	26.2	73.8
직업	화이트칼라	(580)	18.4	81.6
	블루칼라	(611)	20.3	79.7
	농/임/어업	(95)	36.8	63.2
	자영업	(396)	25.3	74.7
	주부	(409)	33.5	66.5
	은퇴자	(19)	36.8	63.2
	학생	(59)	10.2	89.8
	무직/기타	(31)	41.9	58.1
교육 수준	중졸 이하	(196)	40.8	59.2
	고졸	(1,057)	26.7	73.3
	대재 이상	(946)	17.7	82.3
	모름/무응답	(1)	0.0	100.0
가구 소득	저소득	(406)	30.3	69.7
	중소득	(1,226)	22.2	77.8
	고소득	(568)	23.6	76.4

4) 노후 대비 생활자금 마련 적합 노후 소득원 필요성: 기타소득

■ 노후 대비 생활자금 마련을 위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노후 소득원 중 기타소득이 필요한지 물어본 결과, ‘필요하다’는 응답은 38.1%로, ‘불필요’(61.9%) 응답에 비해 낮게 나타남

〈그림 IV-72〉 노후 대비 생활자금 마련 적합 노후 소득원 필요성: 기타소득

(n=2,200 / 단위: %)



- ‘필요없다’는 응답은 군지역(72.7%), 농/임/어업(82.1%)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또한, 학력이 낮을수록, 소득이 적을수록 기타소득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함

〈표 IV-89〉 노후 대비 생활자금 마련 적합 노후 소득원 필요성:  
기타소득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필요	불필요	
전체	(2,200)	38.1	61.9	
성별	남성	(1,092)	38.5	61.5
	여성	(1,108)	37.7	62.3
연령	20대	(357)	37.0	63.0
	30대	(393)	40.7	59.3
	40대	(461)	37.5	62.5
	50대	(446)	39.7	60.3
	60대 이상	(543)	36.1	63.9
지역규모	대도시	(1,006)	41.7	58.3
	중·소도시	(1,007)	36.5	63.5
	군지역	(187)	27.3	72.7
직업	화이트칼라	(580)	40.5	59.5
	블루칼라	(611)	35.5	64.5
	농/임/어업	(95)	17.9	82.1
	자영업	(396)	46.5	53.5
	주부	(409)	34.0	66.0
	은퇴자	(19)	47.4	52.6
	학생	(59)	40.7	59.3
	무직/기타	(31)	41.9	58.1
교육 수준	중졸 이하	(196)	32.1	67.9
	고졸	(1,057)	35.1	64.9
	대재 이상	(946)	42.6	57.4
	모름/무응답	(1)	100.0	0.0
가구 소득	저소득	(406)	29.8	70.2
	중소득	(1,226)	35.4	64.6
	고소득	(568)	49.8	5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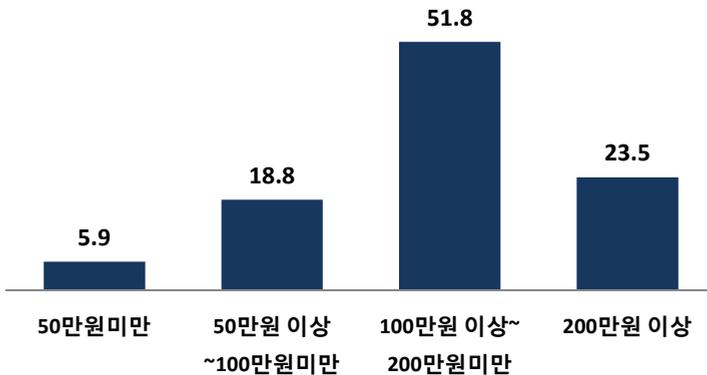
## 라. 노후 대비 생활자금 마련 적합 노후 소득원 예상금액

### 1) 본인이 준비한 노후생활자금

- 노후 대비 생활자금으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소득원 중 본인이 준비한 노후생활자금(적금, 연금, 각종 투자수익 등)의 월별 예상소득액을 물어본 결과, '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이라는 응답이 51.8%로 가장 높게 나타남

〈그림 IV-73〉 노후 대비 생활자금 마련 적합 노후 소득원 예상금액:  
본인이 준비한 노후생활자금

(n=2,160 / 단위: %)



- 본인이 준비한 노후 생활자금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월 평균 수익은 1,325,759 원으로 나타남
- 또한, 학력이 높을수록, 소득이 많을수록 예상 월 평균 수입액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IV-90〉 노후 대비 생활자금 마련 적합 노후 소득원 예상금액:  
본인이 준비한 노후생활자금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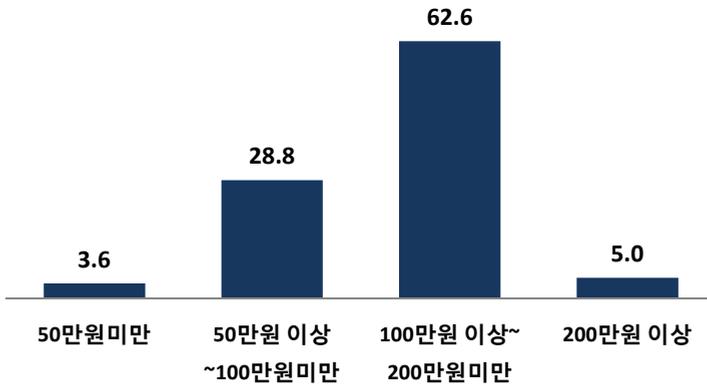
특성별		사례 수	50만 원 미만	50만원 이상 ~ 100만 원 미만	100만원 이상 ~ 200만 원 미만	200만 원 이상	평균(원)
전체		(2160)	5.9	18.8	51.8	23.5	1,325,759
성별	남성	(1080)	5.5	16.4	52.2	25.9	1,382,778
	여성	(1080)	6.3	21.3	51.3	21.1	1,268,741
연령	20대	(351)	5.4	13.4	47.0	34.2	1,476,923
	30대	(390)	4.9	18.5	49.5	27.2	1,405,385
	40대	(456)	5.3	17.3	54.4	23.0	1,351,754
	50대	(439)	6.6	17.1	50.8	25.5	1,332,847
	60대 이상	(524)	6.9	25.6	55.2	12.4	1,136,679
지역규모	대도시	(990)	7.8	20.1	48.3	23.8	1,308,505
	중·소도시	(984)	4.7	17.6	56.2	21.5	1,315,955
	군지역	(186)	2.2	18.8	46.8	32.3	1,469,462
직업	화이트칼라	(575)	5.7	15.3	48.7	30.3	1,434,957
	블루칼라	(601)	5.3	20.5	54.1	20.1	1,284,143
	농/임/어업	(91)	6.6	22.0	49.5	22.0	1,239,011
	자영업	(392)	5.9	16.6	57.1	20.4	1,292,730
	주부	(401)	7.0	24.4	51.1	17.5	1,195,187
	은퇴자	(17)	11.8	0.0	52.9	35.3	1,617,647
	학생	(57)	1.8	12.3	38.6	47.4	1,738,596
	무직/기타	(26)	7.7	23.1	30.8	38.5	1,592,308
교육 수준	중졸 이하	(187)	9.1	31.6	49.2	10.2	1,022,032
	고졸	(1033)	6.2	20.0	53.0	20.7	1,282,381
	대재 이상	(939)	4.9	15.0	50.9	29.2	1,433,248
	모름/무응답	(1)	0.0	0.0	0.0	100.0	2,000,000
가구 소득	저소득	(386)	7.5	25.9	52.3	14.2	1,136,969
	중소득	(1211)	4.7	18.3	53.3	23.6	1,337,919
	고소득	(563)	7.3	15.1	48.0	29.7	1,429,041

## 2) 재취업 소득활동

- 노후 대비 생활자금으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소득원 중 재취업을 통한 소득활동의 월별 예상소득액을 물어본 결과, '100만 원 이상 ~ 200만 원 미만'이라는 응답이 62.6%로 가장 높게 나타남

〈그림 IV-74〉 노후 대비 생활자금 마련 적합 노후 소득원 예상금액:  
재취업 소득활동

(n=1,727 / 단위: %)



- 재취업을 통한 소득활동에서 얻을 수 있는 월 평균 수익은 1,043,370원으로 나타남
- 또한, 학력이 높을수록, 소득이 많을수록 예상 월 평균 수입액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IV-91〉 노후 대비 생활자금 마련 적합 노후 소득원 예상금액:  
재취업 소득활동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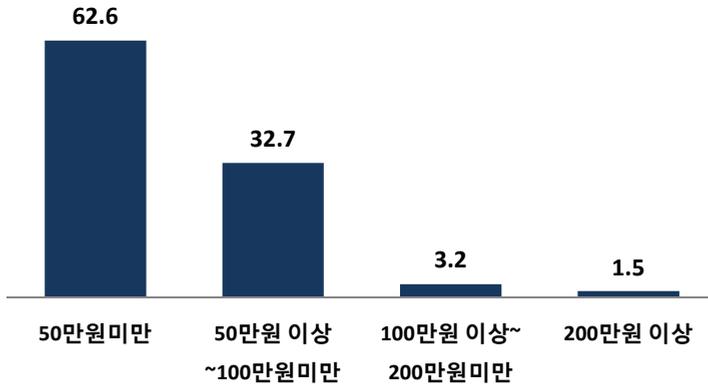
특성별	사례 수	50만 원 미만	50만 원 이상 ~ 100만 원 미만	100만 원 이상 ~ 200만 원 미만	200만 원 이상	평균(원)	
전체	(1,727)	3.6	28.8	62.6	5.0	1,043,370	
성별	남성	(887)	1.7	25.3	66.9	6.2	1,101,353
	여성	(840)	5.7	32.5	58.1	3.7	982,143
연령	20대	(278)	2.9	20.1	70.9	6.1	1,126,619
	30대	(325)	2.5	21.8	67.7	8.0	1,162,154
	40대	(374)	3.5	29.4	62.3	4.8	1,037,032
	50대	(357)	3.1	34.2	58.5	4.2	998,039
	60대 이상	(393)	5.9	35.1	56.5	2.5	933,461
지역규모	대도시	(797)	2.9	28.5	63.4	5.3	1,049,686
	중·소도시	(824)	4.1	27.7	64.1	4.1	1,035,437
	군지역	(106)	5.7	39.6	45.3	9.4	1,057,547
직업	화이트칼라	(462)	1.5	23.4	68.8	6.3	1,143,615
	블루칼라	(524)	4.0	28.6	63.2	4.2	1,019,561
	농/임/어업	(51)	3.9	52.9	43.1	0.0	800,980
	자영업	(320)	1.9	30.3	61.9	5.9	1,037,813
	주부	(304)	8.2	34.2	53.9	3.6	942,270
	은퇴자	(13)	7.7	30.8	61.5	0.0	830,769
	학생	(40)	2.5	10.0	80.0	7.5	1,260,000
	무직/기타	(13)	0.0	23.1	61.5	15.4	1,438,462
교육 수준	중졸 이하	(125)	4.0	44.0	48.8	3.2	866,400
	고졸	(841)	5.0	30.6	59.7	4.8	1,010,404
	대재 이상	(761)	2.1	24.3	68.1	5.5	1,108,870
가구 소득	저소득	(278)	4.0	38.1	54.3	3.6	921,763
	중소득	(985)	4.3	27.2	63.8	4.8	1,040,914
	고소득	(464)	2.2	26.5	65.1	6.3	1,121,444

## 3) 자식의 경제적 지원

- 노후 대비 생활자금으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소득원 중 자식의 경제적 지원의 월별 예상소득액을 물어본 결과, '50만 원 미만'이라는 응답이 62.6%로 가장 높게 나타남

〈그림 IV-75〉 노후 대비 생활자금 마련 적합 노후 소득원 예상금액:  
자식의 경제적 지원

(n=529 / 단위: %)



- 자식의 경제적 지원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월 평균 수익은 419,357원으로 나타남

〈표 IV-92〉 노후 대비 생활자금 마련 적합 노후 소득원 예상금액:  
자식의 경제적 지원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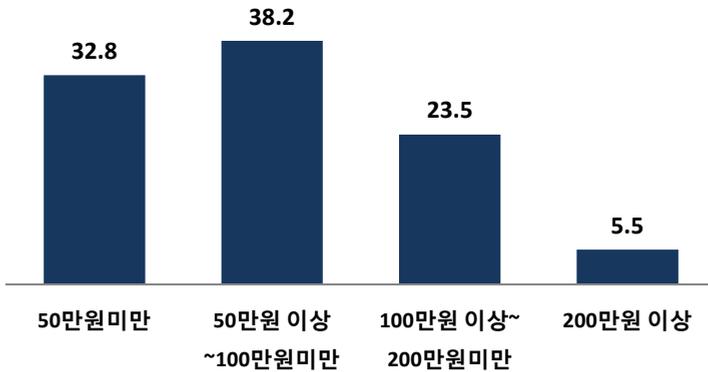
특성별		사례 수	50만 원 미만	50만원 이상 ~ 100만 원 미만	100만원 이상 ~ 200만 원 미만	200만 원 이상	평균(원)
전체		(529)	62.6	32.7	3.2	1.5	419,357
성별	남성	(216)	59.3	35.2	3.7	1.9	451,111
	여성	(313)	64.9	31.0	2.9	1.3	397,444
연령	20대	(45)	55.6	33.3	6.7	4.4	504,444
	30대	(64)	70.3	23.4	3.1	3.1	441,250
	40대	(89)	60.7	36.0	1.1	2.2	448,315
	50대	(109)	66.1	32.1	0.9	0.9	371,560
	60대 이상	(222)	60.8	34.2	4.5	0.5	407,658
지역규모	대도시	(219)	63.9	32.4	3.2	0.5	383,562
	중·소도시	(261)	65.9	31.4	2.7	0.0	381,379
	군지역	(49)	38.8	40.8	6.1	14.3	781,633
직업	화이트칼라	(107)	60.7	33.6	2.8	2.8	472,897
	블루칼라	(124)	70.2	27.4	2.4	0.0	355,968
	농/임/어업	(35)	54.3	42.9	2.9	0.0	400,000
	자영업	(100)	58.0	38.0	3.0	1.0	410,500
	주부	(137)	67.9	29.9	1.5	0.7	371,898
	은퇴자	(7)	42.9	14.3	42.9	0.0	685,714
	학생	(6)	16.7	66.7	0.0	16.7	716,667
	무직/기타	(13)	38.5	30.8	15.4	15.4	923,077
교육 수준	중졸 이하	(80)	55.0	41.3	3.8	0.0	395,000
	고졸	(282)	66.0	29.4	2.1	2.5	424,291
	대재 이상	(167)	60.5	34.1	4.8	0.6	422,695
가구 소득	저소득	(123)	59.3	36.6	4.1	0.0	390,244
	중소득	(272)	65.4	30.5	2.6	1.5	416,875
	고소득	(134)	59.7	33.6	3.7	3.0	451,119

## 4) 기타소득

- 노후 대비 생활자금으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소득원 중 기타소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월별 예상소득액을 물어본 결과, '50만 원 이상 ~ 100만 원 미만'이라는 응답이 38.2%로 가장 높게 나타남

〈그림 IV-76〉 노후 대비 생활자금 마련 적합 노후 소득원 예상금액:  
기타소득

(n=838 / 단위: %)



- 기타소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월 평균 수익은 670,131원으로 나타남
- 또한, 학력이 높을수록 예상 월 평균 수입액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IV-93〉 노후 대비 생활자금 마련 적합 노후 소득원 예상금액:  
기타소득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50만 원 미만	50만원 이상 ~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200만 원 이상	평균(원)	
전체	(838)	32.8	38.2	23.5	5.5	670,131	
성별	남성	(420)	28.8	42.1	23.3	5.7	686,548
	여성	(418)	36.8	34.2	23.7	5.3	653,636
연령	20대	(132)	28.0	35.6	25.0	11.4	773,106
	30대	(160)	31.9	35.6	26.3	6.3	725,625
	40대	(173)	26.0	48.0	20.8	5.2	665,145
	50대	(177)	35.0	37.3	24.3	3.4	635,593
	60대 이상	(196)	40.8	34.2	21.9	3.1	591,071
지역규모	대도시	(419)	33.9	39.9	23.6	2.6	611,384
	중·소도시	(368)	31.5	36.7	23.4	8.4	736,141
	군지역	(51)	33.3	35.3	23.5	7.8	676,471
직업	화이트칼라	(235)	29.8	36.2	26.4	7.7	723,191
	블루칼라	(217)	29.5	45.2	22.6	2.8	622,120
	농/임/어업	(17)	52.9	29.4	17.6	0.0	488,235
	자영업	(184)	35.3	39.7	20.7	4.3	645,924
	주부	(139)	40.3	31.7	25.2	2.9	612,014
	은퇴자	(9)	66.7	11.1	22.2	0.0	455,556
	학생	(24)	4.2	41.7	20.8	33.3	1,254,167
	무직/기타	(13)	30.8	30.8	23.1	15.4	784,615
교육 수준	중졸 이하	(63)	49.2	31.7	17.5	1.6	514,286
	고졸	(371)	37.5	37.7	21.3	3.5	616,361
	대재 이상	(403)	26.1	39.7	26.6	7.7	740,695
가구 소득	저소득	(1)	0.0	0.0	0.0	100.0	2,000,000
	중소득	(121)	43.0	32.2	22.3	2.5	595,041
	고소득	(434)	30.4	42.6	23.0	3.9	640,138

## 4. 연금 가입 상태 및 가입 니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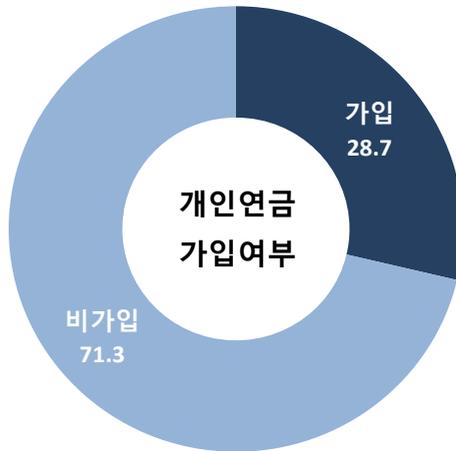
### 가. 연금 가입 실태

#### 1) 개인연금 가입 여부

■ 개인연금의 가입률은 28.7%로 비가입(71.3%)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그림 IV-77〉 개인연금 가입 여부

(n=2,200 / 단위: %)



- 개인연금 가입률은 40대(40.3%), 대도시(30.7%), 화이트칼라(35.7%)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또한 학력이 높을수록, 소득이 많을수록 개인연금 가입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IV-94〉 개인연금 가입 여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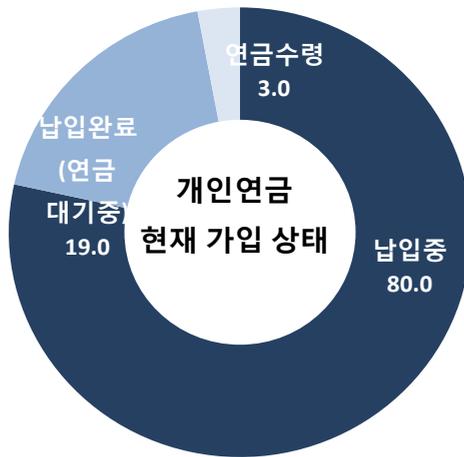
특성별		사례 수	가입	비가입
전체		(2,200)	28.7	71.3
성별	남성	(1,092)	27.8	72.2
	여성	(1,108)	29.5	70.5
연령	20대	(357)	25.8	74.2
	30대	(393)	24.9	75.1
	40대	(461)	40.3	59.7
	50대	(446)	36.1	63.9
	60대 이상	(543)	17.3	82.7
지역규모	대도시	(1,006)	30.7	69.3
	중·소도시	(1,007)	27.9	72.1
	군지역	(187)	21.9	78.1
직업	화이트칼라	(580)	35.7	64.3
	블루칼라	(611)	27.3	72.7
	농/임/어업	(95)	8.4	91.6
	자영업	(396)	27.3	72.7
	주부	(409)	27.9	72.1
	은퇴자	(19)	5.3	94.7
	학생	(59)	35.6	64.4
	무직/기타	(31)	16.1	83.9
교육 수준	중졸 이하	(196)	8.2	91.8
	고졸	(1,057)	27.2	72.8
	대재 이상	(946)	34.7	65.3
	모름/무응답	(1)	0.0	100.0
가구 소득	저소득	(406)	10.6	89.4
	중소득	(1,226)	24.3	75.7
	고소득	(568)	51.1	48.9

2) 개인연금 현재 가입 상태

- 개인연금 현재 가입 상태는 ‘납입 중’(80.0%)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납입완료 (연금대기 중)’(19.0%), ‘연금수령’(3.0%) 순으로 나타남

〈그림 IV-78〉 개인연금 현재 가입 상태

(n=631 / 단위: %)



〈표 IV-95〉 개인연금 현재 가입 상태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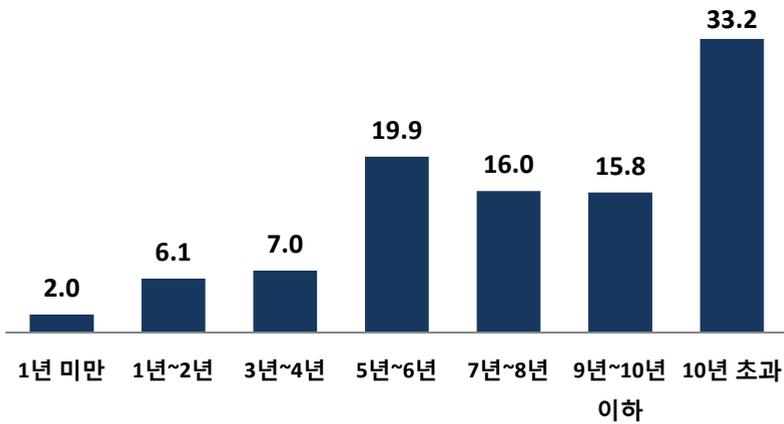
특성별	사례 수	납입 중	납입완료 (연금대기 중)	연금수령
전체	(631)	80.0	19.0	3.0
성별	남성 (304)	83.6	17.4	2.0
	여성 (327)	76.8	20.5	4.0
연령	20대 (92)	80.4	17.4	2.2
	30대 (98)	90.8	5.1	4.1
	40대 (186)	91.9	12.9	0.0
	50대 (161)	80.7	21.1	0.6
	60대 이상 (94)	43.6	43.6	12.8
지역규모	대도시 (309)	79.0	19.1	2.9
	중·소도시 (281)	80.1	20.3	3.2
	군지역 (41)	87.8	9.8	2.4
직업	화이트칼라 (207)	87.4	15.9	1.9
	블루칼라 (167)	75.4	22.2	3.6
	농/임/어업 (8)	75.0	12.5	12.5
	자영업 (108)	81.5	17.6	0.9
	주부 (114)	77.2	17.5	5.3
	은퇴자 (1)	0.0	0.0	100.0
	학생 (21)	66.7	33.3	0.0
	무직/기타 (5)	40.0	60.0	0.0
교육 수준	중졸 이하 (16)	25.0	56.3	18.8
	고졸 (287)	75.3	22.6	2.8
	대재 이상 (328)	86.9	14.0	2.4
	모름/무응답 (43)	55.8	34.9	9.3
가구 소득	저소득 (298)	79.5	17.1	3.4
	중소득 (290)	84.1	18.6	1.7
	고소득 (568)	51.1	48.9	48.9

## 3) 개인연금 현재 가입 기간

- 개인연금의 현재 가입 기간은 '10년 초과'가 33.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5~6년'(19.9%), '7~8년'(16.0%), '9~10년'(15.8%)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IV-79〉 개인연금 현재 가입 기간

(n=644 / 단위: %)



〈표 IV-96〉 개인연금 현재 가입 기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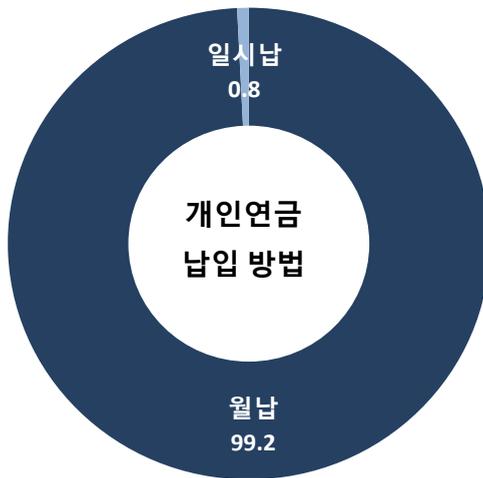
특성별		사례 수	1년 미만	1년~2년	3년~4년	5년~6년	7년~8년	9년~10년 이하	10년 초과
전체		(644)	2.0	6.1	7.0	19.9	16.0	15.8	33.2
성별	남성	(313)	1.6	6.7	8.6	19.5	13.7	14.7	35.1
	여성	(331)	2.4	5.4	5.4	20.2	18.1	16.9	31.4
연령	20대	(92)	4.3	15.2	7.6	13.0	10.9	20.7	28.3
	30대	(98)	4.1	10.2	18.4	28.6	8.2	12.2	18.4
	40대	(195)	0.5	4.6	4.6	28.2	25.6	13.3	23.1
	50대	(165)	1.8	2.4	4.2	12.7	18.2	20.6	40.0
	60대 이상	(94)	1.1	2.1	4.3	12.8	5.3	11.7	62.8
직업	화이트칼라	(218)	2.3	8.3	7.8	22.5	16.5	15.1	27.5
	블루칼라	(169)	1.8	5.9	5.9	18.9	13.6	19.5	34.3
	농/임/어업	(8)	0.0	0.0	25.0	0.0	12.5	37.5	25.0
	자영업	(108)	2.8	2.8	9.3	16.7	16.7	11.1	40.7
	주부	(114)	1.8	2.6	3.5	20.2	21.9	14.9	35.1
	은퇴자	(1)	0.0	100.0	0.0	0.0	0.0	0.0	0.0
	학생	(21)	0.0	19.0	9.5	19.0	0.0	19.0	33.3
무직/기타	(5)	0.0	0.0	0.0	40.0	0.0	0.0	60.0	
교육 수준	중졸 이하	(16)	0.0	0.0	6.3	18.8	18.8	6.3	50.0
	고졸	(289)	1.7	4.8	5.5	16.6	17.3	17.0	37.0
	대재 이상	(339)	2.4	7.4	8.3	22.7	14.7	15.3	29.2

#### 4) 개인연금 납입 방법

■ 개인연금의 납입 방법으로는 월납이 99.2%로 일시납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남

〈그림 IV-80〉 개인연금 납입 방법

(n=644 / 단위: %)



〈표 IV-97〉 개인연금 납입 방법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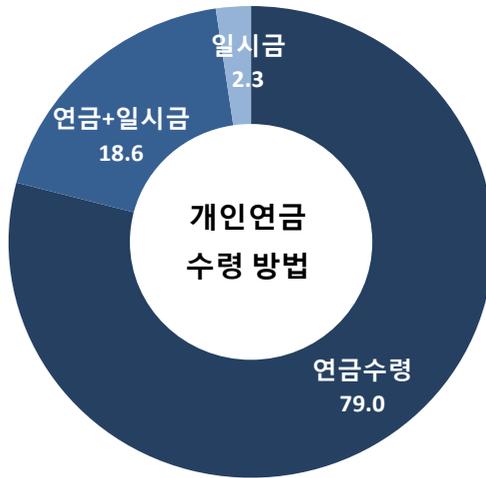
특성별		사례 수	월납	일시납
전체		(644)	99.2	0.8
성별	남성	(313)	99.4	0.6
	여성	(331)	99.1	0.9
연령	20대	(92)	98.9	1.1
	30대	(98)	100.0	0.0
	40대	(195)	100.0	0.0
	50대	(165)	98.8	1.2
	60대 이상	(94)	97.9	2.1
지역규모	대도시	(312)	98.7	1.3
	중·소도시	(291)	99.7	0.3
	군지역	(41)	100.0	0.0
직업	화이트칼라	(218)	100.0	0.0
	블루칼라	(169)	98.2	1.8
	농/임/어업	(8)	100.0	0.0
	자영업	(108)	99.1	0.9
	주부	(114)	99.1	0.9
	은퇴자	(1)	100.0	0.0
	학생	(21)	100.0	0.0
	무직/기타	(5)	100.0	0.0
교육 수준	중졸 이하	(16)	93.8	6.3
	고졸	(289)	99.3	0.7
	대재 이상	(339)	99.4	0.6

### 5) 개인연금 수령 방법

- 개인연금의 수령 방법은 ‘연금수령’(79.0%), ‘연금+일시금’(18.6%), ‘일시금’(2.3%) 순으로 나타남

〈그림 IV-81〉 개인연금 수령 방법

(n=644 / 단위: %)



〈표 IV-98〉 개인연금 수령 방법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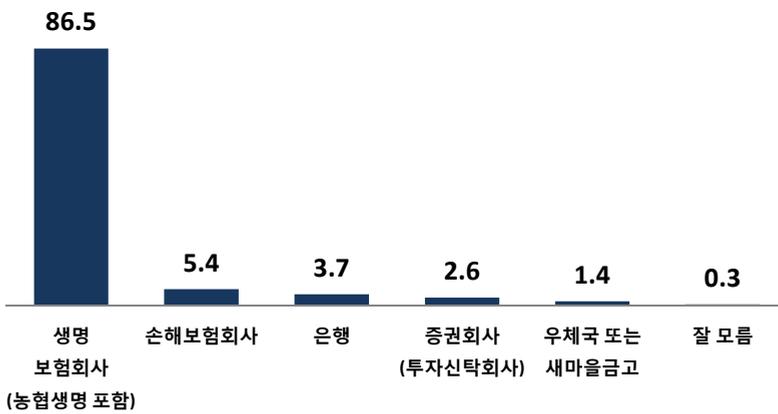
특성별	사례 수	연금수령	연금+일시금	일시금	
전체	(644)	79.0	18.6	2.3	
성별	남성	(313)	78.3	18.2	3.5
	여성	(331)	79.8	19.0	1.2
연령	20대	(92)	77.2	20.7	2.2
	30대	(98)	81.6	16.3	2.0
	40대	(195)	80.5	16.9	2.6
	50대	(165)	78.8	18.2	3.0
	60대 이상	(94)	75.5	23.4	1.1
지역규모	대도시	(312)	76.0	21.8	2.2
	중·소도시	(291)	83.5	15.5	1.0
	군지역	(41)	70.7	17.1	12.2
직업	화이트칼라	(218)	78.9	18.8	2.3
	블루칼라	(169)	79.3	18.3	2.4
	농/임/어업	(8)	62.5	25.0	12.5
	자영업	(108)	80.6	15.7	3.7
	주부	(114)	79.8	19.3	0.9
	은퇴자	(1)	0.0	100.0	0.0
	학생	(21)	76.2	23.8	0.0
	무직/기타	(5)	80.0	20.0	0.0
교육 수준	중졸 이하	(16)	62.5	31.3	6.3
	고졸	(289)	79.9	18.0	2.1
	대재 이상	(339)	79.1	18.6	2.4

6) 개인연금 가입 금융회사

- 개인연금 가입 금융회사에 대해서 물어본 결과, 생명보험회사(농협생명 포함)가 86.5%로 가장 높게 나타남

〈그림 IV-82〉 개인연금 가입 금융회사

(n=644 / 단위: %)



〈표 IV-99〉 개인연금 가입 금융회사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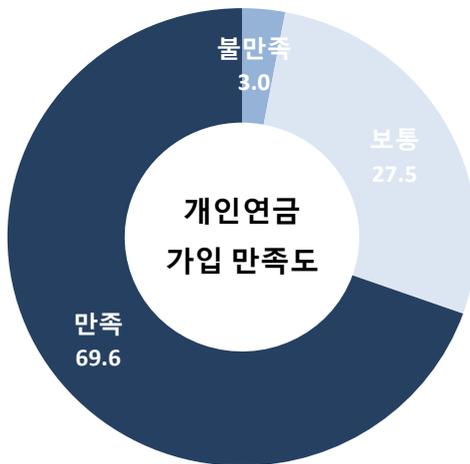
특성별		사례 수	생명 보험회사 (농협생명 포함)	손해보험 회사	은행	증권회사 (투자 신탁회사)	우체국 또는 사미은행	잘 모름
전체		(644)	86.5	5.4	3.7	2.6	1.4	0.3
성별	남성	(313)	84.3	6.1	3.5	3.5	2.6	0.0
	여성	(331)	88.5	4.8	3.9	1.8	0.3	0.6
연령	20대	(92)	92.4	2.2	2.2	2.2	1.1	0.0
	30대	(98)	82.7	9.2	3.1	3.1	1.0	1.0
	40대	(195)	90.8	4.1	2.6	1.0	1.5	0.0
	50대	(165)	87.9	3.6	3.0	3.6	1.2	0.6
	60대 이상	(94)	73.4	10.6	9.6	4.3	2.1	0.0
지역규모	대도시	(312)	85.3	5.4	4.8	2.9	1.0	0.6
	중·소도시	(291)	88.7	5.5	2.7	2.7	0.3	0.0
	군지역	(41)	80.5	4.9	2.4	0.0	12.2	0.0
직업	화이트칼라	(218)	88.1	4.1	4.1	2.8	0.9	0.0
	블루칼라	(169)	86.4	8.9	0.6	3.0	1.2	0.0
	농/임/어업	(8)	87.5	0.0	0.0	0.0	12.5	0.0
	자영업	(108)	83.3	3.7	5.6	3.7	3.7	0.0
	주부	(114)	86.8	5.3	6.1	0.0	0.0	1.8
	은퇴자	(1)	0.0	0.0	0.0	100.0	0.0	0.0
	학생	(21)	90.5	0.0	4.8	4.8	0.0	0.0
	무직/기타	(5)	80.0	20.0	0.0	0.0	0.0	0.0
교육 수준	중졸 이하	(16)	50.0	12.5	18.8	12.5	6.3	0.0
	고졸	(289)	88.6	6.2	2.1	1.4	1.7	0.0
	대재 이상	(339)	86.4	4.4	4.4	3.2	0.9	0.6

### 7) 개인연금 가입 만족도

- 개인연금의 가입 만족도에 대해서 살펴본 결과, 만족(69.6%), 보통(27.5%), 불만족(3.0%) 순으로 나타남

〈그림 IV-83〉 개인연금 가입 만족도

(n=644 / 단위: %)



- 개인연금 가입 만족도는 평균 3.72점(5점 만점)으로 나타남
- 개인연금 가입 만족도(만족하는 편 + 매우 만족)는 40대(75.9%), 중·소도시(72.9%), 대재 이상(71.1%)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V-100〉 개인연금 가입 만족도

(단위: %, 점, 5점 척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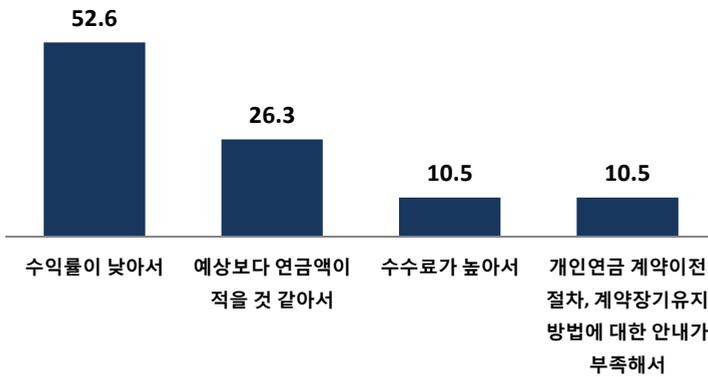
특성별	사례 수	매우 불만족	불만족 하는 편	보통	만족하는 편	매우 만족	평균(점)	
전체	(644)	0.5	2.5	27.5	64.0	5.6	3.72	
성별	남성	(313)	0.6	2.2	26.5	65.2	5.4	3.73
	여성	(331)	0.3	2.7	28.4	62.8	5.7	3.71
연령	20대	(92)	0.0	3.3	34.8	58.7	3.3	3.62
	30대	(98)	1.0	1.0	32.7	61.2	4.1	3.66
	40대	(195)	1.0	2.1	21.0	67.7	8.2	3.80
	50대	(165)	0.0	4.2	30.9	59.4	5.5	3.66
	60대 이상	(94)	0.0	1.1	22.3	72.3	4.3	3.80
지역규모	대도시	(312)	0.3	2.9	29.2	61.9	5.8	3.70
	중·소도시	(291)	0.7	2.4	24.1	66.7	6.2	3.75
	군지역	(41)	0.0	0.0	39.0	61.0	0.0	3.61
직업	화이트칼라	(218)	0.9	0.9	23.9	69.3	5.0	3.77
	블루칼라	(169)	0.0	0.6	34.9	58.6	5.9	3.70
	농/임/어업	(8)	0.0	0.0	25.0	62.5	12.5	3.88
	자영업	(108)	0.0	6.5	22.2	63.9	7.4	3.72
	주부	(114)	0.9	2.6	25.4	66.7	4.4	3.71
	은퇴자	(1)	0.0	0.0	0.0	100.0	0.0	4.00
	학생	(21)	0.0	9.5	47.6	38.1	4.8	3.38
	무직/기타	(5)	0.0	20.0	20.0	60.0	0.0	3.40
교육 수준	중졸 이하	(16)	0.0	6.3	25.0	68.8	0.0	3.63
	고졸	(289)	0.0	2.4	29.8	62.3	5.5	3.71
	대재 이상	(339)	0.9	2.4	25.7	65.2	5.9	3.73

8) 개인연금 불만족 이유(1순위)

■ 개인연금 불만족 이유(1순위)로는 ‘수익률이 낮아서’(52.6%), ‘예상보다 연금액이 적을 것 같아서’(26.3%)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IV-84〉 개인연금 불만족 이유(1순위)

(n=19 / 단위: %)



〈표 IV-101〉 개인연금 불만족 이유(1순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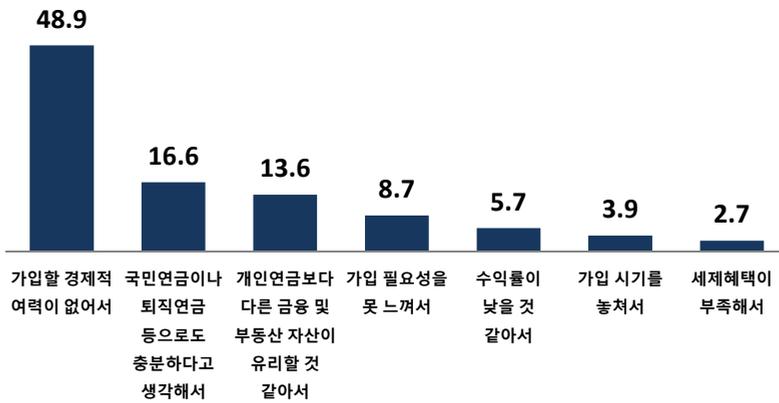
특성별	사례 수	수익률이 낮아서	예상보다 연금액이 적을 것 같아서	수수료가 높아서	개인연금 계약이전 절차, 계약장기유지 방법에 대한 안내가 부족해서	
전체	(19)	52.6	26.3	10.5	10.5	
성별	남성	(9)	44.4	22.2	22.2	11.1
	여성	(10)	60.0	30.0	0.0	10.0
연령	20대	(3)	33.3	33.3	33.3	0.0
	30대	(2)	100.0	0.0	0.0	0.0
	40대	(6)	50.0	50.0	0.0	0.0
	50대	(7)	57.1	14.3	0.0	28.6
	60대 이상	(1)	0.0	0.0	100.0	0.0
지역규모	대도시	(10)	60.0	20.0	20.0	0.0
	중·소도시	(9)	44.4	33.3	0.0	22.2
직업	화이트칼라	(4)	50.0	50.0	0.0	0.0
	블루칼라	(1)	100.0	0.0	0.0	0.0
	자영업	(7)	42.9	28.6	14.3	14.3
	주부	(4)	75.0	0.0	0.0	25.0
	학생	(2)	0.0	50.0	50.0	0.0
	무직/기타	(1)	100.0	0.0	0.0	0.0
교육 수준	중졸 이하	(1)	100.0	0.0	0.0	0.0
	고졸	(7)	42.9	42.9	0.0	14.3
	대재 이상	(11)	54.5	18.2	18.2	9.1
가구 소득	중소득	(10)	50.0	20.0	10.0	20.0
	고소득	(9)	55.6	33.3	11.1	0.0

9) 개인연금 미가입 이유

■ 개인연금을 가입하지 않은 이유는 ‘가입할 경제적 여력이 없어서’(48.9%),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 등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해서’(16.6%), ‘개인연금보다 다른 금융 및 부동산 자산이 유리할 것 같아서’(13.6%)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IV-85〉 개인연금 미가입 이유

(n=1,569 / 단위: %)



〈표 IV-102〉 개인연금 미가입 이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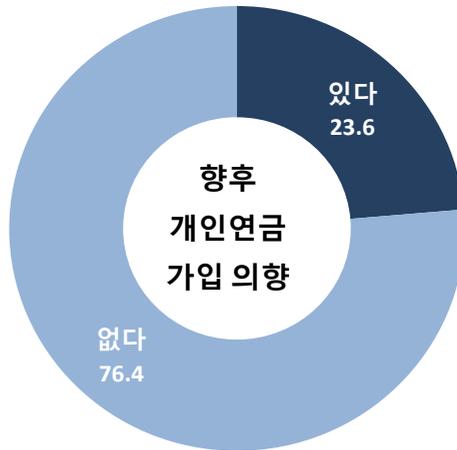
특성별	사례 수	가입할 경제적 여력이 없어서	국민연금·퇴직연금 등으로 충분	다른 금융 및 부동산 자산이 유리	가입 필요성 못느껴서	수익률 낮을것 같아서	가입 시기를 놓쳐서	세제 혜택이 부족해서	
전체	(1569)	48.9	16.6	13.6	8.7	5.7	3.9	2.7	
성별	남성	(788)	46.4	19.4	13.8	9.9	5.5	2.5	2.4
	여성	(781)	51.5	13.7	13.3	7.4	5.9	5.2	2.9
연령	20대	(265)	47.9	18.5	9.8	16.2	4.5	0.8	2.3
	30대	(295)	51.2	16.9	10.2	9.5	6.1	0.3	5.8
	40대	(275)	48.0	20.4	15.3	4.0	4.7	3.6	4.0
	50대	(285)	44.2	14.7	18.2	7.7	9.5	4.6	1.1
	60대 이상	(449)	51.7	14.0	14.0	7.1	4.2	7.8	1.1
지역규모	대도시	(697)	47.5	17.5	14.1	9.9	5.9	3.2	2.0
	중·소도시	(726)	49.2	16.4	14.0	6.9	5.9	4.3	3.3
	군지역	(146)	54.8	13.0	8.9	11.6	3.4	5.5	2.7
직업	화이트칼라	(373)	38.3	24.4	14.2	10.2	7.0	1.9	4.0
	블루칼라	(444)	58.8	14.2	9.5	8.3	3.8	3.6	1.8
	농/임/어업	(87)	52.9	5.7	12.6	16.1	6.9	4.6	1.1
	자영업	(288)	44.4	17.7	18.8	6.3	6.3	3.5	3.1
	주부	(295)	51.2	11.5	16.3	5.1	6.4	6.4	3.1
	은퇴자	(18)	22.2	33.3	16.7	5.6	11.1	11.1	0.0
	학생	(38)	47.4	18.4	2.6	28.9	2.6	0.0	0.0
	무직/기타	(26)	65.4	11.5	3.8	7.7	0.0	11.5	0.0
교육 수준	중졸 이하	(180)	63.3	7.8	8.3	6.7	2.2	10.6	1.1
	고졸	(770)	50.4	16.9	13.6	7.7	5.2	4.0	2.2
	대재 이상	(618)	42.9	18.8	15.0	10.5	7.3	1.8	3.7
	모름/무응답	(1)	100.0	0.0	0.0	0.0	0.0	0.0	0.0
가구 소득	저소득	(363)	57.6	10.5	8.5	11.8	4.4	5.0	2.2
	중소득	(928)	50.6	17.3	12.8	7.9	5.2	3.1	3.0
	고소득	(278)	32.0	21.9	22.7	7.2	9.0	5.0	2.2

## 나. 향후 개인연금 가입 의향

- 향후 개인연금 가입 의향을 물어본 결과, ‘있다’는 응답이 23.6%로 ‘없다’(76.4%)에 비해 낮게 나타남

〈그림 IV-86〉 향후 개인연금 가입 의향

(n=1,569 / 단위: %)



-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소득이 많을수록 향후 개인연금 가입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IV-103〉 향후 개인연금 가입 의향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있다	없다
전체		(1,569)	23.6	76.4
성별	남성	(788)	23.0	77.0
	여성	(781)	24.3	75.7
연령	20대	(265)	49.8	50.2
	30대	(295)	44.1	55.9
	40대	(275)	20.0	80.0
	50대	(285)	10.2	89.8
	60대 이상	(449)	5.6	94.4
지역규모	대도시	(697)	23.8	76.2
	중·소도시	(726)	25.1	74.9
	군지역	(146)	15.8	84.2
직업	화이트칼라	(373)	35.9	64.1
	블루칼라	(444)	23.4	76.6
	농/임/어업	(87)	1.1	98.9
	자영업	(288)	15.6	84.4
	주부	(295)	20.0	80.0
	은퇴자	(18)	5.6	94.4
	학생	(38)	57.9	42.1
	무직/기타	(26)	19.2	80.8
교육 수준	중졸 이하	(180)	1.7	98.3
	고졸	(770)	19.2	80.8
	대재 이상	(618)	35.4	64.6
	모름/무응답	(1)	100.0	0.0
가구 소득	저소득	(363)	13.2	86.8
	중소득	(928)	25.4	74.6
	고소득	(278)	31.3	6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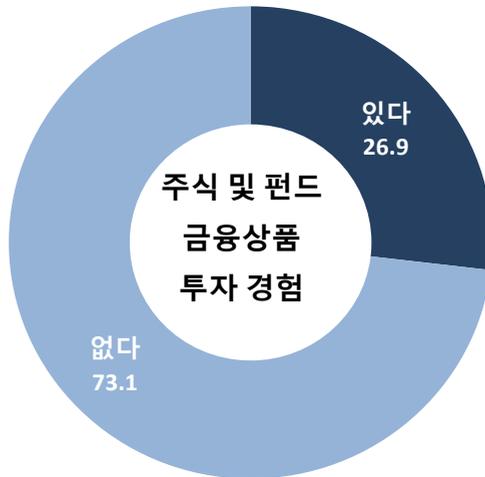
### 다. 주식 및 펀드 금융상품 투자

#### 1) 주식 및 펀드 금융상품 투자 경험

- 주식 및 펀드 등의 금융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지 살펴본 결과, ‘있다’(26.9%)가 ‘없다’(73.1%)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IV-87〉 주식 및 펀드 금융상품 투자 경험

(n=2,200 / 단위: %)



- 주식 및 펀드 등의 금융상품 투자 경험은 남성(30.9%), 40대(38.4%), 화이트 칼라(35.5%), 은퇴자(36.8%)에서,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V-104〉 주식 및 펀드 금융상품 투자 경험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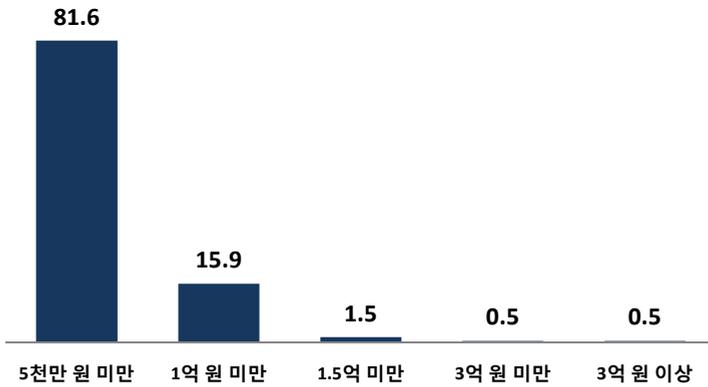
특성별	사례 수	있다	없다	
전체	(2,200)	26.9	73.1	
성별	남성	(1,092)	30.9	69.1
	여성	(1,108)	22.9	77.1
연령	20대	(357)	10.6	89.4
	30대	(393)	28.0	72.0
	40대	(461)	38.4	61.6
	50대	(446)	36.1	63.9
	60대 이상	(543)	19.3	80.7
지역규모	대도시	(1,006)	29.0	71.0
	중·소도시	(1,007)	27.7	72.3
	군지역	(1,87)	10.7	89.3
직업	화이트칼라	(580)	35.5	64.5
	블루칼라	(611)	20.5	79.5
	농/임/어업	(95)	9.5	90.5
	자영업	(396)	33.1	66.9
	주부	(409)	26.2	73.8
	은퇴자	(19)	36.8	63.2
	학생	(59)	1.7	98.3
	무직/기타	(31)	16.1	83.9
교육 수준	중졸 이하	(196)	8.2	91.8
	고졸	(1,057)	24.8	75.2
	대재 이상	(946)	33.1	66.9
	모름/무응답	(1)	0.0	100.0
가구 소득	저소득	(406)	13.8	86.2
	중소득	(1,226)	25.9	74.1
	고소득	(568)	38.4	61.6

2) 금융상품 총 투자 금액

- 금융상품 총 투자 금액에 대해서 살펴본 결과, ‘5천만 원 미만’(81.6%), ‘1억 원 미만’(15.9%) 등의 순으로 나타남
- ‘5천만 원 미만’은 20대(97.4%), 30대(94.5%)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IV-88〉 금융상품 총 투자 금액

(n=591 / 단위: %)



〈표 IV-105〉 금융상품 총 투자 금액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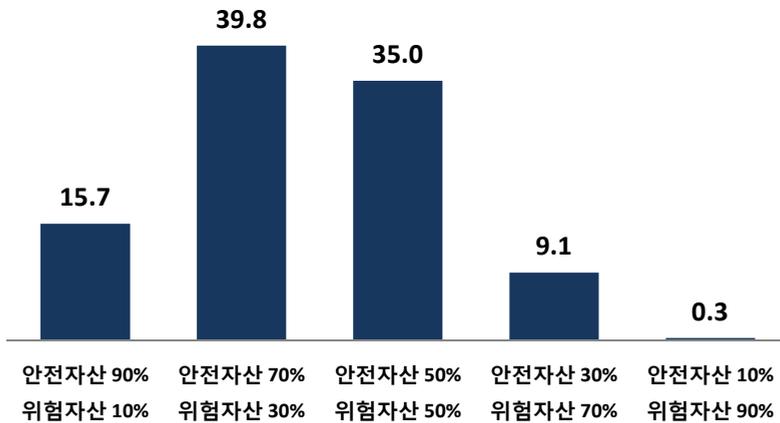
특성별	사례 수	5천만 원 미만	1억 원 미만	1.5억 미만	3억 원 미만	3억 원 이상	
전체	(591)	81.6	15.9	1.5	0.5	0.5	
성별	남성	(337)	77.7	19.0	1.8	0.6	0.9
	여성	(254)	86.6	11.8	1.2	0.4	0.0
연령	20대	(38)	97.4	2.6	0.0	0.0	0.0
	30대	(110)	94.5	2.7	1.8	0.0	0.9
	40대	(177)	77.4	22.6	0.0	0.0	0.0
	50대	(161)	73.3	22.4	1.9	1.2	1.2
	60대 이상	(105)	81.9	13.3	3.8	1.0	0.0
지역규모	대도시	(292)	80.8	16.1	1.7	0.7	0.7
	중·소도시	(279)	81.7	16.5	1.1	0.4	0.4
	군지역	(20)	90.0	5.0	5.0	0.0	0.0
직업	화이트칼라	(206)	80.1	18.4	1.5	0.0	0.0
	블루칼라	(125)	84.8	13.6	1.6	0.0	0.0
	농/임/어업	(9)	77.8	11.1	11.1	0.0	0.0
	자영업	(131)	78.6	16.0	1.5	1.5	2.3
	주부	(107)	86.0	12.1	0.9	0.9	0.0
	은퇴자	(7)	71.4	28.6	0.0	0.0	0.0
	학생	(1)	100.0	0.0	0.0	0.0	0.0
	무직/기타	(5)	60.0	40.0	0.0	0.0	0.0
교육 수준	중졸 이하	(16)	87.5	12.5	0.0	0.0	0.0
	고졸	(262)	85.1	12.6	1.5	0.8	0.0
	대재 이상	(313)	78.3	18.8	1.6	0.3	1.0
가구 소득	저소득	(56)	85.7	8.9	3.6	0.0	1.8
	중소득	(317)	83.3	15.5	0.6	0.6	0.0
	고소득	(218)	78.0	18.3	2.3	0.5	0.9

### 3) 금융상품 투자성향

- 평소 금융상품 투자성향을 살펴본 결과, ‘안전자산 70%, 위험자산 30%’(39.8%), ‘안전자산 50%, 위험자산 50%’(35.0%), ‘안전자산 90%, 위험자산 10%’(15.7%)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IV-89〉 금융상품 투자성향

(n=591 / 단위: %)



〈표 IV-106〉 금융상품 투자성향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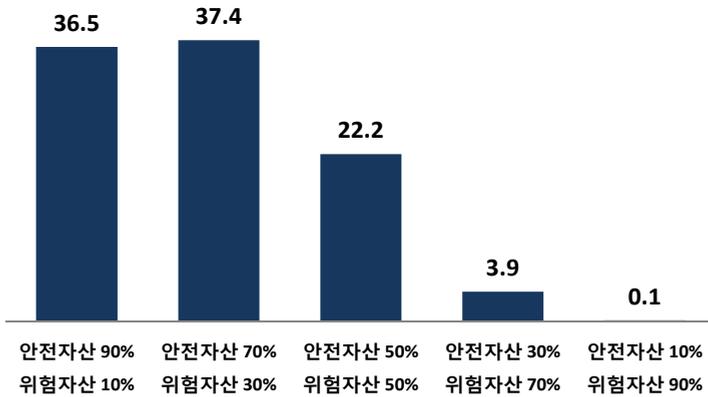
특성별		사례 수	안전자산 90% 위험자산 10%	안전자산 70% 위험자산 30%	안전자산 50% 위험자산 50%	안전자산 30% 위험자산 70%	안전자산 10% 위험자산 90%
전체		(591)	15.7	39.8	35.0	9.1	0.3
성별	남성	(337)	15.1	34.1	38.3	11.9	0.6
	여성	(254)	16.5	47.2	30.7	5.5	0.0
연령	20대	(38)	13.2	36.8	28.9	18.4	2.6
	30대	(110)	11.8	30.9	43.6	13.6	0.0
	40대	(177)	10.7	48.6	31.6	9.0	0.0
	50대	(161)	19.3	43.5	30.4	6.2	0.6
	60대 이상	(105)	23.8	29.5	41.0	5.7	0.0
지역규모	대도시	(292)	21.2	39.7	28.8	9.6	0.7
	중·소도시	(279)	10.0	39.8	41.2	9.0	0.0
	군지역	(20)	15.0	40.0	40.0	5.0	0.0
직업	화이트칼라	(206)	10.7	38.3	39.3	11.7	0.0
	블루칼라	(125)	13.6	36.8	40.0	9.6	0.0
	농/임/어업	(9)	11.1	55.6	33.3	0.0	0.0
	자영업	(131)	25.2	37.4	28.2	8.4	0.8
	주부	(107)	15.9	47.7	29.9	6.5	0.0
	은퇴자	(7)	28.6	42.9	28.6	0.0	0.0
	학생	(1)	0.0	0.0	0.0	0.0	100.0
	무직/기타	(5)	20.0	40.0	40.0	0.0	0.0
교육 수준	중졸 이하	(16)	43.8	12.5	43.8	0.0	0.0
	고졸	(262)	19.8	42.7	29.8	7.3	0.4
	대재 이상	(313)	10.9	38.7	39.0	11.2	0.3
가구 소득	저소득	(56)	14.3	30.4	44.6	8.9	1.8
	중소득	(317)	13.9	36.6	39.1	10.4	0.0
	고소득	(218)	18.8	46.8	26.6	7.3	0.5

#### 4) 연금상품 적립금 운용 방식

- 향후 노후대비 생활자금 마련을 위한 연금상품 적립금 운용 방식을 살펴본 결과, ‘안전자산 70%, 위험자산 30%’(37.4%), ‘안전자산 90%, 위험자산 10%’(36.5%), ‘안전자산 50%, 위험자산 50%’ (22.2%)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IV-90〉 연금상품 적립금 운용 방식

(n=2,200 / 단위: %)



〈표 IV-107〉 연금상품 적립금 운용 방식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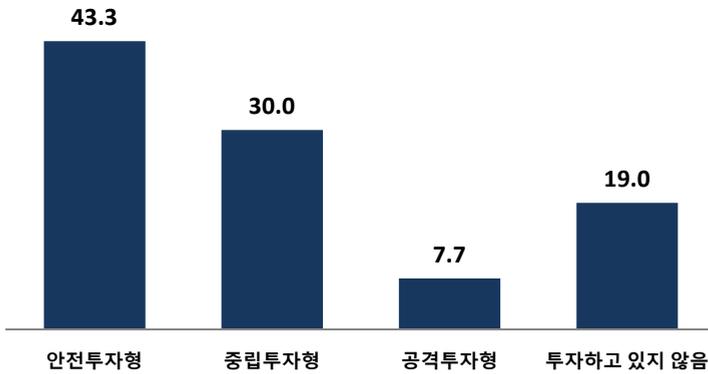
특성별		사례 수	안전자산 90% 위험자산 10%	안전자산 70% 위험자산 30%	안전자산 50% 위험자산 50%	안전자산 30% 위험자산 70%	안전자산 10% 위험자산 90%
전체		(2,200)	36.5	37.4	22.2	3.9	0.1
성별	남성	(1,092)	28.7	40.5	25.8	4.9	0.2
	여성	(1,108)	44.1	34.3	18.6	3.0	0.0
연령	20대	(357)	27.2	35.3	28.0	9.2	0.3
	30대	(393)	30.3	38.2	24.9	6.4	0.3
	40대	(461)	27.5	46.4	23.2	2.8	0.0
	50대	(446)	38.3	37.7	22.0	2.0	0.0
	60대 이상	(543)	53.0	30.2	15.7	1.1	0.0
지역규모	대도시	(1,006)	38.4	37.1	20.5	3.9	0.2
	중·소도시	(1,007)	33.3	39.8	22.6	4.3	0.0
	군지역	(187)	43.3	25.7	28.9	2.1	0.0
직업	화이트칼라	(580)	28.8	40.7	23.8	6.6	0.2
	블루칼라	(611)	34.2	38.0	25.0	2.8	0.0
	농/임/어업	(95)	44.2	33.7	22.1	0.0	0.0
	자영업	(396)	38.1	38.6	20.2	3.0	0.0
	주부	(409)	46.9	33.0	17.8	2.2	0.0
	은퇴자	(19)	63.2	26.3	10.5	0.0	0.0
	학생	(59)	28.8	32.2	20.3	16.9	1.7
	무직/기타	(31)	38.7	32.3	29.0	0.0	0.0
교육 수준	중졸 이하	(196)	59.7	30.1	9.7	0.5	0.0
	고졸	(1,057)	39.3	36.4	21.7	2.6	0.1
	대재 이상	(946)	28.5	40.0	25.3	6.1	0.1
	모름/무응답	(1)	0.0	0.0	100.0	0.0	0.0
가구 소득	저소득	(406)	43.6	33.3	20.2	3.0	0.0
	중소득	(1,226)	35.2	36.1	24.8	3.8	0.1
	고소득	(568)	34.0	43.1	18.0	4.8	0.2

## 5) 노후대비 생활자금 마련 위한 투자 성향

- 노후대비 생활자금 마련을 위한 투자성향을 살펴본 결과, ‘안전투자형’이 43.3%로 가장 높았고, ‘중립투자형’(30.0%), ‘투자하고 있지 않음’(19.0%), ‘공격투자형’(7.7%) 순으로 나타남

〈그림 IV-91〉 노후대비 생활자금 마련 위한 투자 성향

(n=2,200 / 단위: %)



- ‘안전투자형’은 여성(48.7%), 60대 이상(51.9%), 대도시(47.9%)와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V-108〉 노후대비 생활자금 마련 위한 투자 성향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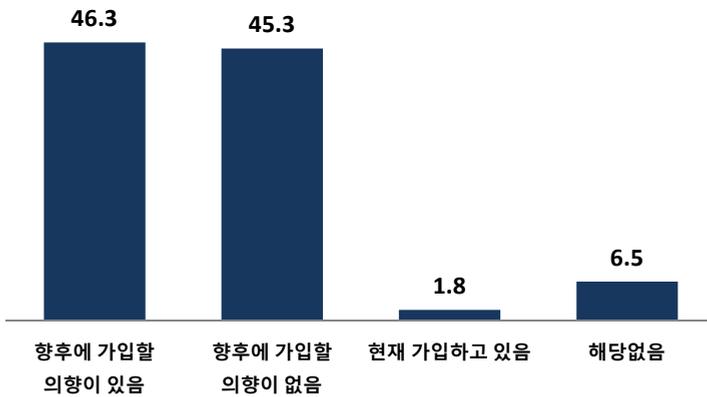
특성별	사례 수	안전투자형	중립투자형	공격투자형	투자하고 있지 않음	
전체	(2,200)	43.3	30.0	7.7	19.0	
성별	남성	(1,092)	37.7	33.3	9.8	19.1
	여성	(1,108)	48.7	26.6	5.7	19.0
연령	20대	(357)	34.5	31.9	13.2	20.4
	30대	(393)	41.2	30.3	12.0	16.5
	40대	(461)	38.0	37.3	8.0	16.7
	50대	(446)	47.1	31.6	5.2	16.1
	60대 이상	(543)	51.9	20.8	2.9	24.3
지역규모	대도시	(1,006)	47.9	29.2	8.1	14.8
	중·소도시	(1,007)	39.5	31.5	7.3	21.6
	군지역	(187)	38.5	25.7	8.0	27.8
직업	화이트칼라	(580)	42.4	35.0	10.3	12.2
	블루칼라	(611)	40.8	32.1	7.7	19.5
	농/임/어업	(95)	37.9	32.6	2.1	27.4
	자영업	(396)	44.7	26.0	8.6	20.7
	주부	(409)	49.9	25.2	4.4	20.5
	은퇴자	(19)	68.4	10.5	5.3	15.8
	학생	(59)	25.4	25.4	13.6	35.6
	무직/기타	(31)	38.7	19.4	0.0	41.9
교육 수준	중졸 이하	(196)	55.1	15.8	1.5	27.6
	고졸	(1,057)	45.5	27.5	5.6	21.4
	대재 이상	(946)	38.4	35.5	11.4	14.7
	모름/무응답	(1)	0.0	100.0	0.0	0.0
가구 소득	저소득	(406)	47.3	20.2	5.4	27.1
	중소득	(1,226)	40.9	31.3	8.4	19.3
	고소득	(568)	45.4	34.0	7.9	12.7

## 6) 주택연금 사용 의향

- 주택연금을 사용할 의향이 있는지 살펴본 결과, '향후에 가입할 의향이 있음'(46.3%), '향후에 가입할 의향이 없음'(45.3%)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IV-92〉 주택연금 사용 의향

(n=2,200 / 단위: %)



〈표 IV-109〉 주택연금 사용 의향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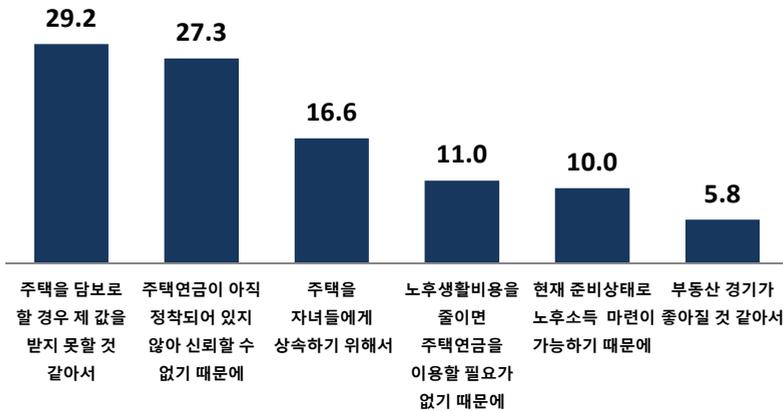
특성별		사례 수	향후에 가입할 의향이 있음	향후에 가입할 의향이 없음	현재 가입하고 있음	해당없음
전체		(2,200)	46.3	45.3	1.8	6.5
성별	남성	(1,092)	46.6	45.5	1.5	6.4
	여성	(1,108)	46.0	45.1	2.2	6.7
연령	20대	(357)	44.3	41.5	0.8	13.4
	30대	(393)	44.0	44.3	1.0	10.7
	40대	(461)	49.5	44.0	1.7	4.8
	50대	(446)	46.6	47.5	2.5	3.4
	60대 이상	(543)	46.4	47.9	2.6	3.1
지역규모	대도시	(1,006)	46.6	44.6	1.8	7.0
	중·소도시	(1,007)	45.1	46.1	1.9	7.0
	군지역	(187)	51.3	44.9	1.6	2.1
직업	화이트칼라	(580)	49.0	40.9	2.1	8.1
	블루칼라	(611)	46.2	44.8	1.6	7.4
	농/임/어업	(95)	35.8	53.7	5.3	5.3
	자영업	(396)	47.2	49.2	0.8	2.8
	주부	(409)	45.0	45.7	2.2	7.1
	은퇴자	(19)	31.6	68.4	0.0	0.0
	학생	(59)	45.8	40.7	1.7	11.9
	무직/기타	(31)	48.4	51.6	0.0	0.0
교육 수준	중졸 이하	(196)	41.3	54.1	3.1	1.5
	고졸	(1,057)	46.1	45.7	2.3	6.0
	대재 이상	(946)	47.6	43.1	1.1	8.2
	모름/무응답	(1)	100.0	0.0	0.0	0.0
가구 소득	저소득	(406)	45.8	45.3	3.2	5.7
	중소득	(1,226)	46.5	45.5	1.4	6.6
	고소득	(568)	46.3	44.9	1.8	7.0

7) 주택연금 사용 의향 없을 시 이유

■ 주택연금을 사용할 의향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본 결과, ‘주택을 담보로 할 경우 제 값을 받지 못할 것 같아서’가 29.2%로 가장 높았고, ‘주택연금이 아직 정착되어 있지 않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27.3%), ‘주택을 자녀들에게 상속하기 위해서’(16.6%), ‘노후생활비용을 줄이면 주택연금을 이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11.0%)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IV-93〉 주택연금 사용 의향 없을 시 이유

(n=997 / 단위: %)



〈표 IV-110〉 주택연금 사용 의향 없을 시 이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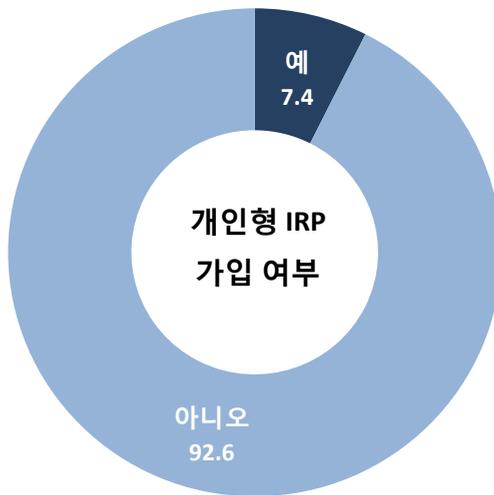
특성별	사례 수	주택을 담보로 할 경우 제 값을 받지 못할 것 같아서	주택연금이 아직 정착되어 있지 않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주택을 자녀들에게 상속하기 위해서	노후생활 비용을 줄이면 주택연금을 이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현재준비 상태로 노후소득 마련이 가능하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가 좋아질 것 같아서	
전체	(997)	29.2	27.3	16.6	11.0	10.0	5.8	
성별	남성	(497)	28.8	27.0	14.7	10.9	12.5	6.2
	여성	(500)	29.6	27.6	18.6	11.2	7.6	5.4
연령	20대	(148)	33.8	37.2	4.7	7.4	12.2	4.7
	30대	(174)	28.2	35.1	9.2	10.9	13.2	3.4
	40대	(203)	26.6	28.1	15.3	15.3	7.9	6.9
	50대	(212)	27.8	25.9	21.7	10.4	6.6	7.5
	60대 이상	(260)	30.4	16.9	25.4	10.4	11.2	5.8
지역규모	대도시	(449)	26.7	27.4	19.4	10.9	10.5	5.1
	중·소도시	(464)	32.3	29.3	11.6	9.9	9.7	7.1
	군지역	(84)	25.0	15.5	29.8	17.9	9.5	2.4
직업	화이트칼라	(237)	28.7	29.1	9.7	13.9	14.8	3.8
	블루칼라	(274)	32.8	26.3	15.7	10.2	9.1	5.8
	농/임/어업	(51)	31.4	23.5	15.7	9.8	9.8	9.8
	자영업	(195)	24.6	28.2	19.5	9.7	9.2	8.7
	주부	(187)	29.9	25.1	24.1	10.7	6.4	3.7
	은퇴자	(13)	15.4	0.0	46.2	7.7	23.1	7.7
	학생	(24)	20.8	58.3	4.2	8.3	4.2	4.2
무직/기타	(16)	37.5	18.8	12.5	12.5	6.3	12.5	
교육 수준	중졸 이하	(106)	30.2	16.0	28.3	9.4	8.5	7.5
	고졸	(483)	29.0	27.7	18.8	10.1	8.3	6.0
	대재 이상	(408)	29.2	29.7	11.0	12.5	12.5	5.1
가구 소득	저소득	(184)	6.5	21.2	11.4	22.8	30.4	7.6
	중소득	(558)	9.1	15.8	9.9	28.5	29.7	7.0
	고소득	(255)	14.5	15.3	13.3	27.8	27.1	2.0

## 8) 개인형 IRP 가입 여부

-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가입되어 있는지 살펴본 결과, ‘예’(7.4%), ‘아니오’(92.6%)로 대부분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가입되어 있지 않음

〈그림 IV-94〉 개인형 IRP 가입 여부

(n=2,200 / 단위: %)



- 연령이 어릴수록, 소득이 많을수록,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IV-111〉 개인형 IRP 가입 여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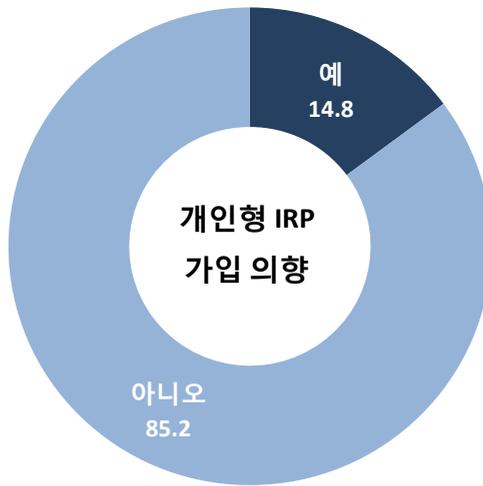
특성별		사례 수	예	아니오
전체		(2,200)	7.4	92.6
성별	남성	(1,092)	9.3	90.7
	여성	(1,108)	5.5	94.5
연령	20대	(357)	11.5	88.5
	30대	(393)	12.5	87.5
	40대	(461)	10.6	89.4
	50대	(446)	4.3	95.7
	60대 이상	(543)	0.9	99.1
지역규모	대도시	(1,006)	7.2	92.8
	중·소도시	(1,007)	8.0	92.0
	군지역	(187)	5.3	94.7
직업	화이트칼라	(580)	18.1	81.9
	블루칼라	(611)	8.3	91.7
	농/임/어업	(95)	0.0	100.0
	자영업	(396)	1.8	98.2
	주부	(409)	0.0	100.0
	은퇴자	(19)	0.0	100.0
	학생	(59)	0.0	100.0
	무직/기타	(31)	0.0	100.0
교육 수준	중졸 이하	(196)	0.0	100.0
	고졸	(1,057)	4.1	95.9
	대재 이상	(946)	12.7	87.3
	모름/무응답	(1)	0.0	100.0
가구 소득	저소득	(406)	3.2	96.8
	중소득	(1,226)	7.0	93.0
	고소득	(568)	11.3	88.7

## 9) 개인형 IRP 가입 의향

-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가입할 의향이 있는지 살펴본 결과, ‘예’(14.8%), ‘아니오’(85.2%)로 가입 의향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IV-95〉 개인형 IRP 가입 의향

(n=2,037 / 단위: %)



- 연령이 낮을수록, 소득이 많을수록,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가입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IV-112〉 개인형 IRP 가입 의향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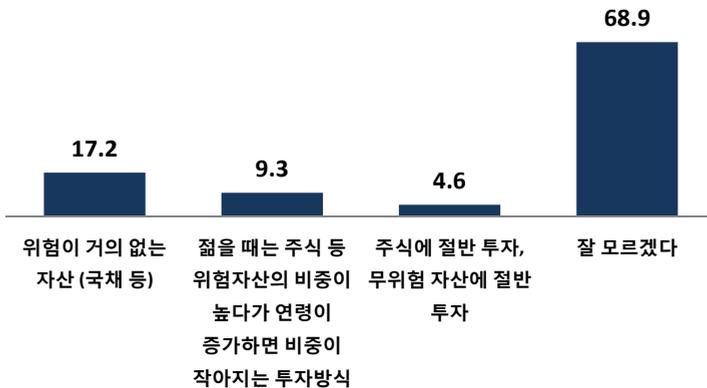
특성별		사례 수	예	아니오
전체		(2,037)	14.8	85.2
성별	남성	(990)	17.2	82.8
	여성	(1,047)	12.6	87.4
연령	20대	(316)	25.6	74.4
	30대	(344)	23.0	77.0
	40대	(412)	15.3	84.7
	50대	(427)	10.5	89.5
	60대 이상	(538)	6.3	93.7
지역규모	대도시	(934)	15.1	84.9
	중·소도시	(926)	15.8	84.2
	군지역	(177)	8.5	91.5
직업	화이트칼라	(475)	23.8	76.2
	블루칼라	(560)	12.7	87.3
	농/임/어업	(95)	4.2	95.8
	자영업	(389)	13.1	86.9
	주부	(409)	9.8	90.2
	은퇴자	(19)	5.3	94.7
	학생	(59)	30.5	69.5
	무직/기타	(31)	12.9	87.1
교육 수준	중졸 이하	(196)	4.1	95.9
	고졸	(1,014)	11.9	88.1
	대재 이상	(826)	20.8	79.2
	모름/무응답	(1)	100.0	0.0
가구 소득	저소득	(393)	6.4	93.6
	중소득	(1,140)	15.6	84.4
	고소득	(504)	19.6	80.4

## 10) 퇴직연금 DC형이나 IRP인 경우 원하는 투자방식

- 가입한 퇴직연금이 DC형이나 IRP인 경우, 투자방식을 직접 결정하지 않는다면 원하는 투자방식을 살펴본 결과, ‘잘 모르겠다’가 68.9%로 가장 많았고, ‘위험이 거의 없는 자산(국채 등)’(17.2%), ‘젊을 때는 주식 등 위험자산의 비중이 높다가 연령이 증가하면 비중이 작아지는 투자방식’(9.3%), ‘주식에 절반 투자, 무위험 자산에 절반 투자’(4.6%) 순으로 나타남

〈그림 IV-96〉 퇴직연금 DC형이나 IRP인 경우 원하는 투자방식

(n=2,037 / 단위: %)



〈표 IV-113〉 퇴직연금 DC형이나 IRP인 경우 원하는 투자방식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위험이 거의 없는 자산 (국채 등)	젊을 때는 주식 등 위험자산의 비중이 높다가 연령이 증가하면 비중이 작아지는 투자방식	주식에 절반 투자, 무위험 자산에 절반 투자	잘 모르겠다
전체	(2,200)	17.2	9.3	4.6	68.9
성별	남성 (1,092)	20.1	12.3	6.7	60.9
	여성 (1,108)	14.4	6.3	2.5	76.8
연령	20대 (357)	23.0	14.3	4.5	58.3
	30대 (393)	22.1	13.0	7.4	57.5
	40대 (461)	17.1	10.8	6.7	65.3
	50대 (446)	15.7	7.4	3.1	73.8
	60대 이상 (543)	11.2	3.5	2.0	83.2
지역규모	대도시 (1,006)	20.3	10.2	5.0	64.5
	중·소도시 (1,007)	15.1	8.5	5.0	71.4
	군지역 (187)	12.3	8.0	0.5	79.1
직업	화이트칼라 (580)	31.4	19.1	8.6	40.9
	블루칼라 (611)	20.8	10.0	5.6	63.7
	농/임/어업 (95)	3.2	4.2	0.0	92.6
	자영업 (396)	15.7	6.8	4.3	73.2
	주부 (409)	0.0	0.0	0.0	100.0
	은퇴자 (19)	26.3	5.3	0.0	68.4
	학생 (59)	0.0	0.0	0.0	100.0
	무직/기타 (31)	0.0	0.0	0.0	100.0
교육 수준	중졸 이하 (196)	10.2	4.6	0.5	84.7
	고졸 (1,057)	14.2	5.6	2.8	77.4
	대재 이상 (946)	22.1	14.4	7.4	56.1
	모름/무응답 (1)	0.0	0.0	0.0	100.0
가구 소득	저소득 (406)	13.5	5.9	2.0	78.6
	중소득 (1,226)	16.6	9.2	4.7	69.5
	고소득 (568)	21.3	11.8	6.2	6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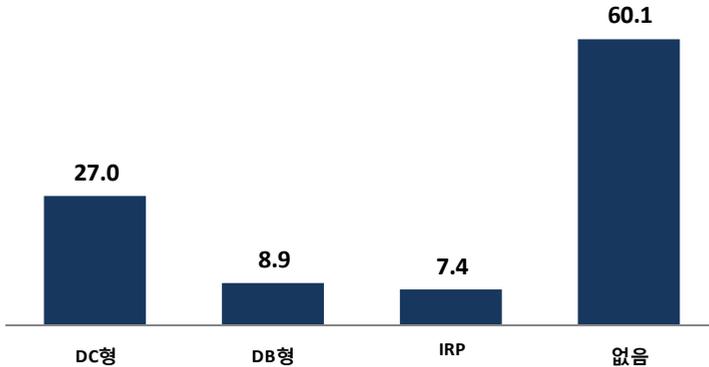
## 5. 퇴직연금 연금수령 선호도

### 가. 가입되어 있는 퇴직연금(복수응답)

- 가입되어 있는 퇴직연금의 유형을 살펴본 결과, ‘없음’이 60.1%로 가장 많았고, ‘DC형’(27.0%), DB형(8.9%), IRP(7.4%) 순으로 나타남

〈그림 IV-97〉 가입되어 있는 퇴직연금(복수응답)

(n=2,200 / 단위: %)



- ‘없음’은 여성(70.8%), 60대 이상(81.0%), 군지역(72.7%), 주부(100.0%), 중졸 이하(82.7%), 저소득(74.9%)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V-114〉 가입되어 있는 퇴직연금(복수응답)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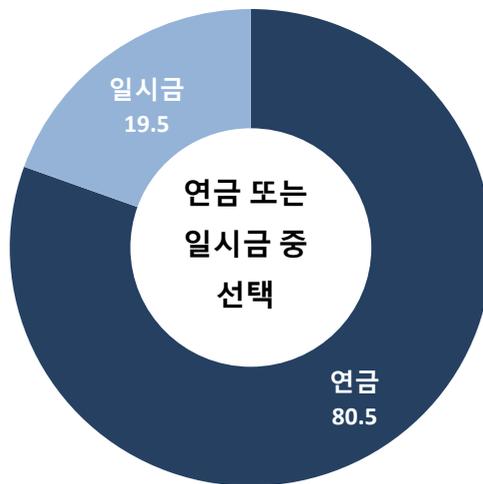
특성별	사례 수	DC형	DB형	IRP	없음	
전체	(2,200)	27.0	8.9	7.4	60.1	
성별	남성	(1,092)	34.3	11.0	9.3	49.3
	여성	(1,108)	19.8	6.8	5.5	70.8
연령	20대	(357)	33.3	9.0	11.5	49.9
	30대	(393)	35.6	15.3	12.5	42.5
	40대	(461)	29.3	11.5	10.6	53.6
	50대	(446)	24.4	9.2	4.3	65.0
	60대 이상	(543)	16.8	1.7	0.9	81.0
지역규모	대도시	(1,006)	31.6	9.8	7.2	55.8
	중·소도시	(1,007)	24.1	8.4	8.0	62.1
	군지역	(187)	17.6	5.9	5.3	72.7
직업	화이트칼라	(580)	48.1	19.3	18.1	23.3
	블루칼라	(611)	32.2	12.1	8.3	50.9
	농/임/어업	(95)	7.4	2.1	0.0	90.5
	자영업	(396)	26.5	1.8	1.8	70.2
	주부	(409)	0.0	0.0	0.0	100.0
	은퇴자	(19)	31.6	0.0	0.0	68.4
	학생	(59)	0.0	0.0	0.0	100.0
	무직/기타	(31)	0.0	0.0	0.0	100.0
교육 수준	중졸 이하	(196)	15.3	2.0	0.0	82.7
	고졸	(1,057)	20.7	5.6	4.1	71.5
	대재 이상	(946)	36.5	14.0	12.7	42.6
	모름/무응답	(1)	0.0	0.0	0.0	100.0
가구 소득	저소득	(406)	19.5	3.9	3.2	74.9
	중소득	(1,226)	27.7	7.8	7.0	60.0
	고소득	(568)	31.0	14.6	11.3	49.6

## 나. 연금 또는 일시금 중 선택

- 은퇴시점이 다가왔을 때, 연금 또는 일시금 중 한 가지만 선택 가능하다면 어느 것을 선택할지 살펴본 결과, 연금(80.5%), 일시금(19.5%) 순으로 나타남

〈그림 IV-98〉 연금 또는 일시금 중 선택

(n=2,200 / 단위: %)



- 도시규모가 클수록, 소득이 많을수록 연금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IV-115〉 연금 또는 일시금 중 선택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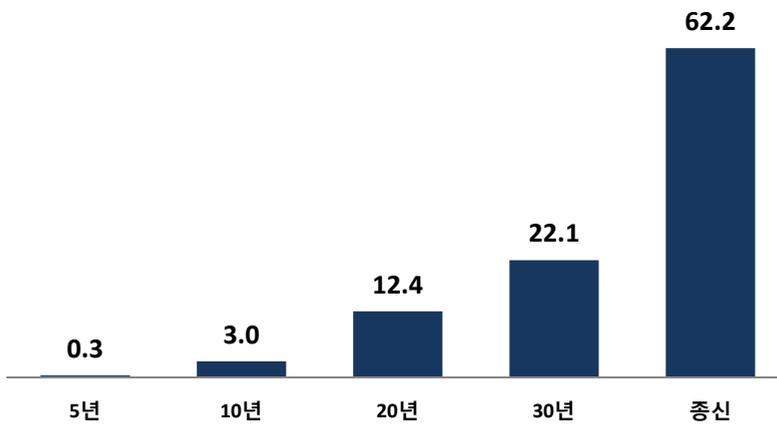
특성별		사례 수	연금	일시금
전체		(2,200)	80.5	19.5
성별	남성	(1,092)	78.7	21.3
	여성	(1,108)	82.3	17.7
연령	20대	(357)	72.3	27.7
	30대	(393)	82.4	17.6
	40대	(461)	81.8	18.2
	50대	(446)	80.0	20.0
	60대 이상	(543)	83.8	16.2
지역규모	대도시	(1,006)	84.3	15.7
	중·소도시	(1,007)	79.2	20.8
	군지역	(187)	66.8	33.2
직업	화이트칼라	(580)	82.2	17.8
	블루칼라	(611)	77.7	22.3
	농/임/어업	(95)	64.2	35.8
	자영업	(396)	80.1	19.9
	주부	(409)	86.1	13.9
	은퇴자	(19)	89.5	10.5
	학생	(59)	81.4	18.6
	무직/기타	(31)	77.4	22.6
교육 수준	중졸 이하	(196)	80.1	19.9
	고졸	(1,057)	79.8	20.2
	대재 이상	(946)	81.4	18.6
	모름/무응답	(1)	100.0	0.0
가구 소득	저소득	(406)	76.8	23.2
	중소득	(1,226)	80.6	19.4
	고소득	(568)	82.9	17.1

## 다. 선호하는 연금수령 기간

- 연금을 선택했을 경우, 선호하는 연금수령 기간을 살펴본 결과, 종신이 62.2%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30년(22.1%), 20년(12.4%)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IV-99〉 선호하는 연금수령 기간

(n=1,771 / 단위: %)



〈표 IV-116〉 선호하는 연금수령 기간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5년	10년	20년	30년	종신
전체		(1,771)	0.3	3.0	12.4	22.1	62.2
성별	남성	(859)	0.3	3.1	11.1	22.7	62.7
	여성	(912)	0.3	2.9	13.7	21.5	61.6
연령	20대	(258)	0.8	2.7	12.0	21.3	63.2
	30대	(324)	0.6	3.4	9.9	25.6	60.5
	40대	(377)	0.3	3.2	11.7	24.1	60.7
	50대	(357)	0.3	3.4	14.6	21.0	60.8
	60대 이상	(455)	0.0	2.4	13.4	19.1	65.1
지역규모	대도시	(848)	0.6	4.5	12.7	18.8	63.4
	중·소도시	(798)	0.0	1.4	11.9	26.3	60.4
	군지역	(125)	0.8	3.2	13.6	17.6	64.8
직업	화이트칼라	(477)	0.2	3.6	10.9	24.3	61.0
	블루칼라	(475)	0.4	3.4	13.5	25.9	56.8
	농/임/어업	(61)	0.0	0.0	3.3	23.0	73.8
	자영업	(317)	0.3	2.2	14.2	18.3	65.0
	주부	(352)	0.3	3.1	13.1	19.6	63.9
	은퇴자	(17)	0.0	0.0	11.8	0.0	88.2
	학생	(48)	2.1	0.0	8.3	14.6	75.0
	무직/기타	(24)	0.0	8.3	20.8	16.7	54.2
교육 수준	중졸 이하	(157)	0.0	0.0	16.6	17.2	66.2
	고졸	(843)	0.4	2.7	13.6	22.5	60.7
	대재 이상	(770)	0.4	3.9	10.1	22.6	63.0
	모름/무응답	(1)	0.0	0.0	100.0	0.0	0.0
가구 소득	저소득	(312)	0.0	1.3	11.5	20.5	66.7
	중소득	(988)	0.3	2.9	12.7	22.1	62.0
	고소득	(471)	0.6	4.2	12.5	23.1	5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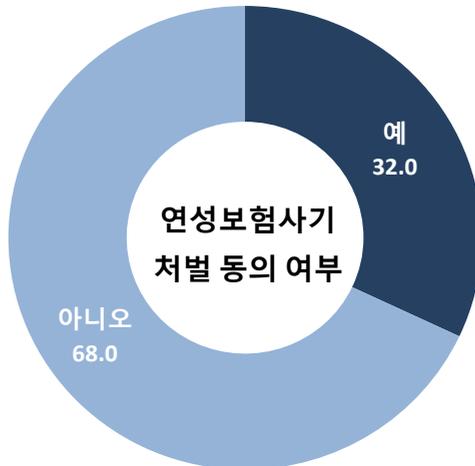
## 6. 연성보험사기 관련

### 가. 연성보험사기 처벌 동의 여부

- 가벼운 접촉사고 이후에 병원에 입원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임에도 병원에 하루나 이틀 정도 병원에 입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살펴본 결과, ‘아니오’(68.0%)가 ‘예’(32.0%)에 2배 이상 비해 높게 나타남

〈그림 IV-100〉 연성보험사기 처벌 동의 여부

(n=2,200 / 단위: %)



〈표 IV-117〉 연성보험사기 처벌 동의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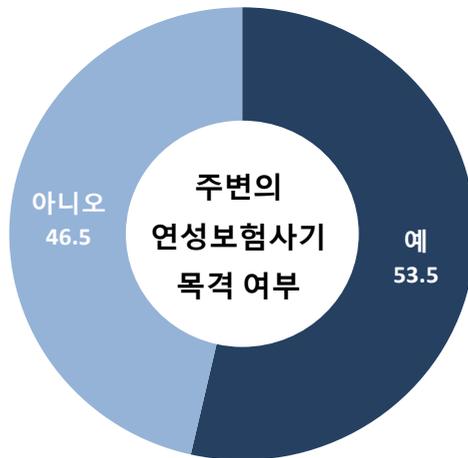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예	아니오 (보험사기범으로 처벌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전체		(2,200)	32.0	68.0
성별	남성	(1,092)	31.0	69.0
	여성	(1,108)	33.0	67.0
연령	20대	(357)	32.2	67.8
	30대	(393)	35.9	64.1
	40대	(461)	30.4	69.6
	50대	(446)	29.4	70.6
	60대 이상	(543)	32.6	67.4
지역규모	대도시	(1,006)	31.4	68.6
	중·소도시	(1,007)	32.9	67.1
	군지역	(187)	30.5	69.5
직업	화이트칼라	(580)	31.4	68.6
	블루칼라	(611)	34.0	66.0
	농/임/어업	(95)	18.9	81.1
	자영업	(396)	31.6	68.4
	주부	(409)	33.0	67.0
	은퇴자	(19)	21.1	78.9
	학생	(59)	40.7	59.3
	무직/기타	(31)	25.8	74.2
교육 수준	중졸 이하	(196)	28.6	71.4
	고졸	(1,057)	32.2	67.8
	대재 이상	(946)	32.5	67.5
	모름/무응답	(1)	100.0	0.0
가구 소득	저소득	(406)	30.8	69.2
	중소득	(1,226)	33.1	66.9
	고소득	(568)	30.5	69.5

### 나. 주변의 연성보험사기 목격 여부

- 가벼운 교통사고 이후 불필요하게 오래 병원에 머무르는 연성보험사기를 목격한 적이 있는지 살펴본 결과, '예'라는 응답이 53.5%, '아니오'라는 응답이 46.5%로 나왔음

〈그림 IV-101〉 주변의 연성보험사기 목격 여부  
(n=2,200 / 단위: %)



〈표 IV-118〉 주변의 연성보험사기 목격 여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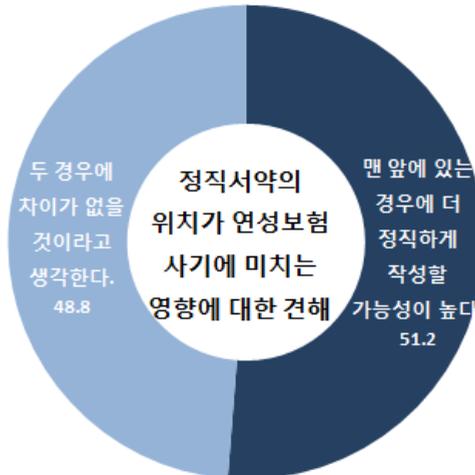
특성별		사례 수	예	아니오
전체		(2,200)	53.5	46.5
성별	남성	(1,092)	53.1	46.9
	여성	(1,108)	54.0	46.0
연령	20대	(357)	47.3	52.7
	30대	(393)	54.7	45.3
	40대	(461)	53.8	46.2
	50대	(446)	55.8	44.2
	60대 이상	(543)	54.7	45.3
지역규모	대도시	(1,006)	54.4	45.6
	중·소도시	(1,007)	52.2	47.8
	군지역	(187)	56.1	43.9
직업	화이트칼라	(580)	49.5	50.5
	블루칼라	(611)	54.3	45.7
	농/임/어업	(95)	55.8	44.2
	자영업	(396)	60.6	39.4
	주부	(409)	53.1	46.9
	은퇴자	(19)	52.6	47.4
	학생	(59)	42.4	57.6
	무직/기타	(31)	45.2	54.8
교육 수준	중졸 이하	(196)	57.7	42.3
	고졸	(1,057)	52.7	47.3
	대재 이상	(946)	53.6	46.4
	모름/무응답	(1)	100.0	0.0
가구 소득	저소득	(406)	51.2	48.8
	중소득	(1,226)	53.3	46.7
	고소득	(568)	55.8	44.2

### 다. 보험금 청구 작성에 영향 미치는 형태

- ‘정직하게 작성하겠다’는 서약이 청구서의 맨 앞에 있을 때와 맨 뒤에 있을 때 청구서 작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본 결과, ‘맨 앞에 있는 경우에 사람들이 더 정직하게 작성할 가능성이 높다’가 51.2%, ‘두 경우에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가 48.8%로 나타남

〈그림 IV-102〉 정직서약의 위치가 연성보험사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견해

(n=2,200 / 단위: %)



〈표 IV-119〉 정직서약의 위치가 연성보험사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견해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맨 앞에 있는 경우에 더 정직하게 작성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두 경우에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전체	(2,200)	51.2	48.8	
성별	남성	(1,092)	51.1	48.9
	여성	(1,108)	51.4	48.6
연령	20대	(357)	54.3	45.7
	30대	(393)	49.9	50.1
	40대	(461)	51.8	48.2
	50대	(446)	54.3	45.7
	60대 이상	(543)	47.1	52.9
지역규모	대도시	(1,006)	46.7	53.3
	중·소도시	(1,007)	53.4	46.6
	군지역	(187)	63.6	36.4
직업	화이트칼라	(580)	46.9	53.1
	블루칼라	(611)	49.4	50.6
	농/임/어업	(95)	65.3	34.7
	자영업	(396)	54.8	45.2
	주부	(409)	53.3	46.7
	은퇴자	(19)	52.6	47.4
	학생	(59)	54.2	45.8
	무직/기타	(31)	45.2	54.8
교육 수준	중졸 이하	(196)	49.5	50.5
	고졸	(1,057)	52.0	48.0
	대재 이상	(946)	50.7	49.3
	모름/무응답	(1)	0.0	100.0
가구 소득	저소득	(406)	46.3	53.7
	중소득	(1,226)	54.4	45.6
	고소득	(568)	47.9	52.1

# 부록: 설문지

## 2017년도 보험 소비자 설문조사

ID

안녕하십니까?

보험연구원은 보험을 중심으로 한 금융제도 전반에 대한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연구와 실천적인 대안 제시를 위해 설립된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본 조사는 보험소비자의 금융/보험 수요를 파악을 위해 매년 실시되는 조사로 보험회사의 상품설계, 마케팅 정책 등 경영전략의 방향을 수립을 목적으로 하는 조사입니다.

본 조사 자료는 향후 보험소비자 대상서비스 확대 및 개선에 반영될 예정이며 통계처리 이외의 목적에는 절대 사용되지 않으니 귀하의 의견을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 시간을 내서 조사에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본 조사의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의거하여 비밀이 철저히 보장되며, 실명에 대한 모든 응답과 내용은 통계분석과 정책개발 목적 이외에는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 ■

2017년 6월

주 관 기 관	 보험연구원	● 홈페이지 : <a href="http://www.kiri.or.kr/">http://www.kiri.or.kr/</a> ● 담당자 : 보험연구원 기획행정실 ●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여의도동 35-4)
		(주)코리아리서치센터 ● 홈페이지 : <a href="http://www.kric.com">http://www.kric.com</a> ● 담당자 : 사회여론조사본부 연구 2팀(02-3415-5119) ●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7길 12 허버허버빌딩
조 사 기 관	 코리아리서치	

### 면접원 기록

면접원 이름	S/V확인	검증원 확인	코딩원 확인
집계구 코드 (13자리)			

### 응답자 정보

응답자 성명	응답자 연락처
응답자 주소	※ 응답자 주소의 시/군/구까지 적어 주세요. _____시/도 _____시/군/구 _____읍/면/동
면접 일시	2017년 ____월 ____일





문6. 귀하께서 최근 3년 내(2014년~2016년) 가입하신 생명보험 상품 종류와 보험회사(보기3)를 말씀해 주시고, 가입한 생명보험 상품에 대해 계약 시 기대했던 상품 내용(가격 및 서비스 등 전반적 만족도) 대비 가입 후 실제 상품 내용에 얼마나 만족하시는지 평가해 주십시오.

※ 같은 보험종류를 2개 이상 가입한 경우, 중요한 보험 상품 기준으로 응답해주세요.

☞ 최근 3년 내 가입하신 상품이 없으시면 무응답으로 가세요

보험 상품 종류		가입 회사 (보기3)	가입 상품에 대한 만족도					
			매우 불만족	불만족 하는편	보통	만족 하는편	매우 만족	
6-1	실손의료보험		①	②	③	④	⑤	
6-2	질병보장보험(암, 심혈관질환 등)		①	②	③	④	⑤	
6-3	재해(상해)보험		①	②	③	④	⑤	
6-4	간병보험		①	②	③	④	⑤	
6-5	사망보험	중신보험(지명적 질병보험(CI), 유니버설 중신보험 등)	①	②	③	④	⑤	
		정기보험	①	②	③	④	⑤	
6-6	저축성보험(저축중심)		①	②	③	④	⑤	
6-7	연금보험(공무원연금, 국민연금 등 제외)		①	②	③	④	⑤	
6-8	어린이보장보험(15세 미만)		①	②	③	④	⑤	
6-9	변액보험	변액연금	①	②	③	④	⑤	
		변액유니버설	연금	①	②	③	④	⑤
			중신	①	②	③	④	⑤
	변액중신	①	②	③	④	⑤		

(보기3) 보험 회사

① 한화생명(구 대한생명)    ② 삼성생명    ③ 교보생명

④ 흥국생명    ⑤ 현대라이프(구 녹십자생명)    ⑥ 신한생명  
 ⑦ 동부생명    ⑧ 중앙생명    ⑨ DGB생명(구 우리아비바, 구 LIG생명)  
 ⑩ KDB생명    ⑪ 미래에셋생명    ⑫ 하나생명(구 하나HSBC)  
 ⑬ ING생명    ⑭ KB생명    ⑮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  
 ⑯ IBK연금보험    ⑰ NH농협생명

⑱ 알리안츠생명    ⑲ 메트라이프생명    ⑳ PCA생명  
 ㉑ 저브라이프생명 (구 ACE생명, 뉴욕생명)    ㉒ BNP파리바 카디프생명(구 카디프생명, 구 SH&C생명)  
 ㉓ AIA생명(구 AIG생명)    ㉔ 라이나생명    ㉕ 푸르덴셜생명

㉖ 우체국    ㉗ 새마을금고 등 기타공제

㉘ 기타( )

문7. 귀하께서 가입하신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어느 정도 만족하고 계십니까? 다음의 각 항목들에 대해 만족도를 1점에서 5점 사이(예: '매우 불만족' 1점, '매우 만족' 5점)로 평가해 주십시오.

항목	생명보험사 제공 서비스 만족도					해당없음
	매우 불만족	불만족 하는편	보통	만족 하는편	매우 만족	
7-1 (자세한 설명, 친절한 태도, 신속한 계약절차 등) 계약 체결할 때 제공된 서비스	①	②	③	④	⑤	
7-2 (건강정보 서비스, 지속적 관심 등) 계약을 유지하는 중 제공된 서비스	①	②	③	④	⑤	
7-3 문3-1 ~ 문 3-12에서 지급 받은 경험이 있는 응답자만 (보험금의 신속한 지급 등) 보상서비스	①	②	③	④	⑤	⑨

문8. 귀하께서는 향후 1년 내 생명보험 상품에 가입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향후 보험 가입 의향의 ③, ④번 응답자) 또한, 향후 생명보험 상품 가입 시 어느 경로를 통해 보험에 가입하시겠습니까?

※ 보험 상품별로 가입 의향과 선호하는 가입경로(보기4), 선호이유(보기5)는 아래 보기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항 목	향후 보험 가입 의향				(가입의향 ③,④ 응답자만 선호 가입경로(보기4))	가입경로 선호 이유(보기5)		
	전혀 없다	별로 없다	약간 있다	매우 있다		1순위	2순위	
8-1	실손의료보험	①	②	③	④			
8-2	질병보장보험(암, 심혈관질환 등)	①	②	③	④			
8-3	재해(상해)보험	①	②	③	④			
8-4	간병보험	①	②	③	④			
8-5	사망보험	①	②	③	④			
	중신보험(치명적 질병보험(CI), 유니버설 중신보험 등) 정기보험							
8-6	저축성보험(저축중심)	①	②	③	④			
8-7	연금보험(공무원연금, 국민연금 등 제외)	①	②	③	④			
8-8	어린이보장보험(15세 미만)	①	②	③	④			
8-9	변액연금	①	②	③	④			
	변액유니버설	연금	①	②	③	④		
		중신	①	②	③	④		
	변액중신	①	②	③	④			

(보기4) 선호 가입 경로

- ① 보험설계사, 보험회사 소속 대리점
- ② 대형법인대리점(GA)
- ③ 보험회사 임직원 등
- ④ 인터넷
- ⑤ 보험회사 통신판매(전화/우편/카드)
- ⑥ 은행, 증권회사 등
- ⑦ TV 쇼핑채널(홈쇼핑)
- ⑧ 대형 할인점
- ⑨ 기타(\_\_\_\_\_ )

(보기5) 가입 경로 선호 이유

- ① 가입이 편리해서
- ② 가격이 저렴해서
- ③ 정보획득이 용이해서
- ④ 재무설계 등의 전문성 때문에
- ⑤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서
- ⑥ 권유자와의 친분 때문에
- ⑦ 보험사의 서비스가 좋아서
- ⑧ 보험설계사가 친절해서
- ⑨ 기타(\_\_\_\_\_ )

문9. 귀하께서 향후 생명보험회사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할 요인 2가지를 순서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

- ① 상품 경쟁력(보장의 다양성 및 니즈 반영)
- ② 보험회사 브랜드의 신뢰성
- ③ 가격 경쟁력
- ④ 개인적 관계(가족, 친구 및 동료의 권유)
- ⑤ 서비스 지원(계약, 보상 등)
- ⑥ 과거 거래경험
- ⑦ 회사 규모
- ⑧ 계약체결의 편의성
- ⑨ 고객을 중시하는 경영철학
- ⑩ 설계사의 전문적 재무설계 능력
- ⑪ 기타(\_\_\_\_\_ )

II. 손해보험 가입상태

문10. 귀하를 포함하여 귀하의 맥에서 현재 가입되어 있는 손해보험이 있으십니까?

- ① 있다 ➡ 문11번으로      ② 없다 ➡ 문17번으로

문11. (문10에서 ①번 응답자만) 귀하를 포함한 귀하의 맥에서 가입한 손해보험 상품 종류와 보험 상품별 가입건수를 말씀해 주십시오.

보험 상품 종류		가입 여부	가입 건수
11-1	자동차보험(개인용 승용차)	① 가입 ② 비가입	( __ )건
11-2	장기 손해 보험 (3년이상)	실손의료보험	① 가입 ② 비가입 ( __ )건
		상해(운전자보험, 장애보험 등)	① 가입 ② 비가입 ( __ )건
		질병(암, 심혈관질환 등)	① 가입 ② 비가입 ( __ )건
		간병보험	① 가입 ② 비가입 ( __ )건
		종합(재물, 화재, 배상책임, 신체손해 등)	① 가입 ② 비가입 ( __ )건
		저축성 보험(개인연금 포함)	① 가입 ② 비가입 ( __ )건
	어린이보장보험(15세 미만)	① 가입 ② 비가입 ( __ )건	
11-3	상해보험(여행, 교통상해 3년 이내)	① 가입 ② 비가입	( __ )건
11-4	기타 ( _____ )	① 가입 ② 비가입	( __ )건

문12. 귀하를 포함하여 귀하의 맥에서 가입하신 손해보험을 통해 지난 한 해 동안 보험금을 지급받은 경험을 모두 기재하여 주십시오.

보험 상품 종류		건수	금액
12-1	실손의료보험	입원	( __ )건 ( _____ )원
		외래	( __ )건 ( _____ )원
		약	( __ )건 ( _____ )원
12-2	중증질병(암, 심혈관질환 등)	( __ )건	( _____ )원
12-3	일반질병	( __ )건	( _____ )원
12-4	성인병(당뇨, 고혈압 등)	( __ )건	( _____ )원
12-5	재해(상해)	( __ )건	( _____ )원
12-6	치매	( __ )건	( _____ )원
12-7	사망	( __ )건	( _____ )원
12-8	저축(개인연금 등 포함)	( __ )건	( _____ )원
12-9	교통사고(자동차, 기타 교통) : 교통사고에는 자동차보험으로 보장받은 경우도 포함	( __ )건	( _____ )원
12-10	재산손실	( __ )건	( _____ )원
12-11	자녀(15세 미만)에 대한 보장	( __ )건	( _____ )원
12-12	기타	( __ )건	( _____ )원
12-13	지급받은 경험 없음 ➡ 문13번으로		

문13. (응답자 본인 기준) 귀하께서는 현재 가입되어 있는 손해보험이 있으십니까?

- ① 있다 ➡ 문14번으로      ② 없다 ➡ 문17번으로

문14. (문13에서 ①번 응답자만) 귀하께서 가입한 손해보험 상품 종류와 해당 보험 상품의 가입건수를 말씀해 주시고, 가입경로(보기1)와 가입이유(보기2)를 보기를 참조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 같은 보험종류를 2개 이상 가입한 경우, 가입경로와 가입이유는 중요한 보험상품 기준으로 응답해주세요.

보험상품 종류		가입 여부	가입 건수	가입 경로 (보기1)	가입 이유 (보기2)
14-1	자동차보험(개인용 승용차)	① 가입 ② 비가입	( )건		
14-2	장기 손해 보험 (3년 이상)	실손의료보험	① 가입 ② 비가입	( )건	
		상해(운전자보험, 장해보험 등)	① 가입 ② 비가입	( )건	
		질병(암, 심혈관질환 등)	① 가입 ② 비가입	( )건	
		간병보험	① 가입 ② 비가입	( )건	
		종합(재물, 화재, 배상책임, 신체 손해 등)	① 가입 ② 비가입	( )건	
		저축성 보험(개인연금 포함)	① 가입 ② 비가입	( )건	
	어린이보장보험(15세 미만)	① 가입 ② 비가입	( )건		
14-3	상해보험(여행, 교통상해 3년 이내)	① 가입 ② 비가입	( )건		
14-4	기타( )	① 가입 ② 비가입	( )건		

(보기1) 가입 경로

- ① 보험설계사, 보험회사 소속 대리점
- ② 대형법인대리점(GA)
- ③ 보험회사 임직원 등
- ④ 인터넷
- ⑤ 보험회사 통신판매(전화/우편/카드)
- ⑥ 은행, 증권회사 등
- ⑦ TV 쇼핑채널(홈쇼핑)
- ⑧ 대형 할인점
- ⑨ 기타( )

(보기2) 가입 이유

- ① 위험에 대비한 보장
- ② 목돈마련을 위한 저축수단
- ③ 자산증식을 위한 투자수단
- ④ 노후자금 마련
- ⑤ 자녀에게 유산상속 목적
- ⑥ 타 금융상품과 비교하여 유리한 세제혜택
- ⑦ 기타( )

문15. 귀하(본인)께서 최근 3년 내(2014년~2016년) 가입하신 손해보험 상품 종류와 보험회사(보기6)를 말씀해 주시고, 가입한 손해보험 상품에 대해 계약 시 기대했던 상품 내용(가격 및 서비스 등 전반적 만족도) 대비, 가입 후 실제 상품 내용에 얼마나 만족하시는지 평가해 주십시오.

※ 같은 보험종류 2개 이상 가입한 경우, 중요한 보험상품 기준으로 응답해 주세요.

▶ 최근 3년 내 가입하신 상품이 없으시면 유17번으로 가세요

보험상품종류	가입 회사 (보기6)	가입상품에 대한 만족도					
		매우 불만족	불만족 하는편	보통	만족 하는편	매우 만족	
15-1	자동차보험(개인용 승용차, 1년 이내)	①	②	③	④	⑤	
15-2	장기 손해 보험 (3년 이상)	실손의료보험	①	②	③	④	⑤
		상해(운전자보험, 장해보험 등)	①	②	③	④	⑤
		질병(암, 심혈관질환 등)	①	②	③	④	⑤
		간병보험	①	②	③	④	⑤
		종합(재물, 화재, 배상책임, 신체 손해 등)	①	②	③	④	⑤
		저축성 보험(개인연금 포함)	①	②	③	④	⑤
	어린이보장보험(15세 미만)	①	②	③	④	⑤	
15-3	상해보험(여행, 교통상해 3년 이내)	①	②	③	④	⑤	
15-4	기타( )	①	②	③	④	⑤	

(보기6) 보험 회사

- |                                   |                       |                  |
|-----------------------------------|-----------------------|------------------|
| ① 삼성화재                            | ② 현대해상(현대하이커다다이렉트 포함) |                  |
| ③ KB손해보험(구LIIG손해보험)               | ④ 동부화재                |                  |
| ⑤ 메리츠화재(구 동양화재)                   | ⑥ 한화손해보험              | ⑦ 롯데손해보험(구 대한화재) |
| ⑧ MG손해보험(구 그린손해보험)                | ⑨ 흥국화재(구 흥국상용화재)      |                  |
| ⑩ AIG손해보험(구 차티스, AHA손해보험)         | ⑪ 에이스화재(ACE, CHUBB)   | ⑫ NH농협손해보험       |
| ⑬ AXA손해보험(구 교보AXA손해보험, 구 교보자동차보험) |                       |                  |
| ⑭ 더케이손해보험회사(구 교원나라 자동차보험)         |                       |                  |
| ⑮ BNP파리바카디프손해보험(구 예르코다음다이렉트)      |                       |                  |
| ⑯ 우체국                             | ⑰ 기타공제                |                  |
| ⑱ 기타( )                           |                       |                  |

문16. 귀하께서 가입하신 손해보험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어느 정도 만족하고 계십니까? 다음의 각 항목들에 대해 만족도를 1점에서 5점 사이(예: '매우 불만족' 1점, '매우 만족' 5점)로 평가해 주십시오.

항목	생명보험사 제공 서비스 만족도					해당없음
	매우 불만족	불만족하는편	보통	만족하는편	매우 만족	
16-1 (지세한 설명, 친절한 태도, 신속한 계약절차 등) 계약 체결할 때 제공된 서비스	①	②	③	④	⑤	
16-2 (건강정보 서비스, 지속적 관심 등) 계약을 유지하는 중 제공된 서비스	①	②	③	④	⑤	
16-3 <b>→ 문12-1 ~ 문 12-12에서 지급받은 경험이 있는 응답자만</b> (보험금의 신속한 지급 등) 보상서비스	①	②	③	④	⑤	⑨

문17. 귀하께서는 향후 1년 내 손해보험 상품에 가입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향후 보험 가입 의향의 ③, ④번 응답자) 또한, 향후 손해보험 상품에 가입 시, 어느 경로를 통해 보험에 가입하시겠습니까? 보험 상품별로 가입의향과 선호하는 가입경로(보기4)와 선호이유(보기5)는 아래 보기를 참조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항 목	향후 보험 가입 의향				가입의향 ③,④ 응답자만 선호 가입경로 (보기4)	가입 경로 선호 이유(보기5)	
	전혀 없다	별로 없다	약간 있다	매우 있다		이유1	이유2
17-1 자동차보험(개인용 승용차)	①	②	③	④			
17-2 장기 손해 보험 (3년 이상)	실손의료보험	①	②	③	④		
	상해(운전자보험, 장해보험 등)	①	②	③	④		
	질병(암, 심혈관질환 등)	①	②	③	④		
	간병보험	①	②	③	④		
	종합(재물, 화재, 배상책임, 신체손해 등)	①	②	③	④		
	저축성 보험(개인연금 포함)	①	②	③	④		
17-3 상해보험(여행, 교통상해 3년 이내)	①	②	③	④			
17-4 기타( )	①	②	③	④			

**(보기4) 선호 가입 경로**

- |                      |                       |              |
|----------------------|-----------------------|--------------|
| ① 보험설계사, 보험회사 소속 대리점 | ② 대형법인대리점(GA)         | ③ 보험회사 임직원 등 |
| ④ 인터넷                | ⑤ 보험회사 통신판매(전화/우편/카드) | ⑥ 은행 증권회사 등  |
| ⑦ TV 쇼핑채널(홈쇼핑)       | ⑧ 대형 할인점              | ⑨ 기타( )      |

**(보기5) 가입 경로 선호 이유**

- |                   |                 |                |
|-------------------|-----------------|----------------|
| ① 가입이 편리해서        | ② 가격이 저렴해서      | ③ 정보획득이 용이해서   |
| ④ 재무설계 등의 전문성 때문에 | ⑤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서 | ⑥ 권유자와의 친분 때문에 |
| ⑦ 보험사의 서비스가 좋아서   | ⑧ 보험설계사가 친절해서   | ⑨ 기타( )        |

문18. 귀하께서 향후 손해보험회사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할 요인 2가지를 순서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

- |                           |                           |
|---------------------------|---------------------------|
| ① 상품 경쟁력(보장의 다양성 및 니즈 반영) | ② 보험회사 브랜드의 신뢰성           |
| ③ 가격 경쟁력                  | ④ 개인적 관계(가족, 친구 및 동료의 권유) |
| ⑤ 서비스 지원(계약, 보상 등)        | ⑥ 과거 거래경험                 |
| ⑦ 회사 규모                   | ⑧ 계약체결의 편의성               |
| ⑨ 고객을 중시하는 경영철학           | ⑩ 설계사의 전문적 재무설계 능력        |
| ⑪ 기타( )                   |                           |

**III. 실손의료보험**

문19. 현재 귀하의 건강상태는 오래 연령증과 비교했을 때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
|---------------|--------------|--------|
| ① 매우 건강하다     | ② 건강한 편이다    | ③ 보통이다 |
| ④ 건강하지 않은 편이다 | ⑤ 매우 건강하지 않다 |        |

문20. 귀하가 가입되어 있는 국민건강보험의 유형은 무엇입니까?

- |                      |            |        |
|----------------------|------------|--------|
| ① 직장 건강보험            | ② 지역 건강보험  | ③ 의료급여 |
| ④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급여정지 | ⑤ 국가유공자 특례 | ⑥ 미가입  |

문21. 귀하(본인)께서는 현재 개인 혹은 단체 실손의료보험\*을 가입하셨습니다가?(개인·단체 모두 가입시 둘다 체크)

※ 실손의료보험: 국민건강보험이 적용 되지 않는 치료비용을 보상해주는 보험 상품

- |                 |           |
|-----------------|-----------|
| ① 있다(개인 실손의료보험) | ➡ 문 24번으로 |
| ② 있다(단체 실손의료보험) | ➡ 문 24번으로 |
| ③ 없다            | ➡ 문 22번으로 |

문22. (문21에서 ③번 응답자만) 귀하께서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두 선택하여 주십시오.

- |                       |              |
|-----------------------|--------------|
| ① 국민건강보험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 ② 보험료가 부담되어서 |
| ③ 가입 절차가 번거로워서        | ④ 가입을 거절당해서  |
| ⑤ 현재는 건강하여 필요성을 못 느낌  | ⑥ 기타( )      |

문23. (문21에서 ③번 응답자만) 그럼, 귀하께서는 향후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 ① 있다 ▶ 문 23.1번으로
- ② 없다 ▶ 문 35번으로

문23-1. (문23에서 ①번 응답자만) 그럼, 귀하께서는 2017년 4월부터 새로 판매된 실손의료보험 상품에서 어디까지 가입하길 원하십니까?

- ① 기본형만 가입 ▶ 문 35번으로
- ② 기본형과 특약 모두 가입 ▶ 문 35번으로
- ③ 기본형과 특약 일부 가입 (특약 ①~③ 중 가입을 희망하는 특약 기입 : \_\_\_\_\_) ▶ 문 35번으로

**<2017년 4월부터 판매된 실손의료보험 내용>**

<b>현 행</b>	대다수 질병·상해에 대한 진료행위 (기본형+특약①,②,③의 보장범위와 동일)	➔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background-color: #d9e1f2;">기본형</td> <td>대다수 질병·상해에 대한 진료행위</td> </tr> <tr> <td style="background-color: #d9e1f2;">특약①</td> <td>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td> </tr> <tr> <td style="background-color: #d9e1f2;">특약②</td> <td>비급여 주사제</td> </tr> <tr> <td style="background-color: #d9e1f2;">특약③</td> <td>비급여 MRI 검사</td> </tr> </table>	기본형	대다수 질병·상해에 대한 진료행위	특약①	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	특약②	비급여 주사제	특약③	비급여 MRI 검사
기본형	대다수 질병·상해에 대한 진료행위										
특약①	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										
특약②	비급여 주사제										
특약③	비급여 MRI 검사										

- 1) **도수치료**: 손으로 마사지하여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고 관절을 바로 잡아주는 치료방법
- 2) **체외충격파 치료**: 외부에서 충격파를 병변부위에 전달하여 통증완화·손상조직의 재생을 촉진
- 3) **증식치료**: 만성적 근골격계 통증이 있는 부위나 인대나 건이 빠져 부작하는 부위에 증식물질을 주사하여 통증 완화 유도(인대 강화 주사 등)
- 4) **비급여 주사제**: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지 않는 주사제(신데렐라주사, 마늘주사 등)
- 5) **비급여 MRI 검사**: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지 않는 MRI검사

문24. 귀하께서 실손의료보험을 가입하신 연도를 말씀해 주십시오. (개인·단체 모두 가입시 둘다 연도 기입)

	실손의료보험 유형	년도
24-1	개인	_____ 년
24-2	단체	_____ 년

문25. 귀하께서는 과거에 실손의료보험을 해지하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 ① 있다 ▶ 문26번으로
- ② 없다 ▶ 문27번으로

문26. 귀하께서는 과거에 실손의료보험을 해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최대 2개 응답 가능)

- ① 의료이용이 적어 불필요하다고 생각해서
- ② 보험료가 부담되어서
- ③ 국민건강보험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 ④ 갱신기간을 놓쳐서
- ⑤ 기타( \_\_\_\_\_ )

문27. 귀하께서는 지금까지 병원에서 실손의료보험의 보장을 근거로 필요 이상의 비급여 치료를 권유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 ① 있다 >문27-1번으로      ② 없다 >문27-2번으로

문27-1. (문27에서 ①번 응답자만) 그럼, 귀하께서 기억하시기로 병원에서 권유한 치료는 무엇입니까?  
(최대 3개까지 기입 가능)

27-1-1	치료1	
27-1-2	치료2	
27-1-3	치료3	

문27-2. (문27에서 ②번 응답자만) 귀하께서 가입하신 실손의료보험의 유형과 회사의 종류를 아래에서 선택해 주십시오.

27-2-1	실손의료 보험의 유형	① 단독형*      ② 특약형** * 단독형 : 다른 보장내역 없이 실손의료보험만으로 구성되어 단독으로 가입 가능한 상품 **특약형 : 사망 및 후유장애를 주계약으로 하여 실손의료보험을 특약으로 가입할 수 있는 상품
27-2-2	보험 회사의 종류	① 생명보험사(농협 포함)      ② 손해보험사      ③ 우체국 및 기타 공제

문28. 귀하께서 가입하신 실손의료보험 계약의 갱신 주기\*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 갱신 주기 : 보험료가 변동되는 일정 주기를 말함

- ① 1년      ② 3년      ③ 5년      ④ 비갱신형

문29. 귀하께서 가입하신 실손의료보험은 본인 부담 의료비\*의 몇 %를 보장해 주고 있습니까?

혹은 본인이 직접 지불한 의료비의 몇 %를 보험회사로부터 환급받으셨습니까?

\* 본인 부담 의료비 :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해 주지 않는 의료비로 본인이 의료기관에 직접 납입한 금액

- ① 100%(전액보상)      ② 90%      ③ 80%      ④ 기타( \_\_\_\_\_ %)      ⑤ 모름

문30. 실손의료보험에 관한 다음 항목에 대해 선호도를 표시해 주십시오.

번호	A	A를 매우 선호	A를 선호 하는 편	A와 B 를 다 상관 없음	B를 선호 하는 편	B를 매우 선호	B
30-1	보험료는 매우 저렴하지만 보장금액 및 보장범위가 크지 않은 상품을 선호한다.	①	②	③	④	⑤	보험료는 상대적으로 비싸지만 보장금액 및 보장범위가 큰 상품을 선호한다.
30-2	현재 보험료가 저렴하지만 향후 보험료 변동 가능성이 있는 갱신형 상품을 선호한다.	①	②	③	④	⑤	현재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비싸더라도 향후 보험료 변동이 없는 비갱신형 상품을 선호한다.

※ 문31 ~ 문31-2 대한 응답은 아래 표의 해당 열에 표시해 주십시오.

문31. 아래 표에 제시된 질병 중 발병 경험이 있거나 발병이 걱정되는 항목을 모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31-1. (문31 응답자만) 선택한 질병 중 발병이 가장 걱정되는 순서대로 숫자를 적어주세요.

문31-2. 귀하께서 아래 표에 제시된 질병 중 가입하신 실손의료보험을 통해 실제로 보험금을 받은 경험이 있는 항목은 무엇입니까? 걱정되는 질병에 상관없이 보험금을 지급 받은 경우 모두 선택해 주세요.

번호	질병 항목	문31. 발병 경험이 있거나 걱정되는 질병	문31-1. 걱정 질병 우선순위	문31-2. 실손보험 보장경험 유무
31-1-1	암			
31-1-2	소화기계통 질환(위, 장, 간 등)			
31-1-3	순환계통 질환			
31-1-4	내분비 및 대사질환(당뇨, 갑상선 등)			
31-1-5	정신 및 행동장애(치매, 우울증 등)			
31-1-6	신경계통 질환(뇌졸중, 파킨슨병 등)			
31-1-7	호흡계통 질환(천식, 기관지염 등)			
31-1-8	비뇨생식계통 질환 (콩팥, 요실금, 전립선 비대 등)			
31-1-9	정형외과 질환(관절염, 척추 등)			
31-1-10	피부질환			
31-1-11	임신 및 태아관련 질환			
31-1-12	눈 질환			
31-1-13	귀 질환			
31-1-14	치과질환(치주염, 충치, 보철 등)			
31-1-15	한방질환 및 관련 서비스			
31-1-16	장기손상, 골절(뇌, 내장 손상, 골절 등)			
31-1-17	이미용 목적 치료 (치아교정, 양악, 성형 등)			

문32. 귀하(본인)께서 가입하신 실손의료보험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어느 정도 만족하고 계십니까? 다음의 각 항목들에 대해 만족도를 1점에서 5점 사이(예: '매우 불만족' 1점, '매우 만족' 5점)로 평가해 주십시오.

항목	실손의료보험사 제공 서비스 만족도				
	매우 불만족	불만족 하는편	보통	만족 하는편	매우 만족
32-1 계약 체결 시 제공된 서비스 (자세한 설명, 친절한 태도, 신속한 계약 절차 등)	①	②	③	④	⑤
32-2 보험료 갱신 시 제공된 안내 서비스	①	②	③	④	⑤
32-3 청구 절차의 간편함 ▶ 보험금 청구 신청 경험이 있는 경우만 응답	①	②	③	④	⑤
32-4 신속한 보험금 처리 ▶ 보험금 청구 신청 경험이 있는 경우만 응답	①	②	③	④	⑤

문33. 귀하께서는 실손의료보험료로 한 달 평균 얼마를 내십니까? (연납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월 기준으로 작성해 주십시오. 특약형으로 보유하고 계시는 경우 주계약 및 다른 특약의 보험료를 제외하고 기입하여 주십시오. 본인 이외 다른 가구원의 실손의료보험료는 제외하고 기입하여 주십시오.)

월 평균    만 원

문34. 귀하께서는 지난 1년간 실손의료보험으로부터 얼마의 보험금을 받으셨습니까? 1년간 수령하신 총 보험금을 응답해 주십시오.

연     만 원

**IV. 건강생활서비스**

문35. 귀하께서는 현재 흡연을 하고 계십니까?

- ① 흡연 경험이 전혀 없다 ▶ [문36번으로](#)
- ② 흡연하다가 6개월 이상 동안 금연하고 있다 ▶ [문36번으로](#)
- ③ 흡연하다가 금연하고 있지만 6개월이 지나지 않았다 ▶ [문36번으로](#)
- ④ 최근 6개월 동안 한 개비 이상 흡연한 경험이 있다 ▶ [문35-1번으로](#)

문35-1. (문35번 ④ 응답자만) 흡연 경험이 있다면, 아래에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흡연 경험	답변
35-1-1	최초의 흡연 시기는 몇 세 때입니까?	_____세
35-1-2	지난주 동안 하루 평균 몇 개비를 흡연하였습니까?	_____개비

문35-2. (문35번 ④ 응답자만) 흡연 경험이 있다면, 과거에 가장 오랫동안 금연했던 기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 ① 시도한 적이 없다
- ② 1~4주
- ③ 5~12주
- ④ 13주 이상

문35-3. (문35번 ④ 응답자만) 흡연 경험이 있다면, 지난해에 적어도 24시간 이상 금연을 시도한 것이 몇 회입니까?

- ① 시도한 적이 없다
- ② 1~3회
- ③ 4회 이상
- ④ 항상 시도한다

문36. 현재, 운동을 하면 안 되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 ① 예 ➡ 문37번으로      ② 아니오 ➡ 문36-1번으로

문36-1. 최근 1주일을 기준으로 20분 이상 땀이 나거나 심장이 뛰는 격렬한 강도의 운동을 어느 정도 하셨습니까? (예: 무거운 짐 운반, 땅파기, 뛰는 조깅, 에어로빅, 자전거 빨리 타기)

- ① 0회      ② 1회      ③ 2회      ④ 3회  
⑤ 4회      ⑥ 5회      ⑦ 6회      ⑧ 7회 이상

문36-2. 최근 1주일을 기준으로 30분 이상 심장박동이 다소 증가하고 평상시보다 숨이 찬 중간 강도의 운동을 어느 정도 하셨습니까? (예: 빠르게 걷기, 가벼운 짐 운반, 자전거 타기, 복식 테니스 치기, 등산)

- ① 0회      ② 1회      ③ 2회      ④ 3회  
⑤ 4회      ⑥ 5회      ⑦ 6회      ⑧ 7회 이상

문36-3. 최근 1주일을 기준으로 30분 이상 숨이 차지 않는 약한 강도의 걷기를 어느 정도 하셨습니까? (예: 운동이나 여가로 천천히 걷기)

- ① 0회      ② 1회      ③ 2회      ④ 3회  
⑤ 4회      ⑥ 5회      ⑦ 6회      ⑧ 7회 이상

문36-4. 어느 운동이라도 1주일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고 있다면, 지난해에 적어도 1주일에 2회 이상 운동을 시도한 것이 몇 회입니까?

- ① 시도한 적이 없다      ② 1~3회  
③ 4회 이상      ④ 항상 시도한다

문37. 아래의 예시와 같이 식생활 습관 개선에 필요한 노력을 일상생활 속에서 어느 정도 하고 계십니까?

(식생활습관 관리는 다음을 말합니다. 예) 아침을 거르지 않고 하루 3끼 규칙적인 식사하기 / 편식하지 않고 골고루 먹기 / 가끔적이면 외식을 줄이고 외식을 할 경우에는 너무 짜거나 매운 것, 기름진 것을 피하기 / 튀김이나 볶음요리보다는 구이, 찜, 무침요리 먹기 / 육류는 가능하면 살코기 위주로 먹기 / 닭과 오리의 껍질은 벗기고 먹기 / 아이스크림, 과자, 케이크, 음료수와 같은 단순당으로 이루어진 간식은 삼가 하기 / 국, 찌개는 국물보다는 건더기 위주로 먹기 / 젓갈, 장아찌, 조림 등의 짠 반찬 섭취는 줄이기 등)

- ① 매우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 문37-1번으로  
② 어느 정도 관리하고 있는 편이다 ➡ 문37-2번으로  
③ 보통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다 ➡ 문37-2번으로  
④ 별로 관리하지 않는 편이다 ➡ 문37-2번으로  
⑤ 전혀 관리하지 않고 있다 ➡ 문37-2번으로

문37-1. (문 37-1번 ①에 응답한 경우) 현재 식생활습관을 매우 철저히 관리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예: 질병을 가지고 있거나 직업상 필요해서 등)

- ① 예      ② 아니오

문37-2. 지난 1주일 동안 적어도 한 끼에 지방 30% 줄이기 혹은, 하루당 500 칼로리 이상 줄이기 등 구체적 목표를 가지고 식단관리를 시도한 것이 몇 회입니까?

- ① 시도한 적이 없다      ② 1~3회  
③ 4회 이상      ④ 항상 시도한다



문41. 현재 귀하께서는 생활습관 변화를 위한 실천(프로그램 참여, 자율적 개선행동 등)을 진지하게 계획 중이십니까?

번호	프로그램	6개월 이내에는 없다	30일 이내에는 아니지만 6개월 이내에는 있다	30일 이내에 있다	이미 실천하고 있으나 6개월이 지나지 않았다	이미 6개월 이상 실천하고 있다
41-1	금연(최근 6개월 간 1개비 이상 흡연지만 응답)	①	②	③	④	⑤
41-2	운동 횟수 늘리기	①	②	③	④	⑤
41-3	식단관리 강화	①	②	③	④	⑤
41-4	스트레스관리 횟수 늘리기	①	②	③	④	⑤
41-5	금주 혹은 절주	①	②	③	④	⑤
41-6	비만관리	①	②	③	④	⑤

문41-1. 만약,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생활습관 개선에 도움을 주는 상담, 문자, 이메일, 전화, 개인용 건강관리기기(웨어러블, 앱 등) 이용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면, 생활습관 변화를 위한 실천을 진지하게 계획하시겠습니까?

번호	프로그램	6개월 이내에는 없다	30일 이내에는 아니지만 6개월 이내에는 있다	30일 이내에 있다	즉시 참여 하겠다
41-1-1	금연(최근 6개월 간 1개비 이상 흡연지만 응답)	①	②	③	④
41-1-2	운동 횟수 늘리기	①	②	③	④
41-1-3	식단관리 강화	①	②	③	④
41-1-4	스트레스관리 횟수 늘리기	①	②	③	④
41-1-5	금주 혹은 절주	①	②	③	④
41-1-6	비만관리	①	②	③	④

문41-2. 만약, 보험회사가 생활습관 개선에 도움을 주는 상담, 문자, 이메일, 전화, 개인용 건강관리기기 이용 서비스 등을 제공하지 않고 피보험자의 자율적 행동(예: 1만보 걷기, 녹색 식단 등)에 대해 현금, 포인트, 보험료 인하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면, 생활습관 변화를 위한 실천을 진지하게 계획하시겠습니까?

번호	프로그램	6개월 이내에는 없다	30일 이내에는 아니지만 6개월 이내에는 있다	30일 이내에 있다	즉시 참여 하겠다
41-2-1	금연(최근 6개월 간 1개비 이상 흡연지만 응답)	①	②	③	④
41-2-2	운동 횟수 늘리기	①	②	③	④
41-2-3	식단관리 강화	①	②	③	④
41-2-4	스트레스관리 횟수 늘리기	①	②	③	④
41-2-5	금주 혹은 절주	①	②	③	④
41-2-6	비만관리	①	②	③	④



문42-2. (문42의 '있는 경우' 응답한 경우만) 전문프로그램에 참여하신 후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하셨습니다가?

번호	프로그램	기대 이하의 매우 낮은 달성	기대 이하의 달성	기대 수준의 달성	기대 이상의 달성	기대 이상의 매우 높은 달성
42-2-1	금연(최근 6개월 간 1개비 이상 흡연지만 응답)	①	②	③	④	⑤
42-2-2	운동 횟수 늘리기	①	②	③	④	⑤
42-2-3	식단관리 강화	①	②	③	④	⑤
42-2-4	스트레스관리 횟수 늘리기	①	②	③	④	⑤
42-2-5	금주 혹은 절주	①	②	③	④	⑤
42-2-6	비만관리	①	②	③	④	⑤

문43. (문42의 '있는 경우' 응답한 경우만) 생활습관 변화를 위한 전문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참여한 프로그램이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의료행위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합니다.)

번호	프로그램	의료행위가 아니다	의료행위 이다	잘 모르겠다
43-1	금연(최근 6개월 간 1개비 이상 흡연지만 응답)	①	②	③
43-2	운동 횟수 늘리기	①	②	③
43-3	식단관리 강화	①	②	③
43-4	스트레스관리 횟수 늘리기	①	②	③
43-5	금주 혹은 절주	①	②	③
43-6	비만관리	①	②	③

문44. 보험회사는 현재 피보험자가 운동량 증가, 건강한 식생활 등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행동을 스스로 입증하시면 추가비용 없이 포인트, 현금, 보험료 인하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거나 향후 제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에 참여할 의향이 있습니까?

번호	프로그램	6개월 이내에는 아니다	30일 이내에는 아니지만 6개월 이내에는 있다	30일 이내에 있다	이미 참여하고 있다
44-1	금연(최근 6개월 간 1개비 이상 흡연지만 응답)	①	②	③	④
44-2	운동 횟수 늘리기	①	②	③	④
44-3	식단관리 강화	①	②	③	④
44-4	스트레스관리 횟수 늘리기	①	②	③	④
44-5	금주 혹은 절주	①	②	③	④
44-6	비만관리	①	②	③	④

(보기2) 새로운 보험 상품에 대한 설명을 보시고 답해 주십시오

보험회사는 앞으로 생명보험, 질병보험 등의 피보험자에게 생활습관 개선 실천을 지원하는 문자, 전화, 이메일, 우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에 참여하거나 금연, 체중감량, 허리둘레 줄이기 등의 목표를 달성하였을 경우 포인트 혹은 현금, 보험료 인하 등의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추가 비용은 없거나 인센티브보다 크지 않을 전망입니다. 다만, 자신의 건강정보를 보험회사에 제공하여야 합니다

문45. (보기2)에서 설명한 상품에 가입할 의향이 어느 정도 있으십니까?

- ① 기존 상품보다 가입의향 약함      ② 기존 상품과 차이 없음  
③ 기존 상품보다 가입의향 강함

V. 노후생활 및 노후준비 상태 등

문46. 귀하의 현재 건강상태에 대해 평가하여 주십시오.

- ① 매우 건강함    ② 건강함    ③ 보통    ④ 건강하지 않음    ⑤ 전혀 건강하지 않음

문47. 귀하께서는 노후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 ① 하고 있다 → 문47-1번으로    ② 하고 있지 않다 → 문47-2번으로

문47-1. (문47 ①번 응답한 경우만) 귀하께서 노후준비를 하고 있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준비하고 계십니까? 우선순위로 2개만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	-----	--

- ① 공적연금(국민연금 등)    ② 퇴직연금·퇴직금    ③ 연금저축(은행, 증권, 보험)  
 ④ 보험(연금저축 제외)    ⑤ 은행 예금    ⑥ 주식 및 채권  
 ⑦ 일반 펀드(연금펀드를 제외)    ⑧ 부동산    ⑨ 기타( \_\_\_\_\_ )

문47-2. (문47 ②번 응답한 경우만) 귀하께서 노후대책을 준비하지 못(안)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소득이 너무 낮아서  
 ② 생활비, 교육비, 의료비 등 더 시급하게 돈 쓸 곳이 많기 때문에  
 ③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이나 정보가 부족해서  
 ④ 주택마련 및 부채상환을 위해서  
 ⑤ 노후대책에 대한 관심이 부족해서  
 ⑥ 투자실패 또는 사업실패로 자금이 부족해서  
 ⑦ 공적연금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⑧ 기타 ( \_\_\_\_\_ )

문48. 귀하께서 노후 대비 생활자금 마련을 위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노후 소득원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만일 '필요'로 답하신 경우 월별 금액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노후 소득원		필요성	월별 예상금액
48-1	본인이 준비한 노후생활자금 (예시: 적금, 연금, 각종 투자수익)	① 필요    ② 불필요	_____만 원
48-2	은퇴 후 재취업을 통한 소득활동	① 필요    ② 불필요	_____만 원
48-3	자식의 경제적 지원	① 필요    ② 불필요	_____만 원
48-4	기타 소득	① 필요    ② 불필요	_____만 원

## VI. 연금 가입상태 및 가입 니즈

문49. 귀하를 포함한 귀하의 덕에서 현재 가입되어 있는 개인연금이 있으십니까? 다음과 같이 가입여부, 가입상태, 가입기간, 납입방법, 월납보험료, 향후 수령방법, 가입 금융회사를 말씀해 주세요. 아울러 가입하신 연금제도에 대한 만족도를 보기 중에 따라 평가해 주십시오.

1. 가입 여부	2. 현재 가입 상태	3. 가입 기간	4. 납입 방법	5. 수령 방법	6. 가입 금융회사	7. 가입 만족도
① 가입	① 납입중	① 1년 미만 ② 1년~2년 ③ 3년~4년 ④ 5년~6년 ⑤ 7년~8년 ⑥ 9년~10년 이하 ⑦ 10년 초과	① 월납	① 연금수령 ② 연금+일시금 ③ 일시금	① 은행 ② 생명보험회사 (농협생명 포함) ③ 손해보험회사 ④ 증권회사 (투자신탁회사) ⑤ 우체국 또는 새마을금고 ⑥ 잘 모름 ⑦ 기타( _____ )	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 하는편 ③ 보통 ④ 만족 하는편 ⑤ 매우 만족
	② 납입완료 (연금대기중)	① 1년 미만 ② 1년~2년 ③ 3년~4년 ④ 5년~6년 ⑤ 7년~8년 ⑥ 9년~10년 이하 ⑦ 10년 초과	① 월납 ② 일시납	① 연금수령 ② 연금+일시금 ③ 일시금	① 은행 ② 생명보험회사 (농협생명 포함) ③ 손해보험회사 ④ 증권회사 (투자신탁회사) ⑤ 우체국 또는 새마을금고 ⑥ 잘 모름 ⑦ 기타( _____ )	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 하는편 ③ 보통 ④ 만족 하는편 ⑤ 매우 만족
	③ 연금수령	① 1년 미만 ② 1년~2년 ③ 3년~4년 ④ 5년~6년 ⑤ 7년~8년 ⑥ 9년~10년 이하 ⑦ 10년 초과	① 월납 ② 일시납	① 연금수령 ② 연금+일시금 ③ 일시금	① 은행 ② 생명보험회사 (농협생명 포함) ③ 손해보험회사 ④ 증권회사 (투자신탁회사) ⑤ 우체국 또는 새마을금고 ⑥ 잘 모름 ⑦ 기타( _____ )	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 하는편 ③ 보통 ④ 만족 하는편 ⑤ 매우 만족
②비가입	☞ 문50번으로					

문50. (문49의 가입여부에서 ② 응답한 경우(개인연금 비가입자)만) 귀하의 맥에서 현재까지 개인연금을 가입하지 못(안)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두 가지를 응답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	-----	--

- ① 가입할 경제적 여력이 없어서
- ②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 등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 ③ 개인연금보다 다른 금융 및 부동산 자산이 유리할 것 같아서
- ④ 세제혜택이 부족해서
- ⑤ 수익률이 낮을 것 같아서
- ⑥ 가입 필요성을 못 느껴서
- ⑦ 가입 시기를 놓쳐서
- ⑧ 기타 ( )

문50-1. (문49-1에서 ② 응답한 경우만) 귀하의 맥에서는 향후 개인연금 가입 의향이 있습니까?

- ① 있다
- ② 없다

문51. (문49-7에서 가입 만족도에서 ① 또는 ② 응답한 경우만) 개인연금에 불만족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두 가지를 응답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	-----	--

- ① 수익률이 낮아서
- ② 수수료가 높아서
- ③ 예상보다 연금액이 적을 것 같아서
- ④ 개인연금 계약이전 절차, 계약장기유지 방법에 대한 안내가 부족해서
- ⑤ 적립금 운용실적에 대한 안내가 부족해서
- ⑥ 지급방법 및 급부와 관련된세제혜택 등 안내가 부족해서
- ⑦ 세제혜택이 부족해서
- ⑧ 기타 ( )

문52. 귀하께서는 과거 또는 현재까지 주식 및 펀드 등의 금융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있다 [문52-1번으로](#)
- ② 없다 [문53번으로](#)

문52-1. (문52에서 ① 응답한 경우만) 귀하께서는 현재까지 금융상품에 총 얼마나 투자해보셨습니까?

- ① 5천만 원 미만
- ② 1억 원 미만
- ③ 1.5억 미만
- ④ 3억 원 미만
- ⑤ 3억 원 이상

문52-2. (문52에서 ① 응답한 경우만) 귀하께서는 평소 어떤 투자성향으로 금융상품에 투자하셨습니까?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시는 유형에 응답해 주세요.

안전자산 90% 위험자산 10%	안전자산 70% 위험자산 30%	안전자산 50% 위험자산 50%	안전자산 30% 위험자산 70%	안전자산 10% 위험자산 90%
①	②	③	④	⑤

문53. 귀하께서는 현재 또는 향후에 노후대비 생활자금 마련을 위해 연금상품 적립금을 운용하시고 있거나 운용하신다면 어떠한 투자유형으로 운용하시겠습니까?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시는 유형에 응답해 주세요.

안전자산 90% 위험자산 10%	안전자산 70% 위험자산 30%	안전자산 50% 위험자산 50%	안전자산 30% 위험자산 70%	안전자산 10% 위험자산 90%
①	②	③	④	⑤

문54. 귀하께서는 노후대비 생활자금 마련을 위해 현재 투자를 하고 계시거나 향후 투자계획이 있으시다면 자신의 평소 투자성향이 어떤 유형에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안전투자형      ② 중립투자형      ③ 공격투자형      ④ 투자하고 있지 않음

☐ 용어 설명 ☐

주택연금은 주택소유자 기준 만 60세 이후에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연금을 수령해 노후생활을 영위하고, 사망 후에 주택을 처분하여 그 동인의 대출금 및 이자를 상환하는 방식의 연금상품으로 주택금융공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55. 귀하께서는 본인 소유의 주택이 있으십니까?

- ① 있다 [▶ 문55-1번으로](#)      ② 없다

문55-1. 귀하께서는 현재 혹은 향후에 주택연금을 사용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 ① 현재 가입하고 있음 [▶ 문56번으로](#)  
 ② 향후에 가입할 의향이 있음 [▶ 문56번으로](#)  
 ③ 향후에 가입할 의향이 없음

문55-2. (문55-1에서 ③번 응답자만) 주택연금을 이용하실 의향이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현재 준비상태로 노후소득 마련이 가능하기 때문에  
 ② 주택을 자녀들에게 상속하기 위해서  
 ③ 노후생활비용을 줄이면 주택연금을 이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④ 주택연금이 아직 정착되어 있지 않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⑤ 주택을 담보로 할 경우 제 값을 받지 못할 것 같아서  
 ⑥ 부동산 경기가 좋아질 것 같아서  
 ⑦ 기타( \_\_\_\_\_ )

☐ 용어 설명 ☐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종업원 30인 이하 사업장이 근로자의 퇴직연금 용도로 가입하거나, 직장에서 수령한 퇴직금(중간정산금 포함)을 금융회사에서 개설된 계좌에 적립 및 운용하는 퇴직연금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근로자가 여유 돈을 추가로 금융회사 계좌에 납입하여 적립할 수 있는 형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납입한 보험료는 연금저축에 납입 보험료와 함께 연간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됩니다.

문56. 귀하께서는 현재 개인형 IRP에 가입하고 계십니까?

- ① 예 [▶ 문57번으로](#)      ② 아니오 [▶ 문56-1번으로](#)

문56-1. (문56의 ② 응답한 경우만) 귀하께서는 향후 개인형 IRP에 가입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문57. 귀하께서 가입하신 퇴직연금이 DC형이나 IRP인 경우에 답을 해 주십시오. 귀하께서 투자 방식을 직접 결정하지 않는다면 다음 중 자동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투자되기를 원하십니까?

- ① 위험이 거의 없는 자산 (국채 등)  
 ② 절을 때는 주식 등 위험자산의 비중이 높다가 연령이 증가하면 비중이 작아지는 투자방식  
 ③ 주식에 절반 투자, 무위험 자산에 절반 투자  
 ④ 잘 모르겠다

## Ⅶ. 퇴직연금 연금수령 선호도

### □ 용어 설명 □

- 퇴직연금제도 : 기존의 퇴직일시금제도를 개선하여 지급 보장성을 높이고, 연금 또는 일시금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로 2005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형) : 자신이 근무한 기간에 비례하여 퇴직급여가 적립되는 연금제도를 말하며, '사업주'가 자산운용사에 위탁하여 자산운용을 하는 퇴직급여 제도입니다.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 : 자신이 근무한 기간 동안 매년 한달치 급여수준이 적립되고 '근로자 자신'이 직접 혹은 자산운용사에 위탁하여 자산운용을 하는 퇴직급여 제도입니다.
- 개인형 퇴직연금(IRP) :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종업원 30인 이하 사업장이 퇴직연금 용도로 근로복지관리공단 등에 가입하는 '기업형', 직장에서 수령한 퇴직금(중간정산금 포함)을 금융회사에서 개설된 계좌에 적립 및 운용하는 '퇴직형'과, 개인이 여유 돈을 추가로 납입하여 적립할 수 있는 '적립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개인형 퇴직계좌에 납입한 보험료는 연금저축에 납입한 보험료(적립형)와 함께 연간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됩니다.

문58. 귀하께서는 어떤 유형의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으십니까? 모두 선택하여 주십시오.

- ① DB형    ② DC형    ③ IRP    ④ 없음

문59. 55세 은퇴시점이 다가왔습니다. 연금(5년 이상 분할 수령), 일시금 중 한 가지만 선택 가능하다면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 ① 연금 ➡ 문60번으로    ② 일시금 ➡ 문61번으로

문60. (문59의 ① 응답한 경우만) 연금을 선택할 경우 선호하는 연금수령 기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 ① 5년    ② 10년    ③ 20년    ④ 30년    ⑤ 종신

문61. (문59의 ② 응답한 경우만) 55세 은퇴시점이 다가왔습니다. 연금(5년 이상 분할 수령)과 일시금을 혼합해서 선택 가능합니다. 연금선택 비중은 어느 정도로 생각 하십니까?

- ① 0% (전액 일시금) ➡ 문62번으로    ② 20%    ③ 40%    ④ 60%    ⑤ 80%    ⑥ 100%(전액 연금)

문61-1. (문61의 ②~⑥ 응답한 경우만) 연금을 혼합하여 수령할 경우 선호하는 연금수령 기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 ① 5년    ② 10년    ③ 20년    ④ 30년    ⑤ 종신

문62. 55세 은퇴시점이 다가왔습니다. 본인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전액 연금으로 수령하게 됩니다. 수령 방식을 변경 하시겠습니까?

- ① 변경하지 않고 연금을 수령한다.    ② 변경하여 일시금으로 수령한다.

\* 연금선택의 장점에 대한 아래의 설명을 읽고 다음 질문에 응답 바랍니다.

㉠ 연금 선택의 장점 설명 ㉠

2015년 현재 55세 남녀의 기대여명은 각각 81.5세, 86.6세이며 앞으로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됩니다. 퇴직 연금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의료비 증가 등 노후지출에 큰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모두 일시금 수령하여 지출하는 경우, 의료비 증가 등 노후지출에 대응할 수가 없고 노후 빈곤 가능성이 커집니다.

문63. 귀하께서는 연금 선택의 장점을 이해하셨습니다. 연금(5년 이상 분할 수령)과 일시금을 혼합해서 선택 가능할 경우 연금선택 비중은 어느 정도로 생각 하십니까?

- ① 0% (전액 일시금) **문64번으로** ② 20% ③ 40% ④ 60% ⑤ 80% ⑥ 100%(전액 연금)

문63-1. (문63의 ②~⑥ 응답한 경우만) 연금을 혼합하여 수령할 경우 선호하는 연금수령 기간은 어느 정도 입니까?

- ① 5년 ② 10년 ③ 20년 ④ 30년 ⑤ 종신

VIII. 보험사기 관련

[문 64~66 관련]

※ 보험사기는 크게 경성보험사기와 연성보험사기로 구분됩니다. 경성보험사기는 의도된 또는 계획된 보험사기를 의미하고, 연성보험사기는 사전에 계획되지 않았으나 보험사고가 우연히 발생한 후에 손실을 과장하는 기회주의적 보험사기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우연한 사고 후에 입원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3~5일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가 연성보험사기에 해당됩니다. 이하에서는 연성보험사기에 대한 인식과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문64. 가벼운 접촉사고 이후에 병원에 입원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루나 이틀 정도 병원에 입원한 사람이 있다면, 귀하께서는 이 사람을 보험사기범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예 ② 아니오(보험사기범으로 처벌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문65. 귀하께서는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보험사기범이 아니라 주위의 보통 사람들이 가벼운 교통사고 이후 불필요하게 오래 병원에 머무르는 등의 연성보험사기를 저지르는 것을 목격하거나 들은 적이 있으십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문66. 2가지 형태의 보험금 청구서가 있다고 가정하여, 첫 번째는 보험금 청구서의 맨 처음에 정직하게 작성하겠다는 서약을 하도록 되어 있고, 두 번째는 보험금 청구서의 맨 마지막에 정직하게 작성했다는 서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보험금 청구서의 형태가 보험금 청구서의 작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첫 번째 경우가 두 번째 경우에 비해 사람들이 더 정직하게 작성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② 두 경우에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 통계처리를 위한 질문

DQ1. (SQ8 및 SQ9에서 ①~⑥번 응답자만) 귀하 또는 가구주가 소속된 사업체의 종사자 수는 어느 정도입니까?

- |              |              |            |
|--------------|--------------|------------|
| ① 10인미만      | ② 10 ~ 29인   | ③ 30 ~ 99인 |
| ④ 100 ~ 299인 | ⑤ 300 ~ 499인 | ⑥ 500인이상   |

본인		세대주	
----	--	-----	--

DQ2. (SQ8 및 SQ9에서 ⑥번 응답자만) 귀하 또는 가구주가 운영하시는 사업체의 업종은 무엇입니까?

- |             |                        |               |
|-------------|------------------------|---------------|
| ① 제조업       | ② 도매 및 소매업             | ③ 운수업         |
| ④ 숙박 및 음식점업 | ⑤ 금융 및 보험업             | ⑥ 부동산 및 임대업   |
| ⑦ 교육 서비스업   | ⑧ 개인 서비스업(세탁소, 아미용실 등) | ⑨ 기타( _____ ) |

본인		세대주	
----	--	-----	--

DQ3. 실례지만, 귀하 본인과 세대주의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 본인이 세대주인 경우에는 본인과 세대주의 학력을 동일하게 작성

DQ3-1. 본인의 학력	DQ3-2. 세대주의 학력
① 중졸이하	① 중졸이하
② 고졸	② 고졸
③ 대졸 이상	③ 대졸 이상
④ 대학원 이상	④ 대학원 이상
⑤ 모름/무응답	⑤ 모름/무응답

DQ4. 귀하의 개인 연간 총수입은 얼마나 되십니까?(보너스 등 기타 수입 포함)

연      만 원

DQ5. 귀하의 소득을 포함한 귀하 덱(가구)의 연간 총수입은 얼마나 되십니까?(보너스 등 기타 수입 포함)

연      만 원

DQ5-1. 귀하 덱의 연간 총수입 가운데 얼마정도를 저축 또는 투자 (납입보험료 포함)하고 계십니까?

총 수입의   %

DQ6. 자동차보험을 제외한 귀하 덕의 한 달 납입보험료는 얼마나 되십니까?

월 

--	--	--

 만 원

DQ7. 귀하 덕에서 최근 1년 동안 2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가지고 있는 가구원은 몇 명이십니까?

※ 여기에서 가구는 동일 거처에 생계를 함께하는 구성원들의 단위를 말합니다. 일시적으로 외지에 살고 있는 가족(주말부부, 학생, 군인 등)도 포함됩니다.

- ① 1명      ② 2명      ③ 3명      ④ 4명      ⑤ 5인 이상      ⑥ 없음

DQ8. 귀하 덕의 가구구성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1인 가구  
 ② 부부가구  
 ③ 부부와 자녀  
 ④ 한부모와 자녀(이혼이나 사별로 한 쪽 부모만 함께 사는 경우)  
 ⑤ 3세대 가구(조부모, 부모, 자녀로 이루어진 가구)  
 ⑥ 4세대 이상  
 ⑦ 조손가구(조부모와 손자녀로 이루어진 가구)  
 ⑧ 비친족가구  
 ⑨ 기타

♣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 보험연구원(KIRI) 발간물 안내

※ 2017년부터 기존의 연구보고서, 정책보고서, 경영보고서, 조사보고서가 연구보고서로 통합되었습니다.

### ■ 연구보고서

- 2017-1 보험산업 미래 / 김석영 · 윤성훈 · 이선주 2017.2
- 2017-2 자동차보험 과실상계제도 개선방안 / 전용식 · 채원영 2017.2
- 2017-3 상호협정 관련 입법정책 연구 / 정호열 2017.2
- 2017-4 저소득층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공사연계연금 연구 / 정원석 · 강성호 · 마지혜 2017.3
- 2017-5 자영업자를 위한 사적소득보상체계 개선방안 / 류건식 · 강성호 · 김동겸 2017.3
- 2017-6 우리나라 사회안전망 개선을 위한 현안 과제 / 이태열 · 최장훈 · 김유미 2017.4
- 2017-7 일본의 보험회사 도산처리제도 및 사례 / 정봉은 2017.5
- 2017-8 보험회사 업무위탁 관련 제도 개선방안 / 이승준 · 정인영 2017.5
- 2017-9 부채시가평가제도와 생명보험회사의 자본관리 / 조영현 · 이해은 2017.8
- 2017-10 효율적 의료비 지출을 통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방안 / 김대환 2017.8
- 2017-11 인슈어테크 혁명: 현황 점검 및 과제 고찰 / 박소정 · 박지윤 2017.8
- 2017-12 생산물 배상책임보험 역할 제고 방안 / 이기형 · 이규성 2017.9

### ■ 연구보고서(구)

- 2008-1 보험회사의 리스크 중심 경영전략에 관한 연구 / 최영목 · 장동식 · 김동겸 2008.1
- 2008-2 한국 보험시장과 공정거래법 / 정호열 2008.6
- 2008-3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자산운용 / 류건식 · 이경희 · 김동겸 2008.3
- 2009-1 보험설계사의 특성분석과 고능률화 방안 / 안철경 · 권오경 2009.1
- 2009-2 자동차사고의 사회적 비용 최소화 방안 / 기승도 2009.2
- 2009-3 우리나라 가계부채 문제의 진단과 평가 / 유경원 · 이해은 2009.3
- 2009-4 사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제고 방안 / 류건식 · 이창우 · 김동겸

- 2009.3
- 2009-5 일반화선형모형(GLM)을 이용한 자동차보험 요율상대도 산출 방법 연구 / 기승도 · 김대환 2009.8
- 2009-6 주행거리에 연동한 자동차보험제도 연구 / 기승도 · 김대환 · 김혜란 2010.1
- 2010-1 우리나라 가계 금융자산 축적 부진의 원인과 시사점 / 유경원 · 이해은 2010.4
- 2010-2 생명보험 상품별 해지율 추정 및 예측 모형 / 황진태 · 이경희 2010.5
- 2010-3 보험회사 자산관리서비스 사업모형 검토 / 진 익 · 김동겸 2010.7

### ■ 정책보고서(구)

- 2008-2 환경오염리스크관리를 위한 보험제도 활용방안 / 이기형 2008.3
- 2008-3 금융상품의 정의 및 분류에 관한 연구 / 유지호 · 최 원 2008.3
- 2008-4 2009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이진면 · 이태열 · 신중협 · 황진태 · 유진아 · 김세환 · 이정환 · 박정희 · 김세중 · 최이섭 2008.11
- 2009-1 현 금융위기 진단과 위기극복을 위한 정책제언 / 진 익 · 이민환 · 유경원 · 최영목 · 최형선 · 최 원 · 이경아 · 이해은 2009.2
- 2009-2 퇴직연금의 급여 지급 방식 다양화 방안 / 이경희 2009.3
- 2009-3 보험분쟁의 재판외적 해결 활성화 방안 / 오영수 · 김경환 · 이종욱 2009.3
- 2009-4 2010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이진면 · 황진태 · 변혜원 · 이경희 · 이정환 · 박정희 · 김세중 · 최이섭 2009.12
- 2009-5 금융상품판매전문회사의 도입이 보험회사에 미치는 영향 / 안철경 · 변혜원 · 권오경 2010.1
- 2010-1 보험사기 영향요인과 방지방안 / 송윤아 2010.3
- 2010-2 2011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이진면 · 김대환 · 이경희 · 이정환 · 최 원 · 김세중 · 최이섭 2010.12
- 2011-1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 개선방안 / 오영수 · 안철경 · 변혜원 · 최영목 · 최형선 · 김경환 · 이상우 · 박정희 · 김미화 2010.4
- 2011-2 일반공제사업 규제의 합리화 방안 / 오영수 · 김경환 · 박정희 2011.7
- 2011-3 퇴직연금 적립금의 연금전환 유도방안 / 이경희 2011.5
- 2011-4 저출산 · 고령화와 금융의 역할 / 윤성훈 · 류건식 · 오영수 · 조용운 ·

- 진 익 · 유진아 · 변혜원 2011.7
- 2011-5 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험유통채널 개선방안 / 안철경 · 이경희 2011.11
- 2011-6 2012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윤성훈 · 황진태 · 이정환 · 최 원 · 김세중 · 오병국 2011.12
- 2012-1 인적사고 보험금의 지급방식 다양화 방안 / 조재린 · 이기형 · 정인영 2012.8
- 2012-2 보험산업 진입 및 퇴출에 관한 연구 / 이기형 · 변혜원 · 정인영 2012.10
- 2012-3 금융위기 이후 보험규제 변화 및 시사점 / 임준환 · 유진아 · 이경아 2012.11
- 2012-4 소비자중심의 변액연금보험 개선방안 연구: 공시 및 상품설계 개선을 중심으로 / 이기형 · 임준환 · 김해식 · 이경희 · 조영현 · 정인영 2012.12
- 2013-1 생명보험의 자살면책기간이 자살에 미치는 영향 / 이창우 · 윤상호 2013.1
- 2013-2 퇴직연금 지배구조체계 개선방안 / 류건식 · 김대환 · 이상우 2013.1
- 2013-3 2013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윤성훈 · 전용식 · 이정환 · 최 원 · 김세중 · 채원영 2013.2
- 2013-4 사회안전망 체제 개편과 보험산업 역할 / 진 익 · 오병국 · 이성은 2013.3
- 2013-5 보험지주회사 감독체계 개선방안 연구 / 이승준 · 김해식 · 조재린 2013.5
- 2013-6 2014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윤성훈 · 전용식 · 최 원 · 김세중 · 채원영 2013.12
- 2014-1 보험시장 경쟁정책 투명성 제고방안 / 이승준 · 강민규 · 이해량 2014.3
- 2014-2 국내 보험회사 지급여력규제 평가 및 개선방안 / 조재린 · 김해식 · 김석영 2014.3
- 2014-3 공 · 사 사회안전망의 효율적인 역할 제고 방안 / 이태열 · 강성호 · 김유미 2014.4
- 2014-4 2015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윤성훈 · 김석영 · 김진익 · 최 원 · 채원영 · 이아름 · 이해량 2014.11
- 2014-5 의료보장체계 합리화를 위한 공 · 사건강보험 협력방안 / 조용운 · 김경환 · 김미화 2014.12
- 2015-1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규제-IFRS와 RBC 연계방안 / 김해식 · 조재린 · 이경아 2015.2
- 2015-2 2016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윤성훈 · 김석영 · 김진익 · 최 원 · 채원영 · 이아름 · 이해량 2015.11

- 2016-1 정년연장의 노후소득 개선 효과와 개인연금의 정책방향 / 강성호 · 정봉은 · 김유미 2016.2
- 2016-2 국민건강보험 보장률 인상 정책 평가: DSGE 접근법 / 임태준 · 이정택 · 김혜란 2016.11
- 2016-3 2017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동향분석실 2016.12

### ■ 경영보고서(구)

- 2009-1 기업휴직보험 활성화 방안 연구 / 이기형 · 한상용 2009.3
- 2009-2 자산관리서비스 활성화 방안 / 진 익 2009.3
- 2009-3 탄소시장 및 녹색보험 활성화 방안 / 진 익 · 유시용 · 이경아 2009.3
- 2009-4 생명보험회사의 지속가능성장에 관한 연구 / 최영목 · 최 원 2009.6
- 2010-1 독립판매채널의 성장과 생명보험회사의 대응 / 안철경 · 권오경 2010.2
- 2010-2 보험회사의 윤리경영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 오영수 · 김경환 2010.2
- 2010-3 보험회사의 퇴직연금사업 운영전략 / 류건식 · 이창우 · 이상우 2010.3
- 2010-4(1) 보험환경변화에 따른 보험산업 성장방안 / 산업연구실 · 정책연구실 · 동향분석실 2010.6
- 2010-4(2) 종합금융서비스를 활용한 보험산업 성장방안 / 금융제도실 · 재무연구실 2010.6
- 2010-5 변액보험 보증리스크관리연구 / 권용재 · 장동식 · 서성민 2010.4
- 2010-6 RBC 내부보험 도입 방안 / 김해식 · 최영목 · 김소연 · 장동식 · 서성민 2010.10
- 2010-7 금융보증보험 가격결정모형 / 최영수 2010.7
- 2011-1 보험회사의 비대면채널 활용방안 / 안철경 · 변혜원 · 서성민 2011.1
- 2011-2 보증보험의 특성과 리스크 평가 / 최영목 · 김소연 · 김동겸 2011.2
- 2011-3 충성도를 고려한 자동차보험 마케팅전략 연구 / 기승도 · 황진태 2011.3
- 2011-4 보험회사의 상조서비스 기여방안 / 황진태 · 기승도 · 권오경 2011.5
- 2011-5 사기성클레임에 대한 최적조사방안 / 송윤아 · 정인영 2011.6
- 2011-6 민영의료보험의 보험리스크관리방안 / 조용운 · 황진태 · 김미화 2011.8
- 2011-7 보험회사의 개인형 퇴직연금 운영방안 / 류건식 · 김대환 · 이상우 2011.9
- 2011-8 퇴직연금시장의 환경변화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운영방안 / 김대환 · 류건식 · 이상우 2011.10

- 2012-1 국내 생명보험회사의 기업공개 평가와 시사점 / 조영현 · 전용식 · 이해은 2012.7
- 2012-2 보험산업 비전 2020 : ㉠ sure 4.0 / 진 익 · 김동겸 · 김혜란 2012.7
- 2012-3 현금흐름방식 보험료 산출의 시행과 과제 / 김해식 · 김석영 · 김세영 · 이해은 2012.9
- 2012-4 보험회사의 장수리스크 발생원인과 관리방안 / 김대환 · 류건식 · 김동겸 2012.9
- 2012-5 은퇴가구의 경제형태 분석 / 유경원 2012.9
- 2012-6 보험회사의 날씨리스크 인수 활성화 방안: 지수형 날씨보험을 중심으로 / 조재린 · 황진태 · 권용재 · 채원영 2012.10
- 2013-1 자동차보험시장의 가격경쟁이 손해율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 전용식 · 채원영 2013.3
- 2013-2 중국 자동차보험 시장점유율 확대방안 연구 / 기승도 · 조용운 · 이소양 2013.5
- 2016-1 뉴 노멀 시대의 보험회사 경영전략 / 임준환 · 정봉은 · 황인창 · 이해은 · 김혜란 · 정승연 2016.4
- 2016-2 금융보증보험 잠재 시장 연구: 지방자치단체 자금조달 시장을 중심으로 / 최창희 · 황인창 · 이경아 2016.5
- 2016-3 퇴직연금시장 환경변화와 보험회사 대응방안 / 류건식 · 강성호 · 김동겸 2016.5

### ■ 조사보고서(구)

- 2008-1 보험회사 글로벌화를 위한 해외보험시장 조사 / 양성문 · 김진익 · 지재원 · 박정희 · 김세중 2008.2
- 2008-2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도입에 대응한 장기간병보험 운영 방안 / 오영수 2008.3
- 2008-3 2008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안철경 · 기승도 · 이상우 2008.4
- 2008-4 주요국의 보험상품 판매권유 규제 / 이상우 2008.3
- 2009-1 2009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안철경 · 이상우 · 권오경 2009.3
- 2009-2 Solvency II의 리스크 평가모형 및 측정 방법 연구 / 장동식 2009.3
- 2009-3 이슬람 보험시장 진출방안 / 이진면 · 이정환 · 최이섭 · 정중영 · 최태영

- 2009.3
- 2009-4 미국 생명보험 정산거래의 현황과 시사점 / 김해식 2009.3
- 2009-5 헤지펀드 운용전략 활용방안 / 진 익 · 김상수 · 김종훈 · 변귀영 · 유시용  
2009.3
- 2009-6 복합금융 그룹의 리스크와 감독 / 이민환 · 전선애 · 최 원 2009.4
- 2009-7 보험산업 글로벌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 / 서대교 · 오영수 · 김영진  
2009.4
- 2009-8 구조화금융 관점에서 본 금융위기 분석 및 시사점 / 임준환 · 이민환 ·  
윤건용 · 최 원 2009.7
- 2009-9 보험리스크 측정 및 평가 방법에 관한 연구 / 조용운 · 김세환 · 김세중  
2009.7
- 2009-10 생명보험계약의 효력상실 · 해약분석 / 류건식 · 장동식 2009.8
- 2010-1 과거 금융위기 사례분석을 통한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전망 / 신종협 ·  
최형선 · 최 원 2010.3
- 2010-2 금융산업의 영업행위 규제 개선방안 / 서대교 · 김미화 2010.3
- 2010-3 주요국의 민영건강보험의 운영체제와 시사점 / 이창우 · 이상우 2010.4
- 2010-4 2010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변혜원 · 박정희 2010.4
- 2010-5 산재보험의 운영체제에 대한 연구 / 송윤아 2010.5
- 2010-6 보험산업 내 공정거래규제 조화방안 / 이승준 · 이종욱 2010.5
- 2010-7 보험종류별 진료수가 차등적용 개선방안 / 조용운 · 서대교 · 김미화  
2010.4
- 2010-8 보험회사의 금리위험 대응전략 / 진 익 · 김해식 · 유진아 · 김동겸 2011.1
- 2010-9 퇴직연금 규제체계 및 정책방향 / 류건식 · 이창우 · 이상우 2010.7
- 2011-1 생명보험설계사 활동실태 및 만족도 분석 / 안철경 · 황진태 · 서성민  
2011.6
- 2011-2 2011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김대환 · 최 원 2011.5
- 2011-3 보험회사 녹색금융 참여방안 / 진 익 · 김해식 · 김혜란 2011.7
- 2011-4 의료시장 변화에 따른 민영실손의료보험의 대응 /  
이창우 · 이기형 2011.8
- 2011-5 아세안 주요국의 보험시장 규제제도 연구 / 조용운 · 변혜원 · 이승준 ·  
김경환 · 오병국 2011.11
- 2012-1 2012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황진태 · 전용식 · 윤상호 · 기승도 ·  
이상우 · 최 원 2012.6
- 2012-2 일본의 퇴직연금제도 운영체제 특징과 시사점 / 이상우 · 오병국 2012.12

- 2012-3 솔벤시 II의 보고 및 공시 체계와 시사점 / 장동식 · 김경환 2012.12
- 2013-1 2013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전용식 · 황진태 · 변혜원 · 정원석 · 박선영 · 이상우 · 최 원 2013.8
- 2013-2 건강보험 진료비 전망 및 활용방안 / 조용운 · 황진태 · 조재린 2013.9
- 2013-3 소비자 신뢰 제고와 보험상품 정보공시 개선방안 / 김해식 · 변혜원 · 황진태 2013.12
- 2013-4 보험회사의 사회적 책임 이행에 관한 연구 / 변혜원 · 조영현 2013.12
- 2014-1 주택연금 연계 간병보험제도 도입 방안 / 박선영 · 권오경 2014.3
- 2014-2 소득수준을 고려한 개인연금 세제 효율화방안: 보험료 납입단계의 세제방식 중심으로 / 정원석 · 강성호 · 이상우 2014.4
- 2014-3 보험규제에 관한 주요국의 법제연구: 모집채널, 행위 규제 등을 중심으로 / 한기정 · 최준규 2014.4
- 2014-4 보험산업 환경변화와 판매채널 전략 연구 / 황진태 · 박선영 · 권오경 2014.4
- 2014-5 거시경제 환경변화의 보험산업 파급효과 분석 / 전성주 · 전용식 2014.5
- 2014-6 국내경제의 일본식 장기부진 가능성 검토 / 전용식 · 윤성훈 · 채원영 2014.5
- 2014-7 건강생활관리서비스 사업모형 연구 / 조용운 · 오승연 · 김미화 2014.7
- 2014-8 보험개인정보 보호법제 개선방안 / 김경환 · 강민규 · 이해량 2014.8
- 2014-9 2014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전용식 · 변혜원 · 정원석 · 박선영 · 오승연 · 이상우 · 최 원 2014.8
- 2014-10 보험회사 수익구조 진단 및 개선방안 / 김석영 · 김세중 · 김혜란 2014.11
- 2014-11 국내 보험회사의 해외사업 평가와 제언 / 전용식 · 조영현 · 채원영 2014.12
- 2015-1 보험민원 해결 프로세스 선진화 방안 / 박선영 · 권오경 2015.1
- 2015-2 재무건전성 규제 강화와 생명보험회사의 자본관리 / 조영현 · 조재린 · 김혜란 2015.2
- 2015-3 국내 배상책임보험 시장 성장 저해 요인 분석 -대인사고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을 중심으로 - / 최창희 · 정인영 2015.3
- 2015-4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 방안 / 이태열 · 황진태 · 이선주 2015.3
- 2015-5 2015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동향분석실 2015.8
- 2015-6 인구 및 가구구조 변화가 보험 수요에 미치는 영향 / 오승연 · 김유미 2015.8
- 2016-1 경영환경 변화와 주요 해외 보험회사의 대응 전략 / 전용식 · 조영현 2016.2

- 2016-2 시스템리스크를 고려한 복합금융그룹 감독방안 / 이승준 · 민세진 2016.3
- 2016-3 저성장 시대 보험회사의 비용관리 / 김해식 · 김세중 · 김현경 2016.4
- 2016-4 자동차보험 해외사업 경영성과 분석과 시사점 / 전용식 · 송운아 · 채원영 2016.4
- 2016-5 금융 · 보험세제연구: 집합투자기구, 보험 그리고 연금세제를 중심으로 / 정원석 · 임준 · 김유미 2016.5
- 2016-6 가용자본 산출 방식에 따른국내 보험회사 지급여력 비교 / 조재린 · 황인창 · 이경아 2016.5
- 2016-7 해외 사례를 통해 본 중 · 소형 보험회사의 생존전략 / 이태열 · 김해식 · 김현경 2016.5
- 2016-8 생명보험회사의 연금상품 다양화 방안: 종신소득 보장기능을 중심으로 / 김세중 · 김혜란 2016.6
- 2016-9 2016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동향분석실 2016.8
- 2016-10 자율주행자동차 보험제도 연구 / 이기형 · 김혜란 2016.9

#### ■ 조사자료집

- 2014-1 보험시장 자유화에 따른 보험산업 환경변화 / 최원 · 김세중 2014.6
- 2014-2 주요국 내부자본적정성 평가 및 관리 제도 연구 - Own Risk and Solvency Assessment - / 장동식 · 이정환 2014.8
- 2015-1 고령층 대상 보험시장 현황과 해외사례 / 강성호 · 정원석 · 김동겸 2015.1
- 2015-2 경증치매자 보호를 위한 보험사의 치매신탁 도입방안 / 정봉은 · 이선주 2015.2
- 2015-3 소비자 금융이해력 강화 방안: 보험 및 연금 / 변혜원 · 이해량 2015.4
- 2015-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의 구조적 변화 / 박대근 · 박춘원 · 이항용 2015.5
- 2015-5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 / 전성주 · 박선영 · 김유미 2015.5
- 2015-6 고령화에 대응한 생애자산관리 서비스 활성화 방안 / 정원석 · 김미화 2015.5
- 2015-7 일반 손해보험 요율제도 개선방안 연구 / 김석영 · 김혜란 2015.12

## ■ 연차보고서

---

제 1 호	2008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09.4
제 2 호	2009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0.3
제 3 호	2010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1.3
제 4 호	2011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2.3
제 5 호	2012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3.3
제 6 호	2013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3.12
제 7 호	2014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4.12
제 8 호	2015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5.12
제 9 호	2016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7.1

## ■ 영문발간물

---

제 7 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8 / KIRI,	2008.9
제 8 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9 / KIRI,	2009.9
제 9 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0 / KIRI,	2010.8
제10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1 / KIRI,	2011.10
제11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2 / KIRI,	2012.11
제12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3 / KIRI,	2013.12
제13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4 / KIRI,	2014.7
제14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5 / KIRI,	2015.7
제15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6 / KIRI,	2016.7
제 6 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2Q FY2013 / KIRI,	2014.2
제 7 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3Q FY2013 / KIRI,	2014.5
제 8 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1Q FY2014 / KIRI,	2014.8
제 9 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2Q FY2014 / KIRI,	2014.10
제10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3Q FY2014 / KIRI,	2015.2
제11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4Q FY2014 / KIRI,	2015.4
제12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1Q FY2015 / KIRI,	2015.8

## ■ CEO Report

---

2008-1	자동차보험 물적담보 손해율 관리 방안 / 기승도	2008.6
--------	----------------------------	--------

- 2008-2 보험산업 소액지급결제시스템 참여 관련 주요 이슈 / 이태열 2008.6
- 2008-3 FY2008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08.8
- 2008-4 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의 영향과 보험회사 대응과제 / 류건식 · 서성민 2008.12
- 2009-1 FY2009 보험산업 수정전망과 대응과제 / 동향분석실 2009.2
- 2009-2 퇴직연금 예금보험요율 적용의 타당성 검토 / 류건식 · 김동겸 2009.3
- 2009-3 퇴직연금 사업자 관련규제의 적정성 검토 / 류건식 · 이상우 2009.6
- 2009-4 퇴직연금 가입 및 인식실태 조사 / 류건식 · 이상우 2009.10
- 2010-1 복수사용자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및 보험회사의 대응과제 / 김대환 · 이상우 · 김혜란 2010.4
- 2010-2 FY2010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10.6
- 2010-3 보험소비자 보호의 경영전략적 접근 / 오영수 2010.7
- 2010-4 장기손해보험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보험금 지급심사제도 개선 / 김대환 · 이기형 2010.9
- 2010-5 퇴직금 중간정산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 류건식 · 이상우 2010.9
- 2010-6 우리나라 신용카드시장의 특징 및 개선논의 / 최형선 2010.11
- 2011-1 G20 정상회의의 금융규제 논의 내용 및 보험산업에 대한 시사점 / 김동겸 2011.2
- 2011-2 영국의 공동계정 운영체계 / 최형선 · 김동겸 2011.3
- 2011-3 FY2011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11.7
- 2011-4 근퇴법 개정에 따른 퇴직연금 운영방안과 과제 / 김대환 · 류건식 2011.8
- 2012-1 FY2012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12.8
- 2012-2 건강생활서비스법 제정(안)에 대한 검토 / 조용운 · 이상우 2012.11
- 2012-3 보험연구원 명사초청 보험발전 간담회 토론 내용 / 윤성훈 · 전용식 · 전성주 · 채원영 2012.12
- 2012-4 새정부의 보험산업 정책(Ⅰ): 정책공약집을 중심으로 / 이기형 · 정인영 2012.12
- 2013-1 새정부의 보험산업 정책(Ⅱ):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경감제 정책에 대한 평가 / 김대환 · 이상우 2013.1
- 2013-2 새정부의 보험산업 정책(Ⅲ):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안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 이승준 2013.3
- 2013-3 FY2013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 동향분석실 2013.7
- 2013-4 유럽 복합금융그룹의 보험사업 매각 원인과 시사점 / 전용식 · 윤성훈

- 2013.7
- 2014-1 2014년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 동향분석실 2014.6
- 2014-2 인구구조 변화가 보험계약규모에 미치는 영향 분석 / 김석영 · 김세중  
2014.6
- 2014-3 『보험 혁신 및 건전화 방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 이태열 · 조재린 ·  
황진태 · 송운아 2014.7
- 2014-4 아베노믹스 평가와 시사점 / 임준환 · 황인창 · 이해은 2014.10
- 2015-1 연말정산 논란을 통해 본 소득세제 개선 방향 / 강성호 · 류건식 ·  
정원석 2015.2
- 2015-2 2015년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 동향분석실 2015.6
- 2015-3 보험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및 이의 영향 / 김석영 2015.10
- 2016-1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정 의미와 시사점 / 김석영 2016.1
- 2016-3 2016년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 동향분석실 2016.7
- 2016-4 EU Solvency II 경과조치의 의미와 시사점 / 황인창 · 조재린 2016.7
- 2016-5 비급여 진료비 관련 최근 논의 동향과 시사점 / 정성희 · 이태열 2016.9
- 2017-1 보험부채 시가평가와 보험산업의 과제 / 김해식 2017.2
- 2017-2 2017년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 동향분석실 2017.7
- 2017-3 1인 1 퇴직연금시대의 보험회사 IRP 전략 / 류건식 · 이태열 2017.7

#### ■ Insurance Business Report

- 26호 퇴직연금 중심의 근로자 노후소득보장 과제 / 류건식 · 김동겸 2008.2
- 27호 보험부채의 리스크마진 측정 및 적용 사례 / 이경희 2008.6
- 28호 일본 금융상품판매법의 주요내용과 보험산업에 대한 영향 / 이기형  
2008.6
- 29호 보험회사의 노인장기요양 사업 진출 방안 / 오영수 2008.6
- 30호 교차모집제도의 활용의향 분석 / 안철경 · 권오경 2008.7
- 31호 퇴직연금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영향과 대응과제 / 류건식 · 김동겸  
2008.7
- 32호 보험회사의 헤지펀드 활용방안 / 진 익 2008.7
- 33호 연금보험의 확대와 보험회사의 대응과제 / 이경희 · 서성민 2008.9

**■ 간행물**

---

- 보험동향 / 연 4회
- 보험금융연구 / 연 4회

※ 2008년 이전 발간물은 보험연구원 홈페이지(<http://www.kiri.or.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도서회원 가입안내』

## 회원 및 제공자료

	법인회원	특별회원	개인회원
연회비	₩ 300,000원	₩ 150,000원	₩ 150,000원
제공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보고서</li> <li>- 정책/경영보고서</li> <li>- 조사보고서</li> <li>- 기타보고서</li> <li>- 보험동향</li> <li>- 보험금융연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보고서</li> <li>- 정책/경영보고서</li> <li>- 조사보고서</li> <li>- 기타보고서</li> <li>- 보험동향</li> <li>- 보험금융연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보고서</li> <li>- 정책/경영보고서</li> <li>- 조사보고서</li> <li>- 기타보고서</li> <li>- 보험동향</li> <li>- 보험금융연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원 주최 각종 세미나 및 공청회 자료(PDF)</li> <li>- 영문보고서</li> </ul>	-	-

※ 특별회원 가입대상 :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도서관 및 대학도서관

## 가입문의

보험연구원 도서회원 담당

전화 : (02) 3775-9113, 9080    팩스 : (02) 3775-9102

## 회비납입방법

- 무통장입금 : 국민은행 (400401-01-125198)

예금주 : 보험연구원

## 가입절차

보험연구원 홈페이지(www.kiri.or.kr)에 접속 후 도서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등록 후 회비입금을 하시면 확인 후 1년간 회원자격이 주어집니다.

## 자료구입처

서울 : 보험연구원 보험자료실, 교보문고, 영풍문고, 반디앤루니스

부산 : 영광도서



## 저자약력

### 전용식

Iowa State University 경제학 박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E-mail : yongsik.jeon@kiri.or.kr)

### 조용운

The University of Houston  
경제학 박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E-mail : ywcho@kiri.or.kr)

### 정성희

서울대학교 통계학 박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E-mail : shchung71@kiri.or.kr)

### 임준

Michigan 주립대 경제학 박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E-mail : linjoon@kiri.or.kr)

### 김세중

한양대학교 경영학 박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E-mail : sjkim@kiri.or.kr)

### 이상우

홍익대학교 박사과정 수료  
일본 중앙대 상학 석사  
보험연구원 수석연구원  
(E-mail : swlee@kiri.or.kr)

### 채원영

이화여자대학교 통계학 석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E-mail : wychae@kiri.or.kr)

### 김진익

성균관대학교 박사과정 수료  
서울대학교 경영학 석사  
보험연구원 수석담당역  
(E-mail : kjo990@kiri.or.kr)

연구보고서 2017-14

## 2017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발행일 2017년 10월  
발행인 한 기 정  
발행처 보험연구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38  
화재보험협회빌딩  
대표전화: (02) 3775-9000  
조판및  
인쇄 고려씨엔피

---

ISBN 979-11-85691-65-7 94320

979-11-85691-50-3 (세트)

정가 10,000원